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 문화
재단 10년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004-005 **발간사**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문화의
10년을 되돌아보고 내다보며

서울+문화+재단+10년

008-025 **좌담** CEO 3인 대담
026-031 **연혁** 서울문화재단 10년의 이정표
032-039 **통계** 숫자로 보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문화 10년

서울을 채우다

046-059 **축제** 도심축제에서 거리예술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060-077 **공공 공간 문화프로젝트** 도시공간에 문화가 넘치게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서울거리아티스트
시청사 모뉴먼트
고궁뮤지컬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078-089 **스토리텔링** 서울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문화를 공유하다

096-111 **창의예술교육**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적체험 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12-127 **일상공간 문화프로젝트**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문화가 있는 놀이터
바람난 미술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128-137 **시민문화사업** 삶 속에 살아있는 문화, 문화로 행복한 삶
책 읽는 서울
서울댄스프로젝트
좋아서 예술동아리
138-151 **문화복지**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랑의 문화나눔
예술마을 가꾸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술을 살찌우다

158-171 **창작지원** 예술지원도 서울문화재단답게
예술지원사업
172-201 **창작공간** 예술과 지역을 잇는 창작공간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이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잠실창작스튜디오
홍은예술창작센터
창작공간 통합운영
202-219 **문화공간** 예술과 시민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서울열린극장 창동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시민청
가든파이프 문화특구

재단을 키우다

226-237 **문화제휴** 시민-기업-예술을 이어서
문화기부
기업메세나
기부플랫폼
238-249 **국제교류**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며
서울 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SINSFO)
링크센터예술교육원(LCE) 협력사업
창작공간 국제 레지던스 및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교류 프로그램
서울-북경 문화교류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250-267 **문화거버넌스** 공유와 창조의 네트워크를 향해
문화네트워크
문화거버넌스
문화정책연구
〈문화+서울〉 및 온라인 정보 플랫폼
268-278 **문화경영** 지난 10년, 우리가 몰두한 것
조직
재정
인력

편집 후기

279-287 **모두 한마디**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이 말하는
“서울문화재단 10년, 앞으로 10년”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문화의 10년을 되돌아보고 내다보며

2004년 3월에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이 10년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섰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걱정적이었던 청년기를 되돌아보는 듯합니다.

조금은 성숙한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는 계기로 10년 백서를 발간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례적인 백서가 되지 않으려고 재단 직원들이

먼저 마음을 모았습니다. 10년의 주인공이었던 직원들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직원들의 목소리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제별 소모임을 외부의 전문가 집필진이 참관하여 기록하고 백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판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10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는 백서가 아니라, ‘팔 길이 원칙’을 외치며

관과 민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문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료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백서를 서울문화재단의 10년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문화의 10년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서울문화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조선희



2004

서울+문화+재단+10년

서울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10년

2014

CEO 3인 大담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10년과
미래”



안호상

2007.02.01-2011.12.31

현 국립극장 극장장, 전 예술의전당 예술사업국장 등 역임

2007-2011



2004-2006

2004.03.13-2006.09.05

현 극단 유시어터 대표,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2012-

2012.03.28-현재

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전 씨네21 편집장,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등 역임

조선희



저는 처음이어서
재단의 기틀을 잡는 데
힘썼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만들까 궁리했고,
'내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고
애썼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하던
일을 민간 베이스로
가지고 와 문화정책을
만들었어야 했기에
많이 좌충우돌했지요.
그래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서울문화재단 10년, 첫 출발

조선희 광역시도 문화재단으로서는 서울문화재단이 네 번째로 생겨났습니다. 문화정책이 부피가 커지고 종목도 다변화하면서 공공조직에서 일일이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전문가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10년입니다. 감회가 어떠신가요? 특히 유 전장관님은 초대 대표이사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유인춘 이제 재단이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직원도 초창기 40여 명에 비해 많이 늘어 200명이 넘는다고 하니 대기업이 된 셈이네요. 저는 처음이어서 재단의 기틀을 잡는 데 힘썼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만들까 궁리했고, '내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고 애썼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하던 일을 민간 베이스로 가지고 와 문화정책을 만들었어야 했기에 많이 좌충우돌했지요. 그래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조선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나요?

유인춘 처음에는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300억, 서울시 출연금 200억을 합해 기본재산 5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청계천 옆 재단 건물을 완공하면서 자체 재산이 생겼는데 제 임기는 공사만 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그 때는 직원들도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근무해야 했으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건물 리모델링은 최정화 작가에게 맡기고 '마음대로 해 보라'고 했는데 건물 외장재를 얹애고 앞뒤를 트는 등 공공건물에 대한 실험을 여러 방식으로 했죠. 개관식에 참석한 이명박 시장은 '건물을 좋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선희 건설을 해온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건물 외장을 다 뜯어내 마치 짓다 만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었겠죠. 게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건물 연면적은 더 줄어들었으니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당시에는 이상했을 것도 같아요.

유인춘 외관을 말끔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반대로 다 뜯어냈기 때문에 흡사 공사 중인 것 같은 건물에서 개관식 테이프를 끊은 거예요. 미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그런데 재단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못 한 것이 있다면, 지하에 홍대 앞에 있는 것 같은 클럽을 만들려던 거였어요. 인테리어도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꾸며 저녁에 밴드 공연도 하고 춤 추고 맥주도 마시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이, 당시 일주일에 걸쳐 하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기간을 3박 4일로 줄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면 페스티벌에 모든 공무원이 매달리느라 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시장이 바뀐 후에 페스티벌 기간이 다시 열흘로 늘어났더라고요. 요즘은 어떤가요?

조선희 지금은 5일 동안 하는데 한때 4계절 축제로 규모가 커졌다가 다시 축소된 상황이죠. 저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올해 10주년이잖습니까.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한 게 2004년 5월이었는데 어떻게 그해 5월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할 수 있었지요?

유인춘 우리가 했던 게 엄밀히 1회는 아니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해 하고 넘어왔지요. 또 재단은 5월에 출범했지만 직원들은 1월에 입사해 그때부터 위밍업을 하며 준비해서 페스티벌을 치렀어요.

조선희 그 무렵에는 정말 정신이 없으셨죠? 당시에 서울광장에서 서울문화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피케팅도 있지 않았나요?

유인춘 문화연대에서는 재단 출범식이 열린던 세종문화회관에 '나가리'는 뜻으로 관을 메고 왔는데요 뭘.(웃음) 서울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문화연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정작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는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는데, 오히려 출범 후엔 문화연대하고 잘 지냈어요.

안호상 문화재단은 초반에는 진영을 나누지 않고 잘 지냈어요. 김정현 현 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과도 그랬죠.

유인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들 알게 되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조선희 당시 서울광장에서 출범반대 시위하는 사진을 봤는데 피케팅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도 보이고 김정현 이사장도 일인시위에 참여하셨다 하더라고요.

안호상 극장장님 재임 시절에 이규석 현재 창작공간본부장은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으로 들어왔고, 문화연대

이원재 정책연구소장도 당시 항의 피케팅 멤버였는데 지금 저희 문화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웃음)

유인촌 그때 김정현 이사장과 저는 인사동에서 만나 밥도 먹고 그랬는데요.(웃음) 어쨌든 초창기에는 절차를 제대로 못 챙겨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공모로 작가를 뽑아놓고 그분한테 발주했다가 취소해서 재단에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소정의 공모 사례를 지급하면서 사과하고 마무리한 일도 생각나네요.

조선희 안호상 극장장님은 ‘준 관공서’ 생활을 많이 해보셨기에 서울문화재단 일에 큰 저항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유 장관님은 문화예술계 현장에 있던 예술인으로서 아무래도 공직은 낯선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관공서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초창기에는 재단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곱 명이나 파견 근무를 와 있기도 했고요. 지금은 감사실장 보직으로 한 사람만 시에서 오고 있고 민간재단으로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당시에는 서울시가 재단을 인큐베이팅하는 입장이었을 테니까요.

안호상 제가 있던 때에도 조직이 조금 불균형했어요. 서울시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전혀 공공기관 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조선희 저는 이곳이 서울시 출연기관이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공손한 편인데 유 장관님은 안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유인촌 저는 서울시 쪽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진 않았어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했으니까요.(웃음)

조선희 그럼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편했겠네요. 재단 직원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유인촌 직원들도 그다지 안 불편했을 걸요.(웃음) 당시 시의회에서도 재단을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상임위나 의회가 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한 적이 없거든요.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등 단체장들도 의회에 함께 출석했었는데 문화예술 쪽 단체장들은 먼저 가도록 해줬어요.

의회가 나름대로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조선희 의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 서울시장과의 관계나 유명인으로서의 이점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장관님 계실 때 재단 분위기가 자유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금연하면 연봉에 50만 원 얹어주시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안호상 제가 와서 문화재단이 재미없어진 건가요?

조선희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웃음)

유인촌 당시에는 직원 수가 적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형성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나중에 안호상 대표님이 오셨을 때 추스르느라 힘들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을 테고요.

조선희 단적인 예로 유 장관님 시절에 경영평가가 시작됐는데 서울문화재단이 자원봉사센터 다음으로 낮았어요. 그랬던 것을 안호상 극장장님이 최상위로 올려놓으셨죠. 재단 직원들이 거의 200% 넘게 경영성과금을 받기도 했지요. 말하자면 조직을 경영 면에서 정비하신 거죠.

유인촌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못보고 퇴임했던 것 같네요. 그때는 아무래도 재단이 신생조직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기도 합니다. 또한 예술기관, 문화기관 같은 곳은 일반 기업과 별도로 평가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였어요.

서울문화재단, 압축성장기

조선희 안 극장장님의 조직 마인드가 직원들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안 극장장님의 5년이 문화재단 10년의 절반이고 그때가 재단 입장에서는 압축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예산, 인력, 사업규모가 그 전의 두 배가 되었으니까요. 2007년 안 극장장님 오셨을 때 고유사업이 170억, 위탁사업 130억 등 300억 구조였는데 그만두실 시점에 고유와 위탁 합해서 600억 규모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기초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초창기의 가족적인 분위기로는 커버가 되지 않았을 테지요.

안호상 저도 처음에 서울문화재단에 왔을 때 생소했어요. 그 전까지는 극장에서 일했고 예술가들과 주로 일했는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예술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단은 업무의 주요 파트너가 공무원이고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곳이어서 그때까지 했던 일과 많이 달랐어요. 조직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됐던 것은 저에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올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극장은 공연을 하고 나면 관객 수나 입장료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반응은 어떤지가 금방 나오는데, 재단의 일은 문화사업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피드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고요.

유인촌 그러게.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이 저는 문화적인 일을 하는 데에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그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스쿨페스티벌은 2008년 4계절 축제로 진행되며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2012년 이후 서울의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후, 국내외 거리예술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시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지속적으로 개관해 현재 재단은 총 15개의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개관 예정인 거리예술창작센터 포함)

안호상 제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것, 처음에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한번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서울시 부시장과 행정국장 앞에서 다툼 적이 있어요. 페스티벌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점점 회의가 소집됐는데 페스티벌 오프닝에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느냐고 겁을 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니 얼마나 사람이 모일지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국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했으면 동사무소에 업무 지시를 내려서 일을 진행했을 텐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하다 안 되면 그만이겠지, 당신들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반발하고 그렇게 욕심각심했죠.

조선희 한편으로 불가사의하게 생각되는 점은 그 많은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동시다발로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예요. 안 국장장님 게실 때 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이

확대됐고 창작공간들도 조성됐잖아요. 2008년에는 하이서울을 4계절 축제로 진행한 데다 2009~2010년에만 창작공간 다섯 곳이 문을 연 거예요. 사실 창작공간들은 서울시가 공사를 맡고 재단에서는 공간 콘셉트를 잡고 인력을 뽑아 운영하는 것으로 나눠 맡긴 했지만 어쨌든 축제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창작공간 사업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은 실무진에 맡기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제가 일일이 결과를 챙기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2008년부터 몇 년간의 사업들이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어서 대표이사도 모두 챙겨야 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호상 저는 동시에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죠. 제가 재단 오기 전 일하던 예술의전당의 경우 극장이 5개 있어서 어떤 날은 하루에 5개 공연을 모두 보는 일도 있었거든요. 또 공연이란게 다음날, 그 다음달, 그 이듬해로 계속 이어지니까, 전체를 세세히 다 챙길 수 없으니 어느 지점까지 챙기면 될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도박이죠.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그 시기는 모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던 때예요. 당시는 서울시가 문화시정을 하겠다고 드라이브를 한창 걸 때였고요. 그런데 재단의 일이 늘어나니 서울시가 재단을 흔들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이면서 우리 뜻대로 끌고 갈 수 있게 된 부분도 있죠. 4계절 축제 같은 게 그런 예입니다. 2008년에 갑자기 4계절 축제를 하라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판을 벌인 후에는 우리 뜻대로 가게 됐어요. 창작공간도 그런 셈이에요. 신당창작아케이드만 해도 여기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 해본 사람도 없는데 일은 진행해야 하니 해외에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로 부터 자문을 받으며 추진했지요. 그렇게 신당을 추진하고 문래와 금천까지 진행하면서는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가 빠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그것대로 두고 가다 보면 빠졌던 것들은 제정신 차려서 쫓아오고 뭐 그런 식이었죠.

조선희 사실 양가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질문인데요, 한편으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과정이 눈에 보이고 결과가 바로 나오니 일하는 데 의욕이 생기고 신나는 거죠. 그때 애길 들어보면, 문화계에 러시가 일어나는 시기여서, 돈은 둘째 문제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없는지 찾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행정부 산하기관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던 때였는데 말이죠.

안호상 시의원들도 예산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가 되면 저에게 예산을 줄 테니 자기 지역구에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느냐고 묻던 때였죠.

조선희 2009~2010년까지 서울시 세수가 정점이었는데, 세수가 잘 걸렸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는 것이고, 정점을 찍은 후엔 재정적으로 압박받기 시작했죠. 고용창출과 복지 등 돈 쓸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문화 쪽은 심하게 압박받는 상황이 됐어요.

유인촌 2008~2010년만 해도 ‘문화로 뭘 하는 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복지로 돌아선 거죠.

안호상 2011년에 어려워졌어요. 그때 기금을 17~18억 정도 털었잖아요.

조선희 지금은 1년에 50억, 내년엔 90억 정도 꺼내쓰는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 재단에 왔을 때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애길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고 국회가 있으니 충충시하인데 서울시는 자체 내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고 시 공무원들을 부러워했다고요. 또 지자체는 결정도 빠르고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직후에 서울시 부시장이 ‘이제 서울시도 행복한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웃음)

안호상 제가 있을 때엔 직원들은 그만 하라고 발목을 붙잡는데 저는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며 더 추진하자고 하고 그랬었지요.

서울시장과 문화정책

유인촌 박원순 시장이 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재단에 힘을 많이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선희 박원순 시장이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의취수장이나 김포가압장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게 한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이 있어서 즐겁다는 걸 체감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지요. 하지만 문화 쪽으로 특별히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유인촌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건이 복지 같은 다른 분야에 힘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겠지요.

안호상 돌이켜보면 2007~2010년 시기가 지자체들이 문화사업에 눈을 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축제를 만들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붐을 이루었죠.

유인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모든 일에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통이나 상하수도국까지, 시에서 하는 모든 일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어요. 문화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회의에도 참석하러 했어요. 그쪽 사안들에 대해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조언도 했죠.

조선희 문화정책에 대한 주문이나 지시를 할 때는 어떠셨나요?

유인촌 아주 디테일하게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얘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편이었죠. 충분히 신뢰가 가면 간섭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부 일도 후회 없이 다 할 수 있었어요. 서울시의 일을 할 때도 제안에 대해 각 국장들도 잘 협조해줬고, 그래서 일을 벌이기도 많이 벌였지요.

조선희 오세훈 시장은 어떠셨나요?

안호상 선출직 시장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코드가 맞으면 임기 내에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지요. 2008년 봄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제가 처음 진행한 축제였는데 2007년 부임 후 그때까지 1년 동안은 지켜보시는 것 같더군요. 시장 입장에서든 서울시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을 때이기도 했고요. 봄축제가 끝나고 여름축제에

들어갈 즈음이 되니 문화재단의 뜻대로 추진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서울시 문화국장과 회의를 하면 재단 대표가 하자는 대로 존중하니 일 하기에는 좋았죠. 하이서울페스티벌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과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축제의 반응이 좋았던 후로는 달라지더라고요.

조선희 창작공간 사업도 오세훈 시장이 지원하신 거지요?

안호상 2008년 오세훈 시장의 '컬처노믹스'와 함께 시작됐어요. 2007년 가을부터 컬처노믹스의 아이টে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문화로 도시를 새롭게 브랜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찾았던 거죠. 그중 대두된 것이 '도시재생'이었어요.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작공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받아 서울시 문화국에서 사업화에 나섰지요.

조선희 도시재생과 예술공간 조성은 유럽에서 이미 트렌드였죠.

안호상 네, 처음 컬처노믹스 보고에서는 창작공간 개념만 가지고 애길 했는데 논의가 확대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문래와 금천 지역의 도시재생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하셔서 시작하게 된 거죠.

조선희 예산 러시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창작공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위탁사업이던 것을 고유사업화하고 직원 고용도 안정화해서 현재 문화재단의 중요한 사업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연장선상에서 구의취수장을 거리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창작공간들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요, 김포가압장은 예술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역시 기존 공간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이죠.

안호상 제가 불만이었던 것이 창작공간을 만들면서도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관리인력 등 예산에 비해 효과, 즉 대중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비경제적인 구조지요. 게다가 자치구의 요구도 있으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분산시키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은 공간들이 구색을 좀 갖췄고 운영의 노하우도 생겼으니 규모를 키우는 게 좋겠죠.

유인촌 그런 공간 지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가에게 돈을 지원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간 지원은 예술가, 대중 등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이죠.

안호상 예술가 지원이 서울문화재단의 일차적인 고유사업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사업이나 창작공간 방향으로 넓혀가면서 지원의 성격을 다양화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조선희 그렇지요. 문화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지역재생사업, 이를테면 청계천 복원에서 시작해 현재 구의취수장 등 창작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역재생에 문화예술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으로서는 예술로 치유하는 힐링 아트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것은 중요한 이슈이지요. 가령 성북예술창작센터는 힐링 아트로 특화된 창작공간이고요. 앞으로 예술치유 쪽으로 좀 더 사업을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술치유마을을 서울시나 시 외곽에 조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서울시라는 조직이 직접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연한 조직으로서 특유의 활력을 가지고 공공 조직이 하기 어려운 사업 영역을 많이 발굴해 일을 해왔다는 게 지금껏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연장 운영에 관해

조선희 안 극장장님은 극장으로 돌아가셔서 물 만난 고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남산예술센터와 관련해 고민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매진이 되는 공연은 어떤 건가 싶어 <단테의 신곡>을 보러 국립극장을 갔었지요. 로비에서 극장장님을 만나 “매진되는 공연은 어떤지 보러 왔다”고 했더니 “극장 작은 곳을 잡으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달오름극장이었나 보다 했는데 작년에도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셨더라고요. 너무 오만하신 거 아니에요?(웃음)

유인촌 사실 고전 같은 명분 있는 작품은 관객들이 꼭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부터 <파우스트>는 흥행이 안 된 적이 별로 없었죠.

조선희 고전을 올리면 기본은 하지만 대박을 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유인촌 물론 흥행에는 출연자와 연출의 합이 맞는 것도 중요하죠.

안호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테의 신곡>이 매진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소위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지식층 관객을 타깃으로 집중 홍보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문화센터의 인문학 강좌를 모두 찾아다니며 공연 홍보를 했어요. 연극개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관객이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지식인 관객, 부부 관객이 많았는데 놀랐던 건 기독교인 관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선희 아, 중세기 고전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마케팅 아이디어는 극장장님이 내신 건가요?

안호상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대상에게 마케팅 해봐라’고 하는 정도이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해요. <바비장전> 때는 북한산에 가서 등산객들에게 홍보했다니까요.(웃음)

조선희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 해보면 마케팅에 대한 전투력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흥행이 안 되도 밥줄이 끊어지진 않는다는 약간의 안이함이 있죠. 그런데 국립극장은 특이합니다.

안호상 전에는 국립극장 직원들이 신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품다운 작품, 예술적으로나 공연계에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올리니 직원들이 공감하고 보람을 느끼며 작품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배우들만 몰라요 아작….

저는 직원들하고 이게 지금 공연계, 우리 공연사(史)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부임한 첫해가 중요했어요. <장화홍련>, <바비장전>, <메디아>를 할 때 반응이 왔으니까요. 항상 노인, 단체 관객, 무료 관객만 끌다가 일반 관객, 젊은 관객이 오기 시작하니 직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등산객을 만나러 가든 인문학 강좌를 쫓아기든, 그런 관객들은 개인적으로 표를 사서 오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유인촌 상대적으로 예술의전당은 일찍이 자리를 잡았는데 국립극장은 소외되어 있었던 셈이에요. 교통이 안 좋다, 장소가 안 좋다, 극장이 노후했다 등의 이유로 국립극장은 사람 모으기 어렵다고들 했지요. 예술의전당은 인지도가 생겨서 자유소극장에서 조용히 연극을 해도 극장 자체가 이미 가진 인지도 덕에 관객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이하 ‘남산예술센터’) 하나인가요?

조선희 그렇습니다.

유인촌 남산예술센터도 참 특수한 공간이에요. 언어연극, 즉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장으로 남산예술센터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다분히 실험적인 의도를 가진 곳이라 볼 수 있죠. 여기서 한국 연극사의 전환점이 될 만한 작품들이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곳이 1980년대에 서울예술대학 학생들의 실습공간으로 쓰이면서 그런 의미나 역할이 많이 퇴색됐죠. 지금도 이 공연장에 맞는 작품이면 관객이 줄을 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공연한 작품 중 실패한 작품은 없지 않나요?

조선희 공연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 이곳은 만석이 되어도 적자를 보는 구조거든요.

1년에 6~7편 공동제작하는데, 1억 좀 넘는 제작비를 들어서 3주 정도 공연하면 300석 좌석이 매진되어도 본전을 못 뽑아요. 공동제작 들어오는 극단이나 기획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기본적으로 초연, 창작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작으로 회자되거나 작품성을 인정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리메이크할 때 모을 수 있는 ‘기본 관객’의 이점은 없는 셈이고 창작 시나리오에 매달리는데 그게 모 아니면 도인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날>처럼 성공할 수 있고, 물론 그 작품도 처음에는 손해를 봤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밀고 나간 케이스였죠.

유인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겠다면 두 달은 공연을 해야 하니까. 어차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면 여기서는 작품의 의미,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실험, 혹은 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뤄지면 재단 입장에서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자는 예산으로 보충하고요.

안호상 극장으로서 의미 있고 좋은 작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관객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겼요. 극장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요자·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획력, 서비스도 좋아지고 무대 뒤 긴장감도 생기지, 관객이 없는 극장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조선희 관객에게 소구하는 차원에서도 남산예술센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극장 중에서도 창작 초연작을 하는 극장은 많지 않으니까요.

실험적인, 문제제기적인 작품으로 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유인촌 창작 초연을 하는 것도 엄청난 모험이에요. 작가들이 아무리 글을 써도 무대에 형상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깐요. 극장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요? 유시어터를 운영해보는 건 어떨습니까?(웃음)

지원 프로그램을 올리는 무대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극장이 없어서 문제라면요. 제가 운영하면 대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극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쓰고 싶어서...

그렇게 운영할 주체를 찾고 있어요. 기업이 1년에 1억 정도 극장에 대관료를 지원하면 기업 이름을 달고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사실 문화부 장관 시절 대학로 극장 5~10개 정도를 임대하려고 했어요. 극장에 극단을 다섯 개씩 묶어주는 거죠. 극단에서 공연을 올릴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대관료거든요. 그때 그렇게 5개 단체가 두 달 정도씩 극장을 나눌 수 있게 해봤어요. 제작비가 아니라 공간을 지원해주라고 한 거였죠. 첫해에 2~3개 빌렸는데, 첫대박물관 극장도 그렇게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단체를 다 못 채우고 끝났다는 것 같아요. 재단의 경우도 제작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공간·연습실, 공연장, 사무실 등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프로그램 북에 평론가들이 작품해설도 쓰고 원고료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힘드니까 그런 글도 부탁하지 못해요. 의미를 공유하는 일부 연극인들끼리 교수들의 글을 받아서 내기도 하지만 이론가들과 현장 창작자 사이에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공간이나 개런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문화재단 하면서 대학로에 건물을 못 사고 나온 거예요. 대학로 연습실은 아직 운영하고 있나요?

조선희 네, 저희가 빌딩 두 개에서 공간을 임대해 사용했는데, 두 건물 중 한 곳은 재작년 여름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지금은 한 건물 4개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간 임대료 지불한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죠. 2004년부터 임대를 시작한 건데 그때 아예 돈을 들여 구입했으면 건물이라도 남았을 텐데 싶은 거죠.

유인촌 의회가 재단의 기본재산을 못 쓰게 했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건물 구입에 대해 건의했는데 안됐어요.

서울문화재단의 재정적 기반

조선희 재단의 자산은 지금의 청계천9가 사옥하고 기본재산 1천 1백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돼 있죠. 사실 기본재산이라는 게 문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로 만들어준 것인데 결사적으로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안호상 당시로선 기본재산을 건들지 말자는 게 은행 이자가 높을 때여서 돈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겠죠.

조선희 건물을 구입했다라면 대학로가 당시보다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돈도 벌었을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공간그룹이 도산할 때 그 사옥을 매입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의회의 반대로 안됐었죠.

유인촌 재단이 공간사옥을 매입했다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아직도 재산 사용에 대한 견제는 여전한가 보네요.

조선희 그래요. 의회가 재산 사용에 대해 무척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유인촌 공간사옥은 명분도 있었는데요.

조선희 당시 공간사옥 감정가가 97억이었고 우리가 받은 감정가는 95억이었어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각 쪽과 매입 쪽 감정가 평균을 내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기를 이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서울 종로구의 경매 매물 기본 낙찰가가 평균 56%이니까 최종 53억까지 내려갈 텐데 지금 감정가로 구입하면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경매가 1차, 2차 다 유찰되고 3차 가서 53억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을 포기했는데 후에 아라리오에서 그 건물을 150억 주고 사들였지요. 그야말로 서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인데 사실 150억이라 해도 비싼 게 아니지요. 아라리오에서는 아주 영리하게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신관 쪽은 커피숍 베이커리 레스토랑으로 100% 요식업으로 쓰고 구관은 전시장으로 만들었더군요. 원래 저희가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김수근 사단 쪽 건축가들이 얘기한 건 '김수근 선생 집무실 하나만 보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김수근 선생 집무실 창이 건물 바깥으로 나 있는데 얼핏 들여다보니 그냥 전시실로 쓰는 것 같더군요.

유인촌 지하에 있는 공간사랑도 참 중요한 공간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공간이 워낙 없을 때였으니 공연장으로 쓴 것이지

지금은 못 써요. 그래도 그곳에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공옥진, 김덕수 씨도 있었고 현대무용도 거기서 다 컸지요.

조선희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명분에 모두 부합해야 하고 더러는 정치적인 바리케이드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안호상 그게 시의회의 승인사항인가요?

조선희 승인사항은 아닌데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았죠.

안호상 아까워요. 공간사옥은 서울문화재단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남산예술센터도 서울문화재단에서 매입하려고 했었지요. 건물이 감정도 진행했는데 서울예술대학교 유덕형 총장이 심하게 반대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당시 감정가가 300억이 조금 안됐는데 그 정도면 매입하자고 했었거든요. 더구나 거기가 원래 서울시 땅에 해외재단 지원금 등으로 지은 건물이잖습니까.

유인촌 그렇지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치진 선생의 힘이 워낙 세었으니 아무도 말을 못했겠죠.

조선희 어쨌든 지금은 서울시가 동량재단에 연간 10억의 임대료를 내고 저희 재단이 사업비 20억으로 남산예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 동량재단이 한국의 연극계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명분에 맞을 것 같은데요.

안호상 제가 있을 때 이곳을 교육센터로 쓰려고 했지요. 교육사업은 자꾸 커지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은 없어 대학로 연습실에도 가고, 시설공단 강당도 빌리고 했거든요. 교육사업팀이 사업을 할 때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돼 교육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던 차에 남산예술센터 임대 제안이 들어왔어요. 오세훈 시장을 두 번 만나서 부탁을 드렸죠. 예술교육을 하려면 남산극장 자리가 좋고 이 공간의 역사 또한 예술교육사업과 부합하는 점도 있고 해서 교육과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메카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협상이 끝날 무렵에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됐더군요.

2004년 출범 당시 중구 예장동 남산 지락에 위치한 재단 청사.

옛 안기부 부속 건물을 임시로 사용했다. 이후 2006년에 현재 용두동 청사로 이전했다.



용두동 용두동 청계천로에 위치한 서울문화재단 본관 청사



우리 문화재단으로서는
예술로 치유하는 힐링
아트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것은 중요한
이슈이지요. 기령
성북예술창작센터는
힐링 아트로 특화된
창작공간이고요. 앞으로
예술치유 쪽으로 좀 더
사업을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지원제도에 대해

조선희 예술지원체계에 대해 두 역대 대표님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초로 지원체계를 만든 것은 유 장관님이신데, 우리 재단 사업에서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문화재단 고유의 예술지원체계로 운영하는데요. 초창기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무대예술지원사업이 있었고, 그 외에 다년간 지원사업, 그리고 '나트(NArT)'라고 하는 신진예술지원사업과, 공연예술 쪽으로 사후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이후에 사업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저희도 매년 예술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없어졌던 다년간 지원사업을 연극과 무용 분야에서 작년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지요.

유인촌 제가 있을 때엔 예술계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강요했으니 참 어려웠죠. 이런 사업은 몇년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세 이걸 현장 예술가들이 없애자고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단체에 지원이 몰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원받는 당사자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 갖는 지원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경향도 분명 존재하죠.

조선희 그렇게 나눠 갖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고요. 제가 보면 이래서 제도라는 것이 돌고 돌게 되는 것 같아요.

안호상 예술지원사업에는 답이 없어요. 지원기관만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유인촌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서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재단 직원들이 예술가들과 계속 교류하며 얘기도 나누고 술자리도 가지며 친밀한 관계가 돼야 '아 이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뭐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원방식에 있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패자부활전이 준비되어 있는 지원, 설령 떨어졌더라도 다음에 또 도전해볼 만한 과정을 남겨두는 식이 되면 어떨까 해요. 지금의 지원방식은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그대로 보내야 하니까요.

안호상 예전에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엘리트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재원이 좀 더 확보되니 소위 생활예술, 시민예술가 지원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지원이 보편화되다 보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술이라는 게 수월성, 엘리트 예술가를 키워내는 역할이 지원의 역할 중 하나인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선희 지금도 엘리트 예술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고 시민예술지원은 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선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술지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했더니 아주 전통적인 논란이 반복되더군요. 한쪽에서는 공공의 지원이 예술가들의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공적 지원의 입맛에 맞는 작품들만 생산하게 한다고 공공 지원 무용론이 나오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의 반론이 되풀이되더라고요.

유인촌 지원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영양가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안호상 효과 면에서 보면 직접지원은 효과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공간지원이나 간접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수혜의 범위를 넓히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과를 생각하고 예측이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유인촌 역시 다년간 지원, 인큐베이팅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있던 때 하나 성공한 사업이 김백봉 선생의 태평무 복원이었어요. 매년 자금을 지원하며 그에 대해 연구시키고 자료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발표 자리를 갖고 공연과 출판까지 이어졌지요. 다년간 지원사업이 끝나고서 연구결과가 축적되니 보람 있더라고요. 연극 등 다른 분야는 다소 실패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조선희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성과 측정이 안 되는 문제가 확실히 있고요, 창작공간 등 인프라 지원은 좀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나트'는 '유망예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방식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인큐베이팅 방식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에게 멘토를 매칭하고 제작과정을 도와주도록 해 마지막에 발표 무대까지 지원하는 거죠. 공간마다 지원해서 한 해 동안 모든 과정이 이뤄지도록 하거든요.

안호상 서울문화재단이 이러한 예술지원을 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웃음)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10년



시민청 태평홀에서 시민 정책제안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 발표회 방식으로 진행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2014.03.15)

유인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의 민간조직으로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만든 것이고 10년 동안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죠.

안호상 서울시라는 조직이 직접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연한 조직으로서 특유의 활력을 가지고 공공조직이 하기 어려운 사업 영역을 많이 발굴해 일을 해왔다는 게 지금껏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인촌 10년 동안 규모도 확장되고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럼에도 아직 침체된 느낌은 들지 않는데, 다만 훨씬 오래된 조직을 보면 관습적으로 변하고 노쇠해지는 걸 봐왔기에,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가도 창의적인 집단으로 유지됐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을 이번 10주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호상 그런 면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문화재단으로서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고요, 단지 서울의 재단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재단들이 서울문화재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탠다드를 창출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죠. 공연장이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듯이 재단에서 일하는 이들의 역량도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야 하고요, 현재 서울문화재단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커리어가 모두 중요한 자산이에요. 서울문화재단 사업을 모델로 한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기도 하는데 우리 인력의 역량이나 과정 역시 모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인촌 이제는 직원의 전문성을 키워줄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일할 때 가장 걸렸던 부분은, 직원들에게 예술가 수준의 창의력을 요구하는데 실제 일은 공무원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참 미안했지요.

조선희 지금도 그 딜레마는 지속되고 있어요.

유인촌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안호상 재단이 내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내용이나 편집, 디자인, 콘텐츠 발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타 기관지에 비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역량이죠.

유인촌 영국의 아트카운슬을 방문했을 때 그곳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십 년을 해왔다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두 훤히 꿰고 있는 것이죠. 예술가가 찾아오면 그 직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전문성이 우리에게 부족한 편이죠.

제가 장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심사 때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부르지 말고 내부 직원이 심사하라고 했어요. 전문심의관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 지지부진하게 끝난 것 같아요.

안호상 지금도 있지 않나요?

유인촌 있긴 있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조선희 사실 지원제도 심사위원회 내부 직원들이 들어가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때 딜레마가 생기지요.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재단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여하튼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의 늪에 수몰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며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에서 인력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 기회도 줘야 하고요.

서울문화재단이 10년 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프런티어십을 가지고 나가면서 다른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역할모델로 기능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호상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화재단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예술을 통해 문화정책을 만드는 것과 예술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이런 두 가지를 별개로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단이 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10년이라는 전통이 있으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시민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재단의 방향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진보나 보수나, 좌우의 개념을 떠나서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는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12.17.수 / 남산예술센터 뽕앤뽕



기관경영 및 수상실적

주요 사업 연혁

2003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07.15

2004

초대 이사장(정연희) 임명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03.12
초대 대표이사(유인촌) 임명 03.13
서울문화재단 법인 등록(창립기념일) 03.15
재단 출범식 개최 및 홈페이지 개설 05.18
서울열린극장 창동 개관 09.10
대학로연습실 개관 12.27

05.01-09 하이서울페스티벌 2004 개최
06. 서울광장예술프로그램 개시
06. 문화가있는놀이터 사업 개시(문화마을가꾸기 일환)
07.15 제1회 서울문화포럼 개최
09.04 책읽는서울 사업 개시(09.04 개막행사)
09.10 청소년문화벤처단 사업 개시(09.10 발대식)
10. 집중육성 지원사업 개시
11.26-27 제1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네트워킹세미나(SINSFO) 개최
12.23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시리즈 <홍보> 발간
- 시민문예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재단으로 이관

2005

조직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개발 연구 04.-09.
조직 신 비전 개발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나눔문화) 05.13
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05.18
청사 이전 결정(여장동→청계천로) 12.30

하이서울페스티벌 2005



05. 문화가있는놀이터 첫 모델 시공(연남동)
06. 젊은예술가 지원사업 NArT 개시
06. 문화+서울 창간(연 2회 무코지)
08. 서울사랑의문화나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 개시
08.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
09. 예술사랑문화나눔(소외계층 공공미술) 개시
10. 청계천아티스트(거리아티스트) 개시
12.05 제1회 '문화서울 후원상' 시상식 개최
- ISPA, AAPAF 회원 활동 개시
- 문화예술교육 운영과정 개시(사회, 학교, 관계자 재교육)

2006

조직 비전 공유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 02.03
용두동 신청사 리뉴얼 착공식 03.30
신청사 리뉴얼과 연계한 “C-9 생생 프로젝트” 03.-06.

01. 서울문화예술총서 1 <서울의 밤문화> 발간
04.28-05.07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개시
07.18-08.11 청계천축제 개시 ※청계천미술제로 시작

기관경영 및 수상실적

주요 사업 연혁

2006

신청사 리뉴얼 준공 “생생 집들이” 06.28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전략보고서 발간 12.

08.10- 서울문화예술네트워크 생생목요토론회 개최
- TBS 라디오 공익문화캠페인 제작 등 캠페인/홍보 강화
- 사랑티켓 지원사업 2년간 운영(2006-2007)
- 사후지원사업 개시(창작 뮤지컬 대상으로 시작)
- 방과후교실 예술교육시범사업으로 학교예술교육 시작

2007

제2대 이사장(박범신) 임명 01.01
제2대 대표이사(안호상) 임명 02.01
남산창작센터 개관 10.10
서울연극센터 개관 11.10
청계창작스튜디오 개관 및 위탁운영 12.27
사무자동화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등) 구축 -
서울관광대상 수상 <2008년을 빛낸 최고의 홍보물을 찾아라> -

서울연극센터



04. 문화는내친구 월례캠페인(서울문화예술탐방) 개시
05.04-06 국내 첫 고공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개막
07. 문화+서울 월간지로 개편 발간
08. 전국문화예술재단 교류 간담회
11. <지역공공문화재단과 재정조정 토론회> 개최
12.06 2007 하이서울 루체비스타 개최(-2008.01.06)
- 예술인·매개자 교육과정 전문화(서울문화예술아카데미)
- 시민예술교육지원사업 수탁운영 시작
- 국비매칭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수탁 시작
- 책읽는서울 움직이는서가, 빅북, 골든벨 방영 등 활성화
- 문화가 있는 놀이터 현대건설, 관악구, SH공사 등과 협력 확대
- 시각·문학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개시(공연 지원 집중 탈피)
- 자치구문화공간활성화 지원사업 개시(2008-2011)
- 연극제·무용제·아스티지축제 지정지원 재단으로 이관

2008

2008 대한민국 공공행정 대상 수상(문화축제) 09.04
재단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통합 CI 제작 -
재단청사 내 책다방, 책사랑 설치 및 운영 -
서교예술실험센터 설치를 위한 초기 준비과정 진행 -

01.31 서울문화예술화관연합회 결성 및 지원 시작
12.03-04 링컨센터예술교육원 초청 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12.14-15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시범프로그램 시작
- 예술교육사업을 미적체험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청소년/어린이/TA Arts-Tree> 및 TA 개념 도입
- 하이서울페스티벌 4계절 축제로 진행
- 서울문화예술탐방을 통한 책자, 문학지도 발간

기관경영 및 수상실적

주요 사업 연혁

2009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05.07
남산예술센터 개관	06.08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	06.19
新비전 공유를 위한 SFAC Way 선포식 개최	09.23
대학로연습실 2관 개관	10.06
금천예술공장 개관	10.07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10.16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11.05
서울시 경영평가 개선 최우수기관 표창	12.31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로 문화부 교육사업 이관 준비	-
문화예술 기관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시민감동경영 체계화(서비스매뉴얼 개발 등)	-
디자인경영 체계화(디자인가이드북 제작 등)	-
한국뮤지컬 대상 등 문화예술사업 7개 분야 수상	-
(고궁뮤지컬, 문화놀이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문화+서울 등)	

10.08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시작
11.	링크센터예술교육원과 예술교육 국제교류 MOU 체결
11.	문화가 있는 놀이터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11.16-17	예술지원박람회 최초로 개최
-	국비매칭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지역 이관 (생활속예술 지원, 예술표현활동 지원, 공연단체 집중육성 지원 등)
-	국비매칭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사업 전국 최초로 시작
-	대학로문화활성화지원사업 개시(2009-2011)
-	TA 양성과정 체계화
-	예술로희망드림 개시 및 이를 통한 기부 유치 활성화
-	서울문화예술공간지도 발간

2010

잠실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시작	01.01
제3대 이사장(박범신) 취임	01.27
문래예술공장 개관	01.28
제3대 대표이사(안호상) 취임	02.0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05.11
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	07.28
문화가 있는 놀이터 Red Dot Design Award	10.
Best of Best 수상	
서울시 고객만족도 우수개선키관 선정	11.10
기타 수상(공공혁신, 신당, 놀이터, 차숙이네 등)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개관	12.17
가든파이프 문화특구 사업 수탁	-
예술지원사업 전산시스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01.	ISPA 총회 서울 유치 확정
05.21-25	링크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11.04-05	2010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12.06-10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상상잠수함 속 상상여행)
-	예술지원사업 체계화(창작 활성화, 시민문화 구분/단순화)
-	연구, 평론, 작품집, 문학 연계 콘텐츠 등 지원 분야 확대
-	NArT를 협업형 지원사업으로 개선(하이서울, 페스티벌장)
-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공모 신설
-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개시
-	서울 지역 학교예술강사지원 재단으로 이관
-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년별별 공연예술축제로 전환
-	서울문화예술팀방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출간

기관경영 및 수상실적

주요 사업 연혁

2011

잠실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시작	01.01
정책연구실 TF 신설	02.
ISPA사무국 TF 신설	05.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05.11
서울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그룹 달성	07.2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10.15
기타 수상(푸르른 날에, 도화만발, 1동 28번지 차숙이네, 방과후 돌봄교실 예술교육 등)	
시민기자단, 재단 공식 SNS 운영 시작	-
대학로공연정보, 무료문화정보 앱 개발	-

05.05-10	하이서울페스티벌 한강 축제로 개최
07.12	제 1회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SISAC
08.15-24	링크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09.30-10.03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선유도)
10.27	2011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금천예술공장)
-	대학로 연극실태조사 최초로 시행(격년 진행중)
-	서울형 문화기업 육성지원 개시(2011-2013)
-	‘창의예술교육’ 예술교육 아이덴티티 개편 및 브랜드화
-	교육개발 기반 활성화(인턴TA제도, 교육개발 CoP, 사례집·번역서 발간 등)
-	서울사랑의문화나눔 모델 적용 서울시 위탁사업 확대 (친환경극장, 시민예술가 육성)

2012

제4대 이사장(김정현) 및 대표이사(조선희) 취임	03.26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 운영 평가 최고등급	03.
전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1위	06.
기타 수상(무료문화정보 앱, 전명출판전, 문화기업 육성 등)	
문화재휴팀, 정책연구팀, 정보화사업팀, 문화나눔팀, 감사실 신설	08.
서울시 고객만족도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1위	08.
新비전전략체계 연구 및 발표	08.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발족	10.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10.26
문화정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1.20
공식 블로그 운영 개시	-
예술교육과정 유료화를 통한 수입 발생 시작	-

06.11-16	2012 ISPA 서울총회 개최
08.06-10	링크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0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개시
10.1 - 07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거리예술축제’로 콘셉트 변화
11.01	2012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서울역사박물관)
-	NArT 유망예술육성지원 개선 - NArT in Partners (창작공간, 하이서울, 예술의전당 연계 제작 사전단계 지원)
-	서울예술교육포럼 개최 시작
-	토요문화학교 문화부 위탁사업 수탁
-	아트캠페인 바람나 미술 개시
-	문화이용권 문화부 위탁사업 수탁

서울거리아티스트



기관경영 및 수상실적

주요 사업 연혁

2013

- 시민청 개관 01.12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개선 및 재개관 09.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12.
- 2013 서울 스토리텔러 대상 12.
- 6개 창작공간, 서울연극센터, 남산창작센터 고유사업화 및 사업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
- 서울축제지원센터TF 신설 -
- 구의취수장 공간 활용 연구 시작 -
-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특성화 사이트 구축 -
- 홍보 통합 뉴스레터 및 유튜브 운영 -
- 2013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출연기관 중 1위 -
- 기타 수상(풍찬노숙, 서울댄스프로젝트, 일자리창출 등)

- 01.18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정책세미나 개최(서울시청)
- 01.17-19 서울예술교육페어 개최
- 07 -11 서울-북경 문화교류사업 추진
- 08.17 선유도 춤 아유회 개최(선유도)
- 10. PAMS Night 추진
- 10.02-06 하이서울페스티벌 2013 거리예술축제(세종로 등)
- 10.01-11 유럽 창의예술교육 4개국 탐방
- 11. SFAC 레거시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 11. WCCF 회원활동 시작
- 11. 국제포럼 기업혁신, 예술에서 길을 찾다 주관
- 11.28 2013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서울시청)
- 11.28-30 2013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시민청)
 - 수기기획 지원(계기성 지원) 10년 만에 폐지
 - 시민예술활동지원 기획형 분야 신설(시민-아티스트 협력 등)
 - NArT 창작공간 연계 강화(홍은 닷, 문래 MAP, 서교 99°C)
 - 예술교육사업 체계 정비(어린이/청소년/아카데미 체계)
 - 예술교육 총서 출판, 교재 개발, 유럽 현장방문
 - 서울댄스프로젝트 개시
 -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개시
 - 서울시 대표 B-Boy단 개시
 -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개시
 - 서울-북경 문화교류사업,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협동조합 설립
 - 잠실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A 개시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기관경영 및 수상실적

주요 사업 연혁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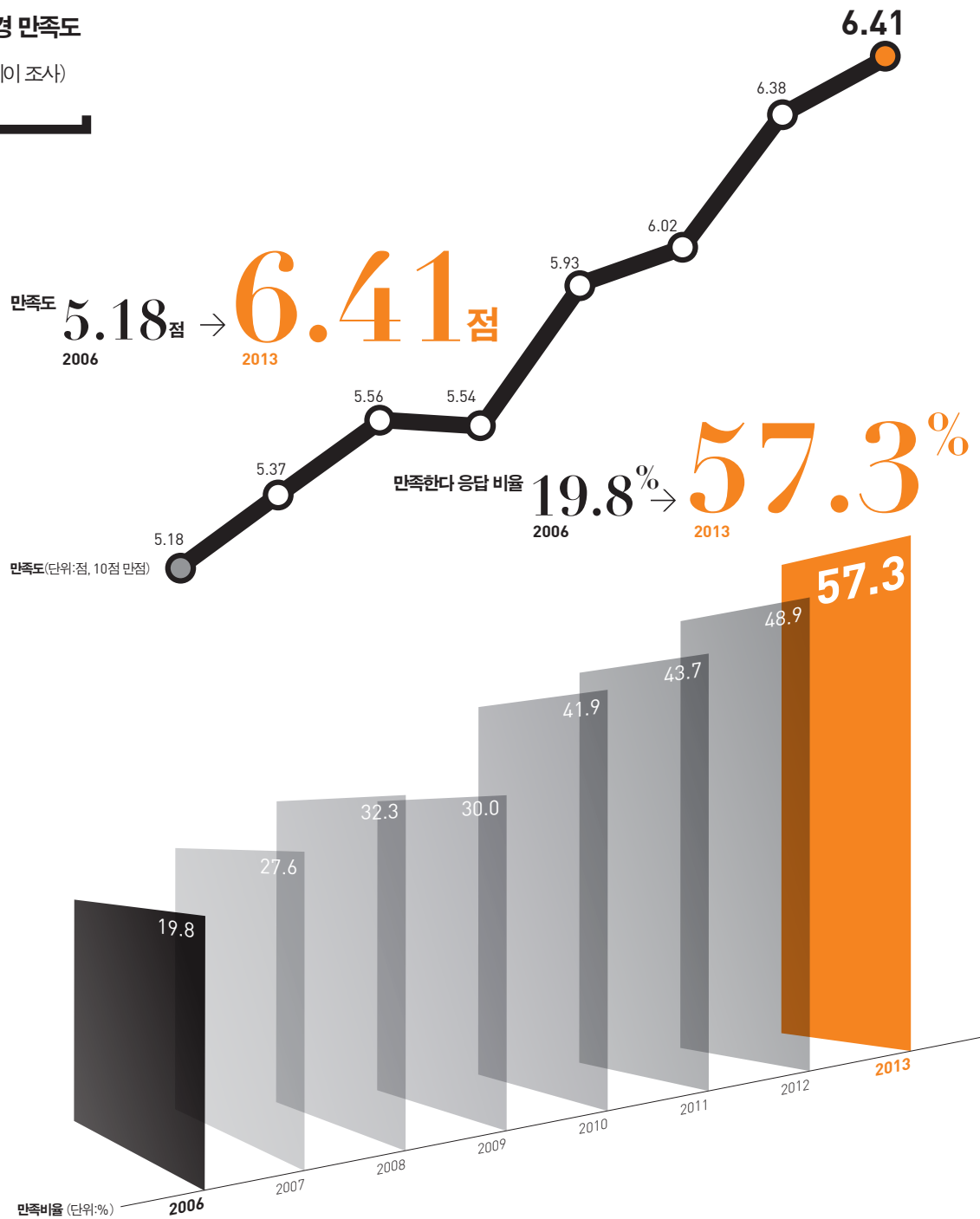
-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03.14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및 재개관 10.21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남산도큐멘타> 11.
- 대한민국연극대상 최우수작품상 <즐거운 복희> 12.
- 시민만족도 93.8점, 서울시 출연기관 전체 2위
- 문화충전캠페인 <예술로 해요> 연간 운영
- 구의취수장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로 조성 시작
-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론칭

- 01.11-31 시민청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 02.-03. 문화정책 시민 아이디어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 공모 및 워크숍
- 03.14 서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시민청)
- 03.21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Wonder-Present" 운영 시작(DDP)
- 04.05 거리예술 시즌제 봄 프로그램 시작(신촌)
- 04.- 장릉한복변신 프로젝트 시행
- 05.12 제 1회 서울예술교육포럼(카톨릭청년회관 다리)
- 07.31-08.27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시즌2(시민청)
- 09-12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
- 10.01- 상상력발전소 시범사업 "놀이의 진화" 전시
- 10.07-12 시민예술축제 "중아서 예술동아리" 개최(세종문화회관)
- 10.28-31 서커스 시르피르 초청 서울미적체험워크숍
- 11.03 제 2회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SISAC
- 11.05-06 제 1회 홍대 앞 문화연구포럼 개최(서교예술실험센터)
- 11.06- 2014 NewStage 낭독회 시작(서울연극센터)
- 11.06 예술후원 캠페인 <미스터 기부로> 운영 시작(서울광장)
- 11.27-30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최초 개최(시민청)
- 11.27 2014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서울시청)
- 11.29 제1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페스티벌 <예술로 꿈을> 개최(성동청소년수련관)
- 12.05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2014년 열린토론회(시민청)
- 12.22 제 2회 서울예술교육포럼
- 12.22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예술지원체계 정비(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신설, 작품 지원/작가 지원 구분)
 - 시민예술활동지원을 '중아서 예술동아리' 발표 방식으로 전환
 - 유망예술지원 창작공간 연계 전장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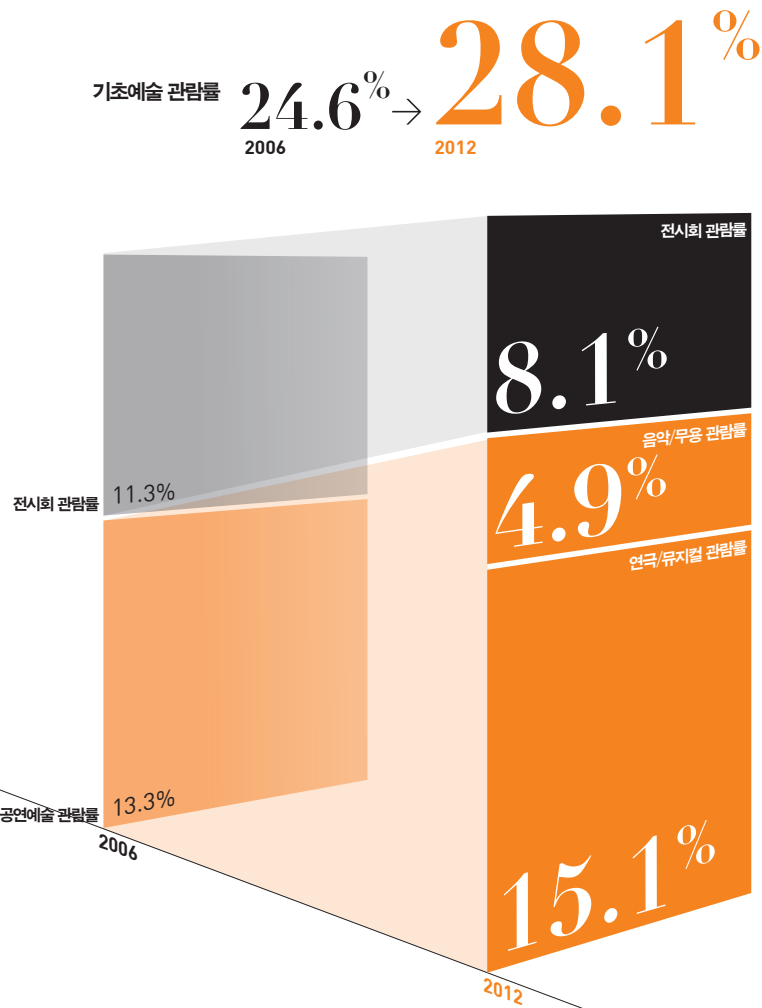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Wonder-Present"

01.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조사)



02.
서울시민
기초예술 관람률
(서울서베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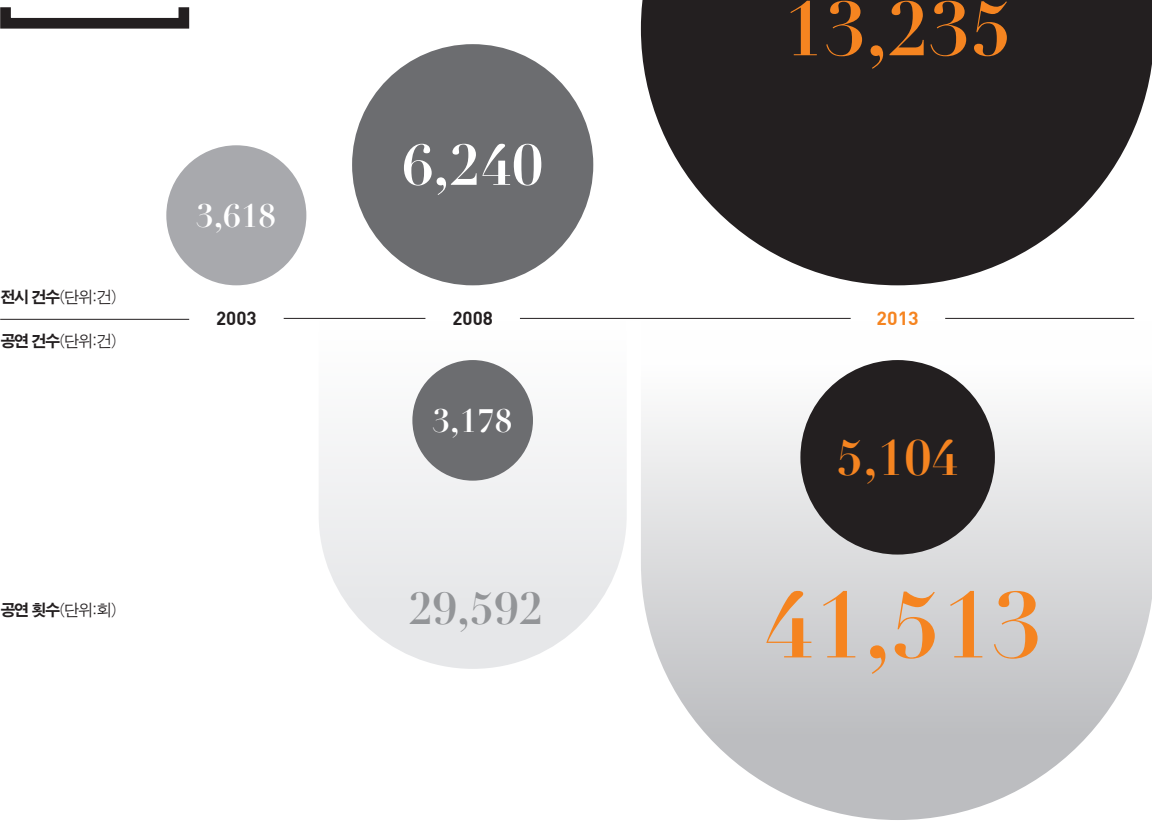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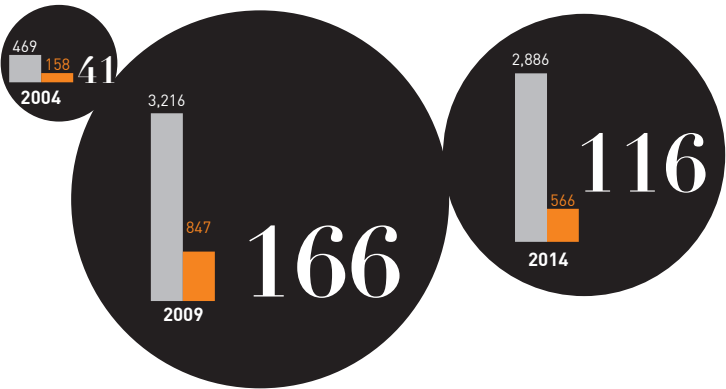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개최된

문화행사

(문예연감 조사)



구분	2003	2008	2013
전시 건수	3,618건	6,240건	13,235건
공연 건수	-	3,173건	5,104건
국악	-	397건	505건
양악	-	1,501건	2,846건
연극	579건	787건	1,032건
무용	278건	488건	721건
공연 횟수	-	29,592회	41,513회
국악	787회	693회	1,516회
양악	-	1,662회	3,121회
연극	-	26,275회	34,772회
무용	791회	962회	2,10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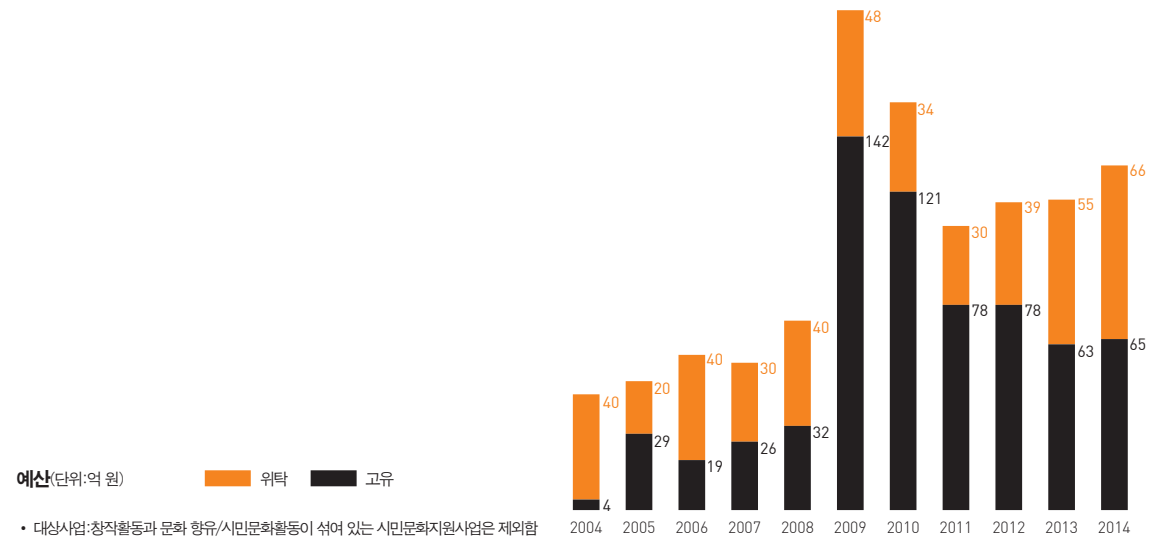


04.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창작지원사업

10년



지원금 지원 건수 및 금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청	469	601	604	1,212	1,208	3,216	2,864	2,024	2,733	2,326	2,886
선정	158	108	170	223	241	847	660	656	605	495	566
금액(단위:억 원)	41	36	50	51	68	166	138	104	103	99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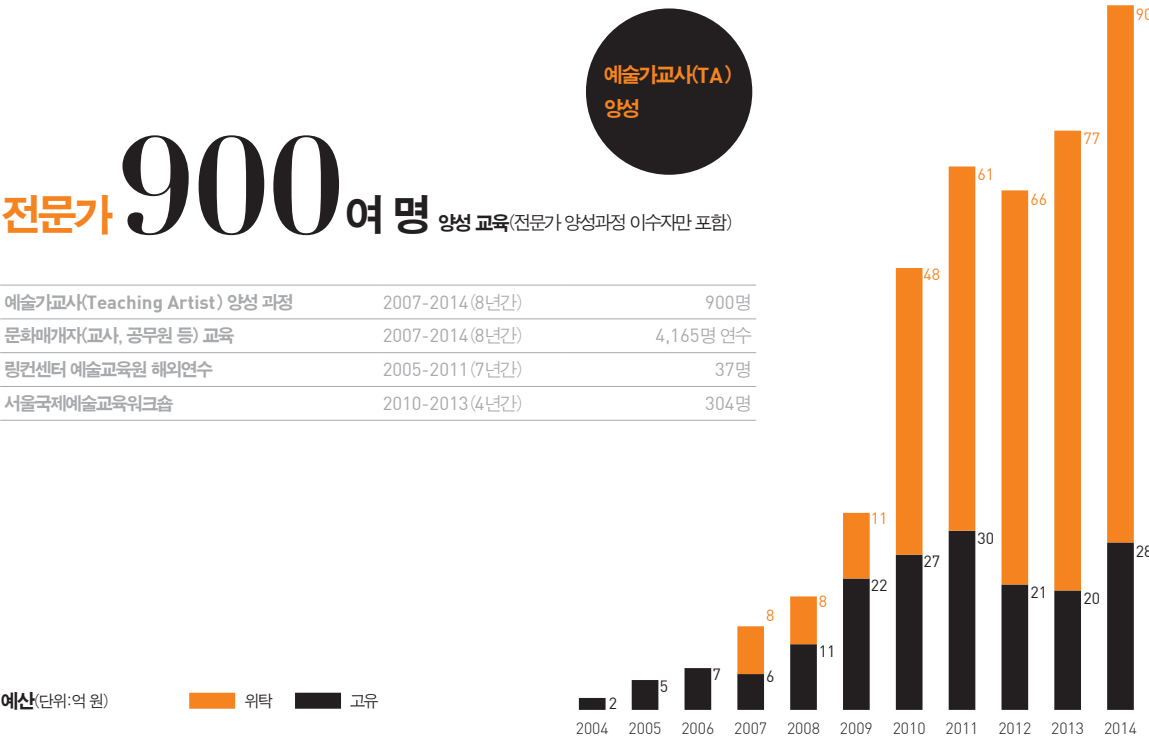
05. 서울문화재단
주요 예술교육사업의
10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연계 예술교육	2006-2014(9년간)	1,989 학교	41,339명
초등학교 정규교과 연계 예술교육	2009-2014(6년간)	309 학급	8,042명
청소년 중고등학교 창의예술교육	2007-2014(8년간)	165개 학급 및 동아리	5,027명



꿈꾸는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2007-2014(8년간)	183건	5,050명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2007-2014(8년간)	214건	6,087명
토요문화학교	2012-2014(3년간)		6,3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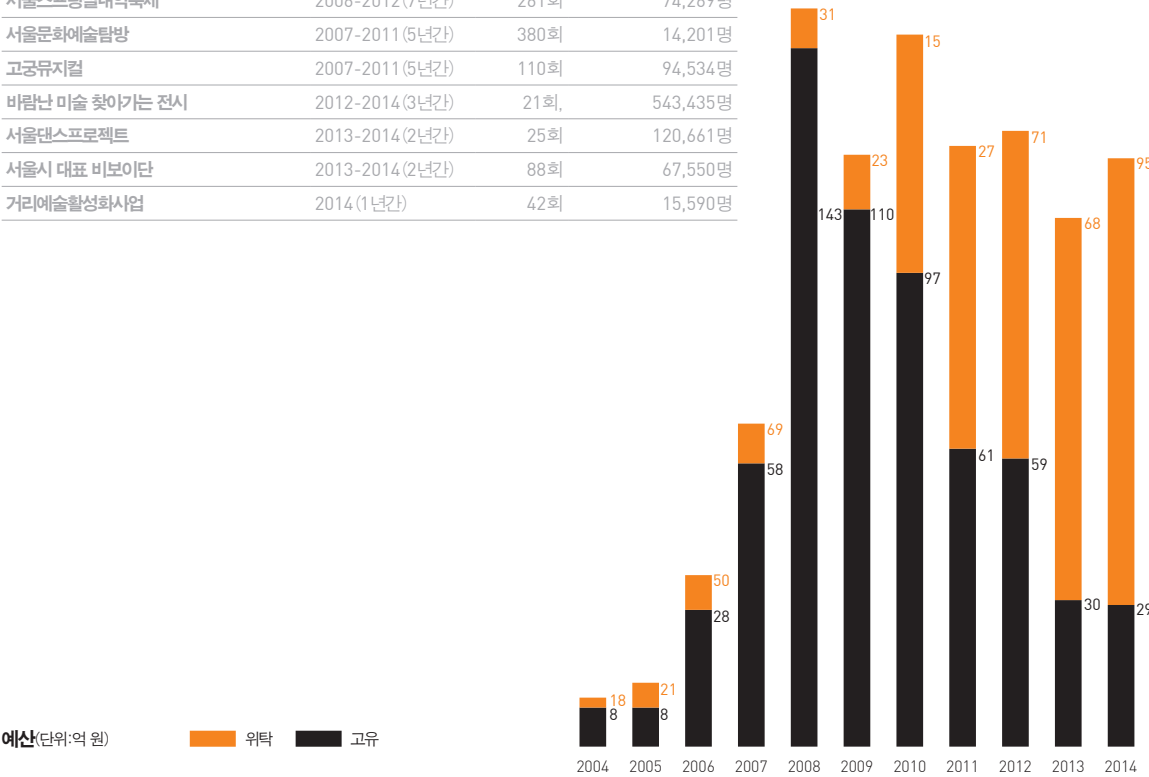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양성 과정	2007-2014(8년간)	900명
문화매개자(교사, 공무원 등) 교육	2007-2014(8년간)	4,165명 연수
링크센터 예술교육원 해외연수	2005-2011(7년간)	37명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2010-2013(4년간)	304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4-2012(9년간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2,716만 명
서울빛축제	2007-2009(3년간)	1,234만 명
청계천축제	2006-2012(7년간)	53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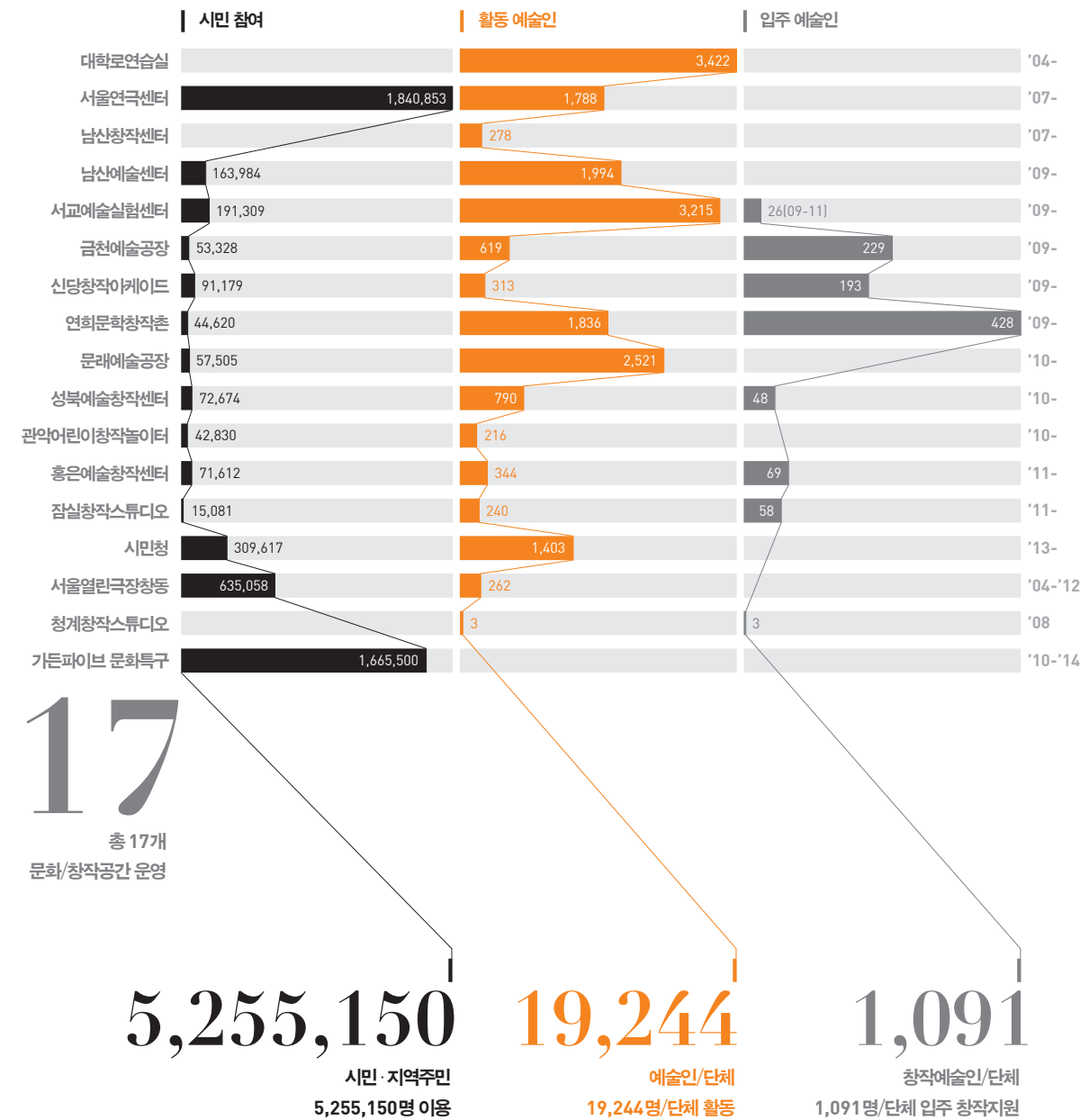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2004-2008(5년간)	305회	168,959명
사랑의 문화나눔,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2005-2014(10년간)	3,804회	717,334명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06-2012(7년간)	261회	74,269명
서울문화예술탐방	2007-2011(5년간)	380회	14,201명
고궁뮤지컬	2007-2011(5년간)	110회	94,534명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	2012-2014(3년간)	21회,	543,435명
서울댄스프로젝트	2013-2014(2년간)	25회	120,661명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2013-2014(2년간)	88회	67,550명
거리예술활성화사업	2014(1년간)	42회	15,5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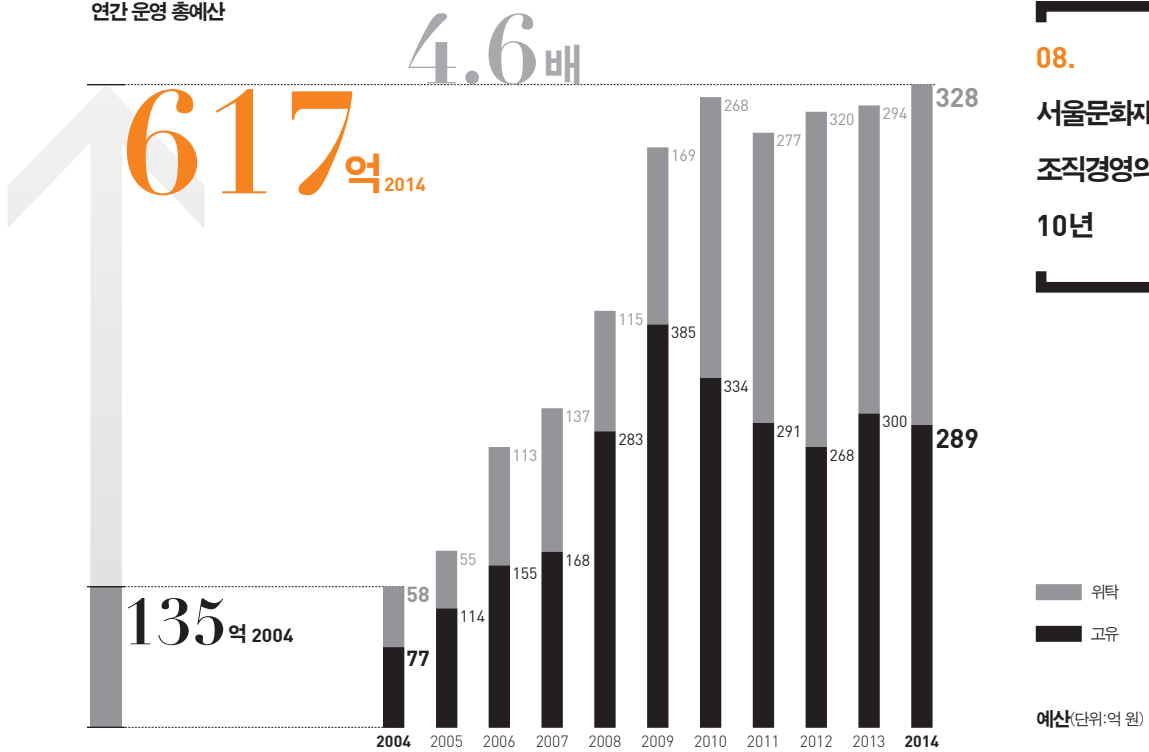
06. 서울문화재단
주요 문화사업의
10년

07.

서울문화재단
주요 문화/창작공간의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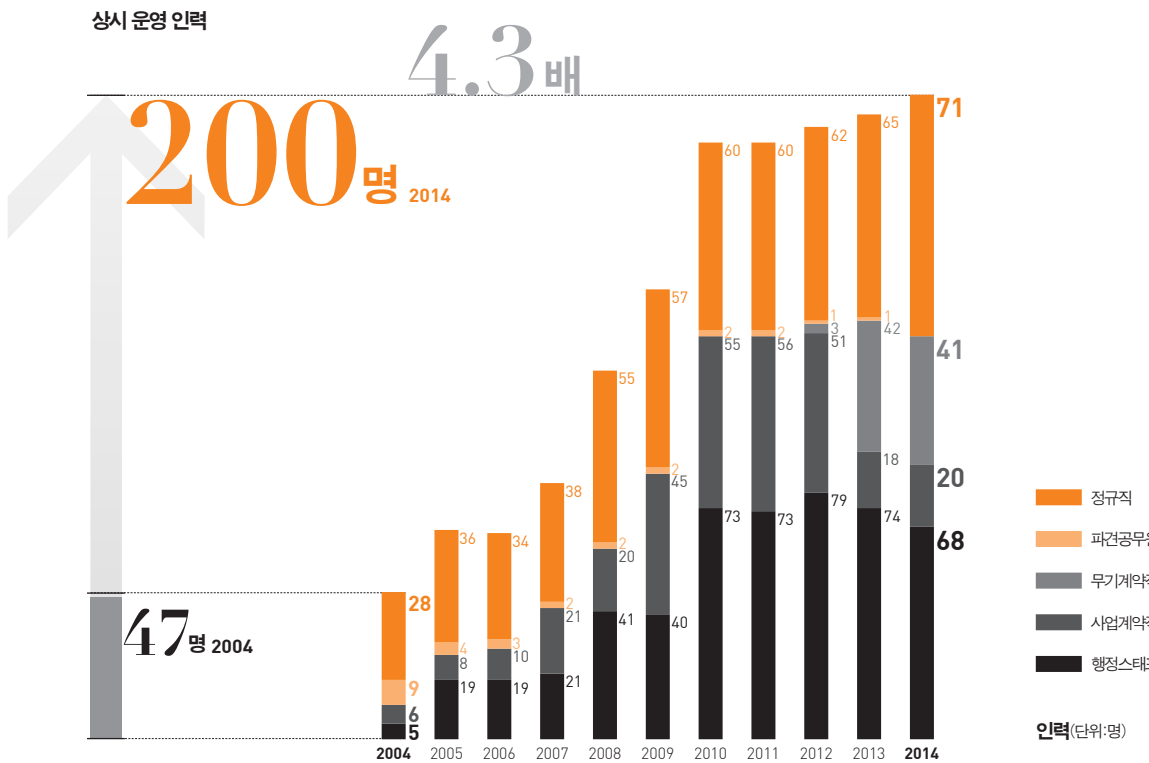


연간 운영 총예산



08.

서울문화재단
조직경영의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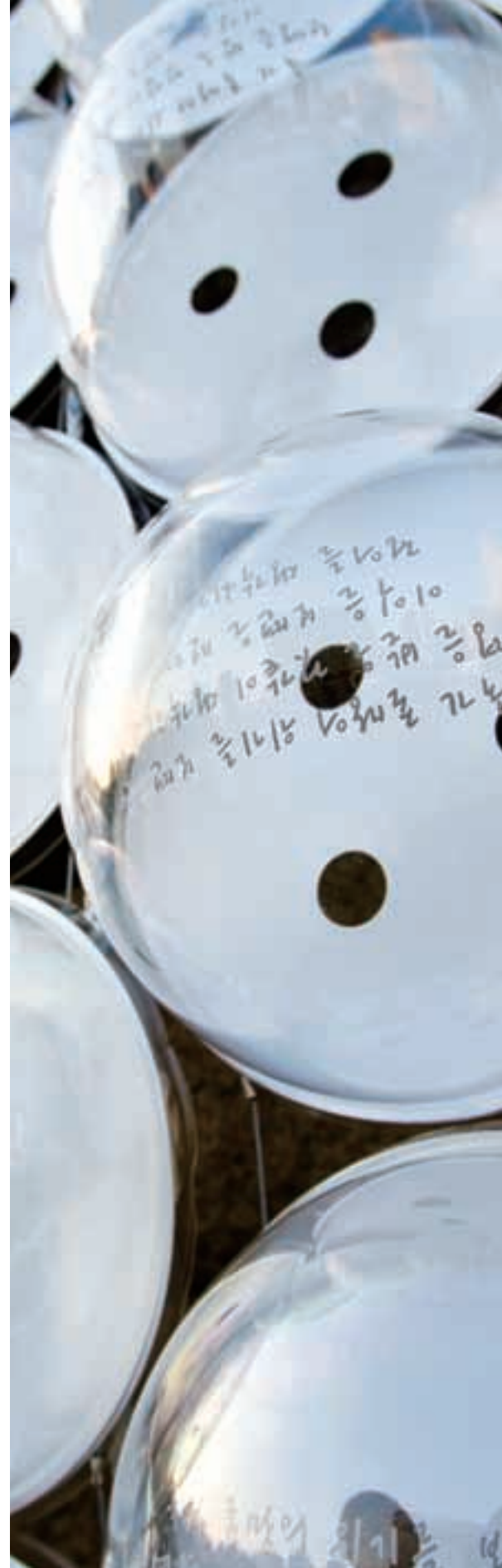


서울을 채우다

예술,
사람,
도시를 잇는
서울문화의
모세혈관

-

살기 좋은
도시문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듭니다





도심축제에서 거리에설까지 • 도시공간에 문화가 넘치게 • 서울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

서울을 채우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오원의 궁' (2009.05.02-05.10, 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 'YOU토피아' (2007.04.28-04.29, 청계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팔색무도회' (2009.05.02-05.10, 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 '종묘제례 어가행렬' (2007.05.06, 종묘-광화문 종로-종각-종로3가-종묘)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 '서울역사퍼레이드' (2007.05.06, 종묘-종로3가-종로1가-세종로-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작사-마법의 밤' (2012.10.01, 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Hi Seoul Grand 퍼레이드' (2006.05.07, 종묘-종로3가-종로1가-세종로-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댄스마니아 인 서울' (2006.05.06-05.07, 명동)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제네릭 비파-아영' (2012.10.07, 태평로)



서울

축제

공공 공간

스토리텔링

도심축제에서 거리예술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기념특별공연 '레인보우 드림즈' (2011.05.05 여의도 한강공원)

한국의 21세기 문화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다.

애써 조직하려 하지 않았고, 틀을 만들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이럴 것이다”하는 예측도 없었던 그것.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쉬이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자발적 카니발의 시작!

그렇다. 바로 2002 월드컵 거리응원문화다.

도심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렇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열정들 속에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흥이 되고, 노랫말 한 구절이 합창이 되던 말 그대로의 도심축제였다.
그리고 그 기억과 경험, 흥분과 놀이는 또 하나의 페스티벌을 이어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탄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 21세기 문화혁명, 서울에서 이어가보자!’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형식의 옷을 갈아입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축제로 자리매김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였다.



붉은 응원단과 함께

—
페스티벌의 전신,
‘서울시민의 날’
+
월드컵 거리응원!’



1994.10.25

서울시민의 날

2002.06

2002 한일 월드컵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지난 역사는 재단의 출발과 궤를 같이 한다. 아니 오히려, 2004년 설립된 재단보다도 1년 먼저 출발하여 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이전에는 그 전신으로서 ‘서울시민의 날’이 있었다. “서울 정도(定道) 600년을 기념,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 서울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양 천도일인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1994년 10월 25일 공포된 이 행사는 각계 시민대표 40여 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발전해왔다. 아마도 특별한 전환점이 없었다면 ‘서울시민의 날’ 행사는 현재까지 같은 모습으로 이어져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시작된 거리응원문화는 우리나라의 광장문화, 축제문화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매일 붉은 옷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 거리 곳곳에 모여들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통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카니발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였다. 시민의 결집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교통 체증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시청 앞 광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인 ‘서울광장’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이다. 매년 10월 열리던 ‘서울시민의 날’ 행사는 월드컵 다음 해인 2003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꾸고 개최시기 역시 5월로 바꾼다.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의 자발성’이라는 ‘서울시민의 날’이 가진 목적을 견지한 채, 월드컵 응원문화로 형성된 시민들의 자발적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시작됐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3.05.24 -

“2003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했던 행사였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실제 축제팀이 2003년 11월부터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시민의 날이 원래 있긴 했지만 이전에는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노래 한곡 하는 정도였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응원단들이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까지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자발적인 길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문화를 서울시민들과 연결해서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다. 그때부터 이미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의 자발성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2003년 제1회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다. 그 기저에는 단연 월드컵 정신이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성이 기본이 되는.”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모든 축제의 시작이 그러하듯 2003년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양일간 치러진 제1회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축제의 방향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낳게 된다. 2003년 꾸러진 축제 인력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전문 총감독을 영입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프로듀서를 구성하며 페스티벌이 치러졌다. 시민모임이 주최가 되고, 서울시와 재단이 실무를 협조하는 구조로 진행된 페스티벌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동시에 명확한 지향 없이 펼쳐진 축제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의 슬로건이었지만, 어법상 맞지 않는 ‘하이 서울(Hi-Seoul)’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제의 주제에 대해 변화를 주고자 하는 고민이 시작됐다.

지금도
진화는 계속된다

페스티벌의 주제와 형식의 변천사

지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그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민으로 변화의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주제가 변하고, 참여주체가 다양해지고, 개최장소가 이동되는 등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계의 의견이 모아졌고, 해를 거듭하면서 이전보다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 지금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걸어온 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기별로 나눠볼 수 있는 축제의 목적성에 있다. 그 첫 번째 시기가 ‘시민참여형 페스티벌로서의 종합축제’를 지향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다.

2003
-
2007



시민들의
자발적
축제형식으로

서울광장을 주요 공간으로 시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종합문화축제를 지향했던 이 시기에는 관 주도형 시민행사라는 태생적 한계를 전문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시민모임’이라는 민간 조직을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 축제를 기획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방향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각계에서 나온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종합축제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페스티벌은 서울 동서남북으로 개최장소를 넓혔다. 남산, 북한산,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한강 등으로 공간이 확대됐는데, 이전과는 또 다른 역동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03-2007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개최년도	개최기간	개최장소	주요 프로그램	테마
2003	05.24-05.25	시청앞,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110개 프로그램 _ 가족중심콘서트 외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Open your Seoul)
2004	05.01-05.09	서울광장, 5대 고궁, 세종문화회관	2개 프로그램 _ 백아한류축제 외	새롭게! 재밋게! 신나게! (Refreshing Exciting Dynamic)
2005	05.01-05.05	서울광장, 월드컵공원, 남산	8개 프로그램 _ 조용필 콘서트 외	서울마니아 Green
2006	05.05-05.07	서울광장, 청계천, 명동	26개 프로그램 _ 한류 콘서트 외	서울마니아 서울인 서울in
2007	04.27-05.06	한강공원, 북촌, 서울광장 등	47개 프로그램 _ 정조반차재현 외	Miracle Seoul

2008
-
2009



총감독에서
예술감독제로!

2008년에서 2009년, 예술감독제를 운영하며 축제의 콘셉트를 잡아가기 시작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이전보다 발전된 축제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예술경영 전문가였던 안호상 대표가 재단에 부임하면서 축제가 보다 전략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간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 진행했던 회의에는 자문단 성격에 맞게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모였고, 총감독제가 아닌 예술감독제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2008년 4계절 축제로 치러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각 계절마다의 테마를 만드는 등 5대 궁을 중심으로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에 4차례 축제를 개최하는 수고로움에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인사였던 안은미 무용가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는데, 그때 한강르네상스와 서울 천만 관광객 목표 도달이라는 시정과 맞물려 서울시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 1년에 4번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운영하게 된 건데, 봄에는 궁 축제를, 여름에는 한강에서 축제를, 가을에는 서울에 있는 축제를 다 모으는 축제를, 겨울엔 빛 축제를 하자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렇게 2008년 한 해를 지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제일 많이 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1번 하던 페스티벌이 4번으로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업무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봄 축제를 하고 바로 여름 축제, 끝나면 바로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디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2008년 한해로 4계절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실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 개최된 축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페스티벌이 하나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고, 예술감독제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독특한 장소성이 부각되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로 변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2010년 시민참여형 ‘공연예술’축제로 축제의 성격을 확정하면서부터다.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정책기조가 반영된 한강 중심의 2년간 축제는 년별 공연예술축제의 성격이 강화됐고, 이후 도심에서 개최되는 거리공연예술축제라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연결됐다.

2008-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개최년도	개최기간	개최장소	주요 프로그램	테마
2008 (4계절 축제)	05.04-05.11	시청앞,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15개 프로그램 _ 팔색무도회 등	서울의 봄, 궁에서 피다
	08.09-08.17	서울광장, 5대 고궁, 세종문화회관	16개 프로그램 _ 한강버드맨대회 등	서울의 여름, 한강 그섬에 가고 싶다
	10.03-10.25	서울광장, 월드컵공원, 남산	시, 자치구, 민간의 71개 축제 연계	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12.19-09.01.18	서울광장, 청계천, 명동	13개 설치물 _ 은백의 스크린 등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
2009	05.02-05.10	한강공원, 북촌, 서울광장 등	33개 프로그램 _ 나눔 청계천 등	서울의 봄, 희망으로 피다

2010 - 2014



년버벌,
그리고
도심형 축제의
시작!

한강을 중심으로 개최된 2010~2011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일정 부분 시정부의 한강르네상스 전략이라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페스티벌 공간으로서의 ‘한강’이라는 장소적 특성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도심에서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교통통제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한강은 그런 부분에서 수월하기도 하고 공간 규모도 여유로운 편이었다. 특히 2011년 마포대교에서 진행한 행사의 경우 접근성도 뛰어났다. 천막을 설치해서 야외공연을 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년버벌’을 표방해 주로 천막에서 공연을 했는데 서커스 같은, 일반적인 극장에서 하기 힘든 공연들이 진행됐다. 2010년에는 야외공연과 실내 공연이 5:5 정도의 비율이었고, 2011년은 야외공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렇게 2년 동안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물론 당시에도 도심에서 축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거리공연예술축제로 특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상욱** 축제기획팀 차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지난 12년 중,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에서 직접 위탁, 주관 또는 자체적으로 주최하던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 하나의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초중기 고유한 특성을 3년 이상 지속하지 못했던 내외적인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현재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도심 거리공연예술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목적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목적성을 바탕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향후 발전상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공연예술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던져주지만, 작품이 구현되는 환경의 한계, 닫힌 공간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거리예술 축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거리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거리예술 단체들도 최근 3~4년 사이에 많은 발전을 해왔고, 공연의 질적 수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물이 계속해서 발표의 장으로 이어지고 야외 공간에서도 쉽게 공연을 하고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시민들의 마음도 보다 쉽게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위해서는 최근 3~5년간의 시도가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2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2013-서울댄스프로젝트'서울무도회'(2013. 10. 06, 태평로)



축제의 주최가 다시 서울시로 이관된 2013년, 그리고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제를 거리예술로 집중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니아층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번 봤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또 더 새로운 것들은 없나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그런 점들을 볼 때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한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거리예술축제, 공연예술축제로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단계이기에, 현재의 축제 콘셉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동희 축제기획팀장

2010-2014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개최년도	개최기간	개최장소	주요 프로그램	테마
2010	10.02-10.10	한강공원, 도심광장	25개 프로그램 _년버벌 퍼포먼스 등	몸짓, 소통
2011	05.05-05.10	여의도 한강공원, 도심광장	28개 프로그램 _퍼레이드 등	몸을 부르는 몸짓, 몸짓
2012	10.01-10.07	도심광장, 도심을 연결하는 거리	115개 프로그램 _거리예술공연 등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
2013	10.02-10.06	도심광장, 도심을 연결하는 거리	6개국 53개 거리예술공연 등	길에서 놀자
2014	10.01-10.05	도심광장, 도심을 연결하는 거리	7개국 49개 거리예술공연 등	길에서 놀자

※ 2013년, 2014년은 하이서울페스티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됨

공간, 테마, 예술의 대중화!

시기별로 돌아본 성과

다양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그 흐름을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공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 것이고, 둘째는 그 공간을 채울 ‘주제성’으로 담론을 확장시켰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형성된 페스티벌, 예술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에까지 다다랐다는 점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만들어낸 광장문화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벤트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사회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 온라인상에서만 소통하면서 사라져버린 관계성의 중요성을 방증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던 초기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하나의 공간에 사람들이 넘쳐날 만큼 모이는 현상에 주목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밀거름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하게 남아있다.

2008년부터 주제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튀었다. 몇 년 동안 집중했던 ‘만남’으로는 충족되지 못한 페스티벌의 또 다른 성격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 것이다. 궁을 중심으로 한 테마들, 한강을 중심으로 한 테마 등 공간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노력은 페스티벌의 내용과 그것이 펼쳐질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남긴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축제와 공간의 연계,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은 ‘예술의 대중화’로 구체화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다. 예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거리예술로 모아졌다. 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 도심공간이나 일상공간 속에서 표현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전개된 지금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거리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도심축제로서의 또 다른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페스티벌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됐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문화재단 인지도 조사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 때문에 재단을 알게 됐다는 답변이 가장 많을 만큼 재단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써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밝혔듯 2003년부터 시작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다양한 시도와 정책적 변화 속에서 때로는 갈팡질팡 같지자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 축제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지만, 무엇보다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기 정체성을 수립해가는 과정의 지난 시절은 지금의 모습을 갖기 위한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의 1기, 2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9년까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판이 이미 깔려있었기에, 2009년 이후에는 주제성, 예술의 대중화 등 더 나아간 고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조동희** 축제기획팀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이 계속해서 변화해 올 수 있던 이유 중에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는 점도 있었다. 그러한 외부의 의견이 축제가 발전해나가는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momentum)이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 이후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게 강화됐다. 전문가 그룹이 꾸려지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거리예술축제가 제안되었고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초기를 지나 2008년 궁 축제를 거치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성격이 중간단계까지 구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단일한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표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연예술축제이긴 한데, 도심 거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연예술축제가기 때문에 거리예술축제라는 콘셉트가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 같다.” **우상욱** 축제기획팀 차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효과와 영향력 측면 또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아티스트들이 서울, 한국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유럽 아티스트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단체들 역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자극을 받으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10년간의 데이터를 누적하면 상당한 양일 것이다. 재단의 축제제작지원 프로그램들 또한 페스티벌과 연계돼 있어 사전에 1년 동안 지원하고, 그 결과물이 축제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사업은 〈축제 콘텐츠 제작 및 교류 지원사업〉이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국내 작품들을 공모하는 안정된 큰 틀(tool)처럼 되기도 했다. 페스티벌에서 국내 작품이 20 작품 정도 된다면 그 중에 10~15작품은 〈축제 콘텐츠 제작 및 교류 지원사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심사에는 반드시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감독이 참여한다.” **우상욱** 축제기획팀 차장

“그 지점에서 구의취수장을 활용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또 하나의 비전이 되는 것 같다. 2012년 4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15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한 축에는 공연발표의 장으로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있고 한 축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창작,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있는 그림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환경 조성의 측면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다. 창작·제작과 발표 양자에 대한 틀(tool)이 모두 조성되는 것이니까.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운영될 수만 있다면, 축제에 대한 연중 준비도 가능할 수 있고,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동희** 축제기획팀장

일상의 전도를 꿈꾸는 도심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 서울거리예술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일상의 전도를 꿈꾸는 도심축제, 거리예술축제를 지향한다. 이 점은 콘텐츠와 일관된 콘셉트라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지향하는 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처음 시작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여전히 도시의 주요 공간에서 치러지는, 말 그대로의 도심축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사이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은 도심을 거리예술축제라는 보다 확고한 콘셉트로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고민해왔던 '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방향성이 '거리예술'축제로 모아졌고, 대내외적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목적한 지향이 생겼다는 것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거리예술이라는 것은 많은 장점만큼이나 많은 한계도 있다. 날씨, 구조물, 행인들을 포함한 야외 공간의 변화무쌍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서울, 특히 사대문 도심 안의 밀집되고 복잡한 환경, 구조, 사람들. 이에 적응하려는 예술 역시 제약을 받게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작품일수록 도심에서의 제약은 더욱 더 커지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좋은 공연을 펼칠 좋은 장소를 찾는 것, 또 장소적 조건에 부합되는 좋은 공연을 찾는 것, 거리예술축제로서의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해결해 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페스티벌은 일상의 공간을 전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공연예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공연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특히 거리에서 펼쳐지는 것 자체로 시작되는 일상의 전도,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진정한 축제성,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달려온 지난 여정에 바로 그 축제성이 있다.



2014거리예술시즌제 '팜씨터어-달콤한 나의집' (2014.09.06-09.07, 보라매 공원)

“축제라는 건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합의된 약속을 기반으로 진행되곤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약속이 미약하다는 점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시작되는 날, 적어도 그날 하루는 서울시민이 오늘 하루 논다, 모든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그랜드세일을 한다, 모든 가게들은 페스티벌 브로슈어를 가져오면 30% 할인을 한다 등, ‘서울이 기분 좋은 날’로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자리 잡는 것을 꿈꾸고 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마니아층이 형성됐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관람객 수의 증가가 아닌,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는 페스티벌에 대해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고 있고 즐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예술이라는 게 그런 취지로 생겨난 것들이고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쉽게 조우하게 되는 장르이니만큼 서울의 장소들마다 특화된 내용들이 좀 더 오래 장작되면 도시 전체가 전도되는 특별한 날, 모든 것이 허락되고 관대해지는 즐기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축제 제작을 넘어서 축제 콘텐츠로서 거리예술 제작 공간을 만들다 구의취수장을 활용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재단은 축제 개최 외에도 새로운 시대의 역할로서 축제의 주요 콘텐츠가 되는 거리예술의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최초로 거리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 주변에 위치한 구의취수장이 유희시설이 된다는 소식에 재단은 층고가 매우 높고(가로 50m에, 깊이는 지하 3층 높이로 약 18m), 흰히 트인 야외공간을 보유한 취수장 시설을 활용하는 거리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에서 이를 채택했다. 2015~2016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한창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준비에 힘쓰고 있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단순 창작지원뿐 아니라 연습, 제작, 교육, 교류, 배급 등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갖춘 베이스캠프로서 조성 준비 중이다.

특히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존할 예정으로 그 생경한 모습이 남는 아우라, 높은 층고를 활용할 수 있는 서커스(!)를 포함한 버티컬 퍼포먼스, 초대형 스케일의 공연 장르 프로그램 개발, 이에 대한 시민 교육, 공간 투어, 오픈 스튜디오 등은 더욱 흥미로운 기대를 갖게 만든다. 국내와 아시아 유일의 거리예술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목말라 있었던 거리예술 장르의 독자적인 정보와 (국제)교류의 네트워크 허브, DB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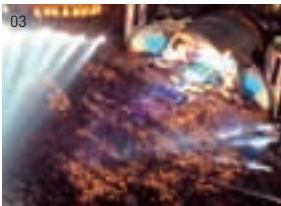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예상 조감도

2003-2007

도시공간의 문화적 발견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태평로, 청계천, 남산 등 서울의 주요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재발견하고 시민들이 문화의 일부분으로 서울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키워드와
사진으로 보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 성과



01 2006 시민 화합 줄다리기
02 2006 태평로 퍼레이드
03 2006 전야제 in 서울광장
04 2007 서울 역사 퍼레이드

2008-2009

주제가 있는 축제 콘텐츠

서울의 궁을 주제로 한 2008-2009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지루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를 축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파시켰다.



01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02 2009 경복궁 세종대왕 이야기 03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현재

거리에서 친근하게 만나는 예술

언어와 소통의 장벽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년버벌 퍼포먼스부터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거리예술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축제를 통해 예술가와 관람객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01 2010 하이서울페스티벌
02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03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통계로 보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 성과

559

2003-2013년 축제 작품 수 누계 (단위:개)

28,850,000

2003-2013년 축제 관람인원 누계 (단위:명)

관람객 단위:만 명	예산 단위:억 원		
60	10	2003	28.2%
160	16	2004	22.8%
202	15	2005	38.7%
130	15	2006	31.8%
445	24	2007	38.2%
1,099 4계절 축제	102 빛축제 17억	2008	38.1%
181	30	2009	31.4%
189	35	2010	38.5%
176	15	2011	
133	29	2012	43.8%
110	16	2013	

2003-2013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람인원 및 예산 현황

서울시민 축제 참여도
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 대상 조사

※ 서울시민 축제 참여도 2005-2012년 조사 결과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대한 참여도 결과이며, 2003-2004년 조사 결과는 하이서울페스티벌 1개 축제에 대한 참여율이다.



서울

축제

공공 공간

스토리텔링

도시공간에 문화가 넘치게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서울거리아티스트

시청사 모뉴먼트

고궁뮤지컬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광장오픈갤러리(홍) 시청사 모뉴먼트(2010.08, 서울도서관(홍) 서울시청사)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2000년대에 이르러 ‘문화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20세기말 양적 팽창만을 거듭했던 세계의 도시들이 창조도시, 압축도시, 녹색도시 등 저마다 새로운 모델을 찾아갈 때 서울은 ‘문화예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 성장과 하드웨어 인프라만으로는 더 이상 도시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문화의 지역 분권화라는 큰 흐름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면서 동시에 지역성을 갖춘 도시로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시기였다. 이것이 2004년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에 주어진 무거운 과제였다. 서울문화재단은 우선 서울이라는 도시공간, 특히 공공이 관장할 수 있는 공간부터 문화로 바꾸어 나갔다.





서울거리아티스트(청계천)



고궁유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2011.09.01-09.21, 경희궁)

지친 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 서울의 ‘공공 공간’을 주 무대로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근무제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서울시민에게 문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었다. 현대 도시 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제가 문화로 변화하는 시기, 서울은 무엇보다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재단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사리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공간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때마침 서울광장(2004.05.01)과 청계천(2005.10.01)이라는 거대한 공공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고, 한반도의 오랜 수도로서 경희궁을 비롯하여 곳곳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이러한 공공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어쩌면 서울이 가진 기존의 도시공간,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할 만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주체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에 재단은 서울광장과 청계천, 서울시청 그리고 경희궁 같은 서울의 ‘공공 공간’을 주 무대로 서울문화예술의 진흥, 서울문화네트워크 허브 마련, 문화행정체계의 효율화와 서울문화의 보존·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문화와 친밀하지 않았던 공공 공간에 하나둘 문화 콘텐츠를 집어넣으면서 서울 시민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서서히 마련한 것이다. 개별 공간의 특성을 살려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기와 형태를 달리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문화 콘텐츠의 창작 주체가 곧 시민이 되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단은 시민과 문화의 간극을 점점 좁혀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써 서울의 문화 정체성 찾기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광장으로

‘서울광장’에서 일상의 여유를

2004년 5월 1일은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과 도로를 개보수해 조성한 13,207m²(3,995평)의 ‘서울광장’이 문을 열면서 시민을 위한 또 하나의 공공 공간이 탄생한 날이다. 서울시 중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서울광장은 고종보호시위,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반대투쟁, 6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겪어낸 공간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위한 ‘교통 광장’으로 존재하면서 역사적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는 상습적인 교통 혼잡 구역들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 지나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구태여 일상생활 중 서울광장을 방문하거나 그곳에서 무언가를 즐기는 것을 상상하는 이는 흔치 않았다. 그러던 중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촉발된 광장문화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집과 소통 공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2년 후 지금의 서울광장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재단은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 아래 2004년 6월부터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그 이름이 암시하듯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도, 세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유명 예술가들을 출연시키는 사업도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나왔다가 서울광장을 지나게 된 주변 직장인들, 주말을 맞아 도심으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경험하게 하자는 순수한 의도가 담긴 사업이었다. 따라서 작지만 알찬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광장 한쪽에 상설 무대를 갖추고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점심시간(12:20~12:50)마다 포크,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마련했다. 그리고 주말 오후(15:00~16:00)에는 라틴아메리카계의 춤과 음악, 퍼레이드 등 흥겨운 볼거리와 행사를 벌였다. 또한 하절기인 7~8월에는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주말 야간으로 시간대를 옮겨 이국적 정취의 재즈·살사 공연과 브라스 및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친숙한 팝과 가요부터 퓨전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무료로 선사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는 서울광장이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 교통 체증이 아닌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공연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민 주도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공모를 통해 전문 예술 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직장인 동아리 등에도 공연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전문 예술 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단체가 함께하는 ‘서울광장 열린축제’를 열어 젊은 예술가들에게 등용문이 되는 동시에 시민 참여 중심의 소규모 축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4년 서울광장 개장과 거의 동시에 출범한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55회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이듬해에는 전년도보다 두 달 앞선 4월부터 11월까지 총 63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음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우수한 공연을 이어 나갔으며, 하절기에는 토요일 저녁마다 역시 주말을 맞아 서울광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했다. 또한 〈하이서울페스티벌〉시민 공모와 연계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 11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지하철 무대 공연자와 신인 공연 단체들 위주로 출연진을 구성해 신진 예술가들이 손쉽게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4월부터 11월까지 총 70회 공연을 목표로 진행된 2006년에는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계, 화합, 젊음, 꿈, 열정, 자연, 전통, 만추 등을 월별 테마로 선정한 것이다. 2007년에는 ‘일상의 여유’ 프로그램으로 41회를 진행했으며, 2007년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재단과, 시문화기관/단체, 자치구 문화단체들까지 함께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으로 보다 확대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의 재단의 노력이 서울시의 서울광장에 대한 문화적 관심 확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첫 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차원으로 재단은 23회 공연을 진행했다. 2008년 서울시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확대된 예산으로 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무대 제작비를 협찬받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확대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의 틀을 잡기 위해 2008년까지는 해당 사업을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한 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했다.

2004-2008년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간	6월-11월	4월-11월	4월-11월	5월-10월	5월, 7-10월
행사명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2005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공연 횟수	55회	63회	70회	64회	62회
출연진	68개 팀	71개 팀	459명	1,108명	1,300명(110팀)
총 관람객	25,000여 명	31,000여 명	21,000여 명 (만족도 89.3%)	26,820명	68,380명



서울거리예술축제 공연(서울도)

거리예술의 낭만이 흐르는 도심 하천으로

‘청계천’에서 시작된 서울거리아티스트

서울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총 길이 10.84km의 거대 하천 ‘청계천’은 서울광장과 더불어 서울의 문화 정체성 찾기에 공헌한 또 하나의 공공 공간이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동구 신답철교로 까지 5.8km에 이르는 구간이 2년 여의 공사 끝에 흙축했던 콘크리트를 벗어던지고 시민을 위한 하천으로 돌아왔다. 22개의 ‘문화의 다리’와 청계광장을 비롯해 광통교 위, 비우당교 아래, 두물다리 부근 등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가진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재단은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에 불어넣을 서울의 문화 콘텐츠로 ‘거리예술’을 택했다. 거리예술은 대규모 시설이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규모 인원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계천이라는 공공 공간에 더없이 적합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가(busker)들이 청계천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05년 〈청계천아티스트〉를 공모하게 된다.

이때 오디션을 종료구 피아노거리(2005.09.23~24)와 청계광장(2006.04.07 ~08)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 역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두 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계천아티스트〉는 27개 팀씩 총 54개 팀, 200여 명의 거리예술가였다. 이들의 공연 장르는 노래, 연주, 극, 무용, 페인팅, 공예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있었으며, 거리 공연이 처음인 아마추어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식 무대 공연이나 거리 공연 경험을 가진 준 프로팀이었다.

재단은 이들에게 활동 인증서를 수여하고 ‘거리’라는 공연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 재단 홈페이지와 홍보 자료로 활동 팀의 프로필과 공연 일정을 공지하고, 소규모 음향 장비 지원, 보험 가입, 자원봉사 안내요원 배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도왔다.

거리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시작한 이 사업은 청계천을 거리예술의 낭만이 흐르는 도심 하천으로 변모시키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2005년의 경우 당초 10월 한 달 운영(주말과 평일 200여 회)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시민들의 청원으로 11월, 12월(주말만 매월 65회)까지 연장됐다. 그리고 2006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주말 공연, 4월 이후는 주말과 평일 공연으로 장기간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의 거리예술가 초청공연(2005년의 경우 5개국 6개 팀)도 있었다. 2007년도에는 78개 팀(362명)이 총 1,617회를 공연했고, 2008년도에는 94개 팀(405명)이 총 3,239회를 공연하는 등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다.





그리고 공연 장소를 점차 청계천에서 서울의 주요 거리로 확대하면서 〈청계천아티스트〉는 〈서울거리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주 무대였던 청계천을 비롯하여 대학로, 서울광장 그리고 서울의 주요 축제 현장 등에서 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지원했다.

재단은 이렇게 서울거리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스타 만들기’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유명해진 서울거리아티스트들은 곧 서울을 홍보하는 민간 예술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거리아티스트에게 보다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홍보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보내는 한편, 방송국 작가와 연출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거리아티스트를 소개했다. 그 결과 2008년 무명의 젊은 거리예술 단체였던 ‘매직플레이’는 SBS 〈스타킹〉에 출연하며 프로그램 사상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9-2011년 〈서울거리아티스트〉 활동 내역

연도	2009	2010	2011
거리아티스트 공연 진행	4,814회(01-12월)	6,631회(01-12월)	7,108회(01-12월)
공개 오디션 개최	121개 팀 선발(04월, 09월)	총 16개 팀 선발(04월)	총 15팀 선발(04월)
하이서울페스티벌 참가	41개 팀 410회(05.02-05.10)	52개 팀 451회(10.02-10.10)	42개 팀 424회(05.05-05.10)
기타 행사 참가	한강레인보우페스티벌 37개 팀 269회(05월-06월)	문화와예술이있는서울광장 14개 팀 28회(06.05-09.04)	서울시창작공간페스티벌 34개 팀 158회(10.01-10.03)
	서울 차 없는 날 행사 29개 팀 76회(09.22)	2010 서울세계등축제 25개 팀 64회(11월)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42개 팀 424회(05.05-05.10)
	서울 디자인 올림픽 42개 팀	제3회 온라인사진공모전 04-10월(31개 수상작품)	제4회 온라인사진공모전 05-10월(27개 수상작품)

청계천 다리와 주위의 문화자원들

다리명	위치	주변
❶ 모전교	무교동 길	서울광장, 덕수궁, 세종문화회관, 한국잡지박물관, 신문박물관, 일민미술관
❷ 광통교	서린동 SK빌딩 앞	서린동 SK빌딩, 서울갤러리, 무교동 낙지골목
❸ 광교	남대문로(광고사거리)	보신각, 광통관, 미문화원 전시실, 공평아트센터, 인사동문화권-명동문화권 연결
❹ 장통교	젊음의 길(관철동)	중구 문화원, YMCA회관, 조흥은행 백년관
❺ 삼일교	삼일로	탑골공원, 명동성당
❻ 수표교	-	-
❼ 관수교	돈화문로(청계3가)	창덕궁, 창경궁, 남산한옥마을, 한국의 집, 백마 갤러리
❽ 세운교	세운상가 앞	세운상가(전자,조명시장), 종묘시민공원
❾ 배오개다리	청계4가	광장재래시장(주단,포목), 목정공원
❿ 새벽다리	방산시장 앞	광장재래시장(주단,포목), 방산재래시장(인쇄,지물)
⓫ 마전교	훈원로(청계5가)	훈원원공원, 한국기독교기념관, 목정공원, 동대문시장, 대학로권 연결
⓬ 나래교	평화시장 앞	의류종합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⓭ 버들다리	통일상가 앞	전통재래시장(평화, 동화, 광의, 덕운시장), 헌책 골목, 중구구민회관
⓮ 오간수교	흥인문로(청계6가)	동대문, 장춘단공원, 동대문운동장, 국립극장, 밀리오테, 두산타워
⓯ 맑은내다리	동평화상가 앞	신발도매상가, 평화시장, 인쇄전문상가, 애완동물 골목, 문구완구 골목, 중고물품 벼룩시장
⓰ 다산교	다산로(청계7가)	동묘, 종로구민회관
⓱ 영도교	영미교길	동묘공원, 종로 문화의 집, 송인공원, 벼룩시장, 종로구민회관
⓲ 황학교	난계로(청계8가)	벼룩시장, 중구구민복지회관, 우산각 어린이공원, 동대문도서관
⓳ 비우당교	새말길	성동청소년회관
⓴ 무학교	무학로(청계9가)	성북천 합류부 터널 분수, 문화센터(예정)
⓵ 두물다리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앞	청계천 문화 전시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세계조각공원(예정)
⓶ 고산자교	고산자로	성동문화원, 군자공원, 용두근린공원, 간더메 공원, 동부청과시장, 서울축산물총판매장, 마장동축산물축제, 서울축산물총판매장, 성동도서관, 청계천버들습지, 답십리고산단제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3,600장을 이용하여 건물에 그물망을 치고 태극기를 덮는 방식으로 한 설치미술



청사초롱 흰색, 검정색, 청색, 적색 청사초롱 13,000개로 태극기를 형상화함(90m x 20m)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5cm 지름의 PET 소재로 만든 무궁화 3만 4천여 송이로 대형 무궁화를 형상화함(100m x 20m)



내 마음의 태극기 담아 투명 PET 소재의 반원구(22cmx11cm, 2만 7천 개)에 태극기(9천 개)를 삽입하여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의 4색으로 구성된 개체로 만들고 이를 조합해 대형 태극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설치미술

2005

행정의 중심지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

광복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서울시청사’

2005년 서울은 ‘광복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기를 맞았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청사’라는 또 하나의 공공 공간을 주목하며 <근대건축물 활용 모뉴먼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시청사 본관을 3천 6백 장의 소형 태극기와 1장의 대형 태극기로 감싸며 도심 속 미술관을 만든 것이다. 2005년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가림막을 사용해 전시물 설치를 시민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비밀리에 진행했다. 이후 출근길에 무심코 전시물을 발견한 시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고, 매스컴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면서 이 프로젝트는 화려한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이듬해 <근대건축물 활용 모뉴먼트 프로젝트>는 <광복절 모뉴먼트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고, 1만 3천 개의 청사초롱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태극기를 연출하는 작품으로 진화하며 서울시민들에게 광복절을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장을 제공했다.

또한 2007년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5cm 지름의 펠트 소재 3만 4천여 송이의 무궁화로 대형 무궁화를 형상화했고, 2008년에는 ‘내 마음의 태극기 담아’를 제목으로 투명 펠트 소재 2만 7천여 개의 반원구에 태극기 9천 개를 삽입하여 4색으로 구성된 개체를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대형 태극기를 형상화했다. 이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기념관에서는 일련번호 1번에서 6번까지의 작품을 보내오기도 했다.

우리 기억 속에 퇴색해가는 광복의 의미를 일깨웠을 뿐 아니라 민족의 자존감을 각인시켰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정 중심지인 서울시청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9년에는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로 다시 한 번 개명하며 3차에 걸쳐 남극이야기, 서울이야기 등 서울광장 유관 기관 행사들과 연계하여 추진했으며, 특히 3차의 경우 2009 서울빛축제와 연계하여 LED 영상을 전시했다. 또 2010년에는 사업명을 <시청사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변경하고, 공모당선작 ‘손에 손 잡은 서울의 소통 2010’을 통해 1천여 명의 시민 사진보드로 손에 손을 잡은 형상을 표현하는 설치 전시를 시도했다.

2005년 광복절을 전후로 열흘간 진행되었던 전시는 매해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전시 기간을 연장했고, 주요 매체에 100여 회 이상 기사화되며 숏한 화제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 종료 후 설치작품으로 활용되었던 태극기와 청사초롱, 무궁화 등의 일부가 시민들에게 기념품으로 돌아갔으며, 공익모금사업을 위해 재활용되거나 천안 소년 교도소, 성동구 노인복지관, 무궁나라 등에서 재설치되기도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최정필 차장은 “이 사업은 우리 기억 속에 퇴색해가는 광복의 의미를 일깨웠을 뿐 아니라 민족의 자존감을 각인시켰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정 중심지인 서울시청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회고한다.

2009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애국가 가사를 활용한 카피와 백두산 천지 및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를 담아 115,000개의 모빌아트를 활용하여 풍향에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살린 설치미술(75m x 25m)

2009



서울사랑 한국전통의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한국의 색채인 오방색으로 표현

2009



희망서울 2010 2010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서울을 둘러싼 북한산맥을 호랑이로 표현하고 그 위로 2010년 희망을 주는 해가 떠올라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2010



손에 손 잡은 서울의 소통 2010 소셜네트워크를 활용, 시민참여 사진 1,000장을 조합하여 서로 손잡은 형상의 이미지로 구성된 대형 설치미술(100m x 25m)

서울만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라

—

고품격 공연 브랜드 〈고궁뮤지컬〉의 탄생, 그리고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로 서울을 가꾸는 매개가 되어주었던 또 하나의 공공 공간은 ‘고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문화재와 문화예술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사례도 있었고, 이러한 사례의 발전가능성과 활용가치는 충분히 고무적으로 보였다. 서울 역시 조선의 역사적 흔적을 도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 공간이 바로 고궁이었다. 고궁을 활용하려는 재단의 첫 시도는 2006년 시작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였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실내악 저변을 넓히기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클래식 실내악 페스티벌이었다. 소위 클래식 음악회라고 하면 어려운 음악, 그리고 비싼 티켓 가격이 먼저 떠오르지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친근하고 편하게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저렴한 가격에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많은 시민들이 클래식 애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고궁 음악회〉였다. 해마다 ‘덕수궁’에서 진행된 가족음악회였는데, 무료로 서울시민에게 개방했다. 고궁의 단아함과 클래식의 우아함이 어우러져 고궁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2012년까지 서울문화재단과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추진하여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덕수궁 음악회(2010.05)

2007년 <화성에서 꿈꾸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정조대왕의 꿈과 사랑을 그린 대형 역사 뮤지컬
2007.05.04 - 05.06 _ 3회 공연
관객수 6,000명(무료공연)
객석점유율 98%

**2007년 <공길전>**

영화 "왕의 남자"로 알려진 '爾'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뮤지컬로 제작
2007.10.12 - 10.17 _ 6회 공연
관객수 8,350명(무료공연)
객석점유율 93%

**2008년 <명성황후>**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최초의 야외 무대 공연
2008.05.04 - 05.13 _ 9회 공연
관객수 13,459명(유료 10,767명)
객석점유율 98%

**2008-2010년 <대장금>**

"대장금"을 새롭게 야외 뮤지컬로 제작
시즌1. 2008.09.05-10.12 _ 32회 공연
관객수 22,147명(유료 11,408명) 객석점유율 86%
시즌2. 2009.05.01-05.24 _ 20회 공연
관객수 15,738명(유료 9,733명) 객석점유율 87%
시즌3. 2010.05.01-05.26 _ 21회 공연
관객수 16,664명(유료 9,733명) 객석점유율 88%

**2011년 <왕세자 실종사건>**

고궁에 적합한 특색있는 신규 레퍼토리 발굴
2011.09.01-09. 21 _ 20회 공연
관객수 13,226명(유료 6,313명)
객석점유율 81%

**2012년 <천상시계>**

'궁'을 소재로 한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멋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 공연
2012.09.05-10.01 _ 22회 공연
관객수 16,429명(유료 3,963명)
객석점유율 86%



기초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2013년부터는 축제의 자생성을 강화하여 조직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06년 덕수궁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시작했던 다음 해, 2007년부터 재단은 경희궁 일대의 고궁을 활용하여 창작 뮤지컬 개발과 공연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품격 공연 브랜드 <고궁뮤지컬>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의 특수한 역사적 자원을 문화공간으로 환원하는 이 사업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꽤 성공적이었다. 공모를 통해 국내 창작 뮤지컬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고궁이라는 공연 공간에 맞게 각색하고 연출하여 공연한 <고궁뮤지컬>은 2007년 봄 공연 <화성에서 꿈꾸다>와 가을 공연 <공길전> 총 9회 무료공연에 13,300여 명(외국인 982명)이 관람하여 92%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보였다.

2007년과 2008년은 4억 원, 14억 원의 예산으로 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했고, 2009년부터는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으로 사업명을 바꿔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했다. 2008년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와 <대장금>은 유료공연임에도 총 41회 공연에 35,606명(외국인 2,272명)이 관람하여 역시 92%의 객석점유율을 보였다. <명성황후> 공연의 경우 티켓 오픈 20일 만에 전회 매진되어 1회 연장 공연했고, <대장금> 공연은 외국인 관광객 및 단체 예약 요청으로 10회 연장 공연했다.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시민만족도 및 현장평가에서 봄공연 <명성황후>는 시민만족도 1위, 현장평가단 평가 2위를 차지했고, 가을공연 <대장금>은 시민만족도와 현장평가단 평가로 이루어진 종합평가에서 8개 평가사업 중 1등을 차지했다. 또한 2013년 서울문화재단 인지도 조사 결과 77%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서울문화재단 사업 중 4위)

2009~2012년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사업의 예산은 2009년 9억 5,000만 원, 2010년 5억 5,000만 원, 2011년 5억 8,200만 원, 2012년 4억 8,000만 원이다.

공공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가져오는 문제

문화사업 확장기 이면의 어려움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사업팀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사업 등을 담당했던 이규승 홍보팀장은 “공공 공간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업들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인지도를 제고했다.”고 말하며 이 사업들이 활발했던 2000년대 후반을 가리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장한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재단은 서울광장, 청계천, 서울시청사, 경희궁 등 기존에 예술활동이 미치지 않던 공공 공간을 시민과 문화의 접점으로 바꾸어 나갔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서울의 지역성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들은 이제 그곳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공공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가져오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들을 당시 사업 담당자들의 소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지연 설립 초기 〈제11회 서울시민의 날 기념 공연〉, 〈서울숲 개원 기념 KBS 열린음악회〉 등 서울시의 단일성 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내부 고민이 많았다. 외부에서는 서울시 하수 기관이나 비판도 있었다. 그러던 중 전문성을 발휘하며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바로 서울광장과 청계천 개장이다. 이후 두 공공 공간에 문화를 채우고, 광복 60주년을 맞은 서울시청사를 활용해 공공 미술을 시도했으며, 고궁을 문화재에서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

조동희 2010년 정도까지 이 사업들을 통해 고궁이나 시청 등 민간이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공 공간이 슬슬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확하진 않지만 사업 대상이 관광객에서 시민으로 바뀌는 시기도 이때였던 것 같다.

이규승 공공 공간이라는 사업 배경이 가끔은 분쟁을 만들기도 했다. 청계천에서 거리 공연을 하자 그곳에 휴식을 취하러 왔던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거리 공연이다 보니 더 세계 자극적으로 음악을 트는 경우도 생기고, 공연 공간을 조금만 넓히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공 공간에서 벌이는 사업들은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한지연 〈청계천미술제〉 첫 해에는 미술작품을 야외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 시민들에게도 야외 전시 관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고, 그러다보니 전시 기간에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미술작품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표식을 설치하기도 했다. 불특정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야외 공간에서의 전시를 시도하는 과정은 소소한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학습하고 함께 어울려가는 발판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고궁’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궁 자체가 문화재라는 점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활용 양측면으로 의견 충돌이 분분했었다. 그렇기에 고궁에서의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조율이 중요했다. 공공 공간에서의 많은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재단은 여러 가치가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조율 면에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정필 모뉴먼트 프로젝트는 태극기를 소재로 하다 보니 왜 국기를 훼손하느냐며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왔다. 2009년에는 국가보훈처 등에서 추천을 받아 태극기와 33명의 독립운동가를 함께 넣었을 때는 특정인을 가리켜 왜 넣었느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정일한 공공 공간에 문화를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을 거다. 서울광장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고궁은 우리처럼 활용하려는 입장과 달리 보존에 치중하고 싶은 입장도 있다. 공공 공간에 문화를 채우는 게 재단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기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정말 공공 공간이다 보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꽤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하지 말라’는 제약뿐이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이규승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법적으로 선점하고 보장받은 후였다면 괜찮았겠지만, 공공 공간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종종 그런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특정 집회로 개막식을 못하게 되면서 시민단체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 적도 있었다.

조동희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극장이나 전시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곳들은 백색이다.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다.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런 상태일 것 같다. 그런데 공공 공간은 기존에 너무 많은 색깔이 칠해져 있다. 서울광장은 정치, 사회, 역사, 경제가 밀집한 곳이다. 거기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예술가들은 그런 사회의 각종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와 지속적인 타협을 해야 하고, 날씨 등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한 조율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한다.

한지연 문화체육팀장, 2006-2013 문화사업 담당 및 문화사업팀장, 시민문화팀장

조동희 축제기획팀장, 2010- 현재

이규승 홍보팀장, 2007-2012 문화사업팀

최정필 시민청운영TFT 차장, 2008-2010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 담당

정일한 시민청운영TFT 매니저, 2004-2012 고궁뮤지컬,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담당



서울

축제

공공 공간

스토리텔링

서울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대형 버스가 사람들을 가득 싣고 달린다. 그러다 멈춰선 곳은 어느 지역의 작은 골목 앞. 아담하니 낮은 집들이 지붕을 맞대고 선 옛 골목이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은 아닌 것 같다. 말씨를 들어보니 외국 관광객들도 아니다. 이것은 어느덧 유행이 되어버린 문화예술 투어 버스의 풍경이다. 이제는 자연경관 투어만큼이나 선호하게 된 문화예술 명소 투어!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문화는 내 친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서울문화재단의 문화탐방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서울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순례였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역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새우젓 배가 들어오던 마포나루터에서 빨래를 삶았던 1950년대부터 광화문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던 2002년까지,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서울의 또 다른 역사가 숨 쉬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기록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 할 때다.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소소한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서울의 이야기를.



이야기의 힘에 주목하다

서울, 새로운 이야기의 원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치고 이야기가 없는 곳은 없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접하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때로는 그 이야기 자체에 매료되어 새로운 세상을 엿보게 되기도 한다. 동화나 설화와 같은 옛 이야기를 통해서나, 끊임없이 변주되어 반복되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다못해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좋은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본 프로그램의 여운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는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안다. 한 살 한 살, 착실히 나이는 늘지만 이렇다고 저절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각과 지혜는 결코 나이처럼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번에 이러한 성찰을 이룰 수도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삶의 성숙을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공부는 노동과 스트레스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일상에서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이다. 이야기의 힘은 여기서 발휘된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일상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눈과 귀를 열어놓는 것인지도 모른다. 삶을 운택하게 해줄 좋은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평생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이 숙명을 직감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서 옥석을 구분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삶을 운택하게 하는 이야기의 원천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의 콘텐츠화를 위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구축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이야기 원천의 대상을 서울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풀어나간 것이나, 시민의 기억을 통해 서울과 시민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은 이야기의 원천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개시켜 나간 셈이 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놓고 콘텐츠화의 잠재성을 가늠해 이야기를 수집하거나 소재나 내용을 분석해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재단의 스토리 관련 사업은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않은, 파편화된 조각을 엮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웰빙이나 걷기 열풍 등의 문화적 소비 트렌드가 결합된 문화관광형 프로그램으로써의 기능과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재단의 중요한 미션이지만, 그야말로 ‘스토리’ 자체만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의 프로젝트는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여타의 사업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일찌감치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해 온 재단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적 의미로 미래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서울을 매개로 현재적 의미를 발견함과 동시에 잠재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스토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파트너는 바로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민, 서울 여행을 떠나다

문화를 찾아, 서울을 찾아

“서울시민은 어디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종로, 강남, 홍대 앞 등 서울 시내 곳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포화되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하지 못한 채 자리하고 있었기에 서울문화재단은 2007년, 서울이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탐방’해 보자는 취지로 <문화는 내 친구>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시민 문화충전 프로젝트, 행복한 문화충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가족, 마니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별도 구성하며 총 83회의 탐방 코스를 진행한 2007년 <문화는 내 친구>는 매 코스 30여 명, 총 3,3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그리고 이듬해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 탐방 및 발굴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했다. 또한 서울 시내 미술관, 아틀리에, 박물관, 근대건축,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명소 탐방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해설을 더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통해 서울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즉, 이야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서울의 문화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명소에서 시작된 탐방은 점차 서울의 숨은 공간을 찾아가게 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의 재발견과도 연결이 된다. 공간을 매개로 새로 구성된 이야기는 일상에서 놓쳐버린 장소를 복원시키고 그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와 시민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서울의 이야기와 문화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문턱으로 본 서울, 미술로 보는 서울, 박물관으로 보는 서울, 건축물로 보는 서울 등 서울을 바라보는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재단이 단독으로 주최하기보다 PD협회, 박물관협회, 건축가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형 사업모델을 구축해 나갔다.



서울문화예술탐방(낙산공공미술 탐방)(2008, 이화마을)

서울문화예술탐방(미술관)(2009)

서울시민, 서울을 재발견하다

이야기로 엮어낸 새로운 문화지도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의 특이점은, 시민들을 문화 명소로 이끈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시민들과 향유 기회를 나누고자 시민 각자가 서울 문화예술 탐방가가 되어 탐방 장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곳이 가진 문화적 콘텐츠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의 곳곳에 산재된 문화예술 명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시민 탐방가들의 입소문을 탄 명소들이 더 많은 시민에게 공유됨으로써 서울의 전체적인 문화적 가치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탐방가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았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지금의 서울광장에서 재단 버스에 오르는 것으로 가능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활용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부들, 은퇴 후 삶의 여유를 만끽하며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노인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휴가를 내면서까지 참가하는 직장인들 등 다양한 시민들이 시민 탐방가가 되곤 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가까이 즐기며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과 더 가까워지며 자신만의 취향을 개발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은 그에 대한 잦은 노출과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기에 재단은 이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적인 시민 고객들에게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이야기를 통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고, 또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켜 나갔다.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를 발굴하여 서울의 문화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광지향적 목적 또한 더욱 강화한 2008년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114회의 코스에 3,450여 명의 시민들이 탐방단으로 참가했다. 요일별로, 주별로 미술, 건축, 박물관, 문화유산 등 분야별 테마를 정해 놓고 시행했으며,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탐방지 홍보 책자를 20여 개의 미술관, 박물관에서 배포했다.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넷째 주 일요일에 매월 15회씩 진행한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서울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미술관을 방문하고, 서울 시내에 자리 잡은 공공 미술작품을 되돌아보게 했다. 쉽게 찾아가기 힘든 작가의 아틀리에를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창작의 산실인 대학 캠퍼스를 새로운 각도로 탐방했다. 근대건축물과 전통문화 관련 명소, 문학인들의 옛 자취를 탐방하며 선인들의 흔적을 보고 그들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게도 해주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서울 탐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메카 홍대 앞과 대학로 구석구석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보다 많은 문화예술 명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직접 발굴한 문화예술 명소들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누렸다.

나이가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개발되었던 탐방 코스를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이드 없이도 스스로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따라잡기 - 오늘 어디 갈까?(Explore Seoul in a day)’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총 201회의 탐방에서 31개 코스를 추려 종로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서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 외에 ‘서울을 걷다’ 시리즈는 단행본으로 출간됐는데,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는 문학작품 속에 등장한 서울의 곳곳을 지나는 12개의

문학산책 코스를 소개한다.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는 서울의 의미 있는 건축물 312채를 32개의 최적의 코스로 소개했으며,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저자(임석재)가 상세 지도를 직접 그려 넣었다. 이후에는 숨어있는 문화적 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소개하는 〈서울문화예술탐방 공모전〉도 시행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코스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연극과 함께 하는 역사탐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설해 단순히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짧은 연극으로 보고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탐방을 새롭게 진행했다. 이는 공간 중심의 탐방에서 스토리 중심의 탐방으로 전환·확대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단순히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 상상함으로써 탐방의 가능성과 영역이 확장될 수 있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의 이러한 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재단의 다른 사업들, 서울연극센터의 ‘대학로 연극투어’, 〈문화이용권〉 사업의 문화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등으로 이어졌고, 그 시도의 지향은 2013년 기억, 이야기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되는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됐다.



서울문화예술탐방(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2009, 경복궁)

역사가 되는 목소리, 예술이 되는 스토리

— 서울의 기억,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가 숨어 있던 서울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사업이었다면, 알려지지 않은 혹은 지나치기 쉬웠던 서울시민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사업도 있다. 2013년 시작된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민들의 미시적 기억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중심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서울의 발전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냈던 기억을 역사로 재발견하는 프로젝트이다. 서울에서의 일상적 삶의 기억과 이야기에 대해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소통과 공감의 유대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기억들을 목소리로 기록하고, 함께 들으며 공감하는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동시대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록되는 서울의 역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지혜의 보고가 될 것이며,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재현되는 서울 사람들의 다양한 기억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즐겁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당신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서울의 역사가 됩니다”라고 쓰인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의 카피 문구는 이 프로젝트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드러낸다.

“예전에 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를 테면 “이 소리는 농부가 밭을 갈 때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 이런 식으로 현장의 소리 혹은 농부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역사 책 속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그야말로 날 것의 역사를 전해주는 방송사 캠페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미시적인 것이지만 미처 몰랐던 과거를, 역사를 생생한 기억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는 사람(人)이 기억하고 있는 서울 안(in)의 기억을 꺼내어 보는 프로젝트다. 굉장히 미시적인 기억이고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맥락, 그 흔적을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을 수집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서 공유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억수집가’다.” **한지연** 문화재휴팀장, 2009 - 2013 문화사업팀장, 시민문화팀장

이처럼 기억수집가는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 속에서 서울의 역사를 끌어내어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 기억수집가가 되기 위해 10주간 구술채록의 기초, 인터뷰 노하우, 서울의 근현대사 등을 포함한 소양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1기가 총 25명이며, 이 중 2년 연속으로 활동을 이어간 12명과 새롭게 선발한 2기를 합해 2014년에는 총 37명이 활동했다.

기억수집가들은 기억을 제공할 시민들을 직접 발굴해 녹음장비를 들고 그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도서관 1층 메모리스튜디오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기억제공자들을 만난다. 지난해에는 캠핑카를 제조한 ‘메모리버스’를 타고 공원 등을 다니며 현장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수집한 기억들을 음원으로 만들어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에서는 편집을 통해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sfac.or.kr/memoryinseoul>)를 기반으로 서울시민과 공유하는 형태다.

활동연도별 기억수집가

2013년	강시내, 고은애, 고한솔, 권영은, 권윤정, 김민주, 김이글, 김예슬, 김인욱, 김정영, 김한울, 노성주, 류진아, 박선희, 박진옥, 박하연, 박현숙, 심가연, 우윤정, 윤순영, 이상남, 전지나, 조영남, 최은영, 홍세미
2014년	고바아시유, 고한솔, 권정희, 권효진, 김기향, 김마나, 김신미, 김예슬, 김이글, 김인욱, 김정영, 김지현, 김초롱, 류진아, 박나래, 박진옥, 박현숙, 손현경, 안지숙, 우윤정, 원노해, 윤순영, 윤푸빛, 이명숙, 이명준, 이택연, 이태영, 정숙영, 정은주, 정현지, 정희성, 조영남, 차해영, 최은영, 최중매, 홍선희, 홍세미

살아있는 서울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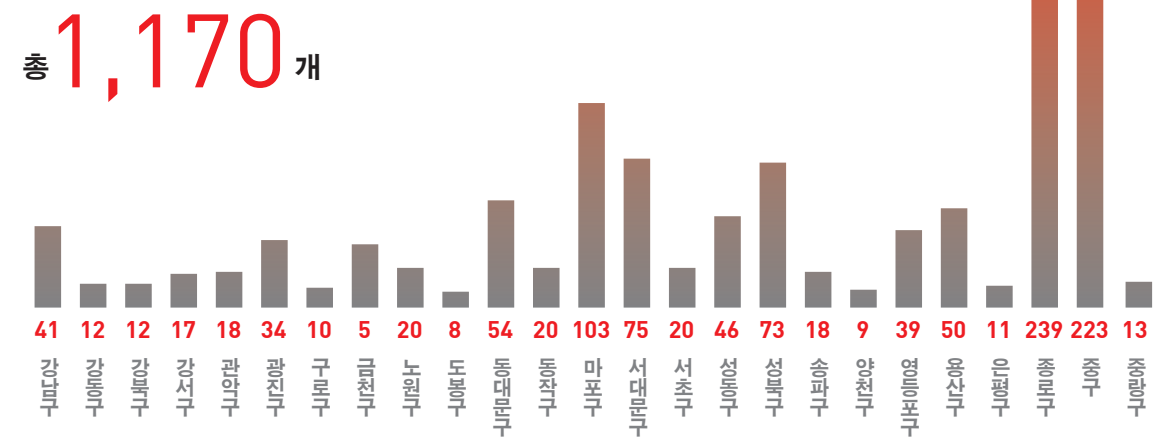
시민들의 기억으로 서울의 역사를 쓰다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향시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다. 기억수집가들은 1년 동안 꾸준히 시민들을 찾아가 서울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한다. 서울도서관에는 메모리스튜디오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녹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프로그램”으로는 서울 곳곳으로 이동식 스튜디오를 보내거나, 삼풍백화점, 월드컵 등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이와 관련한 기억을 집중 수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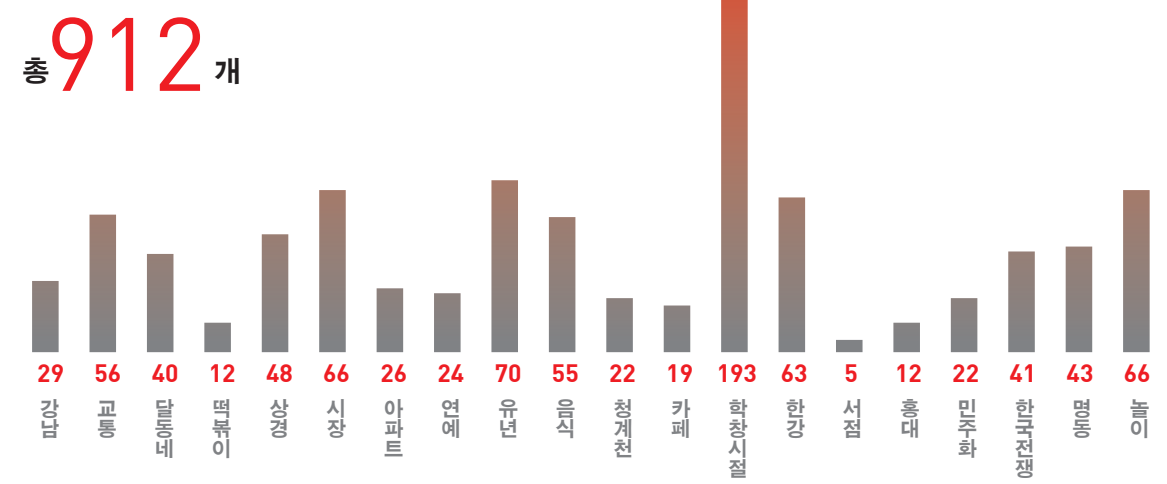
2014년에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큰 주제 하에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는 201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를 맞아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을 선정했고, 두 번째로는 시장, 봉재, 동대문운동장 등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추억이 녹아있는 ‘서울의 추억, 동대문’을 선정했다. 세 번째로는 서울의 환희로 기억되는 2002 월드컵을 선정했고 각 주제별로 COP를 꾸려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집중적으로 기억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삼풍백화점 주제의 경우 당시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건을 기억하는 핵심 인물을 섭외하기 위해 5명의 기억수집가들이 TF팀을 꾸려 1995년 당시 구조대, 의사, 검사, 유가족, 생존자들을 발굴하여 기억을 수집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재단으로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각자의 기억에 대해 구술해주고 있다.



지역별 수집 기억



주제별 수집 기억



기억수집가들이 시민들이 기억하는 서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한편, 재단은 수집된 기억들을 편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2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를 3~5분 정도의 음원 콘텐츠로 편집하고 이를 다시 20개 주제,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듣기 편리하도록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홈페이지(www.sfac.or.kr/memoryinseoul)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재단은 또한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콘텐츠 원형으로서, 다양한 연계 콘텐츠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김광성 작가의 삽화, 이지우 작가의 웹툰이 탄생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2차 콘텐츠 활용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기부, 자료 공유, 섭외 제공, 업무 협력, 재능 기부, 제휴 협력 등 다양한 외부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길 위의 기억, 총무로’가 MBC ‘다큐 프라임’에 방영되는 등 언론의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들, 기업수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기억제공자로서 서울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보면 각양각색의 에피소드가 벌어진다. 그러나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너무 많이 변해버린 서울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렇다고 서울의 변화를 저지할 순 없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시각각 살아 움직이는 서울의 모습을 오래도록 공유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하는 일일지 모른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이야기를 간직한 도시, 서울

서울의 이야기는 적어도 이 도시를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그 가치를 놓치기 쉬운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주위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적 장소를 눈여겨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이고 들리는 서울의 이야기 속에서 삶을 풍성하게 해줄 보석과 같은 서울의 그곳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을 매개로 하는 이야기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서울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기억이 마르지 않는 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웹툰 “Drive in Seoul”(이지우 작)

서울문화예술탐방 ‘서울을 걷다’ 시리즈 도서

2010년까지 총 346회 서울문화예술탐방의 경험은 ‘서울을 걷다’ 시리즈 도서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2009년에는 한국 근대문학에 등장하는 주요 배경이 된 서울의 곳곳과 그곳에 스민 이야기를 묶어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이상, 박태원, 박완서, 이인직 등 작가의 9개 문학작품과 연계된 12곳의 서울 산책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를 총 2권으로 발간했는데, 경복궁 등의 역사유적부터 무역센터 등의 현대 건축물까지 312개의 건축물을 통해 서울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아냈다. ‘서울을 걷다’ 시리즈는 서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학, 건축지도이자 산책 코스 안내서로도 가능하고 있다.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모아진 서울의, 시민의 기억들은 서울도서관 메모리스튜디오 청취부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1,000여 개의 에피소드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는 시민과 예술가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억 도서관이자 아카이브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김광성 작가의 삽화, 이지우 작가의 웹툰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가들의 2차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를 공유하다

문화로
행복한
시민과 공동체

-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졸업축제(201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교육수업(2013)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적체험 예술교육 •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 삶 속에 살아있는 문화, 문화로 행복한 삶

•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를 공유하다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거리 Make-up 하기〉(2014, 서촌)



청소년 창의예술교육사업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예술미를 가꾸기, 노인정 경계석 모자이크(2010, 청파동)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상상잠수함 속 상상여행〉(2010)



교과연계 어린이 창의예술수업 〈예술로 플러스〉(2013)



서울댄스프로젝트-춤비람 커뮤니티(2013)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미술 오디션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문화

창의예술교육

일상공간

시민문화사업

문화복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적체험 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토요미술 상설연행)(2008)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은 예술교육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 가지 축으로 수행되고 있다. 예술가교사(TA) 양성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첫 번째 축이라면,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등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이 두 번째 축이다.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일상 생활 곳곳에서 스스로 예술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교육의 방향과 비전이다.



또 다른 형태의 예술

예술교육에 대한 시선 변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무렵이다. 1990년대까지는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계발과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펼쳐진 예술을 가서 보고, 체험하고, 향유하는 관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많은 예술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가를 문화예술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외시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은 2000년대 초반 '예술교과목위원회'의 출발에서 시작된다.

당시 민간에서 예술가들의 복지 차원으로 진행하던 '예술강사제도'를 교육의 일환으로 체계화시키고, 초등학교에 교과목을 신설했으며, 예술에 대한 인식이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계층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의 변화 시기에 맞춰 이것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그것이 초기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관심이 대두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문화가 국력'이라는 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을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힘이 실렸고, 2004년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예술행위로 자리하게 된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국내 문화예술교육은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학교, 사회문화시설, 예술가교사 양성 등 전방위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2004년 재단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예술교육사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작한 예술교육사업은 2007년 6월 전담부서(문화교육팀)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추진되기 시작한다. (2006년 1월에도 문화교육팀이 신설된 적이 있었으나, 6월 조직개편 시 타부서와 통합됐다. 2007년 6월 조직개편시 설립된 문화교육팀, 이후 문화교육센터, 예술교육팀 등으로 이어져 오며 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다.)

“2004년 〈청소년 문화벤처단〉이라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시작한 게 최초의 예술교육사업이었다. 2006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생기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 분야가 생기면서 재단에서도 예술교육은 중요한 사업영역이 되었고,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이전까지는 재단 역시 전체 시장에 맞춰 이것저것을 실험해 보는 단계였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체계를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던 시점이었다. 2010년 막상 예술교육팀으로 와서 보니, TA(Teaching Artist), 어린이TA 등 개념 자체가 낯설고 어려웠다. 용어 정리와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미적체험과 통합예술교육의 개념 정의, TA의 역량체계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에서 재단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것 같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도 예전에 복지 차원에서 하던 것들을 정규 교과와 연결해서 진행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보다 앞서 준비를 해서 적시에 제공을 하니까 예상보다 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학교의 관심도가 높았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도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던 것에서 정규 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어린이 사업도 교과 연계 사업을 비교과 지원사업보다 비중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게 됐다. 내부에서만 하던 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담론이 만들어지고, 소통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뿌려지는 데 반해 재단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주는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임미혜 예술교육팀장, 2010-2014



청소년 비전 Arts-Tree(2010)

특화된 예술교육을 위한 기반

재단에서 최초로 시행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TA) 양성사업

2007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그리고 서울시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교육사업의 규모는 보다 증가한다. 하지만 위탁사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단만의 특화된 사업에 대한 갈증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고, 이내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가 시작된다.

“초반에 위탁사업을 위주로 하는 상황에서 예술교육팀 멤버들이 갈증을 많이 느꼈다. 말하자면 재단이 선두에 서서 예술교육에 대한 획을 그어야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거다. 엔터테인먼트로 접근하는 재미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예술적인 것을 가치라는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생각하였다.처음 고유사업을 시작한 것이 ‘방과 후 돌봄 교실’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아이들을 예술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공간적 한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전에는 교육 과정이 스킬 베이스, 즉 기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재단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예술교육은 가치, 체험, 미적경험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인력 양성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예술교육과 전문가 양성, 이 두 가지 트랙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지연 現문화체육팀장, 2005 청소년예술교육(청소년문화센터) 담당, 2008년 TA양성 과정(TA Arts-Tree) 담당

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교육으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깨우치는 학교, 움직이며 배우는 재미난 수업, 신나고 즐거운 학습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로 돌봄〉, 〈예술로 플러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등이 있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지성, 인성, 감성 발달을 위한 체험·과정·놀이중심 초등돌봄교실 〈예술로 돌봄〉, 서울문화재단 TA와 현직교사들이 함께 개발한 교재를 통한 사회교과 연계 창의예술수업 〈예술로 플러스〉, 초등학교 교과내용을 연극적 상상력과 예술적 효과를 더한 창의적 체험공연인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운영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극, 영상/미디어,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통합된 예술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운영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발견하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방문했던 링컨센터의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교육자(예술강사)가 강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 작품이나 예술적인 부분까지 깊게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즉 TA(Teaching Artist)제도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후 2009년 링컨센터는 재단의 지속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마음을 열고 아시아 최초로 재단과 협력기관 MOU를 맺게 되는데, 이는 시대적인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재단이 선포한 성공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2009년에 재단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그 때부터 재단만의 독특한 철학과 방식을 가진 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능과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능이 재단에 공존하게 된다. 서울문화재단만의 특화된 예술교육사업들이 발전되고 고도화되고 정비되는 와중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이관사업들도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2012년에는 예술교육팀 안에 있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분리되는 시기가 찾아왔다. 재단의 전체적인 예술교육사업 구조를 볼 때,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위탁사업을 지역과 밀착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서울형 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위탁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는 중앙정부, 지역, 자치구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예술교육가 등 교육 현장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예술교육정보자료관 및 예술교육 관련 시민 정보서비스 지원, 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프로그램, 지역 문화자원 활용 지원 등 다양한 특화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재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총괄매니저, 2013-2014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이란?

Q1 ‘미적체험’이란?

A1 진지하고 심오한 감동을 주는 어떤 대상, 즉 예술작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감응하는 동시에 이것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상태이다.

Q2 ‘통합예술’이란?

A2 다양한 예술언어에의 노출,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한 표현, 정규 교과와의 연계, 종합 예술작품의 특정한 장르나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Q3 ‘미적체험’ 및 ‘통합예술’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A3 통합예술교육은 관련 예술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감각적 경험을 일깨우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각 예술언어들 간의 차이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자연스럽게 미적체험을 더 독려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이점을 지닌다. 즉, 통합예술교육은 학습자의 예술적 기량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과 의미 구성력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강력한 교육 원리가 될 수 있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

TA 양성사업의 전개과정 그리고 성과

재단의 예술교육사업에 도입된 TA(Teaching Artist)제도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며,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고유사업, 위탁사업을 막론하고 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술교육사업 전반의 중심에는 바로 TA가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재단의 TA 제도는 국내 문화예술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TA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부 전문 인력을 꾸렸다. 교육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철학, 예술분야, 교육설계를 조언받고 연구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면서 개선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좌충우돌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던 것 같다. 그 후에 임미혜 팀장이 오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됐던 노하우들이 예술교육총서,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되면서 외부에 대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미진** 現기획조정팀 차장, 2009~2011 예술교육사업 담당

“2011년까지는 미적체험이라는 철학적 지향점과 통합예술교육이라는 방법론적인 지향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였다. 그래서 어떻게 재단만의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계속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매년 어린이 사업들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다. 체계도 정비됐다. 2008년부터 교수급의 경력을 갖춘 ‘MTA’ 마스터(Master) TA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TA 중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 운영한 ‘CTA’ 코칭(Coaching) TA가 TA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왔다. 2012년에는 ‘PTA’ 프로그램(Program) TA라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특화된 연구 TA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단 직원들과 어린이 TA들이 재단의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미적체험교육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현지 예술교육팀, 2012~2014 어린이창의예술교육 담당

“초등돌봄교실 <예술로 돌봄>을 처음 진행했을 때는 학교 방과 후 어린이집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을 교과 연계로 만들어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했고, 그게 발전해서 2년 정도 ‘즐거운 생활’ 수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1년에 PTA 분들과 학교 교사들이 함께 국어교과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2년에 3학년 사회교과에 또 적용을 해보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다른 수업에 적용하면서 발전을 해왔다.” **박연희** 축제기획팀, 2010~2012 어린이창의예술교육 담당

“특히 어린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 <예술로 돌봄>이나,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교과 연계 창의예술교육사업 <예술로 플러스> 모두 TA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사업이다. 정말 자랑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현지** 예술교육팀, 2012~2014 어린이창의예술교육 담당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를 효제초등학교에서 진행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사업에 대한 학교 측의 인지도가 낮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남산창작센터에서 12월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MTA나 TA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기심 예술학교를 진행했다면, 2012년부터는 외부 예술감독과 연출가를 영입하고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과 같은 시설이 좋은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연희 축제기획팀, 2010~2012 어린이창의예술교육 담당

“지금도 과연 우리 사업의 핵심이 TA 양성일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작게는 예술지원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재단 전체에서 TA라는 사람들의 재교육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인가, 새롭게 예술교육 인력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볼 것인가, 혹은 예술가들이 창작 작업과 연계해서 다시 실험해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인가. 확실히 무엇이라고 말 하긴 어렵지만, TA든 예술강사든 실제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형성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임미혜** 예술교육팀장

서울문화재단 발간 예술교육총서



예술교육총서 1권 『블루 기타 변주곡』

故 맥신그린 박사의 링컨예술교육원의 강의 내용 수록. 윌리스 스티븐스의 <블루기타를 지닌 사람>을 비롯하여 문학, 미술, 무용, 연극, 음악 등이 풍부한 예술작품들을 제시하며 진행하는 그녀의 강의는 교사들이 먼저 심미적 체험을 통해 깨어나고 스스로를 개방한 후 학생들을 인도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예술교육총서 2권 『미적체험과 예술교육』

예술가교사(TA Teaching Artist) 양성을 위해 2012~2013년까지 재단에서 진행한 ‘창의예술교육 입문과정’ 현장의 생생한 기록으로, 학습자의 관점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각 예술장르의 기본언어와 미적요소를 탐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 2015년에는 유럽예술교육 탐방 도서 “예술이 교육이다”가 발간될 예정이다.

위탁사업도 서울형 예술교육사업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위탁되는 사업도 재단의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이라는 큰 전략 틀 속에 녹아서 전개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교예술강사지원〉,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교육팀에서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이라는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인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과 서울시 위탁사업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소외계층, 사회취약계층에 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은 지역 이관에 따라 2007년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재단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2007년 조사연구를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노인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재단이 특화시킨 또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른 기관의 노인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노인문화예술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 같이 참여하게 하면서 세대통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 분들이 예술교육을 받은 것을 이용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장치를 마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운 것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같은 곳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세대통합적인 방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유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0-2011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담당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작했다. 사실,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국을 관리하다가 2010년부터 재단에서 서울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혼란도 많았다. 2010년 이관된 사항은 학교에 배치된 강사가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지,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에 대해 관리하는 일과 강의료 지급 정도였다. 2011년에는 직접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신규 강사 선발 및 500여 명이 넘는 강사에 대한 학교 배치를 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는 예술강사는 물론 학교 운영 관계자까지 지원의 폭을 넓혀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사례 공유 등의 정보 지원을 수행했다. 2014년에는 예술강사의 교육활동과 학교 협조도 등에 대한 평가까지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이런 과정 속에서 초반의 혼란스웠던 점이 많이 개선되며, 강사들 스스로도 소속감이 강해졌다. 또 재단에서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며,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원희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1-2014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학교예술강사지원 담당

01. 공교육 연계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학생 **55,456**명 대상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연계 예술교육	2006-2014(9년간)	1,989 학교	41,339명
초등학교 정규교과 연계 예술교육	2009-2014(6년간)	309 학급	8,042명
청소년 중고등학교 창의예술교육	2007-2014(8년간)	165개 학급 및 동아리	5,027명

학교예술강사 **2,566**명 파견

학교예술강사 지원	2010-2014(5년간)	2,566명 강사 운영	2,731 학교
-----------	----------------	--------------	----------

공연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등	2007-2014	178회	6,640명
-------------------	-----------	------	--------

02. 창의시민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

시민 **17,534**명 대상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2007-2014(8년간)	183건	5,050명
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교육 지원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2007-2014(8년간)	214건	6,087명
토요문화학교	2012-2014(3년간)		6,397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06 32건 지원)

03. 예술가교사 양성

예술가교사 **900**여명 양성

예술가교사(TA) 양성 과정	2007-2014(8년간)	900명 양성교육 참가
-----------------	----------------	--------------

예술가교사 **341**명 대상 연수

링크센터 예술교육원 해외연수	2005-2011(7년간)	37명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2010-2013(4년간)	304명

문화매개자 **4,165**명 연수

문화매개자(교사, 공무원 등) 교육	2007-2014(8년간)	4,165명 창의예술연수
---------------------	----------------	---------------

도구로 쓸 것인가, 가치로 바라볼 것인가

예술교육의 지향점

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이유는 예술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예술교육 또는 예술체험은 그것을 통해 다른 활동을 보다 재미있게,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여겨져 왔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기 가능 위주의 교육을 넘어 스스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때에도 역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예술교육이 관심받고 중요성을 인정받는 시대적 요인 중에는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궁무진한 영역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가치와 목적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며,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재단은 그 지점에서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예술교육을 그 자체의 예술행위로써 본 것이지, 다른 것을 재미있게 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통합’이라는 말은 위험한 말일 수 있다. 그 용어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정체성과 그 가치가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용어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통합’교육보다는 ‘통섭’교육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야채와 고기가 있고, 달걀이 있고, 오이가 있고, 당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각각의 재료가 따로따로 있다가 고추장과 밥이 함께 들어가면 비빔밥이라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통섭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적인 장르와 영역을 강조하던 예술교육에서 나아가 각각의 예술적 요소가 만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 앞서 이야기되었던 호기심 예술학교가 그러한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적인 요소, 연극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 등 다양한 콘텐츠 요소가 한군데 모여서 버무려지는 예술을 지향하고 그 안에서 예술적 체험과 교육적 체험, 그리고 그 가치를 얻어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지연 現문화체육팀장, 2005 청소년예술교육(청소년문화센터) 담당, 2008년 TA양성 과정(TA Arts-Tree) 담당



문화매개자 창의예술연수

“학교교육 교과과정의 수단으로 예술교육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데, 그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같다. 어린이 예술교육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장르별 교육보다는 교과와 연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녹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청소년 예술교육은 또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과 예술 분야에 따른 맞춤형 접근 방식으로 장르별 예술단체가 학교로 들어가 예술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현지 예술교육팀, 2012-2014 어린이창의예술교육 담당

“청소년 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등학교 예술동아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전체 프로젝트 마스터(PM)로 위촉해 PM의 교육방향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가르쳐주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학생 동아리 중심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나 예술가들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구조를 대폭 개선하게 된다. 문화예술 동아리가 아닌 일반 학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강사 1명이 아닌 예술가 그룹이 학교에 파견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 전에는 예술교육의 특화된, 특별하게 관심 있거나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었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학교생활 속에서 일상적 교육과정 시간 내에서 보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장재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총괄매니저, 2013-2014

“사실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이다. 유아교육은 모두 통합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과목별로 갈라지면서 분리가 된다. 어떤 부분에서 재단의 예술교육 역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사고하는 방식의 교육을 마련한 측면도 있다.”

최원희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1-2014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학교예술강사지원 담당



서울미적체험워크숍(2014)

삶의 매순간 필요한 것

예술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

국내 문화예술교육은 이제 막 발전된 형태의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5년 사이 재단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지, 예술교육 인력은 어떤 관점과 인식을 갖고 일해야 하는지, 그것을 실현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끝없는 고민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다.

국가적으로도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긍정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산도 증액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공간과 영역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조성에 덧붙여 이것을 지원하는 기관, 실행하는 전문 인력, 그리고 실제 교육에 참가하는 대상 등 모든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조우하는가가 이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절대 요소가 된다. 한 축이라도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 예술교육사업은 정상적으로 발걸음을 뚝 수 없는 구조인, 그야말로 쉽지 않은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재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불모지에서 하나둘 싹을 틔운 예술교육의 씨앗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전문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부터 예술교육의 철학,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선도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온 현재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현재, 일상으로 침투하는 예술, 아니, 일상에서 발견하는 예술을 지향하고자 하는 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각오하면서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 역시 시행착오였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피한 것 같다. 시행착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생략해버릴 수는 없는 것 같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핀란드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받은 느낌은 그들이 하는 예술교육은 정말 소박했다는 거다. 우리는 뭔가 복잡하고, 아이들에게 유명한 예술작품을 한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과하게 진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예술이라는 게 특별히 다르지 않은 거였다. 그냥 일상화된 거다. 그렇게 되려면 한 30~40년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들이 또 얼마나 많겠는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이라는 것에도 부작용이 있는 거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게 우리 같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임미혜** 예술교육팀장

“마찬가지로 예술교육이라는 게 특정한 교육방식과 전달방법에 의해서만 일상으로 확장되고, 보편화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늘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해 왔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라고 본다. 병 하나를 만들고, 음료수 하나를 만들어도 그 속에는 문화와 예술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고,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달과 그림자”(2011)



이 지점에서 예술교육, 예술체험의 기회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시간과 경제적 여유, 혹은 돈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 이 기능이 바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화예술이 그 절대적인 요소라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마주하는 대상들 가운데 이런 것이 예술이고 예술적인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재단이 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잊지 말아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장재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매니저

언론기사로 보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성과

서울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창의성 신장효과 연합뉴스 2012.01.29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지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이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에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집 대상인 30개교 학생 437명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창의성 검사에서 평균 1.3점이 향상된 78.1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나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연극·무용·미술 수업 시간에 해 본 것을 놀이할 때 다시 해 본다” 등의 문항 점수에서 점수가 높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맡은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으로 석달 만에 창의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과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서울지역 3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을 하도록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사업 변화
(2004-2014년)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고유
사업

서울문화예술교육 * 2007년부터 링컨센터 파견 교육 포함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국비매칭)	어린이 창의 Arts-Tree				어린이창의예술교육	
		교육공연을 통한 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미적체험 예술교육 프로젝트			
		청소년 비전 Arts-Tree				청소년창의예술교육	
	서울 문화예술 아카데미		해외 문화예술교육 우수기관 교류		교육과정개발 및 교사양성 시스템 구축	서울형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	
		TA 및 문화매개자 양성 * TA/ 문화매개자 Arts-Tree 명칭 사용		TA Arts-Tree (창의예술교육가 양성)		서울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	
			문화매개자 Arts-Tree				
(청소년 문화벤처단) * 청소년 동아리 강사 및 공연 지원							
		자치구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린이 창작공간 확산

위탁
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서울시 위탁(2008년부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협력형(서울시 매칭 위탁)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 지역협력형(서울시 매칭 위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지역협력형(서울시 매칭 위탁)	
						토요문화학교	
						* 문화부 직접 위탁	



문화

예술교육

일상공간

시민문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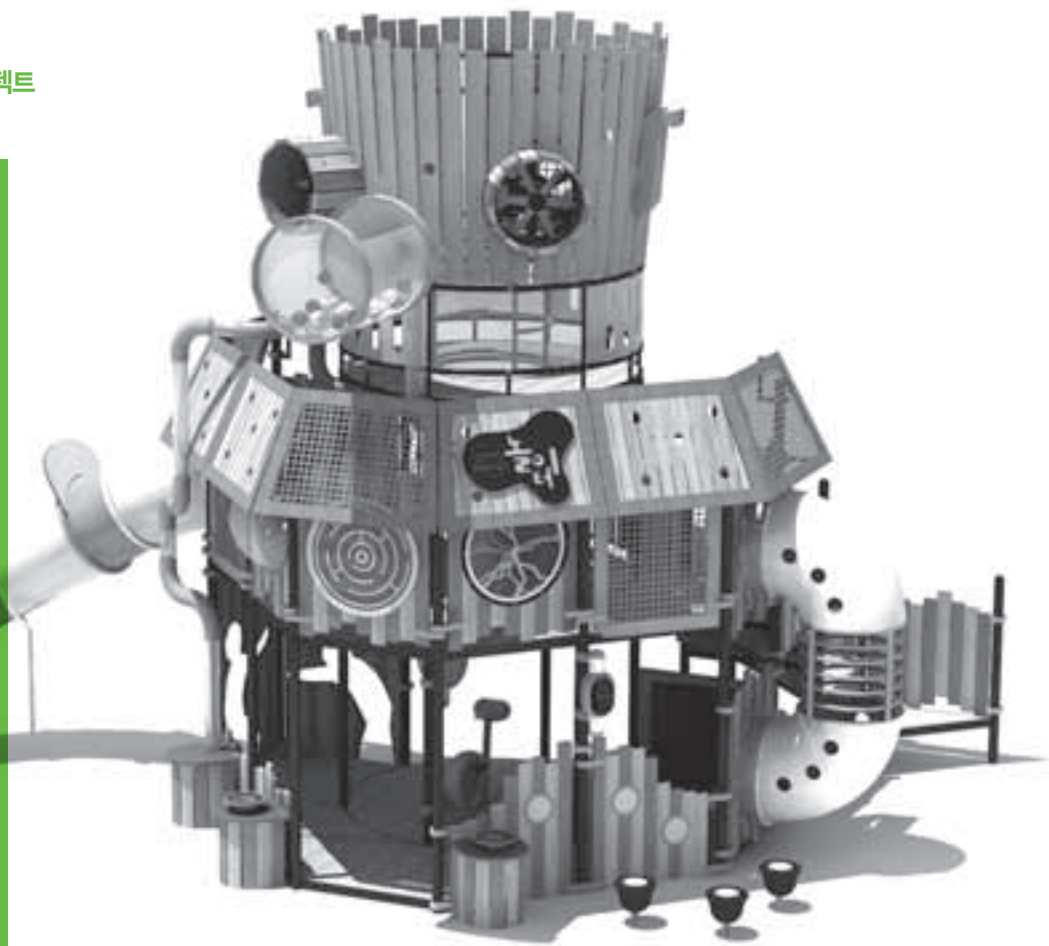
문화복지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문화가 있는 놀이터

바람난 미술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2010 문화가 있는 놀이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우리 학교 ET(Eco Teacher)' (2010)

세상의 모든 변화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생각들이 모여 전에 없던 것을 만들고, 어느새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던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문화를 덧입혀온 서울문화재단의 10년도 어쩌면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나 시민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 '일상공간'에 예술을 들여놓는 일은 대단한 의도나 그에 따른 발명이 아니라 사소한 아이디어와 행동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문화가 있는 놀이터>나 <바람난 미술>,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가 말해주고 있다.



도심 속 천편일률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거부한다

– 낮선 놀이터에 대한 상상

2004년 재단 출범 당시 민간 자원 유치라는 숙제를 담당할 부서로 설치되었던 문화네트워크2부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당시로서는 문화 기부보다도 한발 더 앞서간 문화제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아파트 놀이터를 주목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놀이터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캠페인을 건설기업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제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삭막하지만 도시의 일상이 되어버린 아파트의 놀이터라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화두로 삼고 있는 <문화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이미 2004년에 열렸었고, 아이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놀이터를 바꾸는 상상이 시작되었다. 바로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놀이터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사회를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곤 한다. 그러나 기존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들은 거의 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놀이기구 개발이나 유지 보수 등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서는 늘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는 곳도 생겨났다. 방과 후 학원 가느라 바쁘고 몸을 움직여 뛰어노는 것보다는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그렇게 놀이터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이에 재단은 놀이터라는 공간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갖는 공간,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되살리고자 놀이기구를 비롯한 놀이터의 외형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하는 한편, 아이들의 놀이를 도울 지역주민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그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각 지역의 ‘놀이 문화’를 전수하는 한편 전에 없던 <문화가 있는 놀이터>의 활용 방법도 확산하자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국, SH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정보 수렴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부터 놀이터 모델 개발을 본격화했고, 2006년부터는 공모전을 통해 순차적으로 총 32개의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냈다. 나아가 설치된 놀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실현 가능한 문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지역공원, 하이스쿨페스티벌, 여의도 한강공원, 아파트 단지 등지에서 실제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는 놀이터에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지역주민이 함께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에는 ‘유아·아동용 및 실버용 놀이터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실버용 부문을 구분해 공모함으로써 놀이터가 어른에게도 즐겁고 기쁠 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는 효과 외에도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그 자체가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상 수상의 쾌거로 이어졌다. 또한 모델 개발뿐 아니라 개발된 놀이터 시공의 확대까지 추진해 기업의 기부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에 대한 큰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들이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 놀이프로그램 진행(2009.05, 상계동동아불림아파트)

2004-2011년 <문화가 있는 놀이터> 개발 및 시공 내역

연도	개발 모델	시공 개수	수상실적	비고
2004	-	-		사업 출범 및 디자인 공모
2005	-	-		
2006	1개	1개		
2007	5개	2개	산업자원부 굿 디자인(GD) 상품 선정 (호기심 놀이터)	
2008	4개	24개	지식경제부 굿 디자인(GD) 상품 선정 (거꾸로 놀이터, 꼬끼리 놀이터)	능동어린이 대공원에 기부 설치 <현대건설> (거꾸로 놀이터)
2009	6개	9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2010	7개	13개	독일 Red Dot Design Award Best of Best 수상(자연에너지 놀이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부 설치 <현대건설> (자연에너지 놀이터)
2011	9개	14개		이든아이빌에 기부 설치 <유니온 랜드> (포크레인 놀이터 외)
합	32개 모델	63개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예산과 전문성의 한계 극복

문화제휴를 통한 사업확장 모델의 시초

매년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놀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시공을 지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의 예술교육까지 시도했던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문화예술을 통해 아이의 정서 함양과 주민 연계를 강화한 놀이터 공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순수하게 재단의 아이디어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사업 초기였던 2006년까지 무려 10여 개의 놀이터 모델을 개발했지만, 실제 시공 실적은 그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도 서울시 곳곳에 바로 실현하지 못했던 이유는 높은 시공비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각 자치구의 예산이었다. 이때 돌파구가 된 것은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였다. 기업후원이란 방식을 통해 재단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파트너를 모색한 것이다. 그 결과 2007년부터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는 서울시와 민간 기업과의 사업 협력이라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놀이터 개발의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소외 지역에 기부 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 파트너인 현대건설이 업종의 특성을 살려 놀이터 모델의 디자인 설계 등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상품성이 있는 〈문화가

현장의 예술교육까지 시도했던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문화예술을 통해 아이의 정서 함양과 주민 연계를 강화한 놀이터 공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있는 놀이터〉 개발과 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모델은 동물원 놀이터, 미지(未知), 미로 속의 공간 놀이터, 큐리어스 스페이스(Curious Space), 노트플레이(Knot Play) 등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기능성 못지 않게 미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특징이다. 재단은 예술가의 디자인 감리, 현대건설의 후원과 개발 참여,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예술가와 전문 설계자, 그리고 자치구와 일반 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원의 체계적인 참여를 이루어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전문 설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 설계를 완료한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SH공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2007년 2개가 건설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무려 19개소에 건설됐다. 재단은 본격적인 모델 홍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경향하우징페어 등 대규모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는데, 공공 놀이터 모델 전시가 건설 관련 업체들의 상업 박람회인 하우징페어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과 아파트 시공사는 물론 조정 관련 업체들이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기능성 못지 않게 미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특징이다. 재단은 예술가의 디자인 감리, 기업의 후원과 개발 참여,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예술가와 전문 설계자, 그리고 자치구와 일반 시민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원의 체계적인 참여를 이루어냈다.



대다수 참여하는 장소에서 역대 놀이터 모델을 홍보하는 전시를 연다는 것은 이미 검증받은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그 결과 2007년에는 모델 개발 3개월 만에 관악구와 SH공사 등에서 서울시 20여 군데에 〈문화가 있는 놀이터〉를 시공하기에 이른다.

이후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공공디자인엑스포 등에도 참가했으며, 2009년에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0년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중 한강공원 뚝섬지구에 단독 전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갔다. 그리고 같은 해, ‘자연에너지 놀이터’ 모델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재생 에너지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의 이 모델은 물레방아와 풍차의 모습을 하고,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8가지 놀이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자연 에너지의 동력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과학 놀이터를 통해 돌리고, 뛰고, 흔들고, 오르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모습과 생긴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바뀌는지 배울 수 있게 된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서울의 각 지역 안에, 그리고 일상공간 안에 들어있는 놀이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이었다. 아이 엄마로서 동네 놀이터가 텅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지역주민들이 놀이 보안관이 되어 아이들에게 지역놀이를 교육해서 전수해주고, 놀이터가 문화예술 놀이 공간으로 바뀌면 지역 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상상에서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공공디자인엑스포 등에 참가했으며, 2009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자연에너지 놀이터’ 모델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했다.

놀이터를 만들고, 예술가들이 놀이의 리더가 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이 지닌 큰 의의는 놀이터의 외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놀이터를 디자인하시는 분과 유수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설계하시는 분, 그리고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 대여섯 명이 포럼을 통해 이런 결과물들을 유추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점이다.” 오진이 문화사업본부장

〈문화가 있는 놀이터〉사업은 새로운 일상공간의 디자인, 그리고 일상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남기며 서울시의 문화사업 방향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켰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상상 어린이 공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규 아파트 건설 및 지역 재개발 시 거주 친화형 문화공간으로서 ‘상상 어린이 공원’이라는 문화 놀이터 리모델링을 진행했다(2008년 추진을 시작하여 2009년부터 개장 시작, 총 300여 개소 리모델링). 재단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가 서울시 곳곳에서 맺히는 성공적 확산 사례였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 모델이 ‘문화가 있는 놀이터’와 ‘상상 어린이 공원’ 두 가지로 진행될 경우 사업의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고, 사업 초기부터 2010년까지 파트너로서 놀이터 시공 확산에 도움을 준 현대건설과의 협력 관계도 더 많은 파트너와의 확산에 한계로 작용할 여지도 있었다. 이에 재단에서는 사업모델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충분히 진행했다고 보고,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을 서울시 ‘상상 어린이 공원’ 사업으로 통합시키게 되었다.

‘놀이’ 그리고 ‘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던 재단의 〈문화가 있는 놀이터〉사업은 또 다른 새로운 모델과 캠페인을 만나 새롭게 비상하기를 꿈꾸고 있다.

서울형 미술은행을 만든다

‘구입’이 아닌 ‘중계’ 방식으로

서울시민의 일상공간에 문화예술을 투입하는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다. 2012년 시작한 젊은 캠페인 사업 〈바람난 미술〉이다. ‘서울형 미술은행 만들기’라는 야심찬 의도로 추진된 이 사업은, 미술작가로부터 작품을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빌려서 연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작품을 대여해 기획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작가에게는 작품 홍보와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작품을 통한 문화 향수의 폭을 넓혀주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작품 풀을 구성하고, 작가들에게 대여료를 지급한 후, 공공장소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기획전과 아트페어나 마켓, 경매 등 작품 판매를 위한 행사를 치르는 형태다. 이를 통해 〈바람난 미술〉은 사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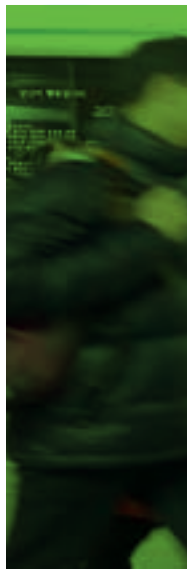
“〈바람난 미술〉은 ‘서울형 미술은행’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과 달리 수장고가 없으니 작품을 사서 보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작가한테 작품을 사기보다는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놓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와 전시하고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거다. 또, 시민들이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작품을 가지고 찾아가기로 했다. 평상시 미술관이나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손쉽게 좋은 작품들을 그들과 가장 가까운 일상공간에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김보름 2013 시민문화팀장

〈바람난 미술〉은 사업 출범 첫 해였던 2012년 공모를 통해 작가 160명의 556개 응모작 중 40명의 53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로써 최초의 작품 풀을 구축하고 6,311만 원(작품당 평균 119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은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작품을 결정하고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의 적정 가격 및 대여료를 감정하는 2단계로 진행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신진 작가부터 유수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까지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됐다.

〈바람난 미술〉은 이러한 작품들로 2013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에서 기획전을 개최했다. 이 기간 중에는 ‘토크 콘서트’ 3회, ‘작가와 의 수다’(작가 17명) 3회, ‘해설이 있는 전시’ 4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10회 정도 함께 진행했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에는 조재현, 조민기, 유준상, 이광기 등의 배우와 김동유, 배병우 작가 등 유명인을 초빙함으로써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어진 2013년 공모에는 작가 331명이 528개 작품을 응모하여 61명의 61개 작품을 새롭게 선정했다. 2012년과 2013년 공모 결과를 합친 결과 작가 101명에 114개 작품으로 새로운 풀이 구성됐다. 그리고 시민청, 서울역사박물관, 코엑스, 여의도, 신촌관광안내센터, 화양동주민센터 등에서 10회의 ‘찾아가는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작가와 배우 등 유명인사 8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온라인 갤러리 ‘바람난 미술’을 구축했다.



지하철플랫폼에 설치한 바람난 미술(2014.12, 서울역)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서울의료원: ‘해설이 있는 전시’ 진행 현장(2014.10, 서울의료원 로비)

당초 계획에 따라 판매가(35점, 985만 원) 일부를 조건부 기부금(235만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시 부스 설계비와 전시 도록 제작비 등 재능기부와 협찬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미술은행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아 메이저 언론, 방송사를 중심으로 많은 보도가 있었다.

“〈바람난 미술〉이 작가들에겐 물감 살 돈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참여 작가들 중 윤신혜라는 젊은 작가는 한 갤러리스트의 눈에 띄어서 프라하 등 외국 전시도 개최하게 되었고, 역사박물관에서 그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작가들이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바람난 미술〉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2014년에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는 ‘이동 전시’를 많이 추진했다. 이동 전시를 개최하려면 무엇보다 전시 부스가 필요한데, 안경두 건축가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재능 기부 형태로 제작을 해주었다.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마치 유목민처럼 각 공간에서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만들어주었다.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니 적용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긴 하지만, 〈바람난 미술〉이라는 사업에 걸맞은 콘셉트였다.

2014년에는 송파구청 등 공공기관으로 이동 전시를 나가기도 하고 서울시어린이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곳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는 아니었지만, 서울 소년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품형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나 시민열린마당, 광화문에 나가서 팝업갤러리를 열고 전시와 판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사실 이렇게 판매되는 작품의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취지를 공감하여 좋은 마음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시민 하나하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병원에서 전시를 개최할 경우 환우 가족분들이 구입하시기도 하고, 전시가 거듭되면서 몇몇 작가의 작품을 미리 알아보고 사 가시는 분들도 생겼다.” **김효진** 시민문화팀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바람난 미술〉은 2014년 지하철역 광고판 10개를 전시장으로 이용했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이나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MoMA)에 전시되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공익 광고판에 노출함으로써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캠페인 ‘Art Everywhere UK’, ‘Art Everywhere US’에서 착안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시도한 것이다.

애포초에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선정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썼지만, 작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져보니 본인의 작품을



01, 04.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사-서울의료원: '해설이 있는 전시' 진행 현장(2014. 10, 서울의료원 로비)

02, 03.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사-시민청 전경(2014. 10, 시민청 시민프라자)

05.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사-서울시어린이병원: 힐링콘서트(2014. 09, 서울시어린이병원)

06. 바람난 미술 그림장터 '트렁크숍 in DDP'(2014. 10, DDP 어울림마당)

정말로 원하고 좋아해주는 시민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는 점을 깨닫고 시작한 캠페인이다. 작품 판매량을 늘리는 일방적이고 근시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월간지 『문화+서울』 표지에 〈바람난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사용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화가 형성되어야 판매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작가들은 작품이 몇 년 뒤에 팔려도 좋으니 〈바람난 미술〉을 통해 당장은 본인과 본인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람난 미술〉을 운영하며, 일상 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작품을 처음 접하고 마음 맞는 작가를 만나 직접 작품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을 볼 때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 사업의 취지에 딱 맞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작품과 소통이 되어서, 그저 자녀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이유로, 생애 첫 예술작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소소한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마음 맞는 작품을 만나고, 나만의 작품을 기꺼이 소장해보고자 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바람난 미술〉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작품을 대여해주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이 소개되는 점, 특히 갤러리를 직접 찾는 열성 관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 직접 해보려 해도 작품 운송, 홍보, 장소 섭외, 행정적 처리, 작품 소개 등에 많은 힘이 소진되는데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지원받고, 판매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정당하게 대여료를 지불받는다는 점 자체에 작가들이 만족감을 느낀다.”

황현정 신당창작아케이드, 2013 바람난 미술 담당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수치에 연연하다 보면 예산을 얼마 들여서 몇 개 팔았는지, 그 예산으로 대여하지 말고 재단이 직접 구매하든지 하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작품 몇 개를 팔면 잠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생길 뿐, 〈바람난 미술〉처럼 본인의 작업을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이 다양한 미술을 경험하고 미술을 이해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를 더욱 바라고 있었다. 너무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사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시작한 〈문화가 있는 놀이터〉나 〈책 읽는 서울〉은 당장 반짝이는 완성된 사업보다는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음에도 결국 시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다. 〈바람난 미술〉 역시 목표를 길게 잡고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필국** 시민문화팀장

이 골목이 언제 갤러리가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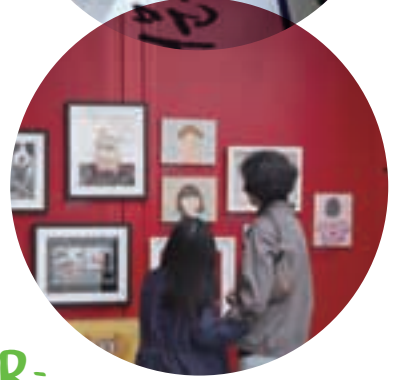
—
시민들의 일상공간을 습격한 거리예술



월드 프레젠테이션 (2014, DDP)



서울문화재단 10년



WONDER-
PRESENT

찾아가는 전시 〈바람난 미술〉 외에도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발칙한 상상력을 더하며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프로젝트가 있다.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예술적 감성의 촉발을 돕는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시작됐다. 거리예술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공공 갤러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시내 8개 구역에서 7개 팀이 400여 점의 작품을 제작, 설치, 전시했다. 또한 선물상자 모양의 컨테이너 부스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준비하여 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공공문화플랫폼 〈Wonder-Present〉 프로젝트를 4개 지역을 이동하며 65회 진행했다.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기발한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일상의 재미와 활력을 제공하지는 취지로, 공공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2013년 가을, 첫 번째 작업으로 ‘소소한 길거리 예술’과 ‘게릴라 습격’이라는 콘셉트의 ‘서울 - 밤 길에 드로잉 조심!’이라는 테마로 5개 지역의 길거리에 작가들의 소소한 작품을 남겼다. 2014년에는 ‘거리 메이크업(Make-up) 하기’를 테마로 서촌 일대, 이태원 우사단로 등의 지역에 장소의 특성을 담은 작품을 그리고 설치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거리를 메이크업(Make-up) 할 수 있는 공공미술 도구인 ‘골목화가 꾸러미’를 제작해 시민을 문화예술의 감상자에서 참여자로 변해갈 수 있도록 했다. 〈Wonder-Present〉는 DDP, 여의도 한강공원, 신촌 등 시민의 일상공간에 이동식 공공미술과 이와 결합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의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담아 선보였다. 이렇게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예술작품들이 도시의 풍경을, 우리의 일상을 보다 생기 있게 만들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단에서 초기부터 2010년까지 〈예술사랑 문화나눔〉, 〈우리 동네 문화가꾸기〉, 〈예술마을 가꾸기〉 등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이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전의 사업들이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였다면, 지금의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도시와 일상공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상상, 그리고 지역을 둘러싼 소통의 단초가 가능하도록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나 〈바람난 미술〉의 이동 전시가 특정 공간에 하드웨어를 설치해 시민들이 예술과 공간을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그 이름처럼 도시의 일상에 게릴라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감성과 감각을 깨우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쌓아가고 있다.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장소가 이태원이었는데, 콘셉트가 ‘서울 - 밤길에 드로잉 조심!’이었다.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다가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예전에는 거창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위한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많은 이가 알아채는 것보다도 공간의 특성에 맞는 소소하지만 창의적인 공공미술을 일상생활에 유통하는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과물로서 작품이 있고 또 아카이브할 수 있어야 좋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다.

한밤중에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날 아침 주민들의 깜짝 놀라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촬영하러 간 사진작가가 나가보니 아무 것도 없다고 전화가 왔다. 전날 작업해둔 것 중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상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간혹 지역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꽃 등 설치물들을 집에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다.”

황현정 신당창작아케이드, 2013 시민문화팀 바람난 미술 담당

“이태원은 화려한 모습 뒤에 낙후된 모습도 가진 곳이다. 뉴타운 지정 후에도 주민 갈등이 심해서 11년간 뉴타운 개발의 진척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오래 산 주민들의 경우 식물을 많이 키우시고 오래된 가구들을 들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곤 하신다. 그 점을 ‘길종상가’라는 작가 그룹이 주목해서 꽃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소소하게 바꿔보려는 취지로 한밤중에 조화를 심었는데, 그걸 아침에 주민들이 다 뽑아 간 적이 있었다. 한번은 작가들이 한강공원 반포지구에 테이핑을 해봤는데, 주말을 보내고 나니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탱크를 가져다 놓는다고 작품이 다 뜯어진 일도 있었다. 비가 와서 작품이 떨어지는 일은 부지기수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사업이다.

그리고 예술의 특성과 시민의 생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된다. 공원에서 무빙워크 타고 갈 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거리 메이크업(Make-Up) 하기

시민도 있는 등 찾아가는 전시가 어떤 시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줄 수도 있는 법이고, 예술적 야심과 생활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그렇다. 정책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시민 생활 현장과 동떨어질 위험에 더욱 민감해야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에게 문화재단의 정책이 공해가 되거나 주입식 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김보름 2013 시민문화팀장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그동안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는 일상, 거리에 재미있는 표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특정 거리를 선정하여 길가에 방치된 상자 혹은 벽에 남아있는 균열 등을 그대로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설치하곤 했다. 일반적인 전시와는 달리 어제와 다른 일상의 부분을 발견하는 즐거움까지 있었다고나 할까?

또한 단순히 기획된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미술 키트를 개발하고 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어린 시절에 흔히 보던 ‘물체꾸러미’ 같은 형태의 물감꾸러미, 분필꾸러미, 잔디꾸러미와 같이 공공미술도구 키트인 「골목화가 꾸러미」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직접 골목화가 되었고 자신의 주변 공간에 나만의 시각을 작품으로 덧입힐 수 있었다. 온라인 갤러리 〈게릴라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을 보다 친밀하게, 일상공간을 보다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공공미술의 또다른 형태로 시민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Wonder-Present〉라는 선물상자 모양의 컨테이너 부스를 공공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부스의 문이 열리면, 한복 체험, 비보이 공연, 인형극, 요리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문화예술 콘텐츠가 펼쳐지고, 문을 닫으면 그 자체가 공공미술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서울시민들의 고단한 마음에 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위로를 처방하는 〈마음약방〉 자판기를 제작하여 서울 곳곳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는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 1~2년 밖에 되지 않은 사업들이지만 문화예술로 재미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황은아 시민문화팀, 2014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담당

마음약방



골목화가꾸러미



문화

예술교육

일상공간

시민문화사업

문화복지

삶 속에 살아있는 문화 문화로 행복한 삶

책 읽는 서울

서울댄스프로젝트

종이서 예술동아리



책 읽는 서울 비록 전서 - 홍산역 (2007)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참여자가 없으면 빛을 잃는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처럼 시민들의 일상에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둘 늘려왔다. 이로써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던 시민들은 같이 춤추게 되고, 또 스스로 원하는 형태의 예술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시민문화가 꽃피고 있다.

서울시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 시립·구립 도서관이 함께 만드는 <책 읽는 서울>

2012

2004

31

2007

55

2012

96

<책 읽는 서울>

캠페인 참여

공공 도서관 수의

변화



책 읽는 서울 선포식(2005, 서울광장)

너도나도 ‘책’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재단은 마치 시대를 역행하기라도 하려는 듯 대대적인 독서 캠페인 <책 읽는 서울>을 설립 초기부터 시작한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책은 여전히 지식의 원천이자 창작의 보고라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단 설립 초기 전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인당 11권*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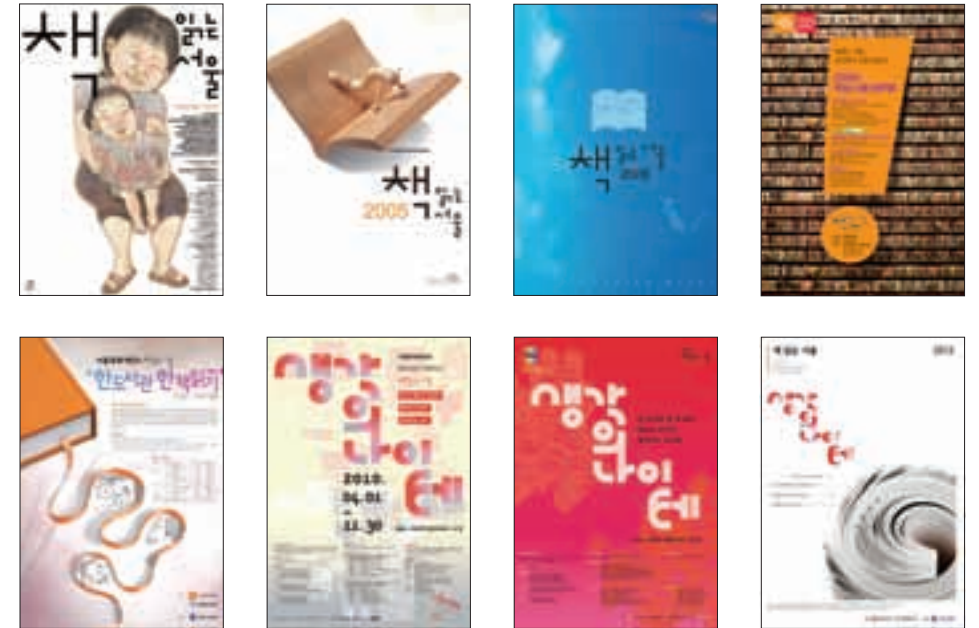
캠페인이 시작되기 직전, 2003년 서울시가 발표한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정책 구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규모 도서관 100개 확충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지역사회 공공 문화공간으로서 공공 도서관을 주목하고 있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중장기 도서관 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등 관계 부처에서 도서관 활용에 대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책 읽는 서울>은 2012년까지 8년이나 재단과 역사를 함께하면서 성장한 캠페인이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도서관 주도의 범시민 독서 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Book One City)’에서 착안한 <책 읽는 서울>은 단순히 시민들의 독서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책들을 선정해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아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시도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규모에 맞춰 캠페인 대상을 조정했던 것이다.

<책 읽는 서울>은 2012년까지 8년이나 재단과 역사를 함께하면서 성장한 캠페인이다.

<책 읽는 서울>은 단순히 시민들의 독서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는 서울 전역의 시립 도서관, 구립 도서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각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읽을 ‘한 책’을 선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한 책 읽기’를 위한 지역 내 홍보와 연계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 읽는 서울>은 캠페인 초기 서울의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사서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4년에만 31개 공공 도서관과 손을 잡게 되었고, 2007년에는 55개, 2012년에는 96개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공공 도서관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 공공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시립 도서관과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구립 도서관으로 나뉜다. 시립 도서관에는 고용이 보장되어 경험과 역력이 많은 사서가 많은 반면, 구립 도서관에는 고용은 불안정하지만 젊고 아이디어가 다양한 사서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각 도서관 사서들이 가진 경험과 아이디어를 한데 모았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통해 각 도서관이 직접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면서 주체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름 시민문화팀장, 2010-2012 책 읽는 서울 사업 담당

* 2005년 1월 발표된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사라져 가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되살리다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책 읽기 문화 프로그램

〈책 읽는 서울〉이 추구하는 가치는 ‘책 읽기’ 그 이상에 있었다. 사라져 가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공공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책을 매개로 다시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서울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해 그들을 각 지역의 공공 도서관으로 발걸음하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에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움직이는 서가’, ‘빅 북 전시’, ‘KBS 특집, 독서골든벨’, ‘책-만나다’ 시리즈(‘책, 예술과 만나다’, ‘책, 영화와 만나다’, ‘책, 음악과 만나다’, ‘책, 세상과 만나다’), ‘독서토론’, ‘저자와의 북 토크쇼: Leader & Reader’, ‘북 콘서트’ 등 수십여 개의 프로그램이 〈책 읽는 서울〉과 함께 진행됐다.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책과 시민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그와 관련된 음악이나 영화를 통해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추가했다. 사실 〈책 읽는 서울〉은 부대 프로그램이 많아 담당자의 손길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면 소름 돋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 책이 가진 힘 때문인 것 같다.” 김보름 시민문화팀장

2008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2010

책, 음악(영화)을 만나다
책, 예술과 만나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소통하는 토론문화의 싹을 틔워 가는 한편, 재단 내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책 읽는 서울〉



책, 음악과 만나다, '콘서트베이스'(2010.12)

2013

서울도서관으로
이관



〈책 읽는 서울〉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라져 가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공공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책을 매개로 다시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서울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해 그들을 각 지역의 공공 도서관으로 발걸음하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2008년 〈책 읽는 서울〉은 처음으로 올해의 주제를 선정하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추진한다. 서울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한 것이다. 당시 주제는 ‘서울은 고향이다 함께 사는 서울, 따뜻한 나의 도시’였다. 이렇게 서울 시내 주요 공공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독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재단에서는 4명의 컨설턴트(CoP, 교육기획, 공연예술교육, 시각미디어교육)를 파견해 현장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음악, 영화 분야 전문가가 스토리텔러로서 음악, 영화와 관련된 주제의 책 이야기를 진행하는 ‘책, 음악(영화)을 만나다’와 도서관에 문학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 ‘책, 예술과 만나다’를 운영했다.

“2010년부터는 〈책 읽는 서울〉이 ‘토론문화’를 확산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사서들에게 독서토론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시민들이 각자 홀로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서관 등 한 공간에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서울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가 함께하고 싶다고 찾아와 그들에게도 일정 기간 독서토론 교육을 해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각 도서관에서 토론 진행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김보름 시민문화팀장

〈책 읽는 서울〉은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소통하는 토론문화의 싹을 틔워 가는 한편, 재단 내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사업에서 영향을 받은 직원들이 모여서 ‘책있수다’라는 토론 동아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단 출범과 함께 시작된 〈책 읽는 서울〉은 2012년 10월 26일 서울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부터 서울도서관으로 이관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소회는 남달랐다.

“〈책 읽는 서울〉은 ‘KBS 특집, 독서 골든벨’, ‘빅 북 전시’, ‘움직이는 서가’ 등 책 읽기를 확산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때쯤 손을 떼게 되어서 재단 직원들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늘 새로운 도전을 하듯 행정을 하고 기획을 하는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모델이 될 수 있게 했다면, 그 사업이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진이 문화사업본부장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아유회' (2013.08.17, 선유도공원)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춤워크숍 (2014.05.24)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커뮤니티' (2013.09.13, 기트파이브)



언제 어디서나 춤추는 서울!

시민을 신나게 하는 춤바람

서울시민이 '춤'을 통해 희망의 몸짓을 나누고 삶의 활력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있다. 2013년 5월에 시작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그 해 10월까지 약 6개월간 '춤추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는 댄스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5월 '춤바람 선포식', 8월에는 '춤아유회', 9월에는 '춤나눔 소셜다이닝', 10월에는 '서울무도회'를 개최하는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지향했다. 이외에도 '시 직원정례조례 출판', '불금 댄스' 등 각종 연관 행사도 연계해 추진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춤을 사랑하고 즐기는 시민 춤꾼 '춤단'과 시민기획단, 춤바람 커뮤니티 39개의 586명, 일일춤단 178명 등 총 110,46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외로움, 고립감, 피로감을 주는 고된 서울살이에 지친 '서울시민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몸의 움직임이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춤'을 선택하게 되었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상성과 장소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공간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가 꽃피우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방향이다. 특히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이러한 춤판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의 주체가 '춤단', '춤바람 커뮤니티' 등의 시민들이라는 점도 큰 특징이다.” 김수연 축제기획팀 대리

'춤'을 소재로 하는 신선한 시민참여 프로젝트가 탄생함에 따라 〈서울댄스프로젝트〉는 다양한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고 서울연구원 주최 '2013 서울 스토리텔러 대상' 투지출연기관 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무래도 '춤단'일 것이다. 춤단은 공연을 위해 주말마다 4시간씩 워크숍을 거쳐야 하고, 이에 틈틈이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 함에도 시민들의 참여율이 꽤 높은 편이었다. 2013년에 50명을 선발했다가 뜨거운 호응을 확인하고 2014년에는 100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10대 초등학교생부터 60대 이상의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춤단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춤에 대한 열망 하나로 '춤단'이라는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을 아낌없이 춤에 투자하고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스스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 때 다양한 고백들이 이어지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시민이 저절로 성장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다. 2013년 1기와 2014년 2기에 같이 참여한 부녀가 있는데, 춤단에서 춤을 추면서 경험한 서울과 그렇지 않았던 예전의 서울은 너무 다르다고 고백하셨다. 1기 때 춤추면서 마포대교와 동호대교를 건너는 행사가 있었는데, 춤단이 아니면 평생 생각지도 못했을 경험 아닌가. 그 경험들은 곧 시민력으로 자라난다.”

오진이 문화사업본부장

2014년 두 번째 해를 맞은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역시 건강한 춤 문화를 선도하는 프로젝트의 주역 춤단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춤을 만들어 나가는 춤바람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더불어 커뮤니티와 춤이 만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며 '춤'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탐구해가는 '커뮤니티 댄스 랩'과 도심 속 시민 참여 축제 '서울무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피날레라 할 수 있는 댄스축제 '서울무도회'는 2013년 전문 단체가 60%, 시민 커뮤니티가 40% 비율로 참여했는데, 2014년에는 전문 단체가 20%로 줄고 시민 커뮤니티가 80%로 늘어났다. 〈서울댄스프로젝트〉가 삶의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고, 춤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활력과 해방감을 선사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그냥, 좋으니까!

— 좋아서 예술동아리

시민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예술가의 멘토링을 통해 자발적인 창작역량을 이끌어내고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문화재단도 2004년부터 시행해오던 시민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방식을 2014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여 문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말 그대로 예술이 좋아서 모인 〈좋아서 예술동아리〉49개 동아리들이 함께 기획하여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명실공히 〈시민예술 축제〉를 만들었다. 2014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당당히 올려진 “2014 좋아서 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이다.

“〈좋아서 예술동아리〉는 일반적인 지원금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하던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이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예술활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2014년 기획형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됐다. 성인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서울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상황인 개별 예술동아리들을 한데 묶어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판을 열어주자는 기획이 그 근간이다.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는 동아리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주고, 여러 동아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네트워크 간담회,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주어 공연용 소품, 의상, 연습공간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들을 묶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그 결과로 나오는 컬래버레이션은 동아리 활동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황현정 신당창작아케이드, 2012-2014 시민문화팀



좋아서-예술동아리 페스티벌(2014. 10, 세종문화회관M씨어터)



2013 시민예술지원사업(시민예술가협력형), 친구네 옥상

“동아리들이 자발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던 분들인데, 각자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장르의 동아리들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은 어떤 예술가들보다 높았다. 특히나 첫 페스티벌을 개최한 세종문화회관은 전문 공연자들도 쉽게 설 수 있는 무대는 아니지 않나. 그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의 만족감이 컸던 것 같다.”

서금슬 시민문화팀

2014년 10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들의 7개의 공연과 2개의 전시가 이루어진 공간은 서울의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연중 특별한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계속되는 세종문화회관이었다. 재단은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고동연 미술평론가 겸 전시기획자, 김수진 극단 아리랑 대표, 김지현 서울튜티앙상블 대표, 남동훈 성미산동네연극축제 예술감독, 노해진 디딤무용단 대표, 박성환 국립창극단 단원 겸 서울창극단 상임연출가, 이정운 DA.NCE Theatre 대표, 최대규 상상공장 대표 겸 문화연출가, 홍대룡 사회적기업 노리단 비상임연출 등 분야별 멘토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프로 무대에 서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보통 동아리는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지역, 계층, 세대 그리고 장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팀을 구성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다. 세대 간 단절이나 소통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타났다. 그보다 앞서 연합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노년층 동아리가 소외되는 상황도 있었다. 우리 사회 현상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발표’라는 하나의 예술적 행위를 준비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활동 자체에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있었다. 예술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접근을 고민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필국 시민문화팀장

시민예술에 대한 지원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처럼 동아리들의 장르 역시 다채로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동아리들의 장르가 연극, 미술, 클래식, 합창, 기악 등으로 구분이 명확했는데, 요즘은 사회 전역에서 협업이 추세이다 보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동아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색적인 동아리로 대표적인 형태가 ‘연구’ 동아리다.

“IT 계열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여 즉흥연기를 하는 팀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관심사가 달라도 남들과 섞여서 좀 더 많은 콘텐츠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계층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좋아서 예술동아리〉처럼 시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도 큰 변수다. 그들은 각자 생업이 있으니, 취미로 혹은 재미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온다. 향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 좀 더 시민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서금슬 시민문화팀



문화

예술교육

일상공간

시민문화사업

문화복지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랑의 문화나눔

예술마을 가꾸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모두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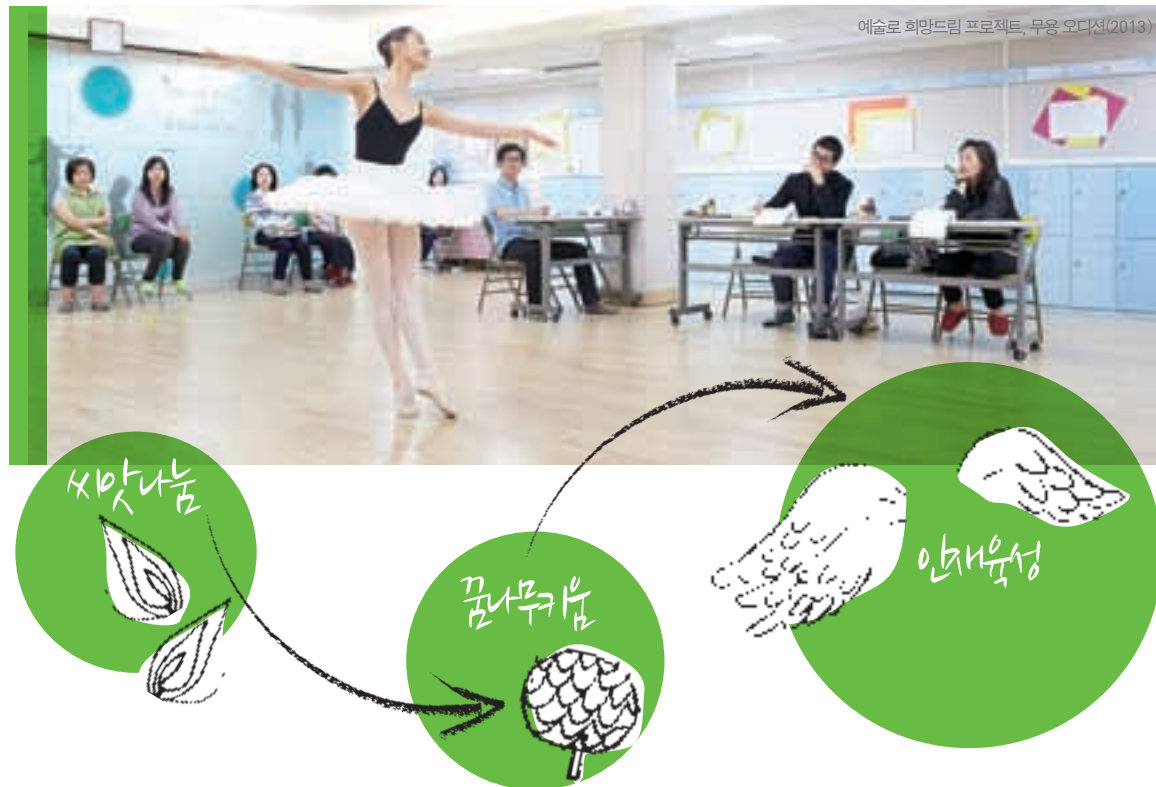
누리는 문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소통하기를 바라며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저소득층 예술 꿈나무들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을 전하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등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을 전문 공연단과 함께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랑의 문화나눔>까지 문화를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재능 발견부터 예술 전공 학비까지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면, 수학이나 영어 학원 대신 피아노 학원이나 발레 학원을 택하는 부모는 몇이나 될까? 2009년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시작한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 가정의 자녀 가운데 예술교육을 희망하거나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씨앗나눔’, ‘꿈나무키움’, ‘인재육성’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예술적 창의력을 키울 기회와 문화자본 축적을 통해 자존감을 키울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2009년부터 시행해온 이 프로그램은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분야에서 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는데, 먼저 ‘씨앗나눔’은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소양교육 활동비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예술교육에 대한 활동 계획 및 열의, 가정환경(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자활 노력(통장 프로그램 참여도 및 적극성 등), 그리고 지원의 시급성을 따져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예술을 전공하지 않고 취미 수준의 교육이더라도, 경제적 제약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음악(실용음악 제외), 무용, 미술, 전통예술 분야에서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서 예술교육을 시행할 경우, 교통비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주로 맞벌이 하는 보호자가 함께 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주거지 근처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희망플러스통장은 근로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이다. 가입 후 3년간 매월 근로소득 중 5~20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함께 매칭 적립하게 된다.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통장이다.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음악 오디션(2013)

“사실 많은 아이들이 드럼이나 기타,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다. 어릴 때 피아노를 한 번이라도 쳐봤다면, 커서 뮤지컬과 클래식 공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뮤지컬이 아닌 클래식 공연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최윤영 예술지원팀

대부분의 또래 친구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접해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씨앗나눔’에 참여한 아이들의 가정에서는 의외의 변화가 발견되기도 한다. 말이 없던 아이가 부모와 대화할 거리가 생기고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참가자들의 후기가 많다. 예술의 힘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씨앗나눔’을 통해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전공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유형 ‘꿈나무키움’을 눈여겨보게 될 것이다. ‘꿈나무키움’은 음악과 미술 부문으로 나뉘는데, 먼저 음악 부문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더블베이스에 재능이 있는 꿈나무를 발굴하여 음악 전공자로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되며, 전국경연 본상 수상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초등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씨앗나눔’과 달리 학원비가 아닌 1:1 멘토링형 전문예술교육을 8~10개월간 월 3~4회씩 제공한다.

‘꿈나무키움’ 미술 부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순히 미대 진학 희망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되겠다는 학생을 지도한다. 제도권 외 교육을 받는 16~18세 청소년은 신청 가능하며, 선발 시 10개월간 월 3회 2~3시간씩 시각예술 작가와의 1:2 멘토링형 예술교육을 받게 된다. 10개월간 10권의 책 읽기, 그림일기 쓰듯 매일 드로잉 하기, 남의 이야기와 드로잉에 관심 갖기, 10개월간의 결과물을 모아 드로잉북 만들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분야는 현재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나이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멘토를 매칭해 주거나 콩쿠르 참가비도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400~500만 원 수준이다.

매년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수혜 학생들의 예술학과 진학, 전국대회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13년에는 ‘꿈나무키움’ 지원을 받은 초등학생(바이올린)이 ‘제33차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에 합격하는 동시에 ‘아람에미리트 뮤직페스티벌’로부터 초청받았으며, 2014년엔 우용기 군(서울대학교 1학년,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지원 개요와 성과

	씨앗나눔	꿈나무키움	인재육성
지원개요	소양, 취미로서 예술실기 교육을 접할 기회 제공	(2009-2013) 숨어있는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여 육성	저소득층 예술전공자의 전문 예술가로의 진로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2014) 음악:예술적 재능을 발굴하여 음악 전공자로 육성 미술:예술적 재능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분야	기초예술 실기교육 (음악/무용/미술/ 전통예술)	(2009-2013) 기초예술 실기교육(음악/무용/미술/전통예술)	기초예술 전 장르 (음악/무용/미술/전통예술)
		(2014) 음악 및 미술분야 실기교육(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더블베이스, 미술 전 분야)	
지원대상	(2009-2011)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2009-2011) 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생	기초예술 학과 전공 중인 중~대학생
		(2012-2013) 중학생~고등학생 ※ 단, 전국경연 본상에 준하는 수상경력 소유 초등학생은 신청 가능	
	(2012-) 초등학생~ 중학생	(2014) 음악:중학생~고등학생 ※ 단, 전국경연 본상에 준하는 수상경력 소유 초등학생은 신청 가능 ※ 제도권 외 교육을 받는 16~18세 청소년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소양·취미 교육경비 지원 (시설학원 등 교육 수강비 및 교육 필요 기타 경비)	(2009-2013) 전문 예술가 1:1멘토링 교육 ※ 멘토 매칭 불가 시, 전문교육기관/개인레슨 수강비 지원	예술 전공 학비 지원(입학금, 등록금, 교육 필요 기타 경비 등)
		(2014) 음악:올림푸스 앙상블과 1:1 멘토링 교육 미술:이상홍 시각예술 작가와 1:2 멘토링 교육	
	매월 10만원	(2009-2013) 멘토링 교육 외 월 40만원 내외 (2014) 멘토링 교육만 제공	(2009-2011) 최대 1천만 원 이내 (2012-2013) 최대 5백만 원 이내
	11-12개월간	10-12개월간	11-12개월간
총 수혜자수 (-2014)	1,417명	101명	39명

※ 2010년:선정자 대상 ‘희망나눔캠프’ 시행 ※ 2014년:씨앗나눔, 꿈나무키움만 시행

피아노 전공)이 제3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음악영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1년 ‘인재육성’ 부문 참여자였던 박영진 학생은 예원학교를 거쳐 독일 슈투트가르트 산하 발레단에 입학하기도 했다.

경제적 장애를 넘어서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2011 서울시 창의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1 UN 공공행정대상’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로 희망드림의 성과는

다른 어떤 수치보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아동 및 보호자,

복지관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경제활동에 집중하느라,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잦아 많이 힘들어했다. 혼자 있는 시간과 대화의 부족은 악순환을 낳았지만, 미술 학원에 다니면서는 자기가 오늘 만든 작품을 가져오고 설명하면서 가족 간에 대화의 기회가 생겼다. 한번 터진 대화의 물꼬는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씨앗나눔 참가 가정 부모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무엇보다 열중해서 임하는 집중력이 아이에게 생겼다.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씨앗나눔 참가 가정 부모

예술로 희망드림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전문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 같으나, 도저히 경제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던 눈앞이 캄캄하던 나에게 하늘에서 내리준 금동아줄과 같았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키움 참가 가정 부모

아무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이 싫다는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배워가 하고 연습을 한다. 그 한 가지 만으로도 나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온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씨앗나눔 참가 가정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평생 피아노를 쳐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살았다는 말을 아이의 입으로 들었을 때, 예술로 희망드림을 통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더욱 감사했다. 본인이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는 것, 자제에게도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것이 학교에서도 좀 더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도 했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씨앗나눔 참가 가정 부모

아이가 우울하거나 그칠 때에는 집에 피아노는 없지만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씨앗나눔 참가 가정 부모

희망드림스.꿈나래동장 사업 참여자들의 자녀 여섯고양이에 대한 매우 높은 욕구에 딱 맞는 서비스를 예술로 희망드림에서 제공했다. 당연히도 참가 아동들의 자아탐색, 자아실현 등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에서 희망드림스.꿈나래동장 등 자활사업과 복지관의 복지사업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악기나 미술공예를 접하고 여섯살을 하는 자녀와 부모 간에 공통의 취미를 만들고 친밀도를 높여줄 매개가 되었다. 서로 몰랐던 취미를 확인하기도 하고, 관계의 변화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관계뿐 아니라 참여자들 각자의 마인드 또한 모두 긍정적 변화를 맞는데, 열정과 의욕을 발현한 자녀가 먼저 변하고, 이에 따라 부모 또한 자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를 보여주게 되었다.

시립대중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예술로 희망드림을 통해 피아노를 접한 아이에게 예술로 희망드림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교육을 계속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경제능력이 충분함을 다시 깨닫는 경우가 있었다. 아이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정병을 찾아보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경제활동에 힘쓰는 활력있는 모습을 보며 예술에 이룬 힘이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어디든지 찾아오는 공연 배달 서비스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 담당자로서
행사를 크게 펼쳤을
때도 물론 보람이
있었지만, 문화적
혜택이 전혀 없던
곳에 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수혜자들을 만났을
때 또 다른 보람을
느꼈다.”
최정필 시민청 TFT 차장

2005년 <사랑의 문화행사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은 서울시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하는 문화복지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단체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환경·지역·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연을 공급할 수 있는 공연단을 뽑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극, 음악, 국악, 일반으로 장르를 나누고 30개 장르별 공연단 풀(pool)을 구성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원, 아동복지센터, 재활원, 장애인복지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연단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7년간 서울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계층에게 양질의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업 초기 <사랑의 문화나눔>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충무아트홀에서 자치구 협조 하에 4개 분야(뮤지컬·연극, 무용·발레, 클래식, 대중문화공연) 20개 작품을 공연하고,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뽀롱뽀롱 뽀로로> 등 4개 작품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제작 공연 <추억의 가요무대>를 진행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통해 2개월간 자치구 복지시설을 찾아 인형콘서트, 밴드공연, 아카펠라, 품바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후 점차 각 시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순회 프로그램으로 변모하면서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중 시민만족도 1위, 서울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자동차로는 올라갈 수 없는 산동네 복지관까지 서울 곳곳을 누빈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은 2011년부터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각 자치구와 연계해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시도하게 된다. 300~500명 규모의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아이들에게는 버스를 보내 공연장까지 이동을 도왔다.

<사랑의 문화나눔>은 예술 현장과 맞닿아 있는 재단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화복지 사업이었다. 그런데 2012년 재단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방식의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을 잠시 서울시로 이관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다시 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주된 수혜대상으로 하여 복지시설이나 학교, 자치구 문화공간을 공연단체가 방문하여 공연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예술이 함께 해서 더욱 밝아진 지역의 공간들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예술마을 가꾸기〉

〈사랑의 문화나눔〉에는 공연뿐 아니라 ‘시각예술’ 관련 프로그램도 있었다. 〈예술사랑 문화나눔〉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예술마을 가꾸기〉라는 사업명과 ‘아름다운 고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 혹은 동네의 후미진 곳을 예술로 개선시켜 보고자 했다.

주민들 또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바꿔달라고 제보 또는 지원을 신청하고, 재단은 이에 가장 적합한 예술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매칭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사업 초기에는 복지시설의 지원신청과 복지시설 자체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심미적 환경 개선 위주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던 2010년에는 ‘아름다운 고발’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시민 누구나 예술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열악한 공간을 ‘제보’, ‘고발’하는 형태로 발전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목, 밤길이 외진 골목, 재개발 계획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나가버린 행해진 길가 등 예술가의 손길이 곳곳에 닿았다. 조금은 도발적으로도 느껴졌던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그야말로 제 빛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시설, 낙후 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차원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했고, 공공미술이 지역의 일상에 밀착하여 예술의 가치를 발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2013년 새롭게 시작한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되었다.



2006 예술사업문화나눔 8기(2006, 강서이동복지센터)

문화복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매개자’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문화복지사업은 소외계층 시민과 예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사랑의 문화나눔〉을 통해 처음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도 매우 많다. 따라서 사업 담당자들은 문화복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매개자’라 말한다.

“〈사랑의 문화나눔〉은 수혜자가 직접 공연을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복지시설과 25개 자치구청의 복지 담당자, 그리고 수혜자의 접점에 있는 423개 주민센터 담당자의 관심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매개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자치구와 주민센터 담당자의 열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복지시설의 매개자들 중에도 아직 이러한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매개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장시키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문화나눔〉은 문화예술을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저변을 소외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필국 문화나눔팀장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문화예술나눔이'

“〈사랑의 문화나눔〉초기에는 지금처럼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사업이 확산되어 있지 않았을 때라 찾아가는 공연이 신선하게 다가왔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과잉공급 상태다. 따라서 관련 시설에 공연단 정보를 전달하면, 수십 개 기관 중 한 곳에서 또 정보가 도착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각 시설의 매개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분명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선발한 공연단들은 활동하는 만큼 개런티를 받는 형태라 수혜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공급자가 생각하는 좋은 공연과 수혜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공연에는 차이가 있지 않나. 우리는 예술성을 보고 공연단 풀을 구성했는데, 수혜자들은 대중적인 걸 원할 때도 많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원하는 공연을 2~3개씩 선택하고 그 중 예술성이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시도하면서 격차를 줄이려고 했으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혜자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언하는데, 아직 해답은 못 찾은 것 같다. 어려운 문제다.”

이규승 홍보팀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마찬가지다. 세종솔로이스츠라고 하면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뮤지컬을 신청해서 관람한다.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다. 공연을 접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 일차적으로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공연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우리의 의도와 달리 수요자들의 패턴은 그렇다. 카드 사용 빈도도 마찬가지다. 도서 구입이나 영화 관람에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람들에게 10만 원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책을 몇 권 사주지 2~3만 원 하는 공연을 보여주는 건 힘들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이 있지 않나. 문화복지도 일반 사회복지 전공자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전문 영역이다. 만약 문화복지 분야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단에서 관련 시설에 계신 분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가 복지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상혁** 문화나눔팀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 96개 복지관에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담당자를 한 명씩 배치했다.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사업 공모 시기가 되면 그들을 모아서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들의 전공이나 관심사에 따라 자치구별 신청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또, 단기 계약직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문화복지는 매개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운영** 예술지원팀

“문화복지사업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 팽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매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이 각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가들의 입장에선 수치도 중요하지만, 문화복지사업은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와 그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김필국** 문화나눔팀장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문화예술나눔이’(2014.05, 블루스퀘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문화나눔〉을 통해 우연히 맛본 공연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팍팍한 삶을 지탱해주는 마음 속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 서울문화재단은 모두의 마음 속에 필요한 희망의 씨앗,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 더 필요한 소통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칫 빛을 발하지 못했을 예술의 씨앗이 발아되어 큰 나무로 자라서 다시 예술의 가치를 나누어 주는 희망을 꿈꾸어 본다.

예술을 살찌우다

활기찬
예술
매력있는
서울

서울
문화
재단은
예술을
응원합니다



남산예술센터 Festival 場(NaT in Festival 場 지원선정),
극단 몸풀, 〈Private Collection〉(2010.09)



금천예술공장 전경

예술지원도 서울문화재단답게 • 예술과 지역을 잇는 창작공간으로 • 예술과 시민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예술을 살찌우다

유망예술 닷 선정작, 그라운드제로프로젝트 <신세계>, 플레툰쿤스트할레(2013)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프로그램, 연우무대, '갈삼봉던'(20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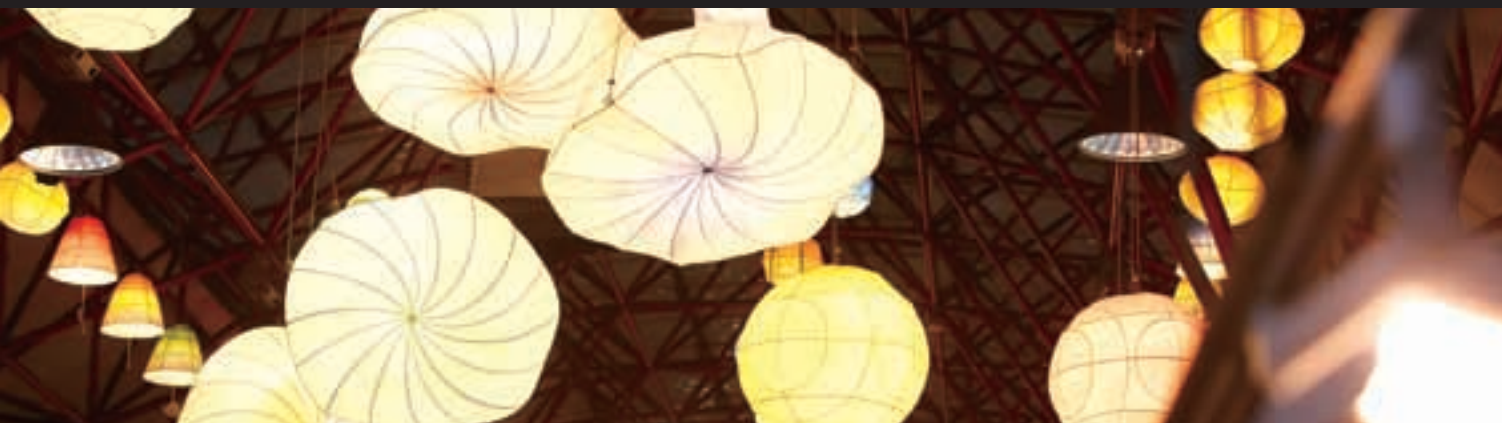
NArT 리허설 및 실연심사(2009)



연희문화창작촌 연희목요낭독극장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2012.08.30)



남산예술센터 2011 NArT in 페스티벌, 상상만발극장, '아이에게 말하세요'(2011.12.02-04)



2012 신당창작아카데미드 가을축제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전, 예술 통풍 에너지 part2 <미디어아트, 만화경으로 보는 미래의 상상>(2012.06-07)



문래예술공장 2011 MAP(지원사업) 선정작, 잠비나이, 신곡발표회(2011.11.27)



NArT 작품제작 사전단계지원 리허설 및 낭독공연



예술

창작지원

창작공간

문화공간

예술지원도 서울문화재단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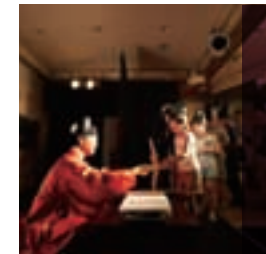
예술창작지원 전통예술 분야 선정작, 박민희, 1인극장(2014)

‘서울의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으로 만들어낸

서울형 예술지원체계

2004년 서울문화재단의 등장은 문화예술계에 단비와 같았다. 당시만 해도 예술지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새로운 주체로서 서울문화재단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컸다.

200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에도 서울문화재단 설립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의 문화육성을 위해서는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의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문화소비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등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한 시설과 재정, 행정,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국’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전문성 부재, 단기적인 사업비 지원 중심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고, 예술지원사업의 장기적인 기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예술지원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내는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었다. 단순한 공모를 통해 수많은 팀을 뽑고, 지원금을 배분하고 정산받는 것, 그 이상은 하기 힘든 형식이었다.”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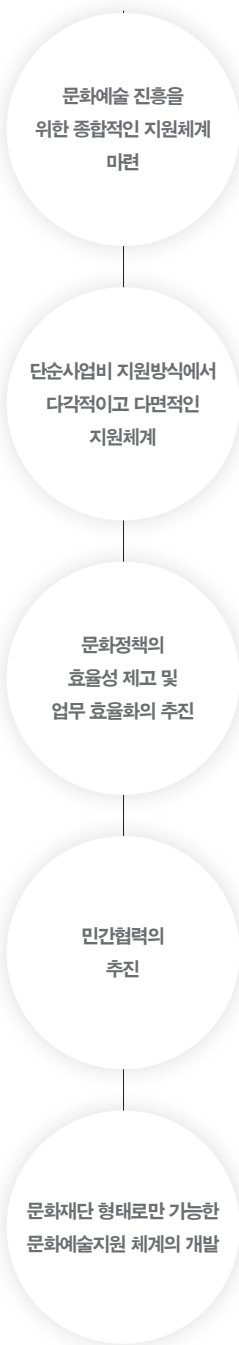
이런 배경 속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지원체계를 포함한 재단 비전체계가 제시되었다. 예술지원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배경과 비전을 확인하는 것은 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이 바로 ‘예술지원’이기 때문이다.

“예술지원사업은 재단 정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있게 한 사업이기도 하며, 이후 재단이 추진해온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기금을 활용한 예술지원이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또는 예술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수많은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이러한 예술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창작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술지원팀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사업의 현재

지난 10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예술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는 구별되면서도 보다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며, 예술현장의 요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살핀 결과를 토대로 <서울형 예술지원 제도>를 구축해왔다. 지난 10년간의 재단이 선보인 예술지원 제도 중에는 그 동안의 중앙정부의 지원 제도를 보완하면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제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년간 집중지원, 사후지원, 실연심사, 예술지원 박람회,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제도 등은 서울문화재단이 다른 기관들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예술지원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폐지되었다가 몇 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시작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한 흐름을 시기적으로 나눠본다면 2004년부터 2008년, 2009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중



2004-2008

시기별로 본 재단의 예술지원정책

다양하고 선도적인 실험과 예술지원의 브랜드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



NArT 리허설 및 실연심사

2004년 설립 당시 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의 양대 축은 시민문예지원사업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1:1매칭으로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시민문예사업은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된 이후 그대로 승계받은 사업이었는데, 당시에는 전문예술영역과 시민문화영역에 대해 별도 구분 없이 '문예일반'이라는 이름으로 혼재돼 있었다. 당연히 지원방향은 소액다건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위탁사업이기는 했지만 공연예술 4개 장르에 대해 전문예술영역 지원, 그리고 상대적 다액 지원으로 명확했으며, 2006년부터는 다원예술이 지원 장르에 포함되면서 5개 장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재단의 고유한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그때, 재단은 새로운

NArT

형태의 사업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탄생했는데, 바로 집중육성 지원사업,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NArT(실연심사 도입), 사후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재단에서 처음으로 브랜드를 갖고 만든 사업이 바로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나트(New Artist Trend)'다. '나트'는 활동경력이 길고 우수한 전문예술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던 지원시스템을 탈피하고, 활동경력은 짧지만 신선하고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연극 연출가, 무용 안무가, 음악 작곡가, 시각예술 작가 등을 대상으로 도전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당 장르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실험적 작품을 선정해 지원했다. 무엇보다 쇼케이스 형식을 통한 실연심사를 도입, 신진 예술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공연예술계 전체적으로 실연심사의 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이후 다원예술페스티벌로 확장, 현재는 재단의 각 창작공간과 함께 사업의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단의 사후지원제도 역시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선보인 방식이었다. 서류심사로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던 시절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던 사후지원제도는 초기 그에 대한 예술현장의 이해가 짧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7년부터 진행됐던 사후지원제도도 굉장히 의미가 컸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의 출발 배경에는 재단이 출범하면서 상정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모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시스템도 잘 잡아갔던 것 같다.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시절,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결과로 공연하고 난 후 사후에 지원해주는 사후지원제도, 실연심사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나트나 집중육성지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방식들이 생겨난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후지원 방식과 달리, 재단에서는 서류심사가 없었다. 그해 진행된 공연 중에서 사업에 신청한 작품들은 전부 다 대상으로 했고, 공연일정과 한두 장 짜리 신청서, 평가용 티켓 20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다섯 분 내외의 평가위원이 관람하고 심사를 진행했었다.”

이현아 문래예술공장 매니저, 2005-2008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후지원 담당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자체적인 브랜드화를 지향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모, 심의, 선정이 서류심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지원방식을 실연심사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시켰고, 신진 예술가와 새로운 장르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 시기만 하더라도 예술지원사업이 재단의 핵심 사업이었고 재단의 자체기금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의 시작 예술지원 규모의 일시적 폭발

재단의 초대 유인촌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2009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예술지원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주요 변화는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확대’, ‘전문심의관제도 도입’, ‘시민 향유 예술지원’ 등 4가지였다.

그 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미 시행했던 사항들이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특히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이 지역으로 매칭되어 시달되면서 서울문화재단도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리체계 안으로 깊이 포섭되게 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협력형사업은 일시적으로 재단의 지원 예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이전 해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폭발하는 행정부담과 함께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후 2010~2011년 서울 지역에 대한 국고 배분액이 급감하면서 재단의 예술지원 정책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전국 국고 삭감액의 77%(전국 감소액 28억 중 21억)가 서울지역에서 삭감되었다. 그 결과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매칭 예산으로 소진된 재단 자체 고유의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인해 지역 예술지원 제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여실히 나타났다.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지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재단의 재원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지역협력형’으로 지원체계가 바뀌면서 오히려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게 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매칭’을 맞춰야 하다 보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거다. 특화된 사업을 만들기에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백승우 예술지원팀장, 2005-2008 문예지원팀

“지역협력형 사업 시행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에서 지역에 할당하는 예산이 클수록, 서울은 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었다. 기존의 제도에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지원까지 종류는 점차 많아지는데 가용한 총 예산은 줄어드니 각 사업별로 할당된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지원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졌던 것 같다.”

김해보 정책연구팀장, 2009-2011 예술지원팀장

지역협력형사업의 시작은 재단의 지원사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2008년까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연간 15억 원 정도만 국고에 대해 매칭하던 것이 2009년에는 70억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 결과 재단의 예술지원 재원이 국고사업 매칭에 소진되어 그동안 다양하게 소신껏 진행해오던 예술지원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2010년부터 국고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틀을 잡아가던 재단의 지원사업이 소액대건

주요 예술정책 방향으로

4대 지원 방향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사후지원체계 마련

간접지원사업 확대

생활 속의
예술 향유 환경 조성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즉 재단 자체적으로 예술지원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칭’의 조건에 따라 감액되어버리고, 중앙정부 매칭사업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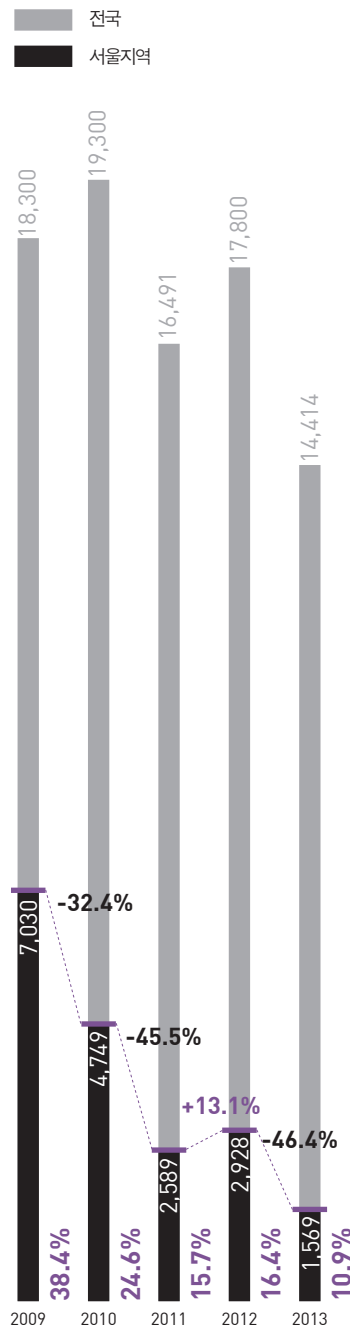
2009년에 갑자기 2배 이상으로 폭증한 예술지원사업의 관리와 그 동안 누적되어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행정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전국 문화재단 중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예술지원 전산관리시스템을 2009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안착시킨다. 확대된 예술지원제도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매칭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예술지원 박람회> 개최도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온라인 지원신청시스템 도입과 그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매해 누적돼온 신청서류가 많았고, 앞으로 또 쌓이게 될 일이 상당할 텐데 신청서와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보관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결국 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산화를 적극 요구했고 전국 시도문화재단 최초로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때 전산화 추진이 안됐으면 지금 같은 예산 규모에서 업무 감당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했던 예술지원박람회를 들 수 있다. (여러 주장도 많지만) 그 사업은 재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전국의 모든 예술지원 관련 정보를 모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였고, 재단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역할을 잘 살려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었던 계획을 실현했던 것 같다.”

서동진 감사팀장, 2012-2014 예술지원팀장

이 시기는 지역협력형사업의 시작에 대응하여 재단이 보다 큰 틀에서 예술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협력형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확대되는 지역협력형사업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재단만의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평론, 작품집, 문학 연계 콘텐츠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도 했고, NArT를 하이서울페스티벌과 페스티벌 장(場)과 연계, 협업형지원사업으로 개선하는가 하면,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공모 형태 전환,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대학로 소극장 우수작품의 중극장 인큐베이팅 등 예술 현장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이 신설되기도 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전산화뿐만 아니라 심사 및 지원금 정산 기준의 체계적인 정립도 가능했던 시기였다.

지역협력형 사업의 예산 변화(단위:백만 원)



창작공간과 연계한 서울형 예술지원의 정착

지역협력형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본격화로 인해 오히려 지역문화의 중앙 종속화가 가속되는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단만의 고유한 예술지원제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창작공간의 재단 고유사업화는 예술지원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공간을 활용한 간접지원뿐만 아니라 NArT를 장르별 특성에 맞게 각 창작공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10년 동안 진행되던, 수시기획 지원(계기성 지원)이 10년 만에 폐지되기도 했고, 예술가 지원 / 예술작품 지원으로 지원 영역을 단순화시키는가 하면,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다년간 지원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신설된 시기이기도 하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2012년에 수시기획 또는 계기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포괄성 예술지원사업이 없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2013년 초기엔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된 것 같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투명한 예술사업의 틀을 만드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거나 나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폐지가 된 것이 초창기에 비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것 같다.”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2014년 서울문화재단의 종합적인 예술지원 구성(창작공간 포함)

지원가치	창의성(Creativity)	우수성(Excellence)	자생력(Self-Reliance)
지원대상	- 신진예술 발굴·육성지원 - 실험적 예술 플랫폼	- 예술가/단체 육성 - 우수작품 발표 지원	- 창작·유통기반 개선 - 시민향유연계, 기업연계
예술작품	• 예술창작 지원(다원예술) • 다빈치아이디어 공모	• 예술창작 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예술가 예술단체	• 유망예술 지원 (다원예술, 시각예술, 무용, 연극)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 문학창작집 발간 지원 • 중견작가작품집 발간 지원 • 창작공간 입주작가 공모 (문학, 무용, 시각예술) •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연계)
네트워킹 예술가·시민· 기업·해외 등	• 흥은예술창작센터(무용+다원) • 서교예술실험센터(소액딤کم) • 문래예술공장	• 연희문학창작촌(문학) • 금천예술공장(시각예술) • 잠실창작스튜디오(장애인) • 서울예술축제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프로그램 교류 지원)	• 서울연극센터(대학로 연극) • 신당협동조합지원(공예) • 온라인 예술갤러리 • 서울메세나 지원 • 국제교류지원

2012-2014

“최근 눈여겨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다년간 지원사업’이다. 연극, 무용 두 장르에서 두 개 단체씩 공모, 선정해 1년씩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다. 재단 설립 초기 운영되다가 폐지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예술현장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올해 사업은 이전의 개선점을 보완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형태로 발전했다. 초반에는 프로젝트형으로 신진단체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는 중견단체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예산 집행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좋아진 것은 경상비 지원이 생겼다는 거다. 지금은 지원금의 40%까지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백승우** 예술지원팀장

“예술지원제도는 왜 자주 바뀌느냐. 어떤 제도든 오래 유지되어야 좋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술지원제도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되어도 원형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2년~3년 지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이 필요하다. 가령 하나의 지원제도가 운영되다 보면 몇 년 동안 수혜를 못 받는 계층과 장르가 생겨나고, 기존에 지원을 쉽게 받아온 단체들은 안일하게 활동하다가 작품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제도에 대한 불만과 다른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 결국 모든 지원기관은 해마다 예술계의 변화와 예술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 지원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체계 없이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서동진** 감사팀장, 2012-2014 예술지원팀장



변하는 행정, 변하지 않는 원칙

현장과 가까이

조금 더 편리한 제도, 조금 더 현장과 가까워지는 정책을 지향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예술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제도의 변증법적인 진화도 확인된다. 정책이나 제도가 행정 편의를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이 꼭 단선적인 진화일 필요도 없다. 현장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문화재단이 10년 동안 지속해온 예술지원정책의 기본 원칙이었다.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재단은 해마다 다년간 프로젝트, 젊은 예술가 지원, 사후지원제도 등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다른 기관들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다보니 선도성도 다소 퇴색되어가고, 2009년부터는 지역협력형사업이 대량 이관되며 지원제도를 자율적, 선도적으로 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이에 따라 지원제도의 온라인화와 정산 강화 등 행정 개선에 보다 노력을 쏟아야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단 내부적으로는 2009년부터 창작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축제사업도 단순히 축제 진행이 아닌, 거리예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무게비중을 옮겼다. 문화사업팀도 2013년부터 시민문화팀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민문화 활성화 측면으로 강화되는 등 어떻게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더 밀착한 방향으로 새로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지원팀에서 중심을 잡고 하는 지원사업의 빈 구석, 놓치는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각 부서별 지원사업이 재단의 전체 지원사업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치된 비전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는나의 관점에서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보완할 변화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김진환 정책연구팀, 2009-2012 예술지원사업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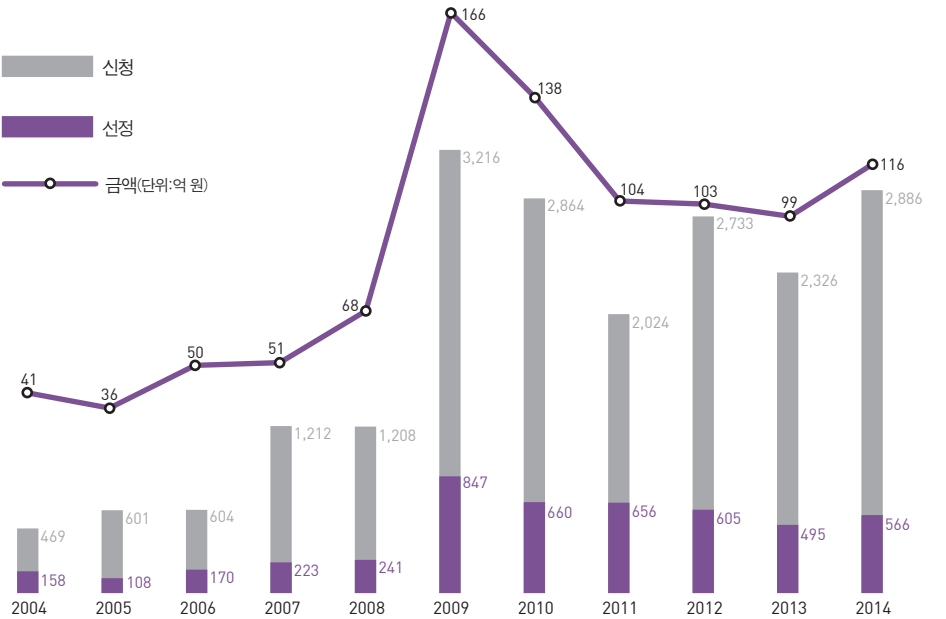
“예술지원사업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사무실 바깥으로 공연도 보고 예술현장과 친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행정가로서의 자신과 예술단체와 스킨십을 하고 예술현장을 잘 이해하는 자신 사이의 역할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공 지원자금 운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무실 안에서 여러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술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재단으로 오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을 잘 아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한혜인 예술지원팀, 2012-2014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재단은 비교적 젊은 조직이고, 얘기가 잘 통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데 있다. 인상 깊었던 건 예술가들한테 지원기관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재단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술가들에게 재단이 필요한 곳으로 인식을 받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도 생겼던 것 같다.” 최윤영 예술지원팀, 2011-2014

“초기 대표이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당신들은 나가서 어느 극단의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예술지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현장 중심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 예술지원팀에 7~8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우리가 키를 쥐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답답했다. 예술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프로젝트형 지원사업도 많이 언급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예산 자체가 지역협력형사업 위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 재단의 자체적인, 독립적인 사업 영역은 후순위가 되기 쉽다. 재단의 자체적인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이 줄어들어가고 정형화된 일반적 지원사업만 되풀이 되어 남게 되면 조직과 직원의 현장성도, 재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술지원사업의 새로운 영역 구분도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전체 지원사업의 50% 정도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으로, 나머지 50%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좋을 것 같다.” 백승우 예술지원팀장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 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재배열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프로젝트형 지원사업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예술지원사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상당수는 심사제도나 평가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다시 다듬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 등 외부환경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외부 지침에 대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침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도 우리 몫인 것 같다.” 김해보 정책연구팀장, 2009-2011 예술지원팀장

서울문화재단의 자금 지원 형태의 창작지원사업의 규모



※ 시민예술활동, 문화행사 지원이 혼재되어 있던 시민문화지원사업은 제외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구성 변화

2004-2014

01

일반 창작 지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연예술작품 공모창작 지원					
		사후 지원(공연)		공연창작 활성화 지원(사후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 국비매칭 위탁								예술작품 지원 (전시, 공연)
					예술표현활동 지원 • 국비매칭 고유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문학, 시각, 공연) • 舊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국비 매칭 위탁사업 예산 포함		예술창작 지원(문학, 시각, 공연) • 舊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국비 매칭 위탁사업 예산 포함		예술가 지원 (문학, 연구서적, 중견작가 작품집)
	예술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 시각/문학/공연/지역/협회		창작 활성화 지원(시각, 문학)		문학창작 활성화 지원					
		조건부 기부금 지원(공연예술 전문서적)				예술연구서적발간 지원				
						예술평론활성화 지원				

02

특성화 집중육성 지원

			대학로 순수예술작품 제작 지원	대학로 문화 활성화 지원						
다년간 프로젝트 지원		유망 예술 프로그램 집중육성 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지원 • 국비 매칭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 국비 매칭				
		젊은예술가 지원 NArT				유망예술가 육성 지원 NArT in Festival	유망예술 육성 지원 NArT in Partners	유망예술 지원(NArT in 창작공간)		

03

축제 지원

		연극제, 무용제 아스티지 지원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지정 지원)	축제 콘텐츠 제작 및 교류 지원	대표예술축제(지정 지원)	대표예술축제 지원(공모)				예술축제 지원(공모)
					우수예술축제 육성지원(공모) • 창작지원사업에서 축제 분야 분리					

04

시민문화활동 지원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문화원, 문예회관 중심 시민 참여활동 지원)			자치구 네트워크 지원(서울문예회관연합회 지원)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서문연)
			자치구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생활속예술 지원	문화배달서비스	생활속예술시장					
		시민문화예술 지원 • 2008년까지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전문창작단체도 지원			시민예술활동 지원 • 2014년부터는 <좋아서 예술동아리>					
			시민축제 지원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05

기타 지원

							서울메세나 지원			
계기성 문화예술 지원				자치구특성화 지원			수시 기획 지원			
				수시 기획 지원						

06

간접 지원

					서울예술지원박람회 개최					
							서울형 문화기업 지원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상상력발전소 시범사업	
						서울시창작공간 운영(2009:서교, 금천, 신당, 연희) (2010:문래, 성북, 관악) (2011:홍은, 잠실)				
										기타 창작 관련 공간 운영(2004:대학로연습실) (2007:서울연극센터, 남산창작센터, 청계창작스튜디오(-2008)) (2009:남산예술센터)



예술

창작지원

창작공간

문화공간

예술과 지역을 잇는 창작공간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잠실창작스튜디오

홍은예술창작센터

창작공간 통합운영



서울시창작공간은 서울 시내의 낡고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는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예술을 통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고, 예술 장르간 통합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예술 참여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둘씩 개관했다. 지역에 저마다의 특화된 전략을 갖고 운영 중인 서울시창작공간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미술, 다원예술, 무용, 문학, 예술치료, 어린이, 장애인 등 공간별 특성화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 내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공간은 커뮤니티형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지역-시민이 만나는 새로운 예술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창작공간의 미션

예술창작 지원

다양한 장르 및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입체적 지원

시민문화
향유 증진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거점형
민관협력

민관 거버넌스, 대내외 협력을 통한
소통의 문화예술 공간 운영



창작공간의 조성 배경

폐교활용촉진법 & 아트팩토리

창작공간 조성은 일면 급하게 진행된 부분도 많다. 그만큼 예술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당시의 흐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창작환경으로 관점을 옮기게 된 것도 주요한 배경이 된다. 창작공간이나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등장했던 배경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2000년대 초반, 미술 장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공간 조성을 시작했던 것이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었으며, 이후 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국공립 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별 산업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창작공간과 관련한 흐름은 더욱 구체화된다. 서울시와 재단은 이러한 시도들에 비해서도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창작공간 조성 범위가 복합적인 형태로 시작됐다. 산업유희공간, 행정유희공간,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민간문화시설까지 다 아울러서 종합적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아트플랫폼이나 경기창작센터도 2009년 일괄 공간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공공 창작공간 조성이 2009년 전후로 일제히 개막된 느낌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창작공간이 많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창작공간을 조성한 것이 다른 시·도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었던 것 같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이규석 본부장이 밝힌 바대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조성비용이나 운영비용이 고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창작공간 조성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또 다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

공간, 예술지원으로서의 공간,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으로서의 공간, 각각의 주요한 목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성장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

”

“컬쳐노믹스다! 2008년 오세훈 시장이 해외 시정 탐방시 ‘아트팩토리’를 접하고 도입을 검토한 것도 배경의 하나였다. 하지만 해외의 아트팩토리는 노후된 시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다가 점유해서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자생적 흐름을 채 갖기도 전에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체계적인 기반과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다가오기도 했다. 실제로 2008년에 입사 후 연희, 문래, 금천, 서교, 신당의 5개 공간 사업계획서를 한꺼번에 기획해야 하던 시기가 있었다. 사실 초기 설계 검토회의 때는 건축 관련해서는 모르는 전문용어도 많아서 인테리어 카페 등에 가입해서 전문용어를 공부하며 회의에 다녔던 기억이 난다.”

나희영 성북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아트팩토리 콘셉트도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초기 자료들 보면 창작공간의 명칭을 ‘아트팩토리’로 가져가려고도 했다는 게 나와 있다. 상표권 문제 때문에 못쓰게 됐지만, 아트팩토리 콘셉트로 문래, 금천에 대한 지역의 환경 분석이라든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축적된 자료들도 많이 있다. 물론 문래, 금천, 서교는 그 이전부터 홍대 앞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획과 연관되었던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창작공간 콘셉트의 같은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추진되었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초기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시작될 무렵 키워드는 ‘예술, 시민, 도시’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창작공간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다른 사업들이나 정책들과 어떤 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초기에 설계되지 못한 채 시작된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공간마다 특화된 미션과 운영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렇게 2009년부터 하나둘 조성된 창작공간은 이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옷을 입고 순항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요소들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재단의 창작공간은 서서히 그 위치에서 지역과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떤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어떻게 예술가들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2008년에는 공간 지원의 기초 기능만을 수행하던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고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와는 차별화되는 세 가지 창작공간의 목표를 설정했다. 인큐베이팅, 지역재생, 시민 문화예술 향유.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목표가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예술가 스튜디오 10여 개를 보유한 2~3층짜리 작은 지역예술센터에서 지역재생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6년간 운영을 하며, 예술교육, 장애인, 산업 연계 등 각 창작공간의 특성화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음에도 앞서 설정한 세 가지 큰 목표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피로감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이다.”

김희영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초기부터 공간을 운영해오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한 적이 많다. 현장과 이론, 계획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조건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지역재생 같은 경우 창작공간의 주된 미션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규모, 예산, 환경 등의 면에서 개별 창작공간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재훈** 홍은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서울시창작공간의 탄생

2008년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전략 일환으로 보고된 아트팩토리 조성 계획을 재단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9월부터 창작공간조성TFT를 운영하면서부터였다. 3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이전부터 유사한 업무인 청계창작스튜디오*,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운영을 담당해오던 공간운영팀장이 TFT팀장을 겸직하게 했다. 당시 이미 2009년부터 1차로 개관될 예정이었던 창작공간들은 이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해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설계와 공사에 달갑지 않은 혼수쟁이로 일일이 개입하기 위한 고분분투가 시작되었다. 슬로건 수준의 전략으로만 존재하던 아트팩토리 개념을 실제 공사와 운영을 위한 창작공간 운영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선철, 김윤환, 조재원 3명의 전문가를 창작공간추진단으로 위촉했고, 수차례 현장 예술가들의 토의,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워크숍, 국내외 자료 조사를 종합하여 2009년 1월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예술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사이에 홍대북합문화예술센터(이후 서교예술실험센터로 명명) 운영사업 위탁 등 순차적으로 개관할 공간들에 대한 운영과 개관식 준비가 진행되었다.

도시기반본부의 관리감독 아래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로 진행되는 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벽면 페인트 도색, 문짝 달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애초부터 예정하지 않았던 연습실 바닥이나 크레인 같은 설비 뿐만 아니라, 예전의 장소적 특성을 존치하는 문제까지 일일이 논쟁의 연속이었다.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개관 후 재단에서 후속 작업을 맡은 것으로 만족하며 개관일자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공간 개관이 거듭되면서 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이전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로 차츰 문제의 소지는 줄어들었다.

* 청계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의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종로구 청계천 3가 센추럴관광호텔 내 로비와 일부 공간을 시각예술 레지던스로 2007년 12월27일에 개관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2009년까지 위탁운영하다가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재단에서 창작공간 운영 전에 운영한 최초의 레지던스형 공간이다.

01, 02, 03 문래예술촌에서 진행된 2008년 정책세미나 모습과 자료집

04 연희문화창작촌 건립 예정지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모습 05 금천예술공장 조성 부지였던 인쇄공장 조우니의 철거 후 모습



2009년 6월 19일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을 필두로 2009년도에는 금천, 신당, 연희까지 총 4개의 창작공간이 개관했다. 2010년도에는 문래, 성북, 관악이 개관했다. 2011년 1월에는 잠실 창작스튜디오가 재단으로 이관되었고, 5월 11일에는 홍은예술창작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했다. 기본적으로 창작공간들은 이전 시설의 기억을 간직하는 건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을 지향했다. 하지만, 공사의 여건상 공간의 이전 기억을 충분히 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남았다.

서울시창작공간 조성 연혁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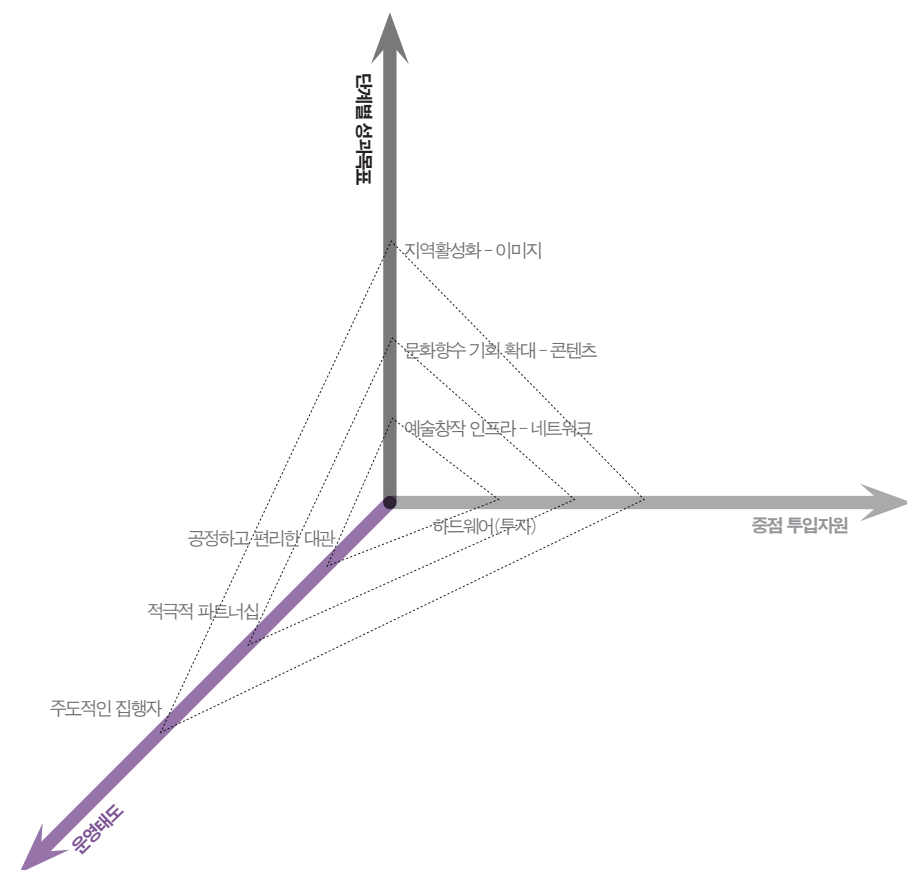
창작공간	시설 개요	개관일	이전 시설	조성 후 운영방향
금천 예술공장	• 대지_ 2,358m ² • 연면적_ 3,070m ² • 규모_ 지하 1층, 지상 3층, 창고 • 위치_ 금천구 법안로 15길 57	2009.10.07	대규모 인쇄공장	예술가의 창의력과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기술력이 만나는 예술+산업 특화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신당창작 아케이드	• 연면적_ 5,057m ² • 규모_ 지하상가 점포 40개 • 위치_ 중구 미장로 87	2009.10.16	재래시장 지하상가	재래시장 속 지하상가 빈 점포를 이용하여 젊은 예술가 작업실 지원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연희문학 창작촌	• 대지_ 6,915m ² • 연면적_ 1,480.15m ² • 규모_ 4개동(각동 지하 1층, 지상 1층), 산책로, 야외데크 • 위치_ 서대문구 증기로 2길 6-7	2009.11.05	서울의 역사 등을 연구 및 집필하는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시 유일의 문학 창작촌 (문인 집필실 지원 및 문학 활성화 사업)
문래 예술공장	• 대지_ 1,017m ² • 연면적_ 2,832.40m ² • 규모_ 지하 1층, 지상 4층(신축) • 위치_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5-4	2010.01.28	철공소	자생적 예술마을인 문래창작촌을 포함한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홍은예술 창작센터	• 대지_ 4,831m ² • 연면적_ 2,044.14m ² • 규모_ 지상 1~2층 • 위치_ 서대문구 명지 2길 14	2011.05.11	서부도로 교통사업소	무용, 무용 연계 예술 지원 및 지역문화 공동체와 소통
잠실창작 스튜디오	• 연면적_ 512.6m ² • 규모_ 지상 1층 • 위치_ 송파구 올림픽로25 종합운동장 내 (잠실동10)	2007.10.05 개관 (11년부터 재단 운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장애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운영
서교예술 실험센터 (위탁)	• 대지_ 416.9m ² • 연면적_ 551.56m ² • 규모_ 지하 1층, 지상 2층 • 위치_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2009.06.19	주민 지원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교동사무소	홍대 앞 밀집 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기획활동 지원 서비스 공간
성북예술 창작센터 (위탁)	• 대지_ 787m ² • 연면적_ 1,997.8m ² • 규모_ 지하 1층, 지상 4층 • 위치_ 성북구 회기로 3길 17	2010.07.28	성북구보건소	예술을 통한 시민과 사회(공동체) 치유의 공간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위탁)	• 대지_ 308.8m ² • 연면적_ 403.17m ² • 규모_ 지하 1층, 지상 2층 • 위치_ 관악구 은천로 10길 3	2010.12.17	은천동사무소	관내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및 어린이대상 예술체험 창작지원

서울시창작공간의 전개

창작공간은 2009년 개관 후 본격사업 시행 1년 사이에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2010년 10월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되었던 〈2010 창작공간 페스티벌〉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부터 매년 개최되어 오는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은 매년 주목받는 주제를 선정하여, 서울의 주요 레지던스로서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국내 예술자원의 새로운 정책 흐름을 주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한 창작공간 페스티벌은 2014년에는 전국 창작공간들이 참여하는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로 발전했다.

2012년 경영 4기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위탁사업에 사업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던 창작공간의 재단 고유사업화와 무기계약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개관 초기부터 〈예술창작지원〉, 〈시민문화향유 증진〉, 〈지역재생〉이라는 벽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2012년 조직개편 연구에 이어 2013년 “서울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전략” 연구로 이어졌다.

“유틸시설을 활용한 서울시예술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2009.01) 상의 단계적 목표와 운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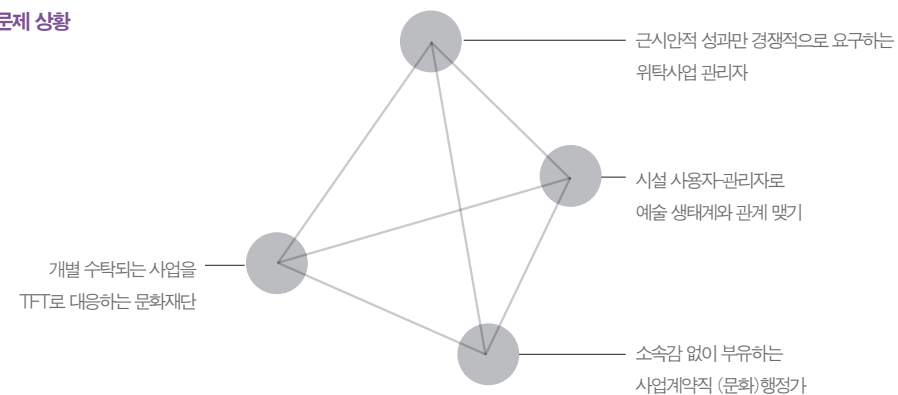


공간시설, 재산, 노무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창작공간을 재단의 경영체계 안으로 원만하게 안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창작공간의 전문화와 동시에 재단의 고유사업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광역문화정책의 거점화는 서울문화재단의 앞으로 10년 경영전략에서 핵심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의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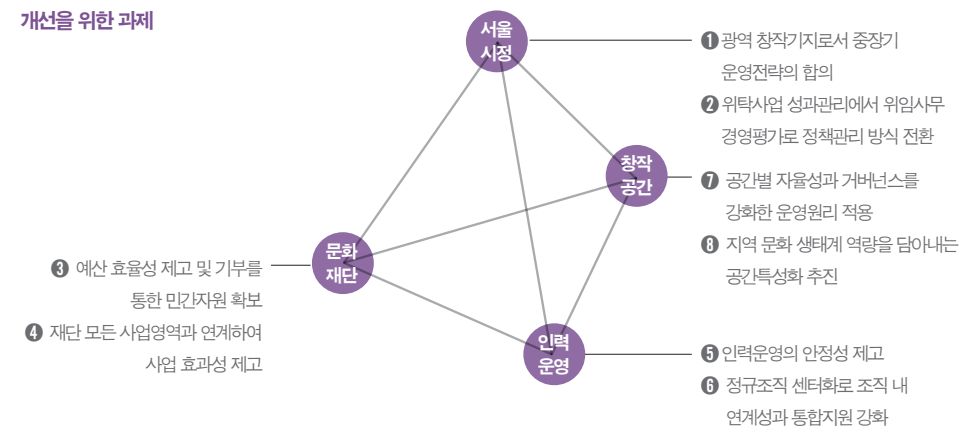
이미 예술지원 분야에서는 NArT를 각 창작공간별로 매칭하여 단순한 공간 지원에서 나아가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그 성과는 입주작가 또는 지원작가들의 해외 유수 예술행사로의 초청과 수상 실적으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거점으로,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개별 공간별 접근보다 창작공간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재단 사업 전체와 연결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조직개편 TFT에서 논의된 창작공간의 당면 문제와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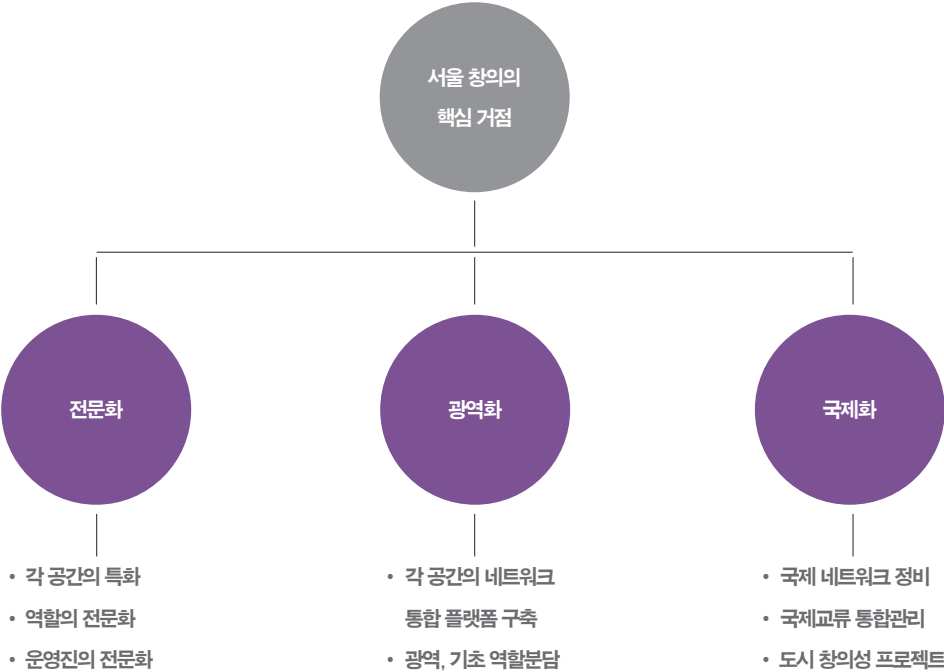
현재 문제 상황



개선을 위한 과제



2013년 “서울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전략”에서 제시된 3대 전략



창작공간 주요 연혁

2008

- 09.16 **창작공간조성TFT/추진단 구성**
- 12.18 창작공간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아트팩토라-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09

- 01.31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발간
- 06.19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
- 10.07 **금천예술공장 개관**
- 10.08 2009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 10.16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 11.05 **연희문화창작촌 개관**
- 12. ‘서울시 예술공장 탄생이야기’ 발간

2010

- 01.28 **문래예술공장 개관**
- 07.28. **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
- 10.02 2010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10.02-10.10 / 여의도 한강공원 외 6개 공간)
- 11.04 2010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11.04-11.05 / 금천예술공장·문래예술공장)
- 12.1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개관**

2011

- 01.01.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이관**
- 05.1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 09.30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09.30-10.03 / 선유도 한강공원)
- 10.27 2011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예술의 실험:예술가, 기업 그리고 산업단지’(금천예술공장)

2012

- 06.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명칭 변경**
- 10.2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위원회 With맘 발족
- 11.01 2012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신화 또는 현실:정책, 예술가, 커뮤니티’(서울역사박물관)
- 12. 서울시창작공간(금천, 신당, 연희, 문래, 홍은, 잠실)의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확정

2013

- 01.-03. 서울시창작공간 공간별 거버넌스 본격 도입
(서교공동운영단 및 금천, 문래, 성북, 잠실, 홍은, 연희 운영위원회 발족)
- 09.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개선 및 재개관
- 10.31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협동조합 발족 선언
- 11.28 2013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제도의 팽창:예술가 공적 지원의 쟁점’(서울시청 대회의실)
- 11.28-30 2013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시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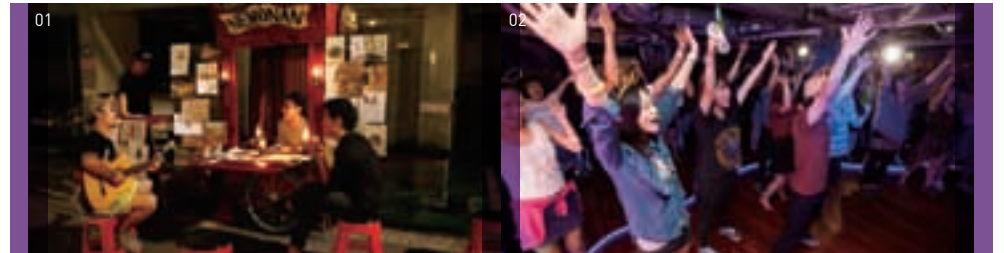
2014

- 02. 연구보고서 ‘서울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의 전략’ 발간
- 02.-03. 서울시창작공간 입주 및 프로젝트 지원 통합공모 시행
- 11.27 2014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서울시청 대회의실)
- 11.27-30 2014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시민청) / 전국 12개 문화재단 참여



서교
예술실험센터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2009년 개관한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흥대 앞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 생산 및 지역문화 생태계를 이어주는 역할 외에도 잠재력을 지닌 젊은 예술가에게 다양한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01 소액다큐 선정프로젝트 〈메르헨마차〉(2013.08, 홍대 앞) 02 불금댄스(2013.08, 서교예술실험센터)

배소현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2011-2014
서교예술실험센터
매니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재단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생적인 문화예술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던 홍대 지역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도 민(예술인)과 관(센터)이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공동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당시는 홍대 앞 상업화에 따라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이 극대화되던 때이기도 했다. 위기와 기회가 맞물려 홍대 앞을 살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술가들과 센터가 마음을 합쳤고,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좌충우돌을 겪으며 <공동운영단>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공동운영단>과 함께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 예술 생태계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새로운 소액 지원방식(소액다كم)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홍대 앞 문화자원 맵핑, 네트워크 등)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홍대 앞 예술생태계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조예인

서교예술실험센터
매니저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경우는 다른 공간과 달리 예술가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방향의 요구를 많이 받기도 한다. 홍대 앞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갖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프로젝트의 구조, 지역 연계 프로그램 구성 등 어떻게 하면 모든 면에서 홍대 앞 예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해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
유망예술지원사업 '99°C'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자가 멘토와 한 팀이 되어 10개월간의 여정을 함께하는 1:1 책임 멘토링 프로그램
현대 앞 문화예술 맵핑 프로젝트	현대 앞 문화예술 지형도의 변화상을 특정 주제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중검	현대 앞에서 벌어지는 소소하지만,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소액지원사업
기타 프로그램	현대 앞 일상을 바꾸는 10분 토크 예술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생활형 신공'을 가진 분을 연사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10분 토크' 프로그램 버스킹 스테이지 서교의 들 '살롱바디비'의 주인장 우중독보행이 직접 섭외한 인디 뮤지션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정마담의 살롱 드 서교 밴드 '더Mun'의 보컬 마포FM '살롱 드 뮤지카'의 DJ, '잔다리 페스티벌'의 멤버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대 앞 마당발 정마담이 방청객과 함께하는 아트토크 살롱

금천
예술공장

2009년 금천구 독산동의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금천예술공장은 시각예술 전문 창작공간이다. 세계 25개국 145명(팀)의 시각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전시, 학생·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스튜디오 오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01 블루이워:기능과 미학의 경계(2013다빈치아이디어 공모 발표회, 금천예술공장)

02 신화 또는 현실:정책, 예술가, 커뮤니티(2012서울시창작공간실폐자임, 금천예술공장)

김희영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금천예술공장은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가 대표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커뮤니티아트사업을 6년째 진행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시도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금천예술공장의 사업비에서 커뮤니티아트와 시민문화 향유·교육 관련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상대적으로 홍보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우수한 예술가들을 유인하는 면에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어 “뉴욕의 에이펙스아트(Apexart)에 가기 위해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에 지원했다”는 작가들이 왕왕 있다.

주요 사업	내용
입주예술가 정기공모	매년 1회 정기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들을 선발하여 공간 지원 중심의 기초 창작 지원은 물론, 해외 예술가 1:1 교환 프로그램,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비평가, 큐레이터, 사회학자, 철학자 등 대상), 커뮤니티 & 리서치 프로젝트 지원 등 국내 예술가의 국제화와 예술적 심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
오픈 스튜디오	입주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일 년에 단 한 번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예술가들의 실생활을 직접 들여다보고 향유하는 행사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산업에 영감을 주는 예술’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전시까지 지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선발하며, 일반적 지원과 달리 제작비 지원뿐 아니라 산업체 후원, 기술지원 등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기업체의 자금, 기술, 부품 후원을 유지하고 있음 예술가와 산업체가 만나는 실제 접점을 찾아내고 있음
국제심포지엄	문화예술 분야의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발제자를 초청하여 문화예술의 국제적 담론과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지적 교류의 장이자, 예술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적 점검의 장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해외 주요 도시(뉴욕, 타이베이, 멜버른, 샤르자 등)의 예술가 레지던시 스튜디오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간 간 1:1 예술가 교환-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예술재능 나누기	학생과 시민들에게 국내외 최정상급 입주예술가의 예술적 재능을 기부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아티스트 인 스쿨>, <예술가와 1박2일>, <예술가의 방> 등 창의적 방식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으로 운영

신당
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1971년에 조성된 신당 지하쇼핑센터 내에 52개의 빈 점포를 40개 실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공예 중심의 창작공방이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흥정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삶의 터전인 시장의 중심에 예술가들이 하나들 모여들면서 형성된 창작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조예인

서교예술실험센터
매니저
2009-2013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워낙 시설이 낡고 칸칸이 좁아서 어떤 장르가 들어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예로 자리를 잡게된 거다. 사실 시각 회화나 페인팅 같은 걸 하고자 해도 규모가 맞지 않았던 현실도 있었고, 지하상가가 처음에 노출 콘크리트로 비어 있고, 안 좋은 물질이 많은 공간이기도 했다. 공예장르에서도 사실 섬유, 텍스타일, 유리, 도자 같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금속이 가장 부피가 작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지금도 금속작가들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도자 등의 장르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공예 중심의 레지던스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시장이라는 특성과 예술가 인큐베이팅을 연계하려다 보니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에 놓이게 됐다. 두가지 미션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는데, 작가와 지역, 시민을 연계해 공예예술을 만들고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진행했다. 그리고 이후 페스티벌 형태로 확장되면서 지역활성화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김진호

신당창작아케이드
매니저

상상하지 못했던 재래시장 지하상가에서 재단 생활을 시작했다. 야생마처럼 좌충우돌하던 중 실패할 수 있는 기회와 지켜봐 준 시간 덕분에 변화하는 상인들,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다. 각 창작공간들은 조금씩 다른 체계로 운영됐지만, 비슷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주요 사업	내용
입주작가 창작 지원 ‘입주작가 생산자 협동조합’	입주작가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창작지원 사업을 운영, 공동생산, 판로개척, 공동마케팅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한 예술 생태계 자생력 강화가 목표
지역축제 - 황학동별곡	황학동 지역주민, 시장 상인, 신당 입주작가가 함께하는 중앙시장 가을축제로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등 황학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결과를 보여주는 지역 행사
기타 프로그램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예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신당창작아케이드 작가들의 입주 결과를 보고하는 전시회 아트마켓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의 아트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여 작품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교류 창구

연희
문학창작촌

서울시 최초의 문학인 전용 집필실인 연희문학창작촌은 2009년, 연희동 옛 시사편찬위원회 자리에 ‘글림’, ‘홀림’, ‘울림’, ‘들림’이라는 4개의 공간으로 조성, 20개의 집필실과 야외무대, 문학미디어랩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17개 집필실은 국내 작가의 순수문학 창작을 위해, 3개 집필실은 해외문학 교류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로 활용되고 있다.



01 '문학, 번지다' 선정프로젝트 <누가내원고를가져갔을까>(2014. 11, 연희문학창작촌) 02 연희목요낭독극장(2010. 04, 연희문학창작촌)

안현미
예술지원팀,
2010-2014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연희문학창작촌은 시사편찬위원회라는 서울시 역사를 편찬하던 기관이 있던 곳이다.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역사를 그려가는 맥락에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학 분야의 창작공간이 그 자리에 자리잡게 됐다. 그리고 주택가라서 다른 공간과 달리 조용해야 한다는 점이, 글만 쓰고 사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창작공간과 들어맞았다. 11월 5일 개관을 했는데, 그 땐 정말 허허벌판이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연희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홍대처럼 원주민은 나가고 새로운 상업적 물결들이 들어오는 핫한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연희문학창작촌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대에서 밀려난 예술가들이 연남동, 연희동으로 많이 왔고, 그런 식으로 연희동이 많이 변했다. 지역 재생이라든가 지역 재구성에 연희가 한발 정도는 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주요 사업	내용
작가 레지던스 운영	국내 17실·국제 3실을 포함한 총 20개의 집필실 운영, 문학창작활동 집중 지원
국제문학교류 LINK	국내외 작가 교류를 위한 워크숍, 낭독회 등 운영
연희목요낭독극장	문학과 타 장르(연극, 무용, 음악 등)가 결합한 복합 낭독극으로 예술가에게는 창작물 발표의 기회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이색적인 문학 향유 서비스 제공
연희문학학교	시민의 참여와 배움의 기회 확대 및 시민예술가 육성을 위한 문예창작교실로서 '시 창작반', '소설 창작반'을 상/하반기 각각 12주씩 운영
<문학, 번지다> 프로젝트	문인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문학 기반의 예술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통섭적 콘텐츠 발굴과 이를 통해 문학가의 역량 확대, 전방위적 예술적 소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가을문학축제	전시, 공연, 낭독회 등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기타 프로그램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들의 공간탐방 및 작가와의 만남 '미래문학 IN'>, <예술가와 시민의 아지트 창작카페 '연희'> 등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계협력 프로그램 한국작가회의, 대산문화재단 등 외부 유관기관과 재단 내부 부서 간(교육 및 지원사업 등) 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입주작가 등 문학 콘텐츠 아카이빙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아포리즘과 같은 한 문장의 입주 소감 및 작가의 손 도판 등 문학 콘텐츠 아카이빙

문래
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은 자생적 예술 마을인 문래창작촌을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센터로 2010년에 개관했다. 문래동 철공소 거리의 옛 철재 상가 자리에 전문창작공간으로 공동작업실, 다목적발표장을 비롯해 녹음실, 세미나실 등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이 있다.



서명구
서울연구센터
매니저,
2010-2013
문래예술공장
매니저

문래창작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예술 생태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원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공간을 운영해왔다. 한 축으로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유망예술지원사업을 문래예술공장과 연계하여 현장과의 접점이 있는 창작지원 프로그램, 'MAP(Mullae Arts Plus)'을 운영했다. 특히 다원예술 분야는 문래창작촌 외부의 예술가와 그들의 창작활동이 문래창작촌과 문래예술공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창작활동과 만나 문래예술공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작업, 실험,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다. 물론 초기에는 문래창작촌 예술가나 아니냐 등 예술가들의 상황에 따라 문래예술공장에 대해 바라는 점이 많이 다르기도 했다. 특정한 콘셉트를 가진 예술지원의 기지와 지역예술 생태계·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센터라는 두가지 역할에 대한 각자의 바람이, 개관 3년차에 접어들던 2012년 즈음부터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속에 조화를 이루게 됐던 것 같다. 2013년부터는 문래예술공장 운영위원회의 발족으로 재단과 예술가·커뮤니티 간에 그리고 예술가 간, 커뮤니티 간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예술생태계 지원 그리고 다원예술 분야 지원 역할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가 공간의 특성화와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것 같다.

주요 사업	내용
지역예술 생태계 역량강화 사업 ME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 기획자, 지역예술 생태계 구성원의 창작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및 프로모션사업	문래창작촌의 대안공간 및 예술가(단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커뮤니티 활동과 발표활동, 홍보, 프로모션을 지원·실행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Mullae Arts Plus)	다원예술, 전통 기반 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신작 창작 및 작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장르 특화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국제교류 프로그램	호주 REM Theatre와 싱가포르의 The Substation 기관 간 예술가 교환을 기반으로 공동창작 워크숍을 진행, 장기적인 국제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 간 협업 환경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기타 프로그램	장롱 속 기타 꺼내기 상시 프로그램으로 기타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성북
예술창작센터

옛 성북구보건소 이전 터에 자리 잡은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비전으로 2010년 개관했다. 보건소라는 공간 특성을 되살려 예술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는 문화예술보건소로서의 미션을 수행한다. 예술가 및 전문 예술치료사들이 개발/운영하는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방과 텃밭 등 센터를 거점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진행된다.



김수윤

홍보팀,
2012-2014
성북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성북예술창작센터가 개관할 즈음에는 그야말로 힐링 열풍이 불고 있었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이미 힐링 서적, 힐링 강의, 힐링 음식은 물론 힐링 베게까지 출시될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우리사회에서 ‘예술치유’란 얼마나 낯설고 부정적이었던지, ‘치유’라는 단어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던 학교나 기관들을 붙잡고 단어의 정의부터 설명해야 했다. 홍보물에서 ‘치유’라는 단어를 뺀 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홍보하기를 3년쯤, 손사래 치던 학교들은 예술치유의 효과를 경험하고 이제는 앞다투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다. 힐링 열풍은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지만, ‘감정’이 작년 출판계 키워드로 떠오르고 인문학 강의의 열풍이 불고 하는 것들은 겉핥기식 힐링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기 내면에서부터의 힐링을 다시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새로운 10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다.

나희영

성북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성북예술창작센터의 경우에는 예전에 성북 보건소로 쓰던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보건소의 장소성, 역사성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예술치유로 특화된 운영 방향을 세우게 됐다. 예술치료가 작가 중심의 장르가 아니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실제로 많이 하고,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심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가 다시 많아지게 되어 시민들의 창작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커져왔다. 무엇보다 예술치유로 특화된 공간이기에 프로그램들이 예술치료와 관련된 병원이나 예술치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충실하다. 또한 성북구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문화 기획이나 축제 활성화 같은 것은 성북문화재단 등에서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기에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색을 살린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과 연대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
힐링아트랩 프로젝트	예술치유(치료) 프로젝트 예술가와 시민이 교류하는 커뮤니티형 예술치료 프로그램
- 예술치유(치료) 프로젝트 - 예술치유 전문성 강화사업	예술치유 전문성 강화사업 예술치유 분야의 개념 정립과 사회적 효과 연구, 세미나, 협업 프로젝트 개발
외부 연계사업	힐링 스쿨 성북구청 지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업, 교우관계, 학교폭력, 진로 같은 학교 및 학생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입주예술가/치료사들이 고안한 예방적 예술치유 프로그램 초록나무 프로그램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지원으로 암환우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옥상공방 커뮤니티 〈나무와 우리 W a U〉 재활용 목재를 수거해 성북구 내 소의 이웃들에게 기부할 소품들을 제작, 시민들이 일상에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민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 문화향유 프로그램	텃밭 커뮤니티 〈내부순환텃밭〉 ‘농사가 예술’, ‘일상이 예술’을 모토로 채소 경작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친환경 농법과 생활의 지혜 공유 예술치유 페스티벌 공연, 전시, 특강, 예술체험, 포럼 등을 통해 예술이 가진 ‘치유(healing)’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지역민 대상 페스티벌 예술로 토요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어린이·청소년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성북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치료사들이 직접 기획, 진행하는 무료 예술체험활동 무더위 테라피/동치미 방학기간 어린이 대상 예술치료 프로그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구 은천동주민센터의 이전으로 생겨난 유휴공간을 활용해 2010년 개관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관악구에 어린이 예술 인프라를 창출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어린이에게 예술가와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예술가에게는 어린이와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예술 작업의 범위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예술체험공간이다.



나희영
성북예술창작센터
매니저
2012-2014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매니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술체험 프로그램, 공연 위주의 극장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민들 간 협력관계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여기가 예술창작공간이냐는 것이었다. 소위 창작공간은 예술가 창작지원, 인큐베이팅 등 고유 목적성이 있는데,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및 아카데미가 어떻게 예술창작공간이 될 수 있느냐는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술체험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술가 공모·선정, 작업·협업, 프로모션까지 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단순 예술교육 강사가 아니라 작가로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체험 전용공간으로 특화해 공공의 영역에서 시도했다는 데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향후 유사한 어린이 전문 예술체험공간을 10개소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민지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매니저

정형화된 일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고유의 작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아이들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예술가의 창작에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예술가들도 아이들과의 경험에서 많은 영감과 고유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린이 문화예술 특성화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예술가보다 시민에게 더 중요한 창작공간이기도 하다. 어린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쉽게 질 높은 예술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이로부터 다른 예술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 역할, 그것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사업	내용
정규 프로그램 〈예술체험 프로젝트 ‘씨’〉	어린이가 예술가와 함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예술을 자발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상설 체험 프로그램 〈관악창작공방〉	상시로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생활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예작가와 함께 유리, 금속, 도자공예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품들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관악영랑방석극장〉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진행되는 주말 공연 프로그램으로 연극, 인형극, 음악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With맘〉	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With맘 커뮤니티 운영. 어린이와 예술가, 지역의 매개자로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및 지역사회의 조력자 양성
기타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급 공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의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예술체험 프로그램 보급 특별 프로그램 기획전시 및 창작워크숍 등 방학 기간이나 연말 시즌에 맞추어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예술가, 예술교육자들의 네트워크와 협업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2011년 재단의 TA(Teaching Artist)들을 섭외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TA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참여 예술가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프로젝트의 시작 때에는 어떻게 협업의 계기를 만들지 난감했던 점도 있었으나, 양자 모두 서로의 강점을 살려 공동 작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나오게 됐다. 또한 처음 어린이 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기획자, 연출가, 선배 예술가의 멘토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일방적인 전수가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작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발적 협업은 관악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서로의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민 중심의 공간답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는 시민운영위원회 “With맘”이 있다. 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인 “With맘”은 공간 이용자 및 지역 협력자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공방 프로그램의 보조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With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공간의 홍보 대사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소양 증진을 위한 예술 특강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잠실
창작스튜디오

2007년 서울시가 송파구 종합운동장 내 舊중소기업제품 판매 전시장을 재활용해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을 2011년부터 재단에서 운영, 장애예술가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오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예술가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원, 입주공간 지원 외 입주작가들의 교육 및 전시활동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예술가의 작가적 성장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업작가로서의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재능 발굴 및 장애예술 분야의 전문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01 2013 장애아동창작지원 프로젝트A 기획전시(시민청)
02 2014 잠실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이슈토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방향을 이야기하다

강득주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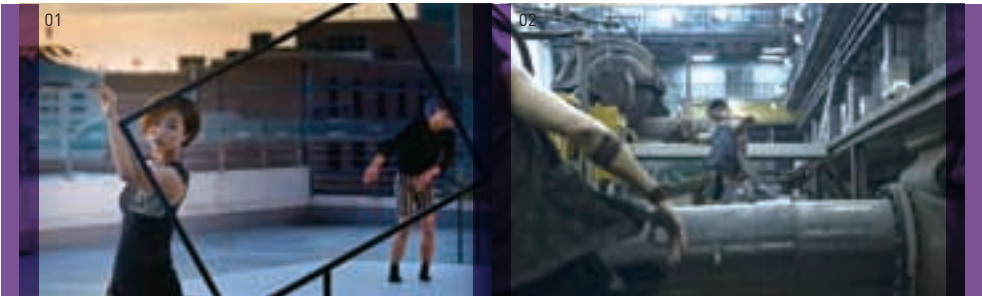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사실 지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공간에 창작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역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 환경과도 관계가 어려웠다. 하지만 여기에도 작은 생태계가 생긴다. 문제는 이 생태계가 큰 예술 생태계 안에 같이 섞여야 하는데 섞이지 못하고 따로 놓고 있다는 데 있었다. 재단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과 섞일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시도를 더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
입주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 1회 정기 입주공모를 통해 13명의 입주자를 선발, 작업 공간 외에 전시 및 발표활동 및 홍보 지원 연 1회 오픈 스튜디오를 겸한 입주예술가 연합 전시 지원
입주예술가 역량개발 지원	입주작가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굿모닝스튜디오>를 통해 미술이론 강좌 및 도예, 판화 등의 미술 실기 강좌 진행
장애아동 창작 지원 <프로젝트 A>	장애아동의 미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재능 있는 장애아동을 발굴·선발하고, 멘토 예술가와 1:1 매칭을 통해 꿈나무 작가 양성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하나되어 소통하는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장애인의 날 소통 프로그램 <꽃발>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체험 소통 프로그램 원에 힐링 프로그램 <풀놀이> 전문 플로리스트의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가족·활동보조인이 함께 원에 강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심신의 치유를 돕고 소통의 회복 도모

홍은
예술창작센터

옛 서부도로교통사업소를 활용해 조성, 2011년 개관한 홍은예술창작센터는 무용 분야 유망예술가 육성, 무용과 연계 가능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집중 지원하는 등 무용 예술을 중심으로 창작지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공동체와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01 유망예술 닛 선정작, 열혈예술청년단 <생포된 풍경>(2013, 홍은예술창작센터)
02 댄스토리서울, 구의취수장(사진:Gianmarco Bresadola, 2014)

최재훈
홍은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설립 추진 당시에는 ‘무용 레지던스’라는 개념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개관시에는 무용 외에 시각예술 입주작가를 선발해 운영하게 됐다. 두 장르의 예술가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계 작업이 이뤄지리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2013년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무용과 무용과 연계 가능한 예술가를 함께 심사하고 선발했으며, 공동 기획으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무용 역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안무가들과 다른 장르 예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융화됐으며, 2014년에는 무용을 중심으로 무용과 연계 가능한 예술가의 입주공간으로서 성격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무용 중심 레지던스’라는 초기 콘셉트를 지켜가며, 점점 무용의 비중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
입주예술가 창작 발표	입주예술가들과 공동으로 기획해 공연, 전시 등 창작 발표
무용과 연계한 협업 프로젝트	무용과 연계 가능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만나 펼치는 협업 프로젝트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무용 분야 예술가들을 초청해 국내 무용가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작업을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무용 활성화를 주도하는 프로그램
춤 선물 프로젝트 <춤, 바람(Dance, Wishes)>	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으로 춤을 선물하고 싶은 시민의 사연을 접수, 사연에 따라 춤을 만들고 선물하는 무용 대중화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무용 워크숍 프로그램 ABCD(Any Body Can Dance) “누구나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춤”을 모토로 예술적 감수성 및 창의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음악, 과학, 미술, 문학 등 타 장르와 무용을 결합한 무용융합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잘, 좋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봉틀동아리의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술심포지엄 <무용담(舞踊談)> 세계무용계의 흐름을 공유하고, 한국 무용계의 현상을 진단함으로써 무용계의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프로그램

창작공간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시도하다

창작공간 통합운영

9개의 서울시창작공간은 각각의 공간에 맞는 장르·분야별 특성을 갖춰왔다. 하지만 해외의 유명한 창작공간이나 국내의 경기창작센터와 같이 대규모 공간에 다양한 장르가 한데 모여야만 발휘되는 효과도 있다. 중소 규모이며 특성화된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장점과 대비되어 각각의 개별 공간이 갖는 규모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고자 서울시창작공간은 7개 공간이 개관을 완료한 2010년부터 ‘협력’과 ‘네트워크’에 보다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선 내부적인 협력을 다지고 창작공간의 성과와 창작공간과 함께했던 작가들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가까이에서 창작공간을 소개하고자 2010년 10월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난 첫 번째 행사는 2011년 9월에는 선유도 공원과 각 창작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독자적인 예술축제로 개최했으며, 2013년 11월 세 번째 행사부터는 시민청으로 자리를 옮겨 더욱 내실을 기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로 확장된다.

창작공간페스티벌의 발전 과정과 함께 서울시창작공간은 국내 창작공간과의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또한 진행해왔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창작공간 간의 상호협력망 구축과 운영 노하우의 공유, 창작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 생산을 목적으로 2010년에는 ‘전국 창작공간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1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 창작공간 네트워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 5개월간의 포럼,

좌담, 네트워크 성과 전시 및 자료집 출판 등을 진행했다. 전국 창작공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노력은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로 수렴하게 된다.

2012년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문화재단이 공동의 문화정책 의제 발굴·제안, 교류 등을 위해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창작공간의 예술가를 소개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통합 페스티벌에 대한 제안도 나오게 됐다. 네트워크 워크숍·프로젝트와 같은 창작공간 간 직접 교류에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통한 기관간 정책 교류와 의지가 더해지며, 서울을 포함해 전국 12개 시도문화재단과 서울의 9개 창작공간 등 30여 개 창작공간이 참여하는 2014년 제1회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창작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창작공간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학술행사·시민체험 등 다양한 시민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창작공간의 (정책적) 흐름을 정리·제시하기도 했다. 통합 페스티벌은 전국 창작공간이 한데 모여 지역의 예술가를 소개하고 창작공간의 담론을 발전시켜나가는 첫걸음이자, 지속적 행사의 시작으로 그 의미가 깊다.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은 2014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단위 창작공간 예술축제다. 전국의 창작공간 담당자들은 처음 이 행사를 기획하며,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등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각예술이 중심인 창작공간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창작공간과 지역의 신진작가들이 교류하고 성과를 나누며 공공적 예술을 선보이는 새로운 페스티벌’로 콘셉트를 잡고 진행했는데 처음이기에 추진체계, 예산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다. 예술가와 창작공간, 그리고 지역 간의 관계와 소통이 반영된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작이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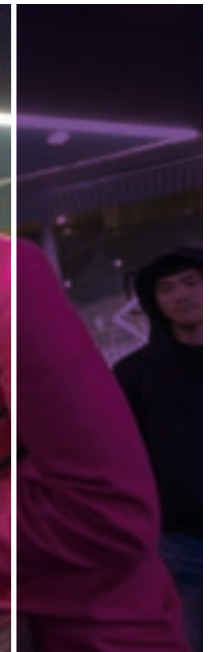
박은희 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매니저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2011, 선유도 공원)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2013, 시민청)





금천예술공장 2013 다빈치 아이디어 전시, EMP, '손으로 보는 소리' (2013.09)



신당창작아케이드



2012 문래예술공장 MAP 선정작, 남동현, '줄 수 있는 것, 팔 수 있는 것, 주거나 팔 수 없지만 보존해야 하는 것' (2013.01)

창작공간 운영 성과와 비전

창작공간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각각의 공간은 2~3년의 시간을 거치며 지역(시민)과의 연계의 폭을 넓히고, 예술가와의 협업을 확장하는가 하면, 저마다의 특화된 장점을 갖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창작공간이 조성되던 초기에는 전례가 없었던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았던 미션도 2014년에 이르러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제 창작공간은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고 특성화된 강점을 가지고 지역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둘 창작공간이 애초에 의도했던 가시적인 성과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공간의 중요성이 더 없이 강조되는 지금의 예술 환경에서 어떻게 공간을 운영하고, 어떻게 중심을 가져가야 하는지, 흐름을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서울시창작공간에 대해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창작공간이라는 하나의 패키지가 상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이슈와 집중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다. 벤치마킹을 하러 신당이나 연희 같은 데 많이 찾아가서 보고, 그걸 모델로 지방에 굉장히 많은 창작공간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선도적 역할을 해왔지 않나 생각한다. 실제로 도심 지역의 조그만 공간을 활용한 사례로 벤치마킹을 엄청 했던 것 같다.”

안현미 예술지원팀, 前 연희문화창작촌 매니저

“우리 안에서는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레지던스’가 갖춰야 하는 결정적인 환경, 즉 도심 입지와 교통 등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설이 좋다고 본다. 해외 나가서 비교해 봐도 그렇고, 지방에서 봐도 너무 좋다.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어디 가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경우 센터의 1년 예산 전체 해당하는 걸 우리는 각 공간의 사업예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재단에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와 지원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재단이 창작공간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김희영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서울시창작공간 입주예술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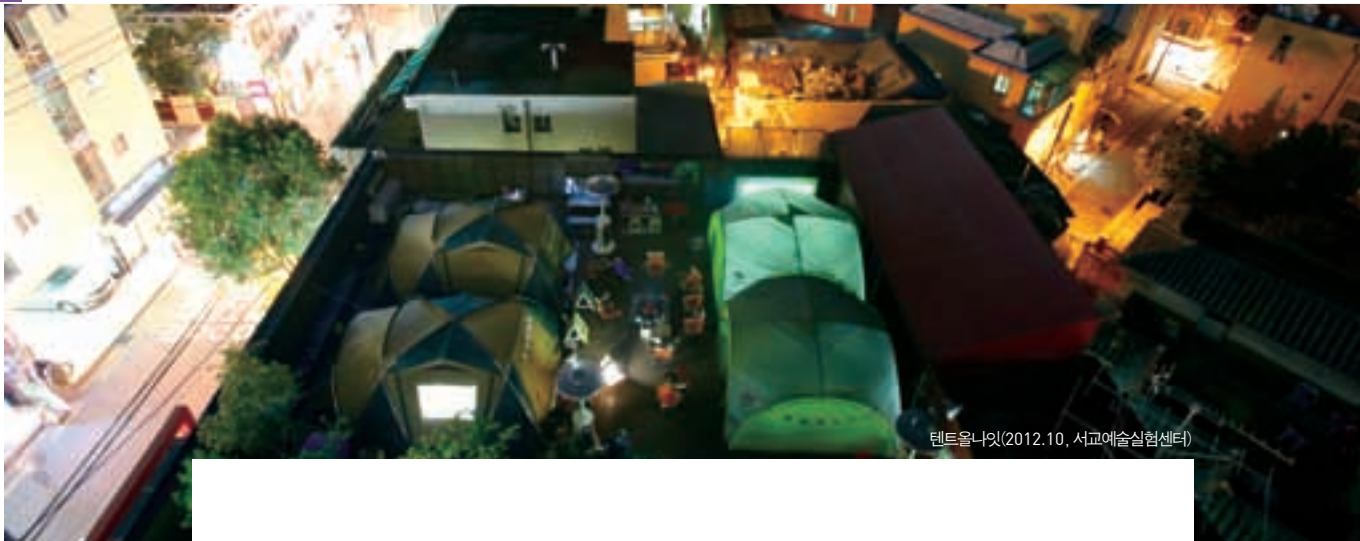
2009-2014

구분	입주공간	2009	2010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2009.06개관)	4실→0실 (12년 변경)	6	11	프로젝트 공모에 따른 선정 단체에 한하여 일정기간 입주	9	프로젝트 공모에 따른 선정 단체에 한하여 일정기간 입주
금천예술공장 (2009.10개관)	19	14	39	국내 17 해외 22	25	국내 14 국외 11
신당창작아케이드 (2009.10개관)	39	40	40	2009년 입주예술가와 동일	35	국내 35
연희문화창작촌 (2009.11개관)	20	25	76	국내 65 해외 11	86	국내 68 해외 18
성북예술창작센터 (2010.07개관)	8	-	7	국내 7	8	국내 8
홍은예술창작센터 (2011.05개관)	12	-	-	-	19	국내 16 해외 3
잠실창작스튜디오 (2007개관→ 2011- 운영)	14	-	14	국내 14	19	국내 19
계	112실	85	173 (187)	국내 140(잠실 포함 154), 해외 33	201	국내 169 해외 32
문래예술공장 (예술가호스텔) (2010.01개관)	9	-	111	국내 10 해외 101	137	국내 37 해외 100

2012		2013		2014		비고
	-		-		-	프로젝트 운영공간 수요가 높아 공간용도 변경
63	국내 24 해외 39	46	국내 21 해외 25	42	국내 24 해외 18	국내:1년 해외:3개월 미만
39	국내 39	38	국내 38	41	국내 41	1년(50%심사 후 재연장)
81	국내 71 해외 10	79	국내 69 해외 10	81	국내 68 해외 13	3개월, 6개월(집중지원/ 2013 신규) (격년 재지원 가능)
8	국내 8	12	국내 12 (예술가/단체 5, 예술치료사 7)	13	국내 13 (예술가 6팀(20명), 예술치료사 11)	1년 (프로젝트 운영기간 동안 스튜디오 제공하는 프로젝트 입주. 재공모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19	국내 11 해외 8	15	국내 11, 해외 4	16	국내 11 해외 5	국내:1년 해외:최대 3개월
13	국내 13	13	국내 13 (예술가 12, 기획자1)	13	국내 13 (예술가 12, 기획자1)	1년씩 최장 3년 입주 (1년 휴식년 후 재지원 가능)
223	국내 166 해외 57	203	국내 167 해외 38	206	국내 167 해외 38	-
126	국내 54 해외 72	150	국내 44 해외 106	179	국내 49 해외 130	국외/지방 거주 예술가 서울 체류시 1개월 이내



연희문학창작촌 가을문학축제 찾아가는 낭독, '시의 서쪽에 물들다'(2012.10.27, 서대문문화회관)



텐트올나잇(2012.10, 서교예술실험센터)

“정말 시설은 굉장히 좋다. 스페인의 양가를 다녀 왔었는데 거기보다 100배쯤 좋은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양가의 경우는 한 예술가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붙어있는 행정스태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처음부터 프로모션까지 해주는 그 단계마다, 프로세스마다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아쉬움도 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시창작공간들이 주목받을 만하다는 건 맞는 거 같다.” **안현미** 예술지원팀, 前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공연계 레지던스 담당자들이 흥은예술창작센터에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가장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거다. 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에 시민을 위한 공간이 있어? 우린 없는데? 그게 정말 좋은 구조라는 걸 역으로 말하기도 한다.” **최재훈** 흥은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예술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에 대해 사회가 눈뜨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문화예술계 지원의 방식에서 균형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창작공간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다.” **김희영**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성북예술창작센터 거울방학예술치료프로그램 '동치미'(2013.01)

“

공간,
예술지원으로써의
공간,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으로서의
공간, 각각의
주요한 목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성장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

”

재단의 창작공간이 지금껏 기능해왔던 다양한 역할과 성과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의 공간 운영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도시와 창작공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지역을 거점으로 전개되는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뿌리내리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단기적인 사업 운영 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다.

재단의 창작공간 운영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공간을 매개로 한 예술지원이라는 범주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 속에 있다. 도심재생 프로젝트로서의 공간, 예술지원으로서의 공간,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으로서의 공간, 각각의 주요한 목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성장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창작공간은 창조도시라는 정책 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도시정책의 역설은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이미지나 매력도 등의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사회 구성원들 중에 중상층 이상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 있다. 거꾸로 원 거주민들의 경우에는 창조도시정책이 진행되면서 고급화(gentrification)의 희생자가 된다. 오히려 거주권을 박탈당하고 배후지역으로 밀려나가게 된다.

창조도시의 공세적 접근과 차별화된 방식의 관점이 도시재생정책이다. 도시재생정책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보존과 재활용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원래 도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들이 현재성을 유지하고 또 복원하면서 스스로 미래적 가치를 발견해나가야 한다. 처음 창작공간을 조성할 때의 전략은 창조도시정책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현재는 도시재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져야 할 문화정책이 어떤 과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 물론 쉬운 숙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만드는 시기까지 관련된 주제를 놓고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답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예술

창작지원

창작공간

문화공간

예술과 시민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서울열린극장 창동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시민청

가든파이프 문화특구



연극 〈동 28번지, 착수이네〉(2009. 06,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시민청 그리고 2011년 폐관한 서울열린극장 창동 등은 재단에서 운영 중인 다른 창작공간과는 조금 다른 미션을 갖고 있다. 창작공간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면, 소위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공간들은 공연예술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극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공간을 활용해 창작 행위를 하는 보다 적극적인 매개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예술 창작자와 향유자가 연결되는

판을 꿈꾼다

한마디로 이 공간들을 통합해 설명할 길은 없다. 각자 놓인 위치와 대상, 역할,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그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간들의 특징을 살피고, 공간 운영의 현재를 별도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 공간들의 주요 역할을 통해 2000년대 후반 이후 공연예술 창작과 향유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흐름은 시대적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하나의 예술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정착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예술정책의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있다.

예술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부각됐던 2000년대 후반,

문화예술계와 문화정책의 동향에서 예술가로부터 수요자로 중심축이 크게 이동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문화공간은 문화예술의 또 다른 판을 여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조금 더 가깝게 예술 향유의 장을 열겠다는 목적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방향이 바로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매개공간이라는 사실. 이점에서부터 재단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뿌리박은 천막극장

서울 열린극장 창동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개관 2004년 9월

폐관 2011년 5월

객석 879석

시설 로비, 어린이 놀이방, 주차장,
티켓박스, 냉난방 설비 시설 등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시리즈, '백조의 호수'(2008.06, 서울열린극장 창동)

“

서울 중심부에만
치우친 공연장의
지역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등
동북부 지역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2004년 9월10일 공식 개관, 2011년 5월까지 약 8년 동안 운영되던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국내 최초의 대형 상설 천막극장으로 아쉽게 막을 올렸다. 서울 시내 중심지역으로 몰려 있는 문화예술공간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서울 곳곳의 유휴지를 찾아 이동식 천막극장을 조성해 서울시민들의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조성된 공간이 바로 도봉구의 ‘서울열린극장 창동’이다.

호주에서 제작해온 특수 천과 킹 폴리아로 불리는 주 기둥을 중심으로 설계된 최첨단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진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시카고〉, 〈그리스〉 등의 대형 뮤지컬 공연은 물론 〈파워레인저〉, 〈뽀롱뽀롱 뽀로로〉, 〈어린이 난타〉와 같은 공연을 통해 가족 단위의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해설이 있는 발레, 오페라 시리즈 및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호두까기 인형〉 등의 다양한 클래식 장르를 선보이며 동북부 지역에 또 다른 문화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설립취지는 서울동북부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 지역민들이 문화적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 향유 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이동식 문화공간을 벤치마킹했는데, 구조물은 호주의 텐트극장을 벤치마킹해 창동에만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동북부 전역을 순회하는 공연장을 만들고자 했다.” 안미영 극장운영팀 팀장, 前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팀장

아빨사! 창동극장은 최초 이동식 공연장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와 예산을 갖고 출발했다.

이동경비!! 아마도 이것이 실현됐다면 ‘국내 최초의 이동식 천막극장’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문화공간이 탄생했으리라.

창동에 정착한 천막극장 그런 계획이 벽에 부딪힌 건 역시 예산문제였다.

천막극장 중에서도 세계 최초로 6개 기둥이 들어간 최첨단 극장이었던 창동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늘리겠다는 취지에 맞게 객석 규모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1,200석의 객석을 조성, 대형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프로그래밍 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보니, 텐트를 다시 접고 펼치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다. 텐트를 내리는 비용만 해도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소요 추정은 천막극장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결국 창동극장은 운영방향을 전환해, 지역의 거점극장으로 자리하게 된다.

여기,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천막극장’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시민들의 인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자는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이었을 만큼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공유의 지점이 사뭇 달랐다. 에매시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은 극장인데, 왜 예매를 해야 하느냐는 관객부터, 돈 낼 테니까 매진된 공연의 객석을 내놓으라는 분들도 적잖았다.

문화예술 향유 방법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 “공연관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연장이라는 개념도 낯설고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거 같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는 게 일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초기 운영방향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무료공연도 많이 했고, 신혼부부들, 아기를 둔 젊은 부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어린이 공연을 많이 올렸다. 그 외에는 마당놀이나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음악 콘서트, 대중가수들 콘서트를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운영했다.” **안미영** 극장운영팀 팀장, 前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팀장

많은 지역주민들이 극장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창동극장의 목표였다. 애써 지어진 공연장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3년 가까이 무료공연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후 2007년부터 극장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공연의 양상이 바뀐다. 지명도나 인지도가 있는 공연을 저가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원하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공연들이 창동에서 공연됐고,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설이 있는’ 발레, 오페라, 콘서트가 올라갔다. 그런 훈련들의 결과, 창동극장을 거점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 순수예술, 클래식 장르의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에매시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왜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다. “대체 왜 예약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엄청났다. 시민의 세금이니 언젠는 내가 와서 보고 싶고, 볼 수 있을 때 오면 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돈 내고 내가 본다는 데 왜 자리가 없느냐... 응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게 1~2년 정도 지속이 되니까 티켓 판매한다고 홈페이지에 팝업이 뜨면 바로 구매하는 습관들이 생기더라. 그렇게 4년 정도 운영하다보니 지역민들도 공연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많이 이해한 것 같다. 극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많이들 아쉬워하셨다. 적은 비용으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역극장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민들과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극장이었던 것 같다. 우리 운영진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미영** 극장운영팀 팀장, 前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팀장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스태프와 기획팀이 정말 고군분투했다. 극장의 외관만 보고 상업적 행사의 대관 요청도 많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작품 선정에 고민을 많이 했다. 사실 티켓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대관율이 높지 않아서 공동 기획을 포함해 연간 30건 내외의 정말 많은 기획 공연들을 올렸다. 주위에서는 일차적으로 천막극장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더욱 좋은 공연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던 것 같다.” **한민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매니저, 前 서울열린극장 창동 기획홍보

천막극장의 한계, 그리고 남은 성과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극장이라는 공간이 지역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막의 특성상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결국 폐관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기는 했다. 평균 1,000만 원씩 나오는 전기세는 물론, 눈비에 취약한 천막 구조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눈이라도 쌓이면 지붕에 올라가 파내야 하는 문제,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정극 형태의 공연은 올리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극장의 폐관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지역민들에게 많이 다가갔고, 어떤 면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친 극장이었는데 문을 닫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 좀 더 특화된 공간으로, 예산도 현실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공간을 유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미영** 극장운영팀 팀장, 前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팀장

“무대 자체로 봤을 때, 조명에 반사되는 내부 공간과 움직임이 예쁘게 보이는 곳이었다.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깝고, 텐트가 주는 신비로움도 있다. 아직도 이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면 재단의 창작공간이나 예술지원사업, 예술교육사업 등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다.” **한민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매니저, 前 서울열린극장 창동 기획홍보

01 해설이 있는 발레 지젤(2008) 02 서울열린극장 창동 내부 03 서울열린극장 창동 전경

대학교
공연정보의
중심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길3 | **개관** 2007년 11월 10일
운영시간 화-토요일 11:00-20:00 / 일·공휴일 11:00-19:00 / 월요일 휴관
시설현황 **1층** 대학교 공연정보 및 공연장 안내 서비스 제공
연극 및 문화예술 관련도서, 잡지 등 열람 및 도서대출 서비스
2층 아카데미 룸, 세미나실 운영
연극단체들의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대본 리딩, 워크숍, 기획회의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대관 서비스 제공



대학교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는 2007년 처음 개관했다. 당시 설립목적은 대학교의 온, 오프라인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정보센터로서의 목적을 갖고, 관객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있었다.

“애초 계획은 서울연극센터가 위치한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해 시민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 기획자를 위한 공간서비스, 공연예술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서울연극종합센터>로 운영하려던 것이었지만, 결국 1~2층 공간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여건에 맞춰 정보서비스를 주기능으로 한 <서울연극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개관을 준비하게 됐다. 개관이 가까워지며 더욱 많은 논의를 받아들여 대학교 연극 생태계 지원 기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연극’만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서울연극센터>라는 명칭으로 개관하게 됐다.”

박은희 창작공간통합관리운영 매니저, 2007-2013 서울연극센터 담당(2011-2013 서울연극센터 매니저)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는 반경 2.4km 내에만 160여 개의 공연장이 밀집돼 있고, 전국 공연예술인의 70%가 활동하는 문화집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기업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연정보센터가 없었다. 예술 창작지원에만 몰두했던 시절을 지나, 그것을 향유하는 관객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터, 서울연극센터는 명확하게 관객 중심의 지원센터로서 깃발을 세운 후 대학교의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하게 된다.

“서울연극센터는 100여 개 극장들, 그냥 흩어져 있는 이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묶고 이용자와 공연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연극인들,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 외국인관광객들, 홍보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학교의 좋은 공연들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연극인들 서로도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안호상, 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07년 10월, 월간 <한국연극> 인터뷰 중

연극 정보 중심의 서울연극센터의 출발은 정보포털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처음 생긴 연극센터에 대한 사업 방향에 대한 요구는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제시된다. 예술지원, 정보제공, 관객 개발 등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집중했던 것은 바로 정보의 기능이었다.

2007년만 하더라도 공연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 채널은 물론 오프라인 창구 역시 사랑티켓 판매소, 좋은공연안내소 등이 거의 유일했던 시절이다. 공연장 위치나 정보, 자료 같은 것들 역시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 그렇다면 어디선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의 지점이 바로 서울연극센터의 출발과 맥을 같이 한다. 하여, 서울연극센터의 초기 사업은 관객에 대한 서비스에 있었다. 철저하게 관객기반으로 운영되던 방향은 이후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획사업, 아카데미사업 등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연극을 만나는 곳,
관객이 머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
-

시민관객개발

프로그램부터

대학교 문화활성화

사업까지

서울연극센터.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역시 ‘사람’이다. 연극인이든 관객이든, 대학교를 찾는 누구이든, 서울연극센터는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연극세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대학교 연극투어’라는 시민관객개발 프로그램이었다. 시민들을 초청해 공연을 보고, 공연에 참여했던 연극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인들에게는 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던 무대 뒤의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작돼 201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주요했던 사업은 문화지도 발행이었다. 2007년 11월 서울연극센터의 개관과 함께 격월로 발행하기 시작한 정보지였던 <대학교문화지도>에는 100여 개의(2007년 당시) 공연장 약도가 수록돼 있었고, 각각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정보가 수록됐다. 인근 맛집 할인쿠폰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로 관객의 시선을 머물게 했는데, 격월로 진행되던 문화지도는 이후 월간지로 그리고 2012년부터 『연극in』이라는 웹진으로 탈바꿈한다.

관객을 위한 시민 프로그램뿐 아니라, 창작자들을 위한 대학교 활성화사업도 병행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교 우수작품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뤄졌고, 특히 2009~2010년에는 대학교 소극장 공연을 남산예술센터와 연계하여 중극장용 공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학교연극투어 아르크로 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2009)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PLAY-UP 아카데미’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극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움직임, 화술, 텍스트 분석 등 무대에서 필요한 영역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연극연출가와 극단을 발굴하여 작품개발에서 공연발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극 분야 유망예술 지원사업 NewStage’ 역시 서울연극센터의 주요 창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10분 희곡릴레이’를 통한 희곡작가 발굴 등 신진 예술가·단체의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로를 매개로 한 창작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5년 개관한 ‘대학로연습실’ 역시 서울연극센터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창작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대학로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로연습실’은 환경 조성을 통한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공연예술인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개관했다. 개관 당시에는 혜화동 로터리 위쪽에 위치했던 한국연극협회의 회원단체 대상 연습실(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이 공공에서 운영한 유일한 연습실이었고, 이후에도 대학로에 거의 전무한 공공 연습공간으로 저렴한 연습공간에 목말라있던 예술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단비와 같은 공간이 되었다.

사용시간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된 대관료, 교류·네트워킹·정책행사를 위한 세미나실 운영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연습공간으로 자리한 대학로연습실은 한번 이용했던 단체들의 이후 대관 희망률이 98.7%를 기록할 만큼, 대학로 활동 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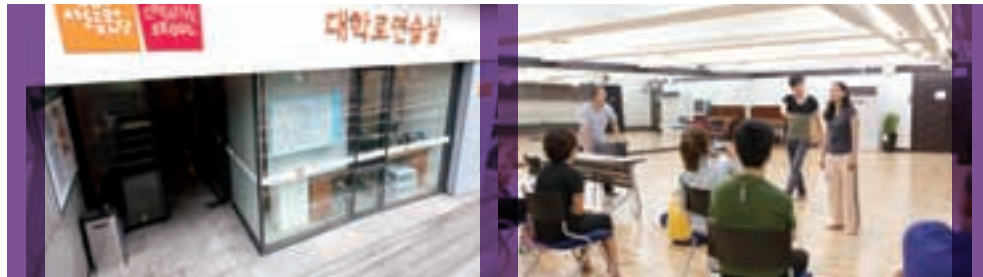
이렇게 관객을 위한 공연정보 제공, 관객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관객 개발, 그리고 공간, 교육, 창작 지원 등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점차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서울연극센터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연극센터의 운영방향은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환경변화가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개관 초기와는 다르게 온라인 정보서비스도 많아졌고, 공연예술자료를 찾아보거나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도 생기고, 최근에는 마로니에공원에 ‘좋은공연안내센터’라는 곳이 문을 여는 등 환경적으로 수요 자체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전에는 연극정보센터가 적합한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연극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객 서비스 역시 단순 정보보다는 가치 정보 중심으로 옮겨가고, 연극 지원 관련 사업 역시, 아카데미나 유망예술가 지원 등 창작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과 방향이 또 바뀌어 가겠지만, 창작 생태계 지원 비중이 정보센터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서명구** 서울연극센터 매니저

대학로연습실(총 4개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117 한석빌딩1층 | **개관일** 2005년 1월 5일

시설현황 연습실, 세미나실, 편의시설 | **대관료** 최소 15,000원 - 최대 28,000원



공공 제작극장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남산 예술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개관일 2009년 6월 8일

시설현황 중극장_최대 480석 | 전체면적_1,531m² | 반돌출무대_330m²

원형무대(아레나 스테이지)와 사이드 스테이지



〈남산희곡페스티벌 세 번째〉(2014.02)



연극〈푸르른 날에〉(2011.05)

“

창작초연 중심의 현대연극 제작극장,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

”

2009년 남산예술센터가 개관하면서 내놓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창작초연 중심의 현대연극 제작극장,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

창작극을 제작, 초연하는 극장을 넘어 동시대 ‘희곡 창작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자 방향을 세운 남산예술센터는 현실과 접촉하는 연극, 보다 젊고 동시대적인 제작극장이라는 기치 아래 차세대 공연양식, 차세대 예술가, 차세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인 프로시니엄 무대와는 달리 무대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계단 형태의 객석은 무대공간의 확장에 따라 객석의자를 달리 배치할 수 있어, 극장 자체가 무대가 될 수 있는 도드라진 특징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남산예술센터는 한국연극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1962년 개관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이기도 하고, 한국연극계의 걸출한 작가, 연출가를 배출한 연극 아카데미의 산실이었던 사실은 이미 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예술대학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던 공간이 다시금 연극 창작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된 2009년이 공연예술계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다.

재단 역시, 개관 초기 남산예술센터의 운영 방식에서 있어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공공 제작극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지향하면서, ‘전문예술가의 실험적, 창작 전문 공간화’, ‘시민의 창의성 계발 및 증진을 위한 미적체험교육 전용 공간화’, ‘예술가, 예술전공자 재교육을 위한 예술인 전문 교육의 장’, ‘서울시민을 위한 예술교육 체험의 장’이라는 운영방침을 세웠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남산예술센터도 만들어질 때 우여곡절이 많았다. 창작공간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재단에서 처음 계획한 것도 공공극장이었고, 그 외에 일종의 예술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함께 가지고 가려고 했다. 즉, 예술교육 및 공공극장의 기능이 함께 운영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됐다. 처음 설계되었던 그림은 예술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공연의 형태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하는 극장이었다. 즉 주된 사업은 예술교육이었고 예술교육에 관련된 부속 공연장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남산드라마센터의 역사성으로 보았을 때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들이 많았고, 제작 중심의 공공극장을 남산예술센터의 운영전략으로 만들게 됐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2009-2012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넘어설 수 없는 것
vs.
지켜야만 하는 것

남산예술센터는 초기 운영부터 극장의 비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출발했다. 그래서 서울시, 서울예술대학, 공연예술계 등에서 이에 대한 담론이 끊이지 않았던 공간이기도 하다. 앞서 밝혔듯 그 이유는 공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사성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정책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남산예술센터에서 예술교육 관련 사업들에 대한 비전이 극장 운영보다 컸던 이유가 인제양성의 터전이었음을 이어가자는 역사적 배경에 의한 목적성이 수반된 결과이기도 한 것처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산예술센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즉 사유공간이나, 공공 공간이나 하는 공연예술계 안팎의 잡음은 물론, 공공 제작극장으로서의 미션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재단의 고유사업이 아닌 상태, 3년 단위의 계약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공간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예술센터가 개관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8년~2009년 사이 공연예술계 내 중극장 규모의 제작극장이 들어서던 시절, 이 공간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남산예술센터는 그에 발맞춰 공연예술계의 큰 흐름 속에서 지녀야 할 작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제작극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은 매우 잘한 시도인 것 같다. 개관 이후로 3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는 재단에서 지향한 제작극장으로서 역할을 힘들지만 잘 운영했던 것 같다. 물론 그 사이사이 운영방향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많았지만, 연극계 내부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재단이 가고자 했던 비전에도 역시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위탁 2기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져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간에 이전보다 많은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제작극장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작극장의 운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아쉬움이 컸던 과도기였던 것 같다.” 도재형 남산예술센터 극장운영팀 대리

실제로 남산예술센터는 올해부터 자체제작 공연이 없어지고 공동제작 형태로 운영되는 등 제작극장으로 천명한 방향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공모 제도를 통해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공연장 파트너를 찾는 형태의 공동제작 방식은 극장의 브랜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연을 제작, 개발할 수 있는 큰 축이 상실된 듯한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남산예술센터의 개관은 중극장 시대를 맞이한 한국 연극계 흐름을 함께 훑어봐야 한다. 공공의 예산을 투여해서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합일됐던 상황들, 명동예술극장, 이해랑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현 한국공연예술센터), 조금 맥을 달리하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국립극단까지, 같은 시기에 봇물처럼 생겨난 중극장들은 공연예술계의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고, 지금 그 흐름들은 어떠한가를 말이다.

“현장예술가들도 그렇고 정책 입안자들 역시 여러 해 동안 한국연극계에 새로운 중극장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작품도 다양해질 것이고, 규모에 맞게 질적으로도 향상돼 예술의 대중화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제작극장은 몇 해를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담론으로 확장된다. 제작극장의 운영방식이 극단이 아닌 프로듀서시스템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많은 예산이 몇 개의 극단, 몇 몇의 연출가들에게 집중돼 효율성이 없다거나, 눈에 띄는 대중적 작품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그랬다. 결국 한 작품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할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자는 형태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는데, 정작 예산이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만 줄어들게 되며 극단은 극단대로, 극장은 극장대로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안미영 남산예술센터 극장운영팀장

남산예술센터,
어떤 연극을
할 것이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운영을 시작했던 기저에는 단관극장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연장으로 다양한 수요를 채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작극장을 표방했던 명동예술극장과 달리 예산이 많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 또한 드라마센터가 지닌 상징성에 대한 부담은 민간극단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형태를 견지하게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제작 공연은 물론 민간극단이 공연장과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극장 운영의 큰 축으로 움직였다. 당초 세운 계획과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성과도 좋았다. <푸르른날에>, <도화만발>, <살>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연극 현장에서도 이러한 행보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품연극을 지향했던 명동예술극장의 레퍼토리와는 또 다른 남산예술센터만의 자기색깔을 견지했던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제작극장으로서의 남산예술센터는 길이 달랐다. 창작초연, 실험, 신진예술가가 중심이었고, 우리는 어떤 연극을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해왔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고민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동안 지향해 왔던 제작극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공연 현장과의 협업에 기반한 공동제작의 비율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2기 운영 구조가 이어졌고, 그러한 선상에서 또 다른 3기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2009-2012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남산예술센터 개막작품

공간의
재구성,
시민의
소통공간

시민청

위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내 | 개관 2013년 1월 12일 | 운영시간 09:00-21:00



토크콘서트(2013.02, 시민청)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마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표현공간’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운영 중인 공간이 있다. 바로 2013년 개관한 시민청이다. ‘들을 청(聽)’자를 쓴 공간의 이름에서 연상되듯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공간은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목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 어떤 공간보다 시설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공간의 탄생 배경은 구청사의 운영방향에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의 신청사가 생긴 이후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머무르게 하지 말자는 의견은 당초 시정의 홍보 목적으로 설계되다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정되면서 지금의 공간을 구성, 현재 서울시의 시정운영방향인 소통과 경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다.

“전례가 없었던 정말 독특한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청은 이러한 시정 운영원리를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참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사회적 에너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흡입하려는 서울시 행정체계,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공간!

공간 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명칭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지하 1층	시민청 안내센터서울	시민청 관람안내 및 다양한 서울 생활·관광 정보 제공
	관광안내센터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One-stop 정보안내센터
	특특디자인가게 <다누리>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센터 등 사회배려기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우수제품 전시 및 판매
	도란도란카페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카페:공정무역상품 전시 및 관람객의 휴식공간
	시민 플라자	시민청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다목적 가변형 공간 한마음살림장, 시민발언대, 활력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군기시유적전시실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발견된 군기시 터의 유구 및 유물 전시
	소리갤러리	청각을 통해 감상하는 소리작품 갤러리
	시티갤러리	서울시 주요 정책 전달 공간(홍보관) 포함
	뜯구름갤러리	천장의 스크린 화면을 이용 소리없는 영상 작품 전시
	시민청갤러리	사진전, 대관전시, 미술 및 무용전시, 만화전시 등 특별기획된 전시공간
지하 2층	서울책방	서울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의 도서 판매 전시공간, 동화구연 프로그램
	태평홀	다양한 정책토론 및 주요 행사 진행, 시민청결혼식
	이벤트홀	시민청결혼식 등 시민과 기쁨을 같이 할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바스락홀	소규모의 공연, 시민청예술가의 콘서트가 열리는 소극장 및 콘서트룸
	워크숍룸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워크숍, 강좌 등 진행
	동그라미방	어린이 및 성인 체험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상영 등 진행

시민청의 장점은 기획, 전시, 공연, 토론, 교육, 휴식, 놀이 등 다양한 목적의 시민활동이 담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 특히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광장과 지하철 시청역, 을지로입구역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다. 그리고 공간 이용 사용료가 저렴해서 연간 대관이 1,000건이 넘어갈 정도로 수요도 많고 관심도 많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민생활마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 70~80%가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통과 경청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정일한 시민청 TFT 매너저

연간 상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가 가히 폭발적이다.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대관으로 운영되는 것도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운영되는 공간은 자체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한다.

공간의 구성 이후 사회적 반향은 상당히 크다. 한해 140만 명이 넘었던 이용객 수의 증가는 물론, 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공간 참여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통과 경청의 공간으로서의 인식보다는 시청 아래 있는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의 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관 2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민청은 여전히 공간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 그것을 매개로 보다 적극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 시민청의 또 다른 행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청책카페나, 정책기획단 등을 운영하면서 소통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활동영역으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재단이나 문화기획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단순히 예술 콘텐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통에 관련한 것들, 즉 요즘 예술계에서도 ‘소통’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경험들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명확한 정체성이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방향이 설정되려면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공간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시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다 넣었는데, 그 다양성을 어떤 공간으로 자리하게 하느냐, 그것이 시민청이 앞으로 더 밀도 있게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일한** 시민청 TFT 매너저



시민청 결혼식



시민청 정책카페(2013)



시민청 소통하는 Day, 정책을 말하다 현장평가단(2014. 10. 25)

실무자들에게 듣는 각 공간에 대한 비전 |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시민청

서명구 서울연극센터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예술 생태계 환경 변화와 재단의 예술지원 전략 구조에서 부여되는 연극센터에 대한 역할 변화를 반영해 연극센터의 주요 운영방향을 재설정하고 실행 중에 있다. 기존의 정보센터로서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지속해나가기 하지만 단순 정보가 아닌 가치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 정보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려 한다. 그리고 이 정보서비스는 웹진 <연극in>, 공간특성화 관객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기존에 지속해오던 청소년연극투어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관객개발을 통한 연극 생태계 지원센터로서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LAY-UP 아카데미>와 각종 워크숍 등 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연극 현장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새롭고 다양한 창작활동의 미중물 역할을 할 연극 분야 유망예술지원 <New Stage>,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교류 플랫폼 역할을 할 <10분 희곡 릴레이> 등의 사업은 각각 연기자, 연출가, 작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서로의 지원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연극센터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사업으로, 연극 창작 생태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관객개발 사업과도 선순환 구조를 맺게 될 것이라 믿는다.

도재형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하는 게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고, 그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존의 관객층을 만나는 걸 확장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연극 마니아가 아닌 파이를 조금 더 넓혀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3년간의 운영목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가게 되면, 허황된 목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의 극단과 협업뿐 아니라 해외 예술가들의 협업 작업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남산예술센터만이 아니라 지역 문예회관들이나 지역 극장의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싶다. 그게 활로가 된다면 해외까지 우리가 생산한 작품들을 다른 나라의 관객과 만나게 하는 그런 순환 구조들. 앞으로 3년간의 운영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

정일한 ‘시민청’이라는 문화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영역에서 하는 문화공간들은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 왜 하는 건지, 뭘 운영을 할 건지. 시민청은 소비 공간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와서 소비하는 공간이다 보니, 일반 주변에 있는 문화공간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 거길 쫓아가다보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시민청은 여기서 뭘 해야 하는가를 찾는 게 우선인 시점이다. 시민들이 니즈에 따라서 서울시와 함께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공간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지만, 잘 오고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춰가야 하는 것 같다.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변수들도 많다.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지점에 대한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서울
동남권
최대의
문화특구

가든파이버
문화 특구

위치 서울시 송파구 총민로 66 가든파이버 내 | 개관 2010년 6월 10일
시설현황 가든파이버 아트홀, 중앙광장, 옥상정원, 창작스튜디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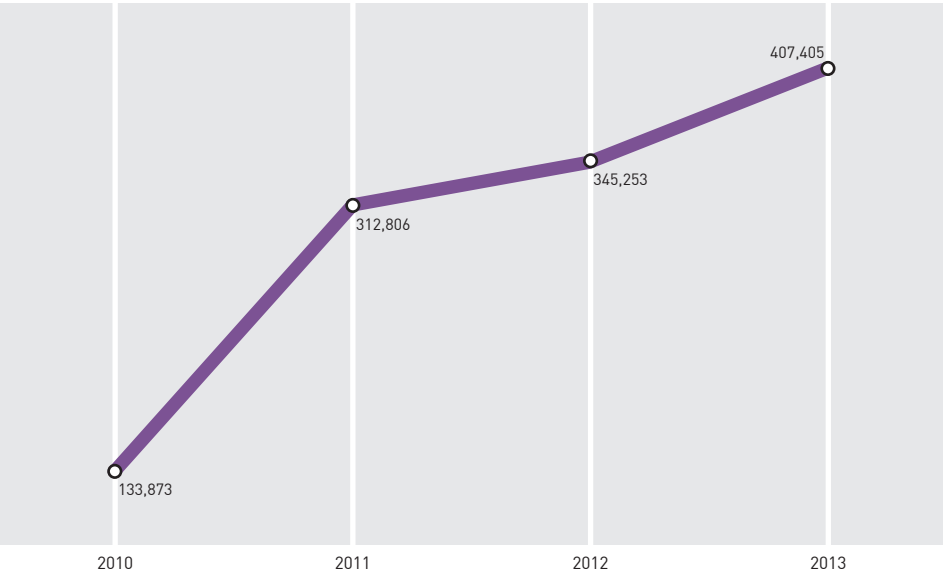


가든파이버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 상가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건설된 동남권유통단지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됐다. 가든파이버의 운영 주체인 SH공사는 새롭게 조성된 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에 가든파이버 문화특구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컬처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든파이버 문화특구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해 수행하게 됐다. 서울문화재단은 단순히 시설 위탁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파 일대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 서울시 동남권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교두보로 가든파이버를 활용했다.

1년 내내 문화축제 “문화 숲 프로젝트”는 ‘가든파이버, 문화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든파이버 내 아트홀, 광장, 아이스가든 등에서 공연예술, 미술, 야외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됐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가드너’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신인작가 및 시민 아티스트의 발굴 프로그램도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합창단, 댄스, 기타, 사진 등으로 구성된 상인 동아리(가든인클럽)를 지원해 발표회, 전시회, 전국합창대회 참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단순히 쇼핑몰 공간의 영업 활성화만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문화참여를 통한 쇼핑몰 내 입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유대관계 개선에 기여했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화 숲 프로젝트”는 2014년에 위탁이 종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가든파이버 문화 숲 프로젝트 참가자 수(단위:명)



※ <문화 숲 프로젝트> 참여자의 93.3%가 가든파이버 내 매장을 방문(계획)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문화 숲 프로젝트>는 가든파이버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재단을 키우다

문화와
행정 사이에서

-

서울문화재단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시민-기업-예술을 이어서 •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며 • 공유와 창조의 네트워크를 향해

• 지난 10년, 우리가 물두한 것

재단을 키우다





2013 서울에세나 감사의 밤(2013.12) | 연희목요낭독극장(2010.04, 연희문학창작촌)



문화가꿈 남산 달리기(2004.09, 남산 산책로) |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 아이디어 발표회(2014.03, 시민청 태평홀)



ISPA 서울총회 Cultural Shifts(2012.06, 예술의전당 음악당) | 청계천로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2006.06, 재단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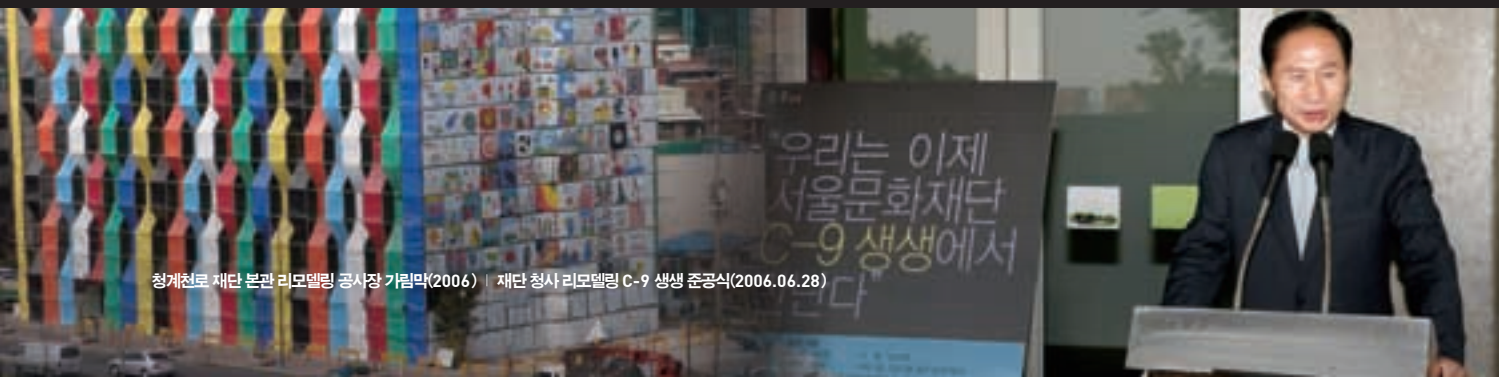
2014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2014.11, 대한상공회의소) | 남산 예장동 청사 내부를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2005)



서울예술지원박람회(2009.11,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 메모리스튜디오 운영업무협약 체결식(2013.07.09, 서울도서관)



제2대학로연습실 개관식(2009.10.06, 대학로) |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예술충전 캠페인(2014.03, 시민청)



청계천로 재단 본관 리모델링 공사장 가림막(2006) | 재단 청사 리모델링 C-9 생생 준공식(2006.06.28)



서울에세나와 아츠워크 'Arts Walk'(2012.11, 서울역사박물관) | 청소년문화센터인 역사이팅 아츠스쿨(2006.08, 용두동 청사)



재단

문화제휴

국제교류

문화거버넌스

문화경영

예술의 가치로 시민 기업 예술을 잇다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 정부의 문화재정 상황은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설립 당초부터 기부유치가 가능한 조직체로서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선택했던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발족 원년부터 문화기부 및 제휴사업을 담당할 문화네트워크2부를 운영했다. 문화기부는 재원 조성 이외에도 예술의 가치를 기업과 시민이 함께 나누는 활동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부를 이끌어내는 감각에 눈떠라

재원 조성의 새로운 방식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확보된 예산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이나 기부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했다. 재단의 재원 조성은 이러한 기본적인 일차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메세나 및 문화제휴 등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반경을 다층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즉, 문화예술을 매개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문화기부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지원과 문화사업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에 일찍부터 주목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보를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나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부족한 편이며, 여전히 기업의 마음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기업에 아무리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설득하고자 했지만 여기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치가 가시적인 성과로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 실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재단의 기부활동이나 문화제휴와 같은 사업 영역은 늘 고군분투식의 도전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21세기적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접근방식을 답습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은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해 기부를 늘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먼저 새롭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확산, 그리고 문화제휴의 새로운 방법론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물론 여기엔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의 해석과 공유는 기본 전제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재단은 2004년 출범 당시부터 기부업무를 전담하는 문화네트워크2부를 운영했고, 현재는 문화사업본부 내에 문화제휴팀이 메세나 지원사업 등 보다 확대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범 직후 서울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서 기부금품 모금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초기에는 조직적 역량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여기에도 갓 출범한 신생 기관이다보니 대외적인 네트워크나 협력 파트너는 차치하더라도 재단의 인지도마저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야 하는 시기였던 셈이다.

재단 초기에는 주로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같은 재단의 자체 사업 수행을 위한 협찬과 물품지원,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 모금’을 위해 추진했던 시민참여 이벤트인 ‘남산 달리기’ 등을 통한 모금활동이 진행됐다. 사실 문화제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당시엔 내부적인 조직 구축과 재단의 대표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인력과 시스템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기보다는 재단의 재원 조성을 비롯해 모금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그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

물론 문화예술계의 모금과 기부에는 남다른 감각과 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된 재단의 ‘문화서울후원상’ 시상제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의 영예를 높이는 ‘Honor Program’의 기능을 맡았다. 당시 이 상은 메세나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과 함께 기업의 양대 후원상으로 자리매김 했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문화제휴 파트너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존재감과 입지를 다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재단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가꿈 CEO 모임’을 통해 네트워킹을 구축하거나 ‘기업의 문화 사회공헌 세미나’ 등의 친목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 탐색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도모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기부 10년 小史



제1회 문화서울후원상 시상식(2005)



Creative 포럼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2011)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서울메세나 특특콘서트'(2013)



서울메세나아츠워크(2013)



서울메세나감사의 밤(2013)



예술후원캠페인 '미스터 기부로'(2014)

<div>2004-2006</div> <div>재단에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조성된 순수기부금은 약 163억 원으로 이는 기관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리고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건부기부금은 41억 원에 이른다. 기업의 현물 지원은 독서수첩 제작, 대형 PDP 및 홈시어터 시스템 설치, 불꽃놀이 지원 등 8천여 만 원에 달한다.</div>	<div>2007</div> <div>하나은행, 우리은행, 주한호주대사관 등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들, 시민들로부터 72억 원 가량의 기부금이 모이져 재단 발전과 사업 운영에 사용됐다.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싸이월드 등을 통해 다양한 기부 채널을 운영했다.</div>	<div>2008</div> <div>한화손해보험, YES24, 볼보그룹코리아 등의 기업이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 마케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제휴 활성화 프로그램이 추진됐고, 온라인을 통한 후원 콘텐츠의 일환으로 싸이월드의 도토리 소액기부가 진행됐다.</div>	<div>2009</div> <div>제휴기관과 제휴대상자 발굴을 위한 각종 매칭사업과 네트워킹이 추진됐고, 문화기부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선 콘서트 등이 개최되기도 했다.</div>	<div>2010</div> <div>문화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문화제휴 웹진을 발행, '2011 Creative 포럼' 개최, 온라인 소액기부 시스템인 '네이버 해피로그' 구축 등의 사업도 전개됐다.</div>	<div>2011</div> <div>문화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의 기부절차가 간소화됐고,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기부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갔다.</div>	<div>2012-</div> <div>재단은 본격적인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후원금에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문화제휴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div>	<div>2014</div> <div>기업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운영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캠페인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div>
--	---	---	---	--	--	--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관계의 미학

문화제휴를 통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한편, 재원 조성과 문화제휴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수치와 성과지표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사실 이러한 영역의 활동들이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의 재원 조성과 문화제휴 사업의 주요 흐름을 살펴본다면, 재단의 모금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의 토대를 다지는 활동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수치로 환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단이 시도해온 수많은 문화제휴의 아이টে은 그리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환산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문화제휴 콘텐츠 제공이나 단체와 기업을 잇는 문화매개자 또는 컨설턴트로서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입지와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가늠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재단이 설립되던 당시, 문화예술계에 전문 펀드레이저에 대한 역할이 이제 막 도입되던 시기와 문화예술에 대한 협찬이나 기부는 일차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재단의 문화제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기업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의 시선이 기업의 경영 마인드와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현장과 실무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어떤 기업에 예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예술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가 선행되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배운 게 많다. 펀드레이징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재단과 기업이 만나 이루어내는 문화제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름 재단의 사업을 통해 문화제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한지연** 문화제휴팀장

2005년부터 재단이 직접 수행한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은 재단의 여타 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당시 진행했던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은 ‘놀이’와 ‘터’가 함께 존재하는 놀이터 본연의 모습, 즉 문화적 공간으로서 놀이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취지에 동참하는 기업 파트너를 적극 발굴하기도 했는데, 그 시기는 마침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브랜드명을 도입하던 시기였고, 기업 브랜드의 인지도 강화 전략으로 기업의 사회공헌과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이슈가 생성되는 시기였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문화예술과 연계한 사회공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재단의 문화제휴 프로젝트에서 서서히 기획되고 있었다. 결론부터 놓고 보자면 재단은 상당기간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공유하며 이 사업을 이끌었고, 이 사례

*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은 2004년 재단의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운영된 사업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소개되었으며, 재단은 창의적인 놀이터 개발을 위해 모델 개발과 놀이터가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참여 놀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각종 시상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1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워너 Best of the Best 부문)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본서 p.116에 수록된 일상공간 편 참조.

하나만으로도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공공디자인 분야의 각종 수상과 함께 재단의 대표적인 창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비예산 사업에 문화제휴 방식을 접목시켜 재단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으로 연계해 운영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제휴 사업은 단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수없이 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기업 실무자에게 예술의 가치를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드러나기 보다는 토대를 쌓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문화제휴는 씨를 뿌리는 과정인 셈이고 그 열매는 다른 차원에서 얻어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화제휴를 통한 다각도의 예술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층위는 확장될 것이고 문화예술 아이টে은에 대한 기업의 니즈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트렌드에 주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각과 아이টে은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명제가 있다. 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대행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의 파트너로서 기업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실 재단의 펀드레이징은 자체적인 재원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미션과 역할을 감안한다면 일종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의 문화제휴는 일반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그것과는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재단은 사업의 실행기관이자 지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하는 재단의 미션과 역할과도 일맥상통하는 동시에 좀 더 공공성과 장기적인 안목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은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늘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준비

문화제휴의 다각화

재단은 문화제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의 문화제휴는 기업과 기부자를 예술로 잇는 전략적인 접근과 방안이 필수적인 만큼 재단 초기에 적용한 펀드레이징의 개념이나 모금에 대한 방안 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도 자원 조성과 문화제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과 정교한 기획, 세련된 문화를 갖춘 펀드레이징이 필요해졌으며, 이미 그러한 시기에 진입했다는 것에 공감대 또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재단의 문화제휴 활동에는 제약이 많다. 여전히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인식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이 필요한 반면, 가시적인 성과지표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부·제휴를 통한 예술 지원이 적합한지 스스로 회의를 품을 때도 있고 지원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문화제휴 영역을 둘러싼 유사 기관 간 경쟁 구도가 전개되는 양상은 자칫 문화예술계 전체에 위협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재단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문화예술기관 간에도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되는 전략적인 포지셔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하는 관계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재단의 문화제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사실 재단 내에서도 문화제휴라는 사업의 영역이 어느 단일 업무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민간영역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제휴의 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를 고민하다보니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소화해낼 수 있는 조직 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물론 문화제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매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예산 규모들을 파악하는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컨설팅과 온·오프라인의 플랫폼 역할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문화제휴팀의 현재 고민은 기업의 니즈와 재단의 미션이 일치하여 새롭게 기획될 수 있는 문화사업에 대해 사업실행의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 혹은 문화제휴로 확대 재생산 가능한 문화사업의 규모를 키워갈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해줄 기반으로서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배치와 사업 분담에 대해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사실 재단의 이자수입이나 서울시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만으로 재단의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자원 조성과 문화제휴는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한 국면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재단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공공이건 민간이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원 조성과 문화제휴는 필수적인 전략이자 보다 적극적으로 쫓아야 하는 대안일 수 있다. 예술의 가치로 기업과 시민, 예술을 잇는 재단의 문화제휴사업의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다.

모두가 함께 가꾸는 문화예술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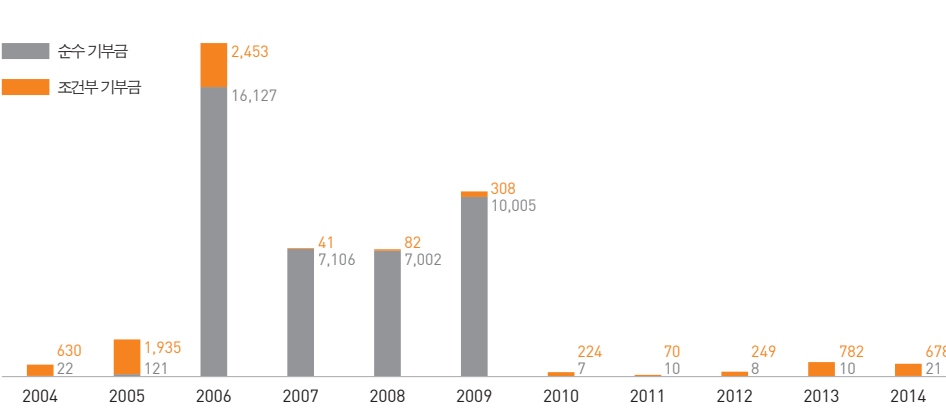
기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부는 또 하나의 예술입니다!’

재단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부유치만 추진하지 않는다. 시민 기부, 소소한 기부를 포함한 예술에 대한 다양한 기부, 나아가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러한 첫 시도로써 재단은 2014년 11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www.givetogether.or.kr)’를 개설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문화예술이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창작활동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관심과 후원, 그리고 창작활동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순환적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아트서울! 기부투게더’가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문화예술과 이에 대한 모금, 기부를 매개로 예술가, 시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곳,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예술은 의식주와 더불어 우리의 삶 곳곳에 들어 있는 필수요소가 됐다. 그러한 예술이 모든 이의 삶에 자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함께 예술을 키우고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Art for All’의 정신, 서울문화재단이 그 중심에서 활동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문화재단 기부금 추이(2004-2014) (단위: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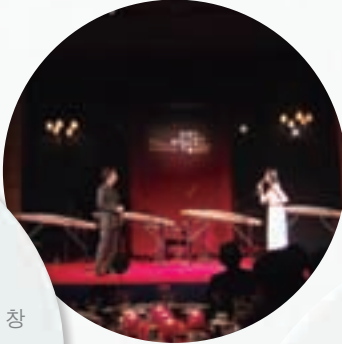
(단위:백만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순수 기부금	22	121	16,127	7,106	7,002	10,005	7	10	8	10	21	40,442
조건부 기부금	630	1,935	2,453	41	82	308	224	70	249	782	678	7,452
총액	652	2,056	18,580	7,147	7,084	10,313	231	80	257	792	699	47,894

문화서울후원상 시상식

2005-2007

재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예술의 창작과 나눔에 기여한 기업에게 '문화서울후원상'을 시상했다. 문화서울후원상은 문화기부에 참여한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의 예술가와 관계전문가가 참여, 심사를 통해 수상대상을 선정했다.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2013.09. 잠실창작스튜디오

재단은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위해 민간과 기관 협력에 의한 특별한 예술 네트워크인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은 단순 후원자로, 예술계는 단순 수혜자로서의 일방향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예술의 힘을 믿는 주체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네트워킹 및 Art-Collaboration을 수행함으로써 메세나의 놀라운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Make Mecenat Marvelous(M3)'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매개로 지속적 네트워킹과 교육, 공동 사회공헌, 그리고 문화마케팅과 관련된 창의적인 업무제휴를 진행한다. 재단은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예술가, 시민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만남을 주선해 나가고 있다.



서울메세나 아츠워크: 로비를 열고 예술을 채우다

2012.11. 유작워크

2013.11. 광화문 문화기업 로비극장

<서울메세나 아츠워크>는 예술의 가치와 감동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재단이 기업-예술단체와 손잡고 진행한 캠페인이다. 2012년 재단에서 추진한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의 출범을 기념해 '음악산책(Music Walk)'이라는 콘셉트 아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2013년 광화문에 소재한 기업들과 '로비를 열고 예술을 채우다'라는 콘셉트로 진화해 예술산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단은 기업과 예술단체와 함께 협력해 시민의 삶 속에 예술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자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 중이다.



예술 후원 캠페인:예술을 살찌우는 돼지 '미스터 기부로'

2014-

예술을 '살찌우다'라는 의미를 담은 8m 크기의 거대한 돼지 '미스터 기부로'는 문화예술 후원의 가치를 상징하는 캐릭터이다. 재단은 'Life is ART, ART is Fun'이라는 슬로건으로 예술과 기부가 함께하는 재미난 방법을 제안했다. '미스터 기부로'가 세상에 선보인 첫 날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로 공기를 주입해 거대한 캐릭터 인형 공공미술을 함께 완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찌우는 예술'이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미스터 기부로'는 공공미술, 인형, 기부투게터 홈페이지의 마스코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이 기부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활용될 것이다.



한성자동차 & 신당창작아케이드

2014.11.

2014년 '서울의 문화적 환경개선을 위한 메세나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한성자동차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문화환경 개선과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협동조합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성자동차의 미술영재 장학사업인 '드림그림' 협업, 구로구 지역 환경 개선 등 2015년에는 제휴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조아제약 & 프로젝트 A

2013-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장애아동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펼쳐보이는 '프로젝트 A'를 조아제약의 전방위 지원 하에 운영하고 있다. 재능기부로 참여한 5명의 멘토 예술가(팝 아티스트 마리킵, 아트놀, 찰스장, 임지빈, 한국화가 라오미)와 함께 2013년부터 2년 동안 11명의 장애아동 멘티들의 예술적 성장을 돕고 있다. 전담 멘토 예술가와 함께하는 6개월간의 워크숍과 멘토링, 강좌는 물론, 시민청, 조아제약 본사 등에서 아이들의 작품으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조아제약 제품 및 다양한 아트상품에 아이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것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아동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젊은 유망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라는 의의도 갖고 있는 '프로젝트 A'는 예술을 매개로 사회적 소통을 시도한 아이들과 그들만큼이나 큰 기쁨과 자녀와의 소통을 얻은 보호자들, 그리고 장애아동과의 교감에서 새로운 지평을 넓힌 작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올림푸스한국 & 예술로 희망드림

2014.12.

2014년 재단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 올림푸스한국은 음악 분야의 인재양성과 사전을 통한 문화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림푸스한국이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창단한 클래식 그룹인 올림푸스앙상블은 재단의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해 저소득층 클래식 음악 영재를 직접 선발하고 1:1 레슨을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고 이들과 함께 기획공연을 열기도 했다.





재단

문화제휴

국제교류

문화거버넌스

문화경영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며

서울 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SINSFO)

링크센터예술교육원(LCE) 협력사업

창작공간 국제 레지던스 및

교류 프로그램

ISPA 2012 서울총회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

서울-북경 문화교류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것과 이를 널리 알리는 것도

문화재단에 요청된 역할 중 하나다. 재단은 2004년 출범 직후부터 축제를 통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고, 2010년부터 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2년 ISPA 총회 유치 등을 통해

해외의 문화정책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연희예술창작촌,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등 국제 레지던스와

작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작공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레지던스로

국제 문화교류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세계 주요도시들 간의

문화정책을 통한 교류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의 주요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축제를 매개로 해외 네트워크 기반 조성

서울 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크 세미나(SINSFO)



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해 ‘서울 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크 세미나(SINSFO:Seoul International Networking Seminar for the Festival Organizers)’를 개최하여 국제문화교류의 발판을 다졌다. 세미나에는 세계 각지의 유명 축제기획자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화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SINSFO는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공연예술 현장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동시에, 축제를 통한 도시 브랜드의 확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축제를 통한 도시 브랜드 조성이 대세였던지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 아이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재단의 전략적인 접근이 일정 부분 작용했던 측면도 있다.

한편, 2004년 제1회 SINSFO를 계기로 채널 창구를 확보하게 된 폴 거진(당시 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감독)과의 인연을 통해 재단은 ‘시티오브런던 페스티벌(COLF, City of London Festival)’과도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 에든버러페스티벌과 더불어 영국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시티오브런던 페스티벌에 폴 거진 예술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2014년 축제의 메인 테마가 ‘서울 인 더 시티(Seoul in the City)’로 정해지게 되었고, 재단은 메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대표 B-boy단’ 초청 공연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국제교류 사업이 뿌린 씨앗은 10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 부문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진출을 통한 유통망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때 문화상호주의 입장에서 국제교류의 방식에는 문화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이러한 싸움의 배경에는 그 문화를 지탱해주는 국가 간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예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 선전되는 장치로 작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단발의 이벤트성이 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주도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국제교류는 크고 작은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지속적이며 질적인 과정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재단의 운영 초기에 진행된 SINSFO는 당시 국내 공연예술계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후 국내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재단의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재단은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맹(AAPAF) 등 주요 국제 문화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으며, 해외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 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크 세미나(SINSFO)의 주요 내용

제1회 SINSFO(2004.11.26-12.08)는 ‘축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두 차례의 세미나와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1차 세미나는 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맹(AAPAF,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의 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에 맞춰, AAPAF 회원단체들을 초청해 8개의 공연예술단체 쇼케이스와 아시아권 4대 축제(싱가포르, 홍콩, 일본, 중국)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고, 2차 세미나에서는 영국 에든버러프린지축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에든버러프린지축제 진출 관련 공연기획자의 간담회도 가졌다.

제2회 SINSFO(2005.09.30-10.08)는 ‘축제 운영과 국제 공연예술 유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제1회 서울아트마켓(PAMS)을 공동 주관했다. 제1회 SINSFO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쇼케이스에 참가한 8개 팀 중 그림, LDP 무용단, 문화마을 들소리 등의 단체들이 해외로부터 초청받았고 2005년도 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에 〈점프〉 등 4개의 작품이 초청받았다.

2006-2008년에는 3개년 연속 주제로 ‘페스티벌 생존 전략, 문화 거버넌스 구축’ (From Festival to Cultural Governance)을 설정했다.

제3회 SINSFO(2006.10.20-21)에서는 ‘도시재생 환경과 지역축제의 도전 - City Lives Alive:Urban Revitalization Milieu and Festival’을 주제로 , 제4회 SINSFO(2007.05.02~04)는 ‘창조도시의 미래와 축제 - River, Festivity and Asian Creative Cities’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2006년에는 게이츠헤드 지역재생 프로젝트, 유럽축제연합, 비비칸센터, 국제공연예술협회 등의 관계자가, 2007년에는 파리가을축제, 아틀레이드국제예술제, 브리스베인 예술제, 런던 템즈강 축제, 홀랜드 음악축제, 홍콩예술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제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했다. 3개년 계획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2008년부터 해당 사업은 폐지됐다.

* 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맹은 2004년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아시아 지역의 축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원들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지역의 축제와 관련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이를 제공하기도 한다.

새로운 예술교육 제시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E*)과의 협력사업



링컨센터예술교육원 초청 심포지엄(2008)

재단 설립과 함께 시작된 예술교육사업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된 것과 맞물려 시민과 예술가와의 접촉을 심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당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재단은 예술교육 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전문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링컨센터 문화예술교육 연수', '해외인사 초청 워크숍' 등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미적체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예술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을 국내에 소개했다.

특히 2009년 재단은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E, Lincoln Center Education)**과 MOU를 체결해 국내 예술교육 분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현재까지 지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Seoul Educators Workshop in alliance with LCE)은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의 핵심 노하우와 재단의 차별화된 창의예술교육 철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해외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세밀한 자료 조사와 기관 탐방 등을

* 2013년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은 기관 명칭을 LCE(Lincoln Center Education)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 1975년 링컨센터는 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한 전문예술교육기관으로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E)을 설립했다.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은 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예술의 즐거움과 이해를 확산한다는 예술교육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예술가교사를 학교나 지역사회에 방문하게 해 참여와 이해, 토론을 강조하는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은 '미적체험교육(aesthetic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주창하며 삶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삶을 통해 예술이 지닌 다양한 소통과 성장의 힘을 체험하고 성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지한 철학과 세계관을 강조하는 기관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링컨센터예술교육원 초청 예술교육워크숍(2008)

“

록펠러 3세가 '예술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다. 예술은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핵심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 교육에 있어서의 예술의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혁신이 가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예술을 통한 미적체험이 필요합니다. (...) 아이들의 감각이 살아나는 교육입니다.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예술을 통해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적체험교육입니다.

스콧-놉 브랜던 링컨센터예술교육원장 | 〈문화+서울〉(2009년 1월호 중에서)

”

통해 상대 파트너와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되는데, 링컨센터예술교육원과 협력사업 역시 상대 파트너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재단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단과의 MOU를 체결하기에 앞서 2008년 12월 3일에 재단의 주최로 진행된 링컨센터예술교육원의 초청 심포지엄에 참가한 스콧-놉 브랜던 링컨센터예술교육원장은 '미적체험교육'의 근간이 되는 상상력의 힘과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실기 위주의 기술 습득이나 감상 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정서적인 미적체험을 통해 삶의 태도, 예술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현재 재단에서는 이러한 미적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링컨센터교육원 외에도 유럽으로 시선을 확대해 다양한 해외기관과의 협력사업과 프로그램 교류 등을 추진해가고 있다. 2014년 영국,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현장 방문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교육탐방 도서를 발간 준비 중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 링컨센터 외 다른 국제 우수 예술교육단체를 초청하여 서울미적체험워크숍(SAEW) 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2014년 첫 번째 SAEW에서는 통합예술로서의 컨템포러리 서커스(Contemporary Circus)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스웨덴의 예술단체인 서커스 시르코프(Cirkus Cirkör)를 초청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적체험 방식과 교육법을 접할 기회를 만들었다.

국제 창작 교류의 거점

창작공간 국제 레지던스 및 교류 프로그램

재단은 2009년부터 서울시창작공간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간별 특성과 프로젝트에 부합한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기는 재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창작공간 조성이 붐을 이루었던 시기로 창작공간을 매개로 한 레지던스나 공동제작 방식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었다.

현재 재단은 총 9개의 창작공간과 남산예술센터, 시민청 등의 문화공간을 운영하는데 공간별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등을 통해 각기 특화된 운영방향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중 국제교류 부문에 중점을 둔 공간은 금천예술공장과 문래예술공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Glocal)의 미학을 실천하는 금천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은 2009년 10월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독산동의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시각예술 전문 창작공간으로, 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천예술공장은 매년 1회 정기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들을 선발한다. 그리고 공간지원 중심의 기초 창작지원에서 나아가 2세대 창작공간을 선도하는 ‘프로그램 중심 레지던스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글로벌 레지던스를 표방한다.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25개국 145명(팀)의 예술가를 지원해 2014년 6기 입주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뉴욕, 타이베이, 멜버른 등)의 예술가 레지던스와 협력 하여 진행되는 ‘1:1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해 해외 기관의 작가를 들여오고 또 금천의 작가를 해외에 선보이고 있다.

커뮤니티와 리서치 기반으로 진행되는 금천예술공장의 프로젝트는 대상 지역과 이슈를 수도권이 아닌 ‘서울’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해외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개성과 이면을 탐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새로운 스토리텔링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 세계적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고 최전선 발제자를 초청해 문화예술의 국제적 담론과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평가, 큐레이터, 작가, 갤러리 관계자 등 시각예술 전문가를 비롯하여 사회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주예술가의 작업 조언과 토론, 비평의 생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대미술 담론과 미술시장을 이끄는 장을 제공한다.



문래예술공장 국제 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
‘문래공진’ (2013.10)



신당창작아케이드 가을축제
‘활학동벌곡’ (2014.11.01)

창작촌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예술가 지원이 가능한 문래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은 자생적 예술마을인 문래창작촌을 포함하여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센터로 2010년 1월 28일에 개관했다. 문래동 철공소 거리의 옛 철재 상가 자리에 전문창작공간으로 새롭게 건립된 것이다. 공동작업실, 다목적발표장을 비롯해 녹음실, 세미나실 등 창작 및 발표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창작공간 중에 유일하게 예술가호스텔을 운영하는 곳이다.

다원예술, 전통기반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신작 창작 및 작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장르특화 예술가를 지원하는 이 공간은 작품제작 지원금, 공간·장비, 멘토링 등 포괄적인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Mullae Arts Plus)을 제공하며, 비평을 통해 향후 프로모션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입체적 예술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단순 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닌 호주 REM Theatre와 싱가포르의 The Substation 등 기관 간 예술가 교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공동창작워크숍을 진행해 장기적인 국제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 간 협업 환경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서울시창작공간

이외에도 1971년에 조성된 신당 지하소피텔 내부에 52개의 빈 점포를 40개 실로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예 중심의 창작공방인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재래시장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런던 등의 해외 기관들의 주요 탐방 공간이 되고 있다. 서울시 최초의 문학인 전용 집필실로 조성된 연희문학창작촌은 도심 속의 전원주택과 같은 쾌적한 환경과 시설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총 4개동 중 1개동을 국제 레지던스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 문학교류 프로젝트 <LINK>를 통해 해외 작가와의 만남 및 국내외 작가 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다양한 기관(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독일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작가 낭독회, 강좌, 작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창작공간의 국제교류활동은 큰 틀로서 재단 전체 국제교류사업 방향, 전략적인 기획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공간별 특성에 맞춰서 진행되어 왔다. 물론 모든 창작공간이 국제교류를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공간의 특성과 장점 덕분에 국제교류사업의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



다빈치크리에이티브2014 국제컨퍼런스
〈어떻게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사회혁신과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가?〉, 벤 크로이크닉 발제장면(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국제 교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다

‘ISPA 2012 서울총회’와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



ISPA 2012 서울총회(2012.06, 세종문화회관)

국제공연예술협회인 ISPA(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의 지역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2012. 06.11~16). 2012년 총회가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 본격적으로는 2009년부터의 유치활동과 준비가, 그리고 재단 설립 초기부터의 꾸준한 회원활동이 바탕이 됐다. ISPA는 1949년 미국 공연장협회로 출발해 이후 각국 공연예술계 리더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갖춘 단체로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ISPA를 통해 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과 예술가를 소개했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렸다. ‘문화변동(Cultural Shifts)’을 주제로 한 2012년 서울 총회는 34개국, 96개 도시와 432명(국내 231명, 해외 201명)의 공연관계자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서울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재단은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들에게 총회 참가비와 항공 및 숙박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ISPA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공연장, 예술단체, 공연전문기관, 문화정책그룹, 재단, 축제 등의 분야의 세계 유수의 문화예술기관들을 대표하여 참가한 전문가 및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서로의 공연예술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재단에 SINSFO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ISPA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인적 중심의 해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리한다.

* ISPA는 페스티벌, 공연예술단체, 매니저 및 컨설턴트 등 총 24개국 4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1년에 두 번 총회를 개최하며 뉴욕에서 열리는 정기 총회와 더불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지역 총회로 운영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 공연예술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회원 간의 상호협력과 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의 방식을 지향해 왔다. 한편 최근 기획자나 프레젠테이션은 물론, 예술가와 관객의 소통이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이에 대한 대응과 교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공동전시회 '같은 달 아래서' (2014.10, 시민청 시티갤러리)

본격적인 도시문화교류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서울과 북경은 한국과 중국의 수도로서 다양한 장르에서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양 도시의 수도이자 아시아 중심도시인 서울과 북경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도시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 확대는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교류는 시민의 삶과 도시 분위기를 더욱 풍요롭고 활력 있게 만들 기회를 준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북경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부터 문화예술을 매개로 북경과의 도시교류를 지속했다. 교류 첫 해였던 2013년에는 예술가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각 도시에 대해 받은 예술적 영감을 함께 토론하며 서로의 도시에 대한 기억을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회화, 사진, 영상, 설치,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통의 테마를 중심으로 창작했고, ‘두 도시의 기억:광화문에서 천안문까지’라는 전시회로 시민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2014년 두 도시는 예술과 첨단 기술의 창의적인 결합인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했다. 양 도시를 대표하는 우수 미디어 아티스트 6팀이 두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주제 ‘달’을 탐구했고 그 성과로서 공동 전시회 ‘같은 달 아래서’를 개최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런던시를 주축으로 2011년 설립된 20여 개 세계도시 간 정책 네트워크이다. 재단은 2013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본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정책 분야의 안정적인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 단위로 국제 문화정책 네트워크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이다. 서울시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성과정리, 지표개발, 통계관리와 더불어 세계도시문화리포트 작성 등 WCCF 활동을 통해 재단은 서울의 대표 문화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도시문화포럼의 활동 중에는 ‘세계도시문화서밋(World Cities Culture Summit)’이라는 회원도시 문화정책 책임자 간 정책교류 행사가 있다. 2012년 시작되어 매년 진행되는 이 행사에 재단은 2013년부터 2회 참여해, 서울의 문화정책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세계 도시문화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각 도시의 사례와 대처방향에 대해 듣고 논의해왔다. 또한 세계도시문화포럼에서는 도시별 문화정책 관련 통계와 문화정책을 분석하는 ‘세계도시 문화리포트(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통계지표의 분석결과 및 사례 도시들의 문화정책 주안점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에서 서울의 문화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민, ‘세계도시의 문화’라는 글로벌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세계도시문화서밋과 세계도시문화리포트를 통해 진전되어 갈 것이다.

세계도시문화포럼은 도시 간 문화정책에 의제를 놓고 다각도로 조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단은 세계도시문화포럼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시 간의 문화교류, 특히 정책적인 교류를 본격적으로 전개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간의 진행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문화예술계의 이슈와 정책적 흐름과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리서치를 기반에 둔 학술, 출판 등의 정책연구, 문화제휴 등의 영역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 WCCF의 주요 활동으로 매년 ‘세계도시 문화리포트(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를 발간한다. 임의적인 분야별 가중치를 설정한 종합지표에 따른 순위 매기기에 집중하는 기존의 도시 경쟁력 평가 등과는 달리 WCCR은 각 도시의 문화(정책)적 양상에는 각각의 맥락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각 도시의 세부지표 통계만을 수록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세계도시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도시별 현주소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





재단

문화제휴

국제교류

문화거버넌스

문화경영

문화네트워크

문화거버넌스

문화정책연구

〈문화+서울〉 및 온라인 정보 플랫폼

공유와 창조의 네트워크를 향해



박원순 시장과 함께한 현장시장실(2013.0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울문화재단이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단지 서울지역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전체 예술가의 70% 정도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미치는 범위는 넓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정책 네트워크의
플랫폼이 되는 것을
앞으로 1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했다.

서울문화재단 10+10 정책
대토론회 "서울문화재단, 이랬으면
좋겠네"(2013.06.28, 시민청 태평홀)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분권화 시대의 재단의 역할

서울문화재단보다 앞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 2000년을 전후로 지역문화재단이 속속 설립되어 2014년 12월말 기준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과 49개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지역문화의 발견과 정체성 정립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의 주체로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결과이다. 2014년에는 드디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담당할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문화활동 진흥 예산의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평균 1.3% 내외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약 2.2% 정도이다. 광역시·도 문화재단 예산 중 국고를 통해 지원받는 예산이 약 34%에 달하는 점은, 지역문화 진흥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근래 저성장에 따른 세원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 지방재정의 문화사업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서울시만 해도 단지 건축재정만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급기야 산하기관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이나 기금을 털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 재정의 예산 축소는 지역문화재단의 기반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가가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로 문화서비스를 규정했을 때, 이러한 서비스는 지원사업 형태로 구체화된다. 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 **창작**(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지원) ● **매개**(작품의 감상력 증진과 개인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 **향유**(국민 일반을 직접적인 수혜대상자로 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달체계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의 개발과 제공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1차 전달기관(중앙정부 산하기관, 광역문화재단)과 2차 전달기관(기초단위 문화시설, 기초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각 기관이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의 중첩, 지역사회 내의 문화협력 체계 구축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서비스의 흐름을 단순화하여 각각의 서비스가 최종 종착지인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1차 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광역 문화재단의 역할 조정과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는 법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달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 제공에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06.14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14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의 발제문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김세훈) 중에서

또한 그 동안 재단을 비롯한 중앙정부나 창작 지원기관들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시설 공급이 중심이 되었으나 외부적 환경과 정책적 변화에 의해 점차 지원방식이나 수행해야 할 사업의 영역이 바뀌고 있다. 이를테면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등의 보편적 문화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요구되고, 위탁사업 등 지역문화재단에 맡기는 단위사업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광역문화정책기관으로서 정체성 문제, 민간단체와의 역할 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역할 분담 역시 고민할 문제로 다가왔으며,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맞는 기능과 사업 수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역할 중복으로 제기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서울시의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역할 분담 등을 감안한다면 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맞는 기능과 사업 수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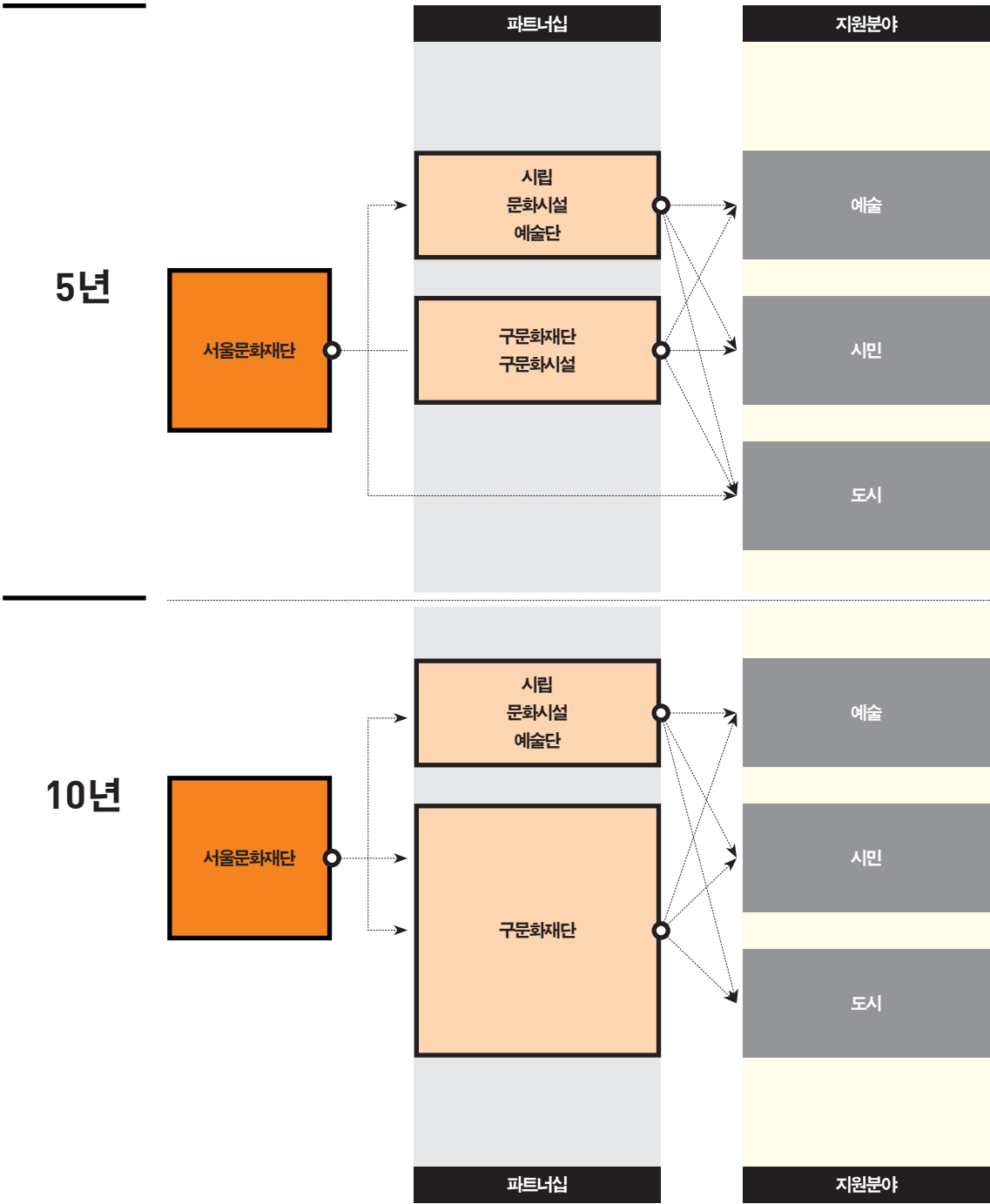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은 이미 2006년 경영 2기 전략보고서와 2012년 경영 4기 신 비전체계 연구 때부터 재단의 역할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왔다. 지나치게 직접 사업 수행 방식에서 위임, 지원, 협력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해왔다. 특히 2013년도에 시행한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연구에서는 자치구 문화재단들의 역량 확보에 따른 점진적인 역할 변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역문화재단에 맞는 사업수행 방식으로의 전환



2012년 경영 4기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보고서’ 중 재단 역할 전환 부분

2013년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연구 중
자치구 문화재단들의 역량 확보에 따른 점진적인 역할 분담 전략



자원의 공유와 의제를 발굴하는 창조적 네트워킹 플랫폼

Creative Plug-in Station을 향하여

문화분권 시대에 요구되는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 의제를 수렴해가는 창조적인 플랫폼의 역할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12년에 설정한 경영 4기 신 비전과 전략의 변화 원리 중 하나로 <재휴와 협력을 통한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정책역할 수행>을 채택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서울문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재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해오고 있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한 <서울예술지원박람회>와 2013년도에 개최한 <서울예술교육페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경영 4기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보고서’ 중 서울문화 네트워크 허브 관련 부분



서울예술지원박람회

국내의 문화 인프라와 지원기관들이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지원 정보가 적절한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항상 예술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시민들은 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창작자와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예술지원과 문화사업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문화복덕방 콘셉트의 ‘서울예술지원박람회’를 2009년과 2010년에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개최했다.

서울예술지원박람회는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 분야 (여비)사회적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최초의 예술지원 정보 박람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극적인 정보 공유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 유통의 허브로서 요구되는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과 확장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점도 의의가 크다. 이 사업을 계기로 재단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서울 지역의 지원 사업들의 연결점과 각 지원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통합적인 예술지원서비스를 통해 우수한 예술 콘텐츠가 한자리에서 연결되어 각각의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가는 시장의 모습과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주요한 국제행사로 발전하는 것까지도 기대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예술지원박람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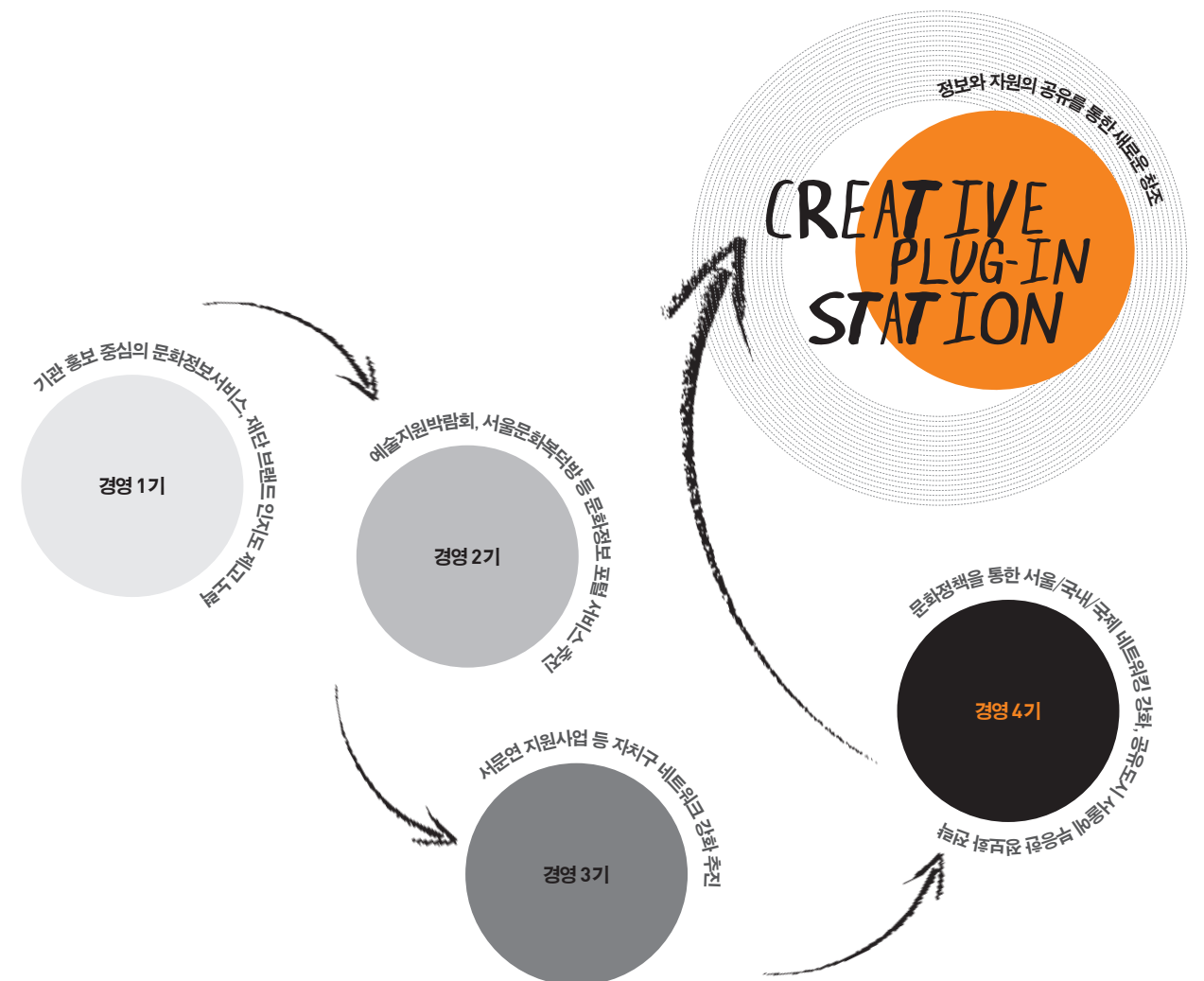
서울예술교육페어

재단은 2013년에 제1회 서울예술교육페어를 개최했다. 서울예술교육페어 역시 서울예술지원박람회 개최 취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획됐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한 정보의 연결과 공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예술교육페어는 예술과 교육, 미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예술교육가(예술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교육계, 행정기관, 기업문화재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고 의미 있는 만남과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장인 시민청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의 홍보 부스, 서울예술교육포럼, 쇼케이스, 컨설팅, 네트워킹 워크숍, 서울창의예술학교 운영,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단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서비스를 지역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울 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 재단에 대해 사업 ‘수행자’ 보다 ‘연결자’로서 역할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연결자’로서 재단의 역할은 재단의 역량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재단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보 발신에 집중했다면, 점차 문화예술계 정보 유통의 허브로서 공유의 장(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연계와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참여할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4년 2월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전문가·시민 공동워크숍 → 사업 시행까지 이어지는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다양한 가치들이 공유되고 연결되어 새로운 창조의 동력을 얻어가는 ‘창조적 네트워킹의 플랫폼’ 소위 ‘Creative Plug-in Station’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자리였다. 이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서울문화재단의 핵심 전략이다.



광역과 기초 문화정책 주체들 간의 상생 협력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재단이 시행하는 모든 문화사업은 결국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현장으로서 자치구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것이다. 재단은 단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나아가, 지역문화분권, 문화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초자치단 문화정책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2007년에 창립된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서문연)는 자치구 문예회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자치구별 문화예술 활동의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전문성 강화로 예술가들의 지역 활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문연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따로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공연장 상주단체페스티벌,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시민예술축제 등 재단사업을 서문연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고, 가칭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3년 12월에는 '문화정책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고, 특히 2014년도에는 재단 문화정책위원회 2기 멤버로 자치구 문화재단 대표자와 문예회관 관장을 추가로 위촉해 재단 문화정책에 자치구 문화정책 주체들의 의견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서울문화플랜 지역의제 발굴과 연계해 자치구 문화정책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했는데 구청·문화 재단·문예회관 등 28개 기구들이 참여했다. 기초-광역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 지역 현황에 근거한 문화정책, 풀뿌리형 문화정책, 문화밀집지역 활성화, 자치구별 이슈 등에 대해 의견들이 토의됐다. 일방적인 필요에 따른 일회성 네트워크가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에는 본격적인 네트워크의 발족에 앞서 문화재단 및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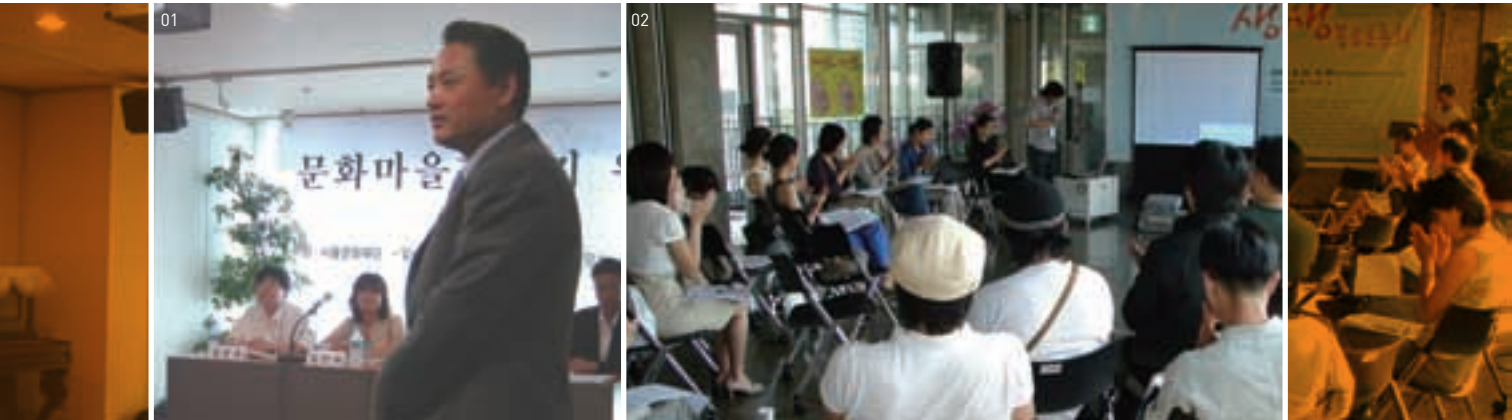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명칭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참가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문화정책 담당 부서장 및 기관장(문화과장, 문화재단 및 문예회관 대표자)
성격	기초-광역 문화정책 주체 간의 수평적 협의기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광역 간 협력을 통한 도시문화정책 개발 • 협력사업 개발 및 사업운영 방식 개선 협의 • 기관 및 인력 간 교류·협력을 통한 역량 개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서울문화정책 거버넌스



01 수많은 자문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한 “문화마을 만들기 워크숍”(2004.07.09, 문학의 집 서울)
02 새로 이전한 청계천로 청사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서울문화네트워킹토론화-생생 목요토론회”의 1차 토론회 장면(2006.08.10, 재단 청사)

서울문화재단은 태생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하향식으로 진행되던 문화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문화정책을 지향하며 설립됐다. 예술지원정책 결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과 자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재단의 주요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김없이 폭 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장치를 운영했다.

2004년에 문화가 있는 놀이터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책정된 사업예산도 없이 시민들의 선의를 모아서 재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자문, 워크숍 등 긴 호흡으로 진행됐다.

재단 청사가 청계천로로 이전한 후 문화정책 개발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네트워킹의 장을 지향하며 “서울문화네트워킹토론화-생생 목요토론회”가 열렸다. 2006년 8월부터 총 8주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전” 주제로 도시공간의 문화적 변화 방안부터 시작하여 문화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참가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담아냈다. 2006년 8월 10일에 시작된 그 첫 번째 주제는 “도시 공공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기”였다.

2012년 8월에는 경영 4기의 신 비전 및 전략으로서 강조된 거버넌스형 문화정책 수행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규 직제로서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문화정책위원으로 위촉하여 재단의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창작공간 운영의 주요 사항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은 2012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부터 시작해 모든 공간으로 확대됐다. 운영위원회는 각 공간들의 입지에 따라 예술가, 시민, 자치구 공무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1기 위원회 위촉 2012.11.19(1년 단위로 갱신 위촉)

운영 근거 서울문화재단 직제 규정

구성 • 위촉직 위원

성명	위촉당시 직함	비고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2기 위원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1~2기 활동
주일우	문지문화원사이 기획실장	1~2기 활동
라도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2기 활동
조윤석	동대문보장운영단 대표	1~2기 활동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1~2기 활동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1~2기 활동
김홍탁	제일기획 마스터	1~2기 활동
송혜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1~2기 활동
김복기	에이엘아트 대표이사	1~2기 활동
김사인	시인,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2기 활동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2기 중도 사퇴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기 활동
전택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1기 중도 사퇴
옹호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1기 중도 사퇴
박혜숙	은평문화예술회관 관장	2기 활동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2기 활동

- **당연직 위원** 재단 감사실장, 본부장 등 총 6인
- **간사** 정책연구팀장
- **역할**
 -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 의견 전달을 통해 문화 거버넌스 구현에 기여
 - 서울문화재단 중장기 전략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서울문화재단의 과제 연구 및 세부 전략 개발 시 자문
 - 서울시에 문화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재단의 정책 개발 기능 강화

창작공간 별 운영위원회 발족 현황

공간	운영위원회 발족일	공간	운영위원회 발족일
서울연극센터	2014.02.04	서교예술실험센터	2013.02.26
신당창작아케이드	2013.10.31	성북예술창작센터	2013.02.15
연희문학창작촌	2013.03.25	문래예술공장	2013.01.28
홍은예술창작센터	2013.03.07	금천예술공장	2013.01.24
잠실창작스튜디오	2013.02.2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12.10.27
시민청	2013.02.25		

2013년도에는 특히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과 전략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재단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상시 정책제안 채널을 개설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는 문화정책 대토론회 ‘서울문화재단, 이랬으면 좋겠네’(2013.06.28, 시민청 태평홀)를 개최해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연구 과정에서는 문화도시 서울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재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시행해 반영했다.

2014년에는 시민들의 문화향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재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특정 시민 그룹에 대한 맞춤형 정책사업 개발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서울문화정책 통계패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서울문화재단 시행 시민문화향수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세대	8개 문화활동 특성 그룹
20대	현실에 대한 불안을 문화로 극복하는 <문화 열광족>
30대	문화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화려한 싱글녀> 문화 최전방에서 물러나 육아의 행복에 빠진 <육아맘>
40대	성장하는 자녀들과 집 근처에서 놓고 싶은 <프렌디> 본인은 문화소외층이지만 아이를 위해 문화를 찾는 <컬처맘>
50대	양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강좌에 열공하는 <낭만족>
60대	문화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

2가지 특징적 문화활동	자기만족 추구형 문화활동	가족행복 추구형 문화활동
해당그룹	<div><div>• 20대 문화열광족</div><div>• 30대 화려한 싱글녀</div><div>• 40대 블루싱글녀</div><div>• 50대 낭만족 일부</div><div>• 60대 액티브 시니어</div></div>	<div><div>• 30대 육아맘</div><div>• 40대 컬처맘</div><div>• 40대 프렌디</div></div>
문화예술 관심도	고	저
문화예술의 중요도	고	저
문화예술 관람횟수	고	저
문화예술 지불금액	고(60대 저)	저(40대 일부 상승)
문화예술 경험 전반 만족도	무관(50, 60대 고)	무관(컬처맘 고)
서울 문화환경 만족도	20대 고, 30대 싱글녀와 60대 저	평균 수준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저	고
삶의 만족도	저 (60대 고)	고(육아맘 최고)
여가활동 동반자	친구 또는 혼자 (60대 동호회)	가족
주요 장애 요인	<div>-비용부족 1위</div> <div>-시간부족(60대는 제외)</div> <div>-정보부족</div>	<div>-비용부족 1위</div> <div>-교통불편</div> <div>-육아문제</div>

정책 연구와 의제 개발을 통한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서울문화재단 내의 정책 연구 기능은 <경영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 중심에서 <정책을 통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와 풀뿌리형 거버넌스 구축>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2005년부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으며, 초기에는 주로 경영전략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광역문화정책 기관으로서 역할 요구가 갈수록 커져감에 따라, 특히 정확한 문화정책 통계조사 연구가 중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요 통계 및 지표 관리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재단 내 문화정책 담당 부서 운영 연혁 및 주요 역할 변화

부서	기간	주요 역할
정책 연구팀	2005.03- 2005.10	<div>• 재단 조직개선 및 중장기발전전략 연구</div>
전략 기획팀	2006.01- 2007.05	<div>• 업무매뉴얼 작성 및 업무혁신 방안 연구</div> <div>• 재단 2기 경영전략보고서 발간</div> <div>•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전략보고서 발간</div> <div>• C-9생생 목요토론회 운영</div>
정책 연구실 TF	2011.02- 12.08	<div>• 서울문화기업 육성 전략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div> <div>• 조직개선 연구</div> <div>•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예술지원제도 개선 연구</div>
정책 연구팀	2012.08-	<div>• 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및 문화정책 거버넌스 운영</div> <div>• 경영 4기 조직구조 재설계 및 비전 수립 연구</div> <div>• 서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신 비전 체계 연구</div> <div>• 창작공간 개선 등 주요 경영 전략 연구</div> <div>• 서울문화지표체계 개선 연구 및 서울시민 문화향수 실태 조사</div>

※ 이외 시기는 기획조정부, 창의경영팀, 비전전략팀 등 경영기획 부서 내에 일부 연구기능 배치하여 주로 경영전략 관련 사항 연구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정책연구 결과 목록

연도	주요 연구(경영전략 및 주요 사업전략 중심, 개별사업 연구는 제외)
2005	<div>• 조직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개발연구</div>
2006	<div>• 2기 경영전략보고서</div> <div>•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전략</div>
2008	<div>•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조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div> <div>•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연구 - 문화 생태계적 관점의 접근</div> <div>•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연구 - 공간 맥락적 관점의 접근</div>
2009	<div>•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div> <div>•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div> <div>• 유희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div>
2010	<div>• 어린이 창의Arts-TREE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div>
2011	<div>• 서울문화재단 지속가능경영 연구</div> <div>•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설정</div>
2012	<div>• 조직구조 재설계 및 비전수립 연구</div> <div>• 조직재설계를 위한 직무분석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div> <div>• 조직재설계 및 중장기 비전수립에 따른 인력운영제도 구축 및 성과연봉제 도입 연구</div> <div>•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div>
2013	<div>•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div> <div>• 근무평정을 위한 다면평가 시행 및 컨설팅 연구</div> <div>•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유 모델 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향 연구</div> <div>•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div> <div>•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div> <div>• 서울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의 전략</div> <div>• WCCR 2013 서울</div>
2014	<div>• 서울문화재단 연봉체계 개선 연구</div> <div>•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div> <div>•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div> <div>• 서울문화지표체계 개선 연구</div> <div>• WCCR 2014 서울</div>

2012년 8월에 경영 4기가 시작되면서 정책연구팀의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내부의 과제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을 매개로한 국내외 기관 간 교류에 힘쓰게 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대를 준비하며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로서 2012년 8월에 발족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는 정책간사 역할을 맡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활동을 주도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회원 도시로 참여하여 문화정책을 통한 국제교류에 적극 나서게 된 시점도 2013년도이다.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2012년 8월 발족 후 2014년까지 약 2년 여 동안 7차례의 정책세미나/포럼/학술대회 개최, 8회의 대표자회의 개최, 5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서/성명서 발표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서울문화재단은 2014년에는 대표자회의 첫 번째 공동협력 사업으로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2개 시도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예술 행사인 '전국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주요 연혁

- 2012.08.22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결성 합의
- 2012.10.26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결성 및 1차 대표자회의 개최
 -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선언문 '지역문화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다' 발표
- 2013.01.18
- 2차 대표자회의 개최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방안' 개최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서 채택
 -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서 전달
- 2013.05.30
- 1차 정책워크숍 개최
 - 3차 대표자회의 개최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의견서 채택
 - 도종환 의원실에 내용 전달
- 2013.10.08
- 문화융성 정책세미나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기부 활성화 업무 체결
 - 4차 대표자회의 개최
- 2014.02.04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개최
- 2014.03.18
- 5차 대표자회의 개최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관련 정책포럼 개최
- 2014.04.23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 2014.06.14
- 임시 대표자회의 개최
 - 민선6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학술행사 개최
- 2014.11.27
- 6차 대표자회의 개최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안)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관련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서 채택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세미나(2013.01.18, 서울시청)

시민과 문화계와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문화+서울〉발간 및 온라인 정보 플랫폼 운영

〈문화+서울〉은 2006년 비정기 무크지로 시작하여 2007년부터 월간지로 정기 간행되고 있다. 2015년 6월이면 100호가 되는 〈문화+서울〉은 재단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기관지 성격에서 탈피해, 문화예술계 최신 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하는 소식지이자, 문화예술계 이슈와 흐름을 파악하는 시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표지를 디자인해 예술가들에겐 또다른 형태의 지원이자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브랜드마케팅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2007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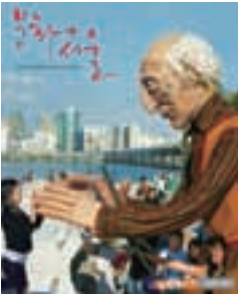
2008년 04월호



2009년 11월호



2010년 12월호



2011년 05월호



2012년 03월호



2013년 6월호



2014년 08월호



2015년 04월호

〈문화+서울〉표지 디자인 변천사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출범 시부터 다양한 온라인 문화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재단 홈페이지 내 별도 구성된 Arts@Net은 온라인 문화정보 공유포털을 지향한다. 서울의 예술가, 문화공간, 문화시설, 그리고 매일매일 문화행사와 무료 문화 프로그램 정보들이 DB화 되어 제공해오고 있다. 창작공간의 확대와 각기 별도 영역을 구축해가는 사업들의 확장에 따라 2014년까지 총 12개의 웹사이트가 개발, 운영되고 있다. 2009년부터 통합 관리되기 시작한 재단 온라인 회원은 현재 12만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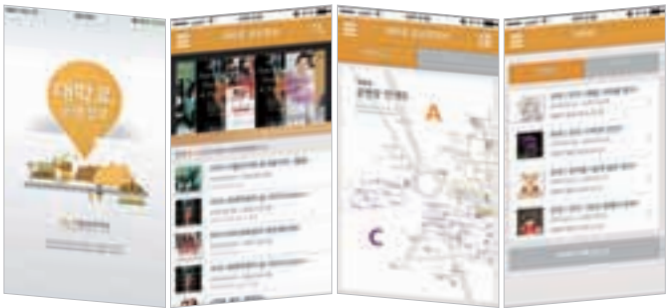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도 발빠르게 대응해 2011년에 〈대학로공연정보〉 모바일 앱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2종의 앱과 3종의 모바일 웹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로 공연정보 앱은 25만 건, 무료문화정보 앱은 5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서울시내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지리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공공미술 앱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 홈페이지:www.sfac.or.kr



공공미술 모바일 앱(App)



대학로공연정보 모바일 앱(App)



무료문화정보 모바일 앱(App)

연도별 재단 정보화 사업 주요 연혁

- 2004 • 서울문화재단(sfac.or.kr), Arts@Net, 서울열린극장 창동 홈페이지 구축
- 2006 • 자체 전산실 및 전산자원 구축, 전자결재시스템/웹메일/웹하드 도입 등 행정전산화 추진
- 2007 • 서울연극센터(e-stc.or.kr) 홈페이지 구축
- 2009 • 서울문화재단 대표 홈페이지로 Arts@Net 통합, 재단 통합회원제 운영, 서울시창작공간(seoulartspace.or.kr) 및 남산예술센터(nsartscenter.or.kr) 홈페이지 오픈
- 2010 •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취득, ERP 시스템 도입
- 2011 • 문화정보 모바일 서비스 시작, '대학로공연정보', '무료문화정보' 모바일 앱(App) 및 서울문화재단 모바일 웹(Web) 구축
- 2013 • 특성화사이트(서울댄스프로젝트, 메모리(人)서울) 구축
- 2014 • 특성화사이트(아트서울!기부투게더,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 서울창의예술학교) 구축
 - 모바일 웹(Web) 서비스 확대(아트서울!기부투게더, 메모리(人)서울)
 - 대표 홈페이지 WA(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2015 • 서울축제지원센터 사이트 구축, 공공미술 모바일 앱(App) 구축 예정



재단

문화제휴

국제교류

문화거버넌스

문화경영

지난 10년, 우리가 몰두한 것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기획’과 ‘행정’이라는 어울리기 힘든 두 영역의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10년은 시민과 예술을 보다 더 가깝게 조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 더 확대되어야 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대내외 환경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서울문화재단은 'C-9 생생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2006년 청계천로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 아트웍을 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했다.

지난 10년, 우리가 몰두한 것은 무엇인가

안정적인 조직 경영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서울 문화예술 정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은 일단 살림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04년 설립 당시 전체 사업 예산이 82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60억 원이며,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1천억 원이 넘는다. 또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문화정책 부문의 총 예산 가운데 약 10%를 재단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외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재단이지만 다양하고 방대한 영역에 걸친 사업 수행과 맞물린 조직 운영, 인력 관리, 행정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난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 조성을 비롯한 재정 부문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가 저성장애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재단은 문화예술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혈어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애초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 기본재산 3천억 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고려되었던 설립 초기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재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기금을 혈어 사업비로 전환하면서 기본재산이 2천억 원대 이하로 내려갔으며, 201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보다 서울시의 위탁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역협력형사업이 늘어나면서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안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전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속적인 고유사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재단의 한정된 인력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본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소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짧게는 2~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단기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재단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요인을 극복하고 정책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사실 재단이 설립될 당시 모든 여건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 즉,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했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선례가 없었기에 재단 초기에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모든 절차와 방식은 새로 도입되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화기획과 행정이라는 어울리기 힘든 이 두 가지 영역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간은 꽤 길고, 앞으로도 더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 행정의 결합

조직 운영

행정이라면 문서상의 절차일 뿐 고리타분한 관료적인 형태라고 여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마인드를 강조하는 경영팀의 요구는 늘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였다. 하지만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시스템을 거쳐야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절감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감사'라는 가장 엄격한 제도적 장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단에 적합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한편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재단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어나는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창의적 기획보다 행정에 더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주도성이 퇴화되어 수동적인 태도가 싹튼다. 관료적인 형태라며 경계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재단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설립 초기는 그야말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폭주하던 시기였다고 본다. 기발한 사업 아이템과 발상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재단에서 수행해야 하는 단발성 사업이 워낙에 많아지니 반복되는 행정 처리와 외부에서 떨어지는 일에 치이면서 업무자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성도 함께 하락하게 되면서 자괴감마저 느끼는 것도 같다. 초기와 달리 현재의 조직문화는 다소 보수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띄게 된 측면도 있다.”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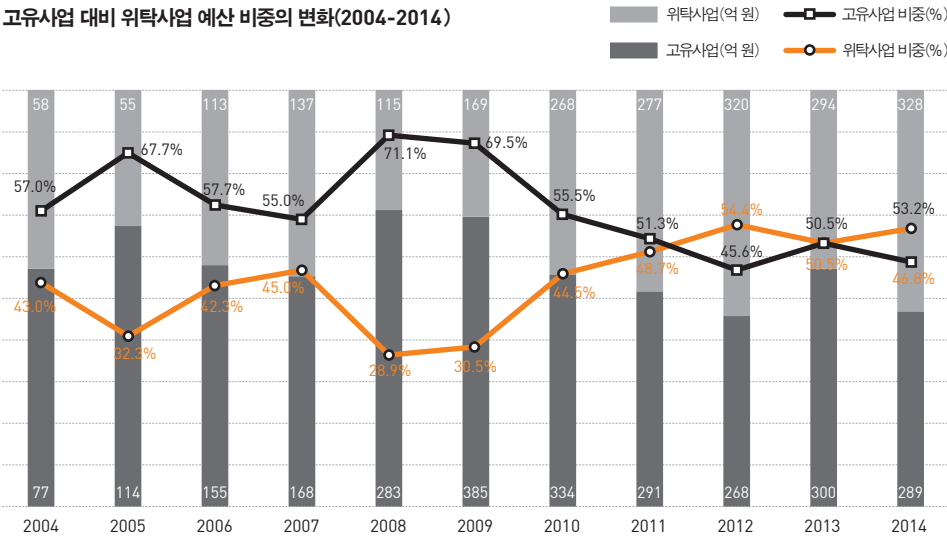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이런 형태의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전례가 없었다. 결국 재단 운영에 적합한 이상적인 문화행정 시스템의 사례를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영역의 문화행정 기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이러한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설립되자마자 주어진 사업들을 수행하다보니 당장 발동에 닥친 일들을 해치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급했다. 그러다 2008년 위탁사업이 많아지면서 재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인력난과 조직문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의 문제들이 서로 교차하게 되면서 결국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 모든 사항이 연결되어 있는 재단이란 기관의 성질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이제 10년이 되는 시기이니만큼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전문화된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그간 재단에서는 문화와 행정, 이 두 영역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를 놓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단적인 예로 그 동안 10차례나 행해진 조직개편과 6~7번에 달하는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만 놓고 봐도 그렇다. 하지만 기대할 만한 실질적인 재단 내부의 변화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문화행정의 기준점은 행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행정을 뛰어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 탓만 하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아직 우리는 문화행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재단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많은 지역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이 행정을 뛰어 넘어 문화경영을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더 이상 감사나 경영평가의 성과지표로 그 방향성을 대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난 10년 동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큰 과제이다.” 최중철 경영기획팀 팀장

“재단이 출범한 1기 시절의 경우,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기관의 조직문화를 문화예술에 적합하게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조직체계의 자생적인 적응력이 없이 시스템이 이식된 측면이 있다. 2기와 3기 체제는 공공기관의 규칙성, 체계 등이 재단에 반영되어야 했기에 일종의 조직 운영의 재정비와 체계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힘들었다고 본다. 그러다 중앙정부의 지역협력형사업, 서울시의 위탁사업이 많아지면서 외부 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기를 겪은 재단은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의식을 확실히 절감하게 되었다고 본다. 기본재산, 인력 등에 대한 이슈 등을 비롯해 기관의 생명력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4기 체계로 넘어가며 지금의 조직 운영 전략 측면에서 요구되는 경영상은 거버넌스형 조직 운영이고,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2년 전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안착되기까지 시간과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고유사업 대비 위탁사업 예산 비중의 변화(2004-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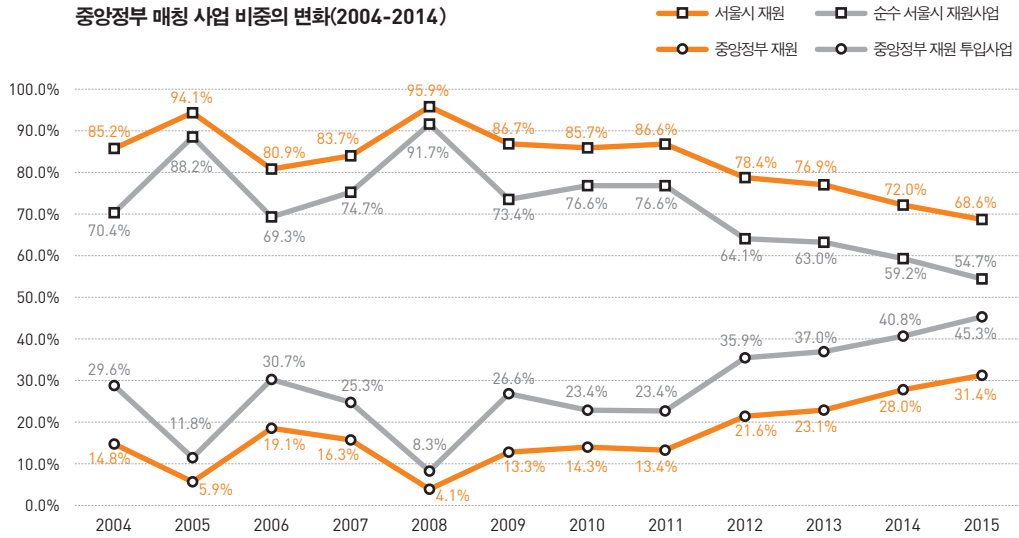


(단위:억 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유사업 예산(억 원)	77	114	155	168	283	385	334	291	268	300	289
고유사업 비중(%)	57.0	67.7	57.7	55.0	71.1	69.5	55.5	51.3	45.6	50.5	46.8
위탁사업 예산(억 원)	58	55	113	137	115	169	268	277	320	294	328
위탁사업 비중(%)	43.0	32.3	42.3	45.0	28.9	30.5	44.5	48.7	54.4	49.5	53.2
예산 총계(사업비+경상비)(억 원)	135	169	268	304	398	555	602	568	588	594	617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의 행정시스템과 조직 체계는 일단 적응기는 마친 셈이라고 본다. 하지만 서울시 출연금의 축소,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커지는 등 외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단 경영 체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편 민간과 공공의 협업, 중앙정부, 서울시 및 기초 자치구와의 조율 등 재단의 역할 중점은 거버넌스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단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보다도, 문화예술 생태계 속에서 네트워크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재단의 정책적 기반을 갖춰나가는 것 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매칭 사업 비중의 변화(2004-2014)



※ 중앙정부 매칭 자원의 실제 금액비중(2014년 31.4%)보다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규모의 비중(2014년 40.8%)이 급증하고 있음(2015년은 예정치)

(단위:억 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재원	예산(억 원)	115	158	216	254	381	480	515	491	461	456	444	452
	비중(%)	85.2	94.1	80.9	83.7	95.9	86.7	85.7	86.6	78.4	76.9	72	68.6
중앙정부 재원	예산(억 원)	20	10	51	49	16	74	86	76	126	137	172	207
	비중(%)	14.8	5.9	19.1	16.3	4.1	13.3	14.3	13.4	21.6	23.1	28	31.4
총계		135	168	267	303	397	554	601	567	587	593	616	659
순수 서울시 재원사업	예산(억 원)	95	148	185	227	365	407	461	434	377	374	365	361
	비중(%)	70.4	88.2	69.3	74.7	91.7	73.4	76.6	76.6	64.1	63	59.2	54.7
중앙정부 재원투입 사업	예산(억 원)	40	20	82	76	32	147	140	133	210	219	251	298
	비중(%)	29.6	11.8	30.7	25.3	8.3	26.6	23.4	23.4	35.9	37	40.8	45.3
총계		135	168	267	303	397	554	601	567	587	593	616	659

외부환경의 변화, 시급한 체질변화

재정 운영

재단이 직면한 가장 큰 외부적인 환경변화 중에 하나는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현재 줄어든 사업비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털어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머지않아 바닥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재단 초기부터 기부금 모집활동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는 아니다. 또한 재단의 특성상 문화예술사업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문화예술로 창출되는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란 어려울 뿐더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토대를 풍요롭게 하는 재단 본연의 목적과 사업의 수익성이 양립되기는 어렵다.

한편 저금리 시대에서도 재단의 기본재산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이것이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 재단이 출범되기에 앞서, 기관 설립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때 서울시가 전망한 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은 3천억 원이라는 기본재산과 당시 은행이자율 4~5%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설립 당시 분위기는 재단이 서울시의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의 기본재산 3천억 원 확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다. 서울시가 1천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자체적으로 2천억 원을 조성하는 등 당시의 경기 흐름과 은행이자율을 반영해 이러한 수치가 제시되었다. 이 수치가 합당하다고 여겼는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서울시의회는 재단 설립을 승인했고, 재단 설립 초기부터 채원조성 담당부서가 운영되었고 다양한 기부금 유치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재단의 독자적인 운영의 출발점이 기본재산이라 여겼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그러한 기본재산을 털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다.”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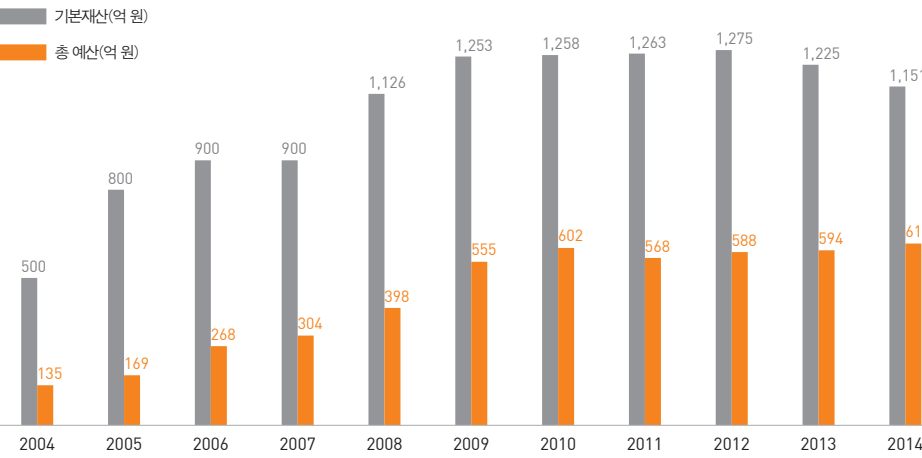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양적으로 팽창되던 시기였고 그때 문예진흥기금 5천억 원 확보라는 목표가 완수되었다. 하지만 금리는 떨어지고 그 정도 적립된 기금으로는 문예진흥사업비를 충당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즉 기금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적립된 기금을 다 쓰고 국고의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업비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본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부의 관계를 돌아켜보면 재단과 서울시의 관계 형성에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부분이 많다. 거친 비유이지만 기관의 독립성 대 안정성 측면에서 두 기관 사이에서 일종의 힘겨루기가 작용했던 것이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 기본재산이 1천억 원이 넘는 곳은 서울문화재단과 신용보증재단 둘뿐이고, 시도문화재단 중에서도 경기와 서울, 두 군데뿐이다. 하지만 기본재산 중에 재단이 노력해서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사실 정책에 의해 받은 돈이다. 앞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최중철 경영지원팀장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재단의 경영 기반은 더욱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는 여러 지역문화재단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모색방안으로 재단은 2% 국가 문화재정을 확보한 후 이 재원을 기반으로 지방문화를 육성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지자체의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재단에서는 이러한 기금 활용뿐 아니라 모금이나 기부, 제휴 등의 다각도 방안을 통해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2014년 기준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2012년 10월에 결성된 기구이다. 이에 지역문화재단의 기반 안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2013년 1월 18일에 개최된 2차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재단 기본재산 및 연도별 총예산(위탁사업 포함) 규모 변동(2004-2014) (단위: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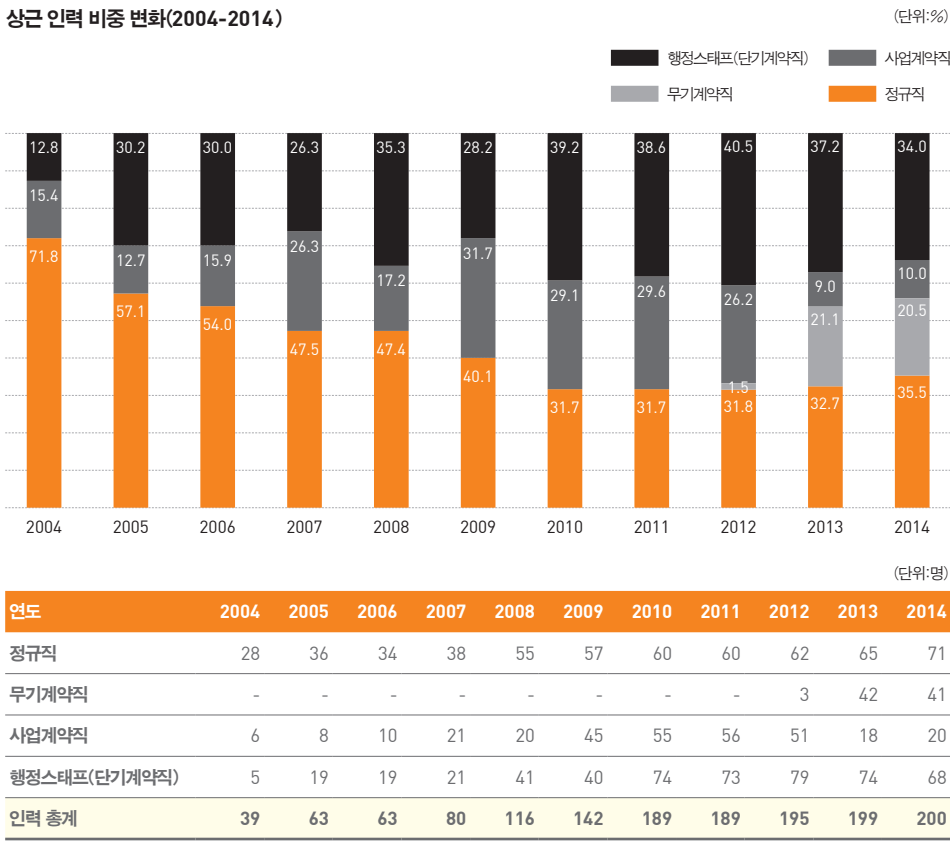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본재산	500	800	900	900	1,126	1,253	1,258	1,263	1,275	1,225	1,151
총 예산	135	169	268	304	398	555	602	568	588	594	617

위기를 넘어 통합으로

인력관리

지난 10년 재단 경영에서 재정구조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인력관리이다. 2009년부터 창작공간 운영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인력 규모가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 문화나눔 등의 중앙정부의 지역협력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단의 인력관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치달는다. 재단의 정규직 정원과 경상인건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확대되는 사업에 따라 덩달아 커진 상시 운영 조직규모를 자체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여기에 인력 확충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행정스태프 등의 근로 안정이나 처우문제 등이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의 갈등이나 노무문제로 번졌다. 당연히 재단의 조직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자리하게 된다.

“위탁사업은 주로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으로 운영되는데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아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이다. 문화사업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친다면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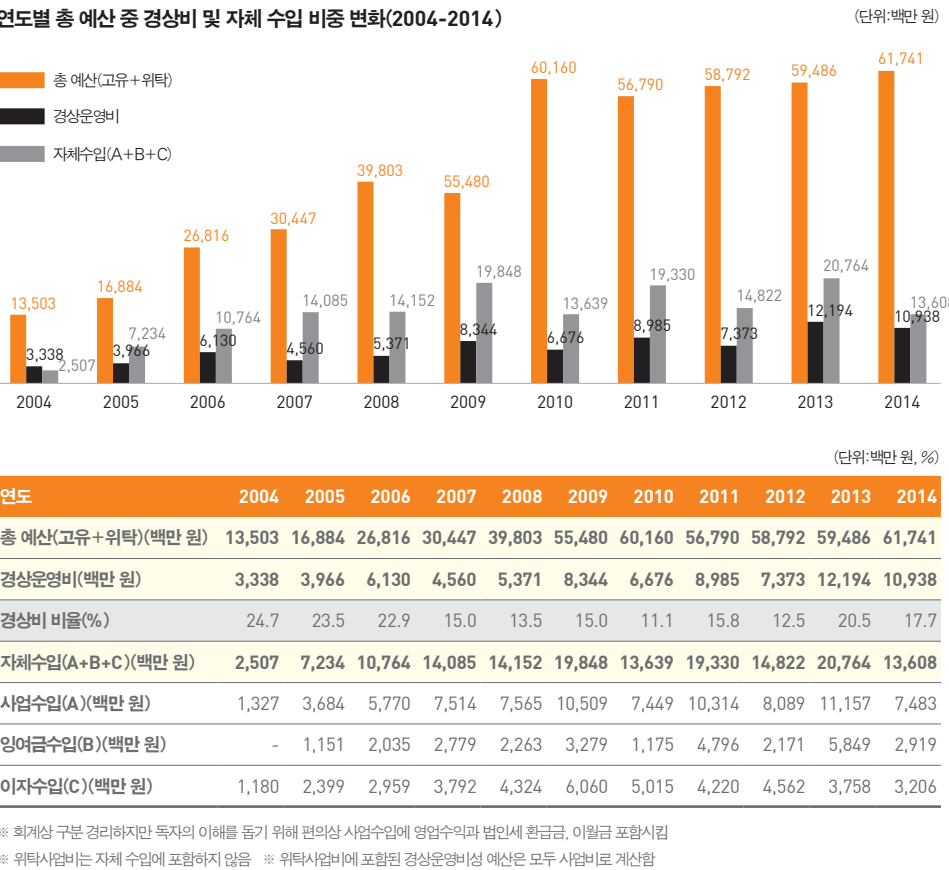


※ 수시 변동 임시직, (준)공무직 인력 제외

나올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가령 사업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의 법률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사업 운영은 주먹구구식이다.” **주한식** 기획조정팀 팀장

“3~4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막상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줄이자고 제안하더라도, 직원들은 사업을 찬찬히 검토해보고 버릴 사업이 없다고 한다. 결국 매년 똑같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된다. 결국 재원문제와 인력 운영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탄력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식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변화를 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재단의 인적 자원 관리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큰 사업이 아니라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 총액은 커졌지만 조직 운영상 구조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재단이 소팀제로 운영되는데 이럴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개인을 옆에 동료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보다 좀 더 큰 단위 부서로 운영되어야 조직 내 역량과 협력 구조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재설계가 어렵다면, 사업 구조를 바꾸든가 조직 운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규석** 창작공간본부장



“인력경영에서 보면 재단은 불안정한 조직이다. 향후 이런 조직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외부 환경은 재단을 계속 몰아세우고 있다. 그래도 재단은 일차적으로 임시직으로 일해온 40여 명을 신분적으로 좀 더 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진급 때문에 급여 및 실질적 처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으로 분출되고 있다. 더 이상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것이 노무문제를 해결하는 처방도 될 수 없다.”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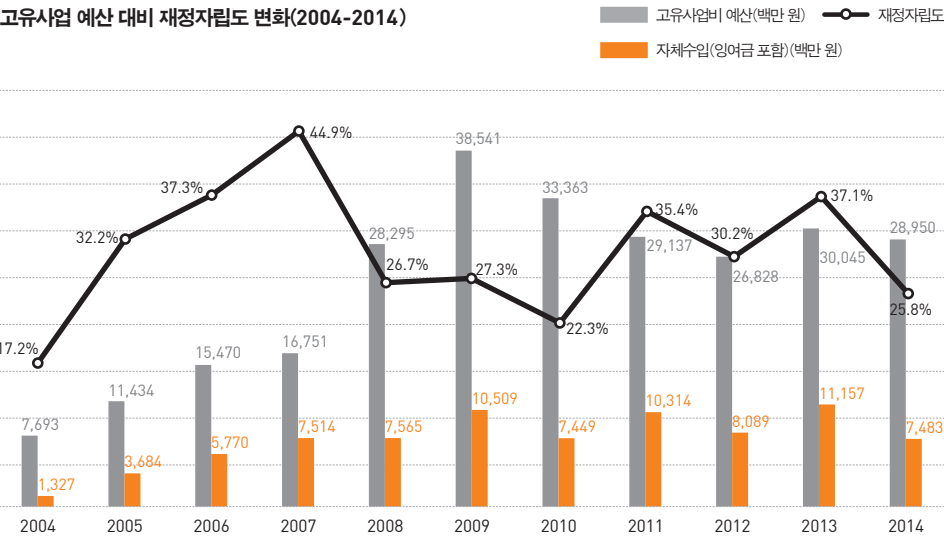
민간이든 공공 영역이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과 업무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감과 직무 능력과도 연결이 된다. 재단의 설립부터 지난 10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적어도 재단의 경영 부문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사실상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단으로서는 자율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예술 생태계 내에서 재단의 입지는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단 역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미리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에 대한 대비, 특히 재단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인 대응이 무엇이 될지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이
말하는

서울문화재단
10년,
앞으로
10년

고유사업 예산 대비 재정자립도 변화(2004-2014)



(단위:백만 원,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유사업비 예산(억 원)	7,693	11,434	15,470	16,751	28,295	38,541	33,363	29,137	26,828	30,045	28,950
자체수입(잉여금 포함)(억 원)	1,327	3,684	5,770	7,514	7,565	10,509	7,449	10,314	8,089	11,157	7,483
재정자립도(%)	17.2	32.2	37.3	44.9	26.7	27.3	22.3	35.4	30.2	37.1	25.8

※ 자체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포함 ※ 위탁사업비는 자체수입액과 재정자립도 계산에서 제외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이 말하는

“서울문화재단 10년, 앞으로 10년”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장 김영호

재단이 10살이 되었다고는 하나 돌아보니 어제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긴 듯 짧은 듯 오묘한 것이지요. 그런 시간동안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재단은 이제 반석 위에 올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다시 항구를 떠나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식구들에게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팀

주한식 팀장

직원과 시민 모두 서울문화재단으로 인해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남미진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재단이 처음 문을 열었던 예장동의 흩어져있던 사무공간들,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어가며 일을 시작했던 초기의 어려움들도 기억하지만, 열정과 고민을 녹여 추진했던 여러 사업의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과 진지한 표정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지금까지 재단을 이끌어온 동력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인혜

신입직원으로 입사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엿한 10년차 선배가 되었습니다:) 서둘던 신입직원에서 10년차 선배로 커간 만큼, 재단도 모든 면에서 많이 성장한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재단 모두 예술로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정경미

나는 문화기획가인가? 행정을 잘하는 문화기획가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입사한지 9년이 지난 지금도 고민하며 업무를 하고 있지만, 힘차게 달려온 10년만큼 앞으로의 서울문화재단의 10년도 기대됩니다!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재단과 더불어 함께 할 제 자신의 성장도 꿈꿔봅니다.

유동균

재단도 벌써 10년... 나도 어느덧 재단과 7년을 함께 해왔다. 거울로 내 모습을 보면 흰 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살도 찌고... 점점 늙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거울을 보듯이 재단도 백서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너~ 지금까진 나쁘진 않았어!

임지은

땀방울 서린 남산 극장을 떠나, 대학로 현장을 푹푹푹 짙어 청계천 끝자락까지. 재단 입사와 함께 시작된 나의 30대도 어느새 딱 찬 5년이 되었나 봅니다. 다음 페이지도 멋지게 채워보아요!

순대성

지금껏 매력적인 서울 구현에 힘써온 재단 직원들의 노력에 한 사람의 서울시민으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단 직원들의 열정과 함께, 서울에서 저마다 사연을 가진 고된 삶이 문화예술의 감성이 가득한 일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치유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현

지난 10년, 누군가에겐 기회였고 새로운 시도였고 결과물이었던 서울문화재단. 앞으로도 자기 동력이 충만하고, 힘이 넘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영지원팀

최종철 팀장

출발선, 방향성, 나침반 보고 가는 멋쟁이들!!

윤정옥

서울문화재단은 10년 간 규모와 예산 두가지 면 모두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지원부서 직원들, 부족한 인력과 어려운 환경에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파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권주

인생의 1/4을 같이 한 추억의 동반자

박주성

많은 업무로 수고하는 재단 직원 여러분! 건강과 가족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김민수

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 때까지, 서울문화재단 힘내세요.

김도균

10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금 되내이며, 앞으로 100년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염혜원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강현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란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이루어내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비전 있는 열정적인 재단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정병태

소외계층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 큰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며, 큰 그림을 그리는 엷지 있는 서울문화재단 화이팅!!

홍보팀

이규승 팀장

20여 명 남짓 직원들이 모여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에 연필꽃이를 두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30대에 시작한 서울문화재단, 저도 이제는 40대에 접어들었죠. 10년이라는 긴 시간만큼 커진 것은 직원수 만은 아니겠죠? 또 다른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김수윤

앞으로 10년, 문화예술로 서울이라는 차가운 도시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정연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기대되네요. 지금처럼 젊고 싱싱한 조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정희

힘들고 지치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힘을 줍니다. 세계 속에서 반짝이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보화사업팀

신동석 팀장

재단 정보화 사업은 12개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과 앱의 운영, 회원수 12만 명이라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분산된 플랫폼으로 정보서비스가 집중되지 못하고,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왔다. 향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한 중장기 정보화 사업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선영

‘예술’과 ‘예술가’를 위한 문화와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공존하는 지금까지 성장해온 시간들과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누구나 ‘문화’ 하면 서울문화재단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생긴다. **김지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재단 직원들이 오히려 문화소외계층이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하곤 한다. 직원들 또한 충분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과 예술가를 끌어안는 기획과 서비스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연구팀

김해보 팀장

마침 재단에서 일한지 딱 10년이 되던 해에 들었던, “아빠는... 삶을 위해 꿈꾸는 사람... 나도 문화기획자가 될래” 라는 둘째 아이의 말과 자작곡 선물. 최근에 들었던 “김서방이 하는 일은 사람을 춤추고 즐겁게 하는 일이니, 참 좋은 직업이네”라는 장모님의 말씀이, 서울+문화+재단+10년이 그리 헛되지는 않았다는 뿌듯함을 준다. 앞으로 10년은 또 어떨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김진환

서울문화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 시민, 서울의 한걸음 한걸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입사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그 한걸음 한걸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김지우

수 많은 사업들과 사람들, 그리고 애정으로 지난 1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옹골찬 1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장 오진이

꼬박 십년 넘게 다닌 직장은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게 자극을 준 예술가, 함께 일해온 서울문화재단 가족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미안하고, 고맙다. 재단을 떠날 때 즈음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제기획팀

조동희 팀장

예술의 공공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욱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달려온 10년과 그 기간 함께 만들어 온 축제와 문화사업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다. ‘내 일’을 하라, 그리고 ‘내일이 이끄는 삶을 살자.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주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20대의 절반을 재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름다웠던(?) 만큼 재단도 지나온 시간들이 아름답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양시내

특별한 기념일에 이렇게 덕담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언젠가 오늘을 추억하는 날도 오겠지요.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유익한 서울문화재단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벌써 10년 혹은 이제 10년. 누구에게나 ‘앞으로의 10년도 기대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문화팀

김효진

박노해의 시 구절이 생각한다 ‘...한결같은 마음은 없iera 시공을 초월한 곧은 마음은 없iera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달라져온 새로워진 첫마음이 있을 뿐...’ 문화재단에 들어온 지 3년째다. 애초에 알고 있었던 목적지와는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율통불통 길을 걷는 동안 ‘늘 새로워진 첫 마음’만은 간직하고 싶다.

서금슬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예술가와 시민의 중심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문화행정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문화 사업을 즐겁고 재밌게 풀어 모든 이에게 삶에 예술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나의 일이니까!

황은아

삭막하고도 자극적인 도시 서울은 따뜻한 감성에 목마르다. 1,037만 서울시민 모두가 서울의 매력을 발견하고, 문화와 예술로 즐거운 그 날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우리네 마음 속 깊이 남아있는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문화민주주의의 선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정답은 없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일 뿐!

임예원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억수집가들의 애정과 헌신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만이 가진 따뜻한 사람 냄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화재휴팀

한지연 팀장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서울문화재단에서의 10년. 문화예술로 웃고, 울고... 그리고... 지금 2015년!

강민정

‘난 문화예술계를 위해 올바르게 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지난 10년사를 쪽 알게 되니 현재 제 업무의 위치와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큰 흐름 안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중심을 잘 잡고 그 역할을 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만큼이나 멋진 서울문화재단의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을 기대합니다.

박현주

뜨거웠던 재단의 역사 속에 나의 3년도 녹아있다는 것이 새삼 뿌듯하다. 막막하고 무거웠던 순간마다 문화예술이라는 공통분모로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가끔) 미워도 좋아할 수밖에 없나보다. 재단과 나,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D

이고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새로 시작한 한 발짝은 큰 배움이자 터닝포인트이다. 힘든 업무 속에서도 예술을 사랑하기에 행복하다.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곳, 앞으로도 더욱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고 겉으로는 매력적인 외유내강 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다가오는 10년의 역사에는 나도 한 획, 멋지게 그을 수 있기를!

문화나눔팀

김필국

세상을 살아 오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재단에 입사를 했다. 늦은 나이에 회사를 옮긴다는 부담감과 낯설음... 나를 동료로 받아 주고 격려해 준 동료들과 선후배 그리고 안호상, 조선희 두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박상혁

남산 기슭에 옹기종기 모여 시작했던 재단에서의 시간들이 벌써 10년, 우리로 인해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나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맘껏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의준

서울문화재단의 발전 10년. 거기에 내 청춘의 끝자락 8년도 같이 했다.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 열정일 수도 있지만 서울문화재단의 역사에 분명히 한 부분을 함께했고 또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서럽다,

함수령

지난 10년간 많은 서울시민 분들의 사랑으로 서울문화재단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 많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진영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쓰는 재단 식구들의 노력에 부응하는 10주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미리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10. ‘서울+문화+예술+재단’이 완전함을 보여주는 10주년. 문화를 나누며 재단과 완전히 함께 했던 저의 10개월. 10주년으로 완전해진 서울문화재단이 있었기에, 저의 10개월이 찬란히 빛났습니다. 완전함의 문턱을 넘어 더욱 견고해질 서울문화재단의 향후 10년을 기대해봅니다!

기윤자

지난 10년 동안, 예술가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예술, 문화 사업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매개하는 일은 매우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큰 꿈을 꾸어 봅니다.

조운서

지난 10년간 서울문화재단이 희망과 열정으로 걸어온 길은 예술과 사람, 도시를 잇는 서울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서울시민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로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서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본부장 김홍남

지난 10년! 그리고 또 다른 10년! 우리의 인연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서로에게 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도록 다시금 나의 자리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지원팀

백승우 팀장

“응답하라, 2004”... 문득 그 때 즐거웠던 음악들이 생각나네요. 김건무의 “잠 못 드는 밤, 업무 내리고”, “잘못된 위탁”, 김광숙의 “신입이 처음 올던 날”, “너무 늦은 출근은 출근이 아니었음을”... 그룹 쿨의 “퇴근하러 하기 전에”, 홍경만의 “흔들린 근태” 등등... 하지만 이제 모두에게 들려주립니다..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

안현미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재단에서 보냈다. 앞으로 재단에서 보낸 시절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전은영

충성!

한혜인

나와 당신의 희노애락(喜怒哀樂), 우리 모두의 서울문화재단!

최윤영

재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술을 향유하는 이도 예술을 창작하는 이도 모두 서울 시민입니다.

이승주

내가 담는 한 걸음이 서울문화재단의 한 걸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10년, 이런 걸음을 모아 함께 이뤄가기를 꿈 꾀 봅니다. 함께 이 길 걸어가는 모든 재단 식구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이경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재단!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처럼만...

예술교육팀

임미혜 팀장

거리를 걷거나 뉴스를 듣다보면 10년 전과 비교할 때 도시 서울의 문화 환경도, 서울시민들의 문화 취향도 참 많이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졌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뿌듯하다. 늘 노력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한다.

김수현

재단과 함께 했던 많은 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시민과 예술가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훈

아웅다웅 투닥거리며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함께해왔던 재단 식구들 모두 앞으로 10년도 함께 해요. ^^

이현지

일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리고 그만큼 많이 성장한 지난 10년! 그 시간들을 발판삼아, 앞으로 10년, 20년 더욱 성장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김영규

2007년 처음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원활동가를 하며 ‘서울문화재단’을 알게 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재단에 입사하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곳곳을 다니며 예술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단이 10년 동안 서울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많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듯, 앞으로 다양한 예술교육사업을 통해 좀 의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생각해봅니다.

김경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울시민과 예술가들을 위한 기관으로堂堂하게 성장한 서울문화재단. 앞으로도 예술가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쉼 없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해원

서울 어디선가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해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열정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재환 매니저

정말 소리 없이 스쳐지나간 것 같은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피로했던 일도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은 것은, 재단에서의 일이 제 꿈의 한 부분이었기에 재단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있었고, 함께했던 소중한 분들의 더 큰 사랑이 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눈물겨운 노력으로 잘 버티고 이겨낸 모든 직원분들을 추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나

그 간 10년 동안 재단을 튼튼하게 키워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미래의 10년, 20년, 30년... 예술가와 시민을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서울에 문화를 정착시키는 탐험가로서 지치지 않는 싱그러운 재단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원희

문화예술!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찼던 열정 가득했던 첫 입사 때가 생각나네요. 과거 없는 현재는 없듯이, 과거의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항상 동등하게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며, 오늘이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밝은 미래를 위해!

이주영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은미

그렇게 거창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10년이라는 시간에 녹아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소중한 일들을 기억해주시길.

소신실

서울문화재단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네요. 과거를 기억하고 더욱더 멋진 재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극장운영팀

(남산예술센터 극장, 남산창작센터)

안미영 팀장

과거의 행동과 물리력은 특별한 왜곡이 없는 한 결국 현재에 이르고 미래에 다다른다.

백성운

10년 동안 가꾼 문화, 이제는 꿈이 아닌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욱

다가올 내일은 '건강한 문화 공간, 튼튼한 극장'이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변기용

20주년에는 서울문화재단 소유의 멋진 공연장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도재형

10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을 통하여 만났던 시민, 예술가 모두에게 문화로 더 큰 행복을 주길 바랍니다.

피에경

WHAT DRIVES YOUR LIFE?

정태환

지난 10년이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시간들이 아닐까. 서울문화재단이 서울, 그리고 문화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문득문득 찾아올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멋진 20살의 어른재단이 되기를.

김민영

서울문화재단과의 시간이 재단 직원들에게는 자랑스러움의, 함께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즐거운 창작의 기억이 되기를.

조유림

시민과 예술가 모두가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그 처음에는 서울문화재단이 당연한 듯 함께하기를.

서울연극센터&대학로연습실

서명구 매니저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술가도 시민도 자연스레 즐거워질 테니까요. 예술을 사랑하되 예술가를 소모시키지 않고,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하는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영도

The ecad ! De cade !
Decade ! DK the !
다-케이드 ! 디케이드- !
디케이드 ! 디케이드- !

황선영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다.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본다.

김유진

재단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재경

재단 10년, 어느 새 입사 8년차... 재단이 성장하는 동안 나 스스로도 성장한 것 같다. 앞으로 10년,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서울문화재단 안에서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는 구성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창작공간본부

창작공간본부장 이규석

시간이 흘러 껌데기를 까고 나면 비로소 드러나는 알맹이처럼, 그게 본래(本來)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전심전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욕과 관참아지는 정도. 그렇게 모두가 함께 거처온 10년처럼. 계속해보겠습니다. (황정은 작가의 글을 빌려 조금 고쳐썼습니다)

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박은희 매니저

재단에서 함께 했던 '나의 동료'들을 떠올립니다. 잠시 혹은 오랫동안 함께 대학로에서, 용두동에서 예술현장에 대해 고민했던 원석, 준호, 민수, 진아, 여진, 민지, 대진, 구정, 소영, 수연, 석원, 현진... 재단의 10년에 그들도 함께 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술현장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윤경

지나온 10년간의 한걸음 한걸음처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기대합니다. 어김없이 불꺼지지 않는 용두동에서...!

금천예술공장

김희영 매니저

서울문화재단에서 보낸 시간은,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나서서 유럽과 미국의 자생적 문화활동과 사업을 빠르게 도입하여 정책화하는 한국 특유의 톱-다운(top-down) 정책방식 속에서 어떻게 현장기획자들이 한국 환경에 맞춰 진화하며 대안을 찾아갈지에 대한 깊은 경험을 내게 남겼다.

김수아

일을 하다 보면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주업무뿐만 아니라 재단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행정 일도 함께 진행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임주작가를 지원하고, 지역재생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업무들이 많아, 작가들에게 가끔 미안할 때가 있다. 또 바쁜 업무 일정으로 다른 기관이나 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행사를 참여하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다.

유재연

23살에 재단에 처음 입사해서 어느덧 30살이 된 지금. 재단은 제 20대 청춘의 흔적이자 앞으로 함께 나아갈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파이팅!^^

김건희

문화예술이 특정한 형태로 박제, 전시 되는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속에 깊숙히 스며들어 향유될수 있게 하는것이 커리어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였기에 서울문화재단에서 보낸 시간은 그것을 즐겁게 추구하고 또 다양하게 채우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한민지 매니저

내 청춘의 시간 서울문화재단 10년, 아프고 뜨거웠다.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했다. 지금까지 고군분투했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대단했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 예술을 품은 마음만은 언제나 모두 그대로일 것이다.

강지은

기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그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가치 있는 일들이 앞으로 10년, 100년까지 이어져가기를 기대해본다.

문래예술공장

이현아 매니저

서울문화재단 10년의 역사와 함께 나도 재단의 막내에서 이제 어느덧 중견이 되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자면 안타깝게도 재단 설립 초기의 아웅다웅했던 기억들. 늘어난 새치와 주름의 백만분의 일만큼이라도 예술현장에 기여했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미지수. 여전히 초심과 순에 닿지 않을 진정성에 대한 애잔함이 절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다. 속도보다는 방향!

최미리

서울문화재단 파이팅!

오영호

나짐 히크메트는 그의 시 '진정한 여행'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느 길로 가야할 지 알 수 없을 때, 그 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재단은 새로운 방향을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고민으로 재단의 다음 10년을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조예인

창작공간에서 근무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예술현장이 새롭게 보인다. 처음에는 전시나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을 통해 예술 창작자들을 하나 둘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곤궁한 위치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들을 향한 좀 더 예리한 관찰력과 세밀한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앞으로 재단의 빛나는 역할을 상상해본다.

김지선

양적인 실적을 중시하는 행사 중심적인 활동보다,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성북예술창작센터

나희영 매니저

서울문화재단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성장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전진희

앞으로도 늘 한결같이 문화예술로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선결

어쭙잖은 재능으로 창작자가 되고 싶었던 어린날의 꿈은 현실 앞에 무너졌지만, 지금의 나는 동경하던 창작자들과 많은, 다양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새로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 같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서울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

신당창작아케이드

김진호 매니저

서울문화재단의 10년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다가올 10년이 기대됩니다.

황현정

서울시민들에게 없어선 안될 존재로 서울문화재단이 남길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만의 고유한 문화사업을 펼치면서 앞으로의 10년도 흔들림없이,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희문화창작촌

배소현 매니저

좁게는 예술가와 공공기관, 넓게는 예술현장과 예술정책을 연계하는 ‘매개 영역’은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신생 성장판이다. 태생적으로 상이한 두 영역이 보다 나은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창의적인 매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진심어린 고민과 실험이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10년과 다가올 다음 10년 속에 늘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이지은

책으로된 작품으로만 접했던 작가들을 연희문화창작촌에서 근무하며 매일 생생하게 만나고 있다. 연희의 작가들은 고독한 창작의 세계를 가진 예술가인 동시에, 밥 한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온정이 가득한 일반인임을 느낀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님인 이곳에서의 생활이 언젠가는 그리워 질 날이 올 것이다.

잠실창작스튜디오

강득주 매니저

재단이 걸어온 10년 중 절반 이상을 함께 했고, 서울시창작공간의 시작을 함께 열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가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고마웠고, 장애예술계에서 재단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 더욱 더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민지

서울문화재단에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무척 행복했어요 => 지금의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있기까지 함께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은예술창작센터

최재훈

한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 자신이 된다. 란 <택시 드라이버>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러니 우리는 서울문화재단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겠죠.

류한영

불교 주석서 중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항을 팔고 어떤 사람은 항을 사지만 팔지도 사지도 않는 옆사람도 그 고운 향기는 누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 고운 향기를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지나 열 살이면 아직 어린이. 아직 신입 어린이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커갈 날들을 기대합니다.

시민청 운영 TFT

정일한 매니저

꼭바로 합시다!

최정필

미래의 10년을 위한, 그 간 10년 동안의 수고

김상원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서울문화재단의 문화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긍지를 느낍니다.

노재용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김동훈

예술로 행복한 10년, 문화로 가꾸는 10년

이화정

일상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서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호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보배

지나온 10년보다 더 발전하는 20년, 30년이 되어 문화예술의 선두에 서있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해선

서울문화재단의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울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문화발전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김정배

항상 내일을 위해 힘쓰는 서울문화재단이 아름답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문지영

문화와 시민의 삶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모두가 유연하고 신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사림

서동진 팀장

예술가도 공무원도 아닌 문화예술행정가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한 재단 식구들이 예술가와 공무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성승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 부터가 희망이다. 이제 다 왔다고 말하지 말자. 천리 만리였건만 그 동안 걸어온 길보다 더 멀리 가야 할 길이 있다. - 고은 -



2014년 전직원 추계 산행대회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10년〉

발행인 조선희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130-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홈페이지 www.sfac.or.kr

참여한 사람들
집필 서울문화재단 모든 직원들 (오진이, 김홍남, 이규석 외)
외부 집필진 (염혜원, 최운우)
감수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김영호)
기획 및 데이터 정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김해보, 김진환, 김지우, 심지아)
02.3290.7133 이메일 suggest@sfac.or.kr
디자인 디자인컴퍼니

•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비매품